



이슬람 신앙의 첫걸음

교리 · 숭배행위 · 윤리 ·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삶



지은이 세이팻틴 야즈즈







터키 종교부 출판사: 1490
신앙서적: 165

편집장
후리에 마르트 교수

발행 권
파티흐 쿠루트 박사

코디네이터
로크만 아르슬란

옮긴이
후세인 장

교정
데리야 손
제이넵 알데미르

그래픽 디자인
우우르 알툰토프
메흐멧 알리 크르자

종교부 최고위원회 인증 14.06.2017/41

인쇄:

İleri Basım Matbaacılık A.Ş.
B. Evler Mah. F. Çakmak 2 Cad. Güzelşehir Sit. 22 Villa
No: 1 ANP/22 B.Çekmece / İSTANBUL
Tel: +90 212 454 35 10
Sertifika no: 41157

초판 - 이스탄불- 2019

2019-34-Y-0003-1490

ISBN: 978-605-7730-89-3

인증번호: 12930

© 터키 종교부

종교출판 총국

외국어 및 터키어 방언 간행부
Dini Yayınlar Genel Müdürlüğü
Yabancı Dil ve Lehçelerde Yayınlar Daire Başkanlığı
Üniversiteler Mah. Dumlupınar Bulvarı
No:147/A 06800 Çankaya/ANKARA

전화: +90 312 295 72 81

팩스: +90 312 284 72 88

이메일: yabancidiller@diyanet.gov.tr

이슬람 신앙의 첫걸음

교리 · 숭배행위 · 윤리 ·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삶



지은이 세이팻틴 야즈즈

전(前) 터키 종교부 최고위원

옮긴이 장 후세인



터키 종교부 출판사

목차

머리말	15
옮긴이의 말	17
일러두기	19

제 1 장 교리

1. 이슬람과 그 특징.....	23
종교란?.....	23
종교들 중 이슬람의 위치.....	24
이슬람의 목적	24
이슬람의 특징	25
이슬람을 '보편적 종교'로 만드는 특징	26
질문:.....	27
2. 신앙	29
'칼리마이 타위히드'.....	29
'칼리마이 샤하-다'	30
근본 신앙.....	30
신앙에 따른 인간의 3가지 부류.....	32
신앙이 인간에게 주는 안녕과 행복	32
신앙과 그 실천의 관계.....	33
신앙의 진실함과 그 조건.....	34
질문:.....	35
3. 알라에 대한 믿음.....	37
알라의 존재함과 유일성.....	37
알라의 특성	38
알라에 대한 6가지 묘사.....	38
알라의 8가지 권능.....	39
무슬림은 알라를 다음과 같이 믿는다:.....	40
알라에 대한 사랑	41

독서	42
‘진지한 신앙을 가진 소년’	42
질문:	42

4. 천사들에 대한 믿음.....43

천사들의 본질과 특성	43
대표적인 천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임무	44
대표적인 천사들과 그들의 임무	44
천사들을 믿음으로서 얻는 혜택	46
질문:	47

5. 성서들에 대한 믿음.....49

계시의 내용과 계시를 알려주는 방법	49
계시 받은 성서들과 부분들	50
꾸란의 계시	52
기록된 꾸란과 그 필사본	53
꾸란의 특징	54
꾸란에 대한 우리의 의무	55
독서	55
질문:	57

6.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59

예언자직 그리고 예언자에 대한 필요성	59
예언자들의 임무와 특징	60
꾸란에 언급된 예언자들	61
예언자들이 전달하는 종교들의 공통된 근원	61
기적이란 무엇인가?	62
경이란 무엇인가?	62
경이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종을 통해서 발생한 비상의 일들이다. 이런 비상한 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을 한 경이, 그들이 속하는 예언자를 위한 기적들이다.	62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기적	62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특성	63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가 마지막 예언자가 되는 것	64
독서	65
그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가?	65
질문:	66

7. 내세에 대한 믿음.....	69
내세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69
내세에 대한 믿음의 혜택.....	71
죽음.....	72
무덤.....	72
종말.....	73
보상, 처벌, 천국과 지옥.....	73
질문:.....	75
8. 정명(定命)에 대한 믿음.....	77
‘정명’이란 무엇인가?.....	77
인간이 갖는 책임.....	78
정명에 대한 믿음의 혜택.....	79
양식.....	79
죽음의 시간.....	80
알라께 의탁하는 것과 일하는 것.....	80
이슬람에서 일의 중요성.....	82
독서.....	85
‘나무를 심자’.....	85
질문:.....	86

제 2 장 승배행위

1. 승배행위.....	89
승배행위란?.....	89
왜 승배행위를 하는가?.....	89
승배행위의 종류.....	90
승배행위의 단계.....	91
승배행위의 혜택.....	91
질문:.....	92
2. 이슬람.....	93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93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기둥.....	93
‘무칼라프(Mukallaf, 의무이행자)’는 누구인가?.....	94
‘무칼라프’의 원칙(8가지):.....	95
질문:.....	98

3. 청결99

청결과 이슬람에서 청결의 중요성..... 100

청결을 위한 물의 종류..... 100

우두의 혜택..... 101

우두를 위한 파르드(절대의무) 규정 102

우두를 위한 순나(예언자의 관행) 규정..... 102

우두에 대한 예의..... 104

우두하는 방법..... 104

우두의 마크루흐(상대금지)..... 105

우두가 깨지는 경우..... 105

우두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4가지를 할 수 없다 106

양말 위에 실시하는 쓰다듬기(마스흐) 106

상처부위의 쓰다듬기(마스흐)..... 108

구슬(전체 세정)..... 108

구슬을 할 때 지켜야 할 파르드(절대의무)..... 109

구슬에 대한 순나 109

구슬을 하는 방법..... 109

구슬할 때 주의할 점..... 110

송배행위를 실천함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사람의 경우 110

여성만의 특별한 상황(3가지)..... 111

타얌뎀(Tayammum; 대체세정) 112

타얌뎀의 파르드..... 113

타얌뎀의 순나 113

타얌뎀하는 방법..... 113

타얌뎀이 무효가 되는 경우 114

반드시 타얌뎀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 114

독서 114

‘청결한 환경’..... 114

질문:..... 116

4. 예배 (I) 117

예배의 중요성 118

예배는 누구에게 의무인가? 119

예배시간 119

예배를 피해야 하는 시간들 120

예배의 종류..... 121

가. 파르드(절대의무) 예배..... 121

나. 와집(필요의무) 예배 122

다. 나팔(자발) 예배(의무 예배 이외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122
예배의 12가지 파르드(절대의무) 원칙.....	123
예배에 대한 와집(필요의무) 행위들	124
예배에 대한 순나 행위들.....	125
예배에 대한 예의.....	129
예배시의 마크루흐(상대금지) 행위들	130
하루 다섯 번 드리는 예배의 방법.....	132
새벽(파즈르) 예배를 드리는 방법	133
정오(주후르) 예배를 드리는 방법	137
오후(아스르) 예배를 드리는 방법	144
저녁(마그립) 예배를 드리는 방법	148
밤(이샤) 예배를 드리는 방법.....	151
위트르 예배를 드리는 방법.....	152
예배 후의 기도문.....	155

5. 예배 (II)..... 161

수주듯 사흐우(예배 중 생긴 착오의 만회를 위한 부복)	162
합동예배의 보상	163
성원에서 지켜야 할 예의.....	164
성원이란 어떤 곳인가?.....	165
성원의 주요부분들.....	166
합동예배를 드리는 방법.....	167
금요일과 금요합동(주므아)예배	170
금요합동(주므아) 예배는 누구에게 의무인가?	171
금요합동(주므아)예배를 드리는 방법	172
이드(축제) 예배	173
이드 예배를 드리는 방법.....	174
‘타끄비르 타쉬리크’.....	175
타라위흐 예배	177
앉은 자세와 암시로 드리는 예배.....	180
여행자 예배.....	181
까다(보충) 예배.....	182
사즈다를 틸라와트(꾸란의 사즈다 구절을 읽을 때나 들을 때 하는 절)183	
장례예배	184
장례예배를 드리는 방법.....	186
질문:.....	191

6. 단식 193

단식의 중요성 194
단식의 이득 195
단식은 누구에게 부과되는 의무인가? 196
‘수후르’와 ‘이프타르’에 대한 보상 197
이프타르 기도 198
단식에 대한 의도는 언제 하며 그 방법은 무엇인가? 198
단식의 종류 6가지 199
라마단 달의 단식을 나중에 보충할 수 있는 상황 200
단식할 능력이 없는 자가 내는 배상 201
라마단 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식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규정 201
의도적으로 단식을 깬 이유로 ‘까다’와 ‘카파라트’를 해야 하는 경우 202
단식을 깬 이유로 ‘까다’만을 해야 하는 행위 202
단식이 깨지지 않는 경우 203
단식 중 마크루흐(상대금기)가 되는 행위들 204
단식 중 마크루흐(상대금기)가 되지 않는 행위들 204
질문: 204

7. 회사 207

회사의 중요성과 혜택 207
회사는 누구에게 부과되는 의무인가? 209
니삿(회사가 의무화되는 특정한 양) 209
회사의 수혜 대상자는 누구인가? 209
회사의 비수혜 대상자는 누구인가? 210
회사가 적용되지 않는 재산의 종류 210
회사가 적용되는 재산의 종류와 그것에 해당되는 회사의 수량 211
자카트 피트르(라마단의 단식을 마치는 즉시 하는 특별자선) 212
종류 수량 212
질문: 213

8. 성지순례 215

성지순례의 중요성과 혜택 215
성지순례는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행하는 의무인가? 217
성지순례 시 의무행위들 218
성지순례의 종류 218
햏즈(대순례)의 과정 220
우므라(소순례) 223
질문: 224

9. 희생	225
희생의 중요성	225
희생은 누구에게 부과되는 의무인가?	226
언제 그리고 도살방법은 무엇인가?	226
희생된 동물의 고기와 가죽	227
희생이 허용된 동물과 금지된 동물	227
먹을 수 있는 동물	228
먹을 수 없는 동물	228
결심(나즈르)	229
맹세의 종류	230
질문:	231
10. 이슬람의 축제일과 주요 날들	233
금요일	233
이드 날들	234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출생일:	235
'마울리드(Mawlid)'	235
라가입 밤	235
미으라즈(승천)의 밤	236
바라트 밤	237
까드르(권능) 밤	237
질문:	238

제 3 장 윤리

1. 이슬람과 윤리관	241
윤리	241
이슬람의 윤리관	242
훌륭한 품성을 갖추기 위한 신앙과 숭배행위의 역할	243
가장 훌륭한 품성: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	244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윤리의 중요성	244
경제생활과 윤리	245
품성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246
이슬람에서 이성과 지식의 중요성	247
질문:	248

2. 윤리적 의무	249
이슬람의 윤리적 의무	249
1. ‘알라’와 ‘예언자’와 ‘꾸란’에 대한 의무	250
1) ‘알라’에 대한 의무	250
2) ‘예언자’에 대한 의무	250
3) ‘꾸란’에 대한 의무	251
2. ‘자신’에 대한 의무	251
1)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무	251
2)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의무	254
식사 예절	255
혀의 간수	256
신체의 다른 기관들의 간수	257
독서	258
‘이슬람은 낭비를 금한다’	258
질문:	259
3. 가족에 대한 의무	261
이슬람에서 가족의 중요성	261
가족 구성원간의 의무	262
1) 부부간의 의무	262
2)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263
3)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	265
독서	266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은 아들’	266
4) 형제간의 의무	268
5) 친척간의 의무	268
6) 이웃간의 의무	269
독서	270
‘무슬림이 이웃을 대하는 방식’	270
질문:	271
4. 인류에 대한 의무	273
인간에 대한 윤리적 의무	273
동물에 대한 의무	278
독서	279
‘눈물을 흘릴만한 장면...’	279
이슬람적 윤리태도를 갖춘 무슬림의 특성	279
이슬람에서 금지된 행위들	281

독서	283
인류를 위협하는 대재앙: ‘술’과 ‘마약’	283
질문:	285

제 4 장 예언자 무함마드

(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삶

1.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출생과 어린 시절	289
이슬람 이전 아라비아반도의 상황	289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가문	290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출생	290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어린 시절	291
독서	292
‘알라께서 카아바를 보호해 주신다’	292
질문:	295
2.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청년기와 결혼	297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교역 여행	297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교역 활동	298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와 카디자의 결혼 및 자녀들	298
카아바 재건축과 중재	299
질문:	299
3.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예언자 임무의 부여와 비공개적 초대	301
첫 계시 (서기 610년)	301
계시가 중단된 기간	303
이슬람으로의 초대	303
최초의 무슬림들	304
아비시니아(현재의 에티오피아)로의 첫 이주	304
아비시니아의 나자쉬 왕의 무슬림들에 대한 태도	304
질문:	305
4. 이슬람으로의 공개적 초대	307
이슬람으로의 공개적 초대의 시작	307
우상숭배자들이 무슬림들에게 행한 박해와 학대	309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적대심을 드러낸 자들	310
꾸라이쉬인들이 이슬람을 반대한 이유.....	311
우상숭배자들이 아부 딸립에게 예언자 무함마드 (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 대해 제안한 사건과 예언자의 응답	312
함자가 무슬림이 된 이야기	313
우마르가 무슬림이 된 이야기.....	313
질문:.....	316

5. 봉쇄 및 슬픔의 해..... 317

메카 우상숭배자들의 무슬림들에 대한 봉쇄.....	317
아부 딸립과 카디자의 사망	319
타이프 지역 여행	319
아까바 맹약	320
미으라즈 기적	321
질문:.....	322

6. 이주와 메디나에서의 초기시절..... 325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메카에서 미디나로의 이주 (서기 622년)	325
메디나에서의 환대	328
마스지드 나바위의 건축	328
안사르와 무하지룬 간의 형제애 구축	329
예언자의 학교와 ‘아스하브 알 수파’.....	329
질문:.....	330

7.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참전한 전투 (I) 331

바드르 전투의 원인	331
바드르 전투와 그 결과 (히즈라 2년/서기 624년)	332
우후드 전투의 원인	334
우후드 전투와 그 결과 (히즈라 3년/서기 625년)	334
우후드 전투로 얻은 교훈.....	336
참호 전투의 원인	337
참호 전투와 그 결과 (히즈라 5년/서기 626년)	337
후다이비야 협정 (히즈라 6년/서기 628년)	338
후다이비야 협정의 결과	339
이웃 국가 왕들에게 보내진 이슬람으로의 초대 편지	341
카이바르 정복 (히즈라 6년/서기 628년)	341
카아바 방문 (소순례) (히즈라 7년/서기 629년).....	342
질문:.....	343

8.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 참전한 전투 (II) 345

메카 정복 (히즈라 8년/서기 630년).....346
후나인 전투 (히즈라 8년/서기 630년).....348
아우타스 전투와 타이프 포위 (히즈라 8년/서기 630년)349
타북 원정 (히즈라 9년/서기 630년).....350
독서350
마스지드 디라르(디라르 성원)의 파괴350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 참전한 전투의 특성351
아부 바크르의 ‘순례단장’ 임무 (히즈라 9년/서기 631년)352
고별순례 (히즈라 10년/서기 632년).....353
‘고별설교’354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고별설교연설에서354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 병에 걸리심과 임종 (히즈라 10년/
서기 632년)357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임종 후 사건들359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자녀들359
아샤라이 무바샤라(al-Asharah al-Mubashsharah, 천국에 들어갈 기쁜
소식을 얻은 10명)361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교우들.....361
인류에게 빛을 가져다준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완벽한 성품
361
질문:.....365

우두 시 기도문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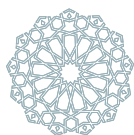
예배 중의 기도문 371

예배 중 암송하는 꾸란의 짧은 장 377

우두하는 방법 384

예배드리는 방법 389

머리말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모든 무슬림에게 의무입니다.

숭배행위는 인간이 알라를 믿고 그 분께 복종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숭배행위에 의해 우리의 신앙은 훌륭한 품성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알라께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으로서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분으로부터 훌륭한 품성과 미덕으로 가득한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서는 이슬람교리, 숭배행위, 윤리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삶 등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나 이슬람에 새로 입교한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또한 본서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된 우두와 예배방법에 대한 사진을 곁들인 설명은 예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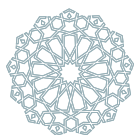
노력은 우리의 몫이며 성취는 알라에 의한 것입니다.

세이팻틴 야즈즈 (Seyfettin YAZICI)

1990년 8월 6일

터키, 앙카라에서

유킨이의 말



앗쌀라무 알라이쿰!

(당신에게 알라의 평화가 있기를!)

전(前) 터키 종교부 최고위원 세이팻틴 야즈즈(1939-)의 저서 ‘이슬람 신앙의 첫걸음’은 터키에서 이미 40쇄 인쇄되었으며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13개 주요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터키의 종교학교와 꾸란학원 등에서 청소년들에게 이슬람 신앙의 기초를 알기 쉽게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이 책은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이슬람성원과 이슬람문화원 등에서 교재로 사용되어 이슬람에 새로 입교하거나 이슬람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서에는 무슬림이라면 알아야 할 이슬람교리, 숭배행위, 윤리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의 삶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꾸란과 순나를 따르고 실천하는 데 있어 4대 법학파(하나피 학파, 샤피 학파, 한발리 학파, 말리키 학파)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슬람법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모든 주제들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입니다. 본서는 하나피 학파에 의한 설명이 주된 것이지만 숭배행위와 관련되어서는 다른 학파의 견해도 주석으로 참고하여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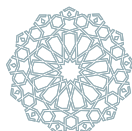
본서가 이슬람 공부를 시작하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신앙의 첫걸음’이 출간되도록 허락하신 알라께 모든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장 후세인

일러두기



- **‘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 (Sallallahu Alaihi Wasallam):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 분의 이름 뒤에 이 말을 덧붙이는데 그 뜻은 **‘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입니다. 이렇게 이름 뒤에 예언자를 존경하는 말을 덧붙이는 이유는 알라께서 무슬림들에게 꾸란 33장 56절을 통해서 예언자에 대한 존경과 경의로 그렇게 하기를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알라와 천사들이 예언자를 축복하여 주셨으니, 믿는 자들이여 그분께 축복을 드리고 정중한 인사를 하라.” (꾸란 33장 56절)

- **‘알라이히 쌀람’** (Alaihis Salam): 예언자 무함마드 외에 다른 예언자들의 이름 뒤에 이 말을 덧붙이는데 그 뜻은 **‘평화가 그분에게’**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와 다른 예언자들의 이름 뒤에 붙이는 말이 조금 다른 것은 단지 무슬림들이 그렇게 습관처럼 말하여왔기 때문이며, 예언자들을 차별하여 존경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예: 아담(알라이히 쌀람), 아브라함(알라이히 쌀람), 예수(알라이히 쌀람)

- **‘라디알라후 안후’** (Radi Allahu Anhu):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남자 교우들의 이름 뒤에 존경의 표시로 이 말을 덧붙이는데 그 뜻은 **‘알라께서 그를 받아주시기를’**입니다.
- **‘라디알라후 안하’** (Radi Allahu Anha):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여자 교우들의 이름 뒤에 존경의 표시로 이 말을 덧붙이는데 그 뜻은 **‘알라께서 그녀를 받아주시기를’**입니다.

제 1 장 교리



1. 이슬람과 그 특징



주제:

- 종교란?
- 종교 중 이슬람의 위치
- 이슬람의 목적
- 이슬람의 특징
- 이슬람을 ‘보편적 종교’로 만드는 특징

종교란?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적 사고와 자유의지로서 현세와 내세에서 선과 행복을 이르게 하는 신성한 법이며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계시의 종교

신에 의해 예언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져 한 치의 변질이나 왜곡 없이 현재까지 거슬러 내려온 종교로서 그 종교의 이름은 바로 ‘이슬람’이다.



2) 계시가 왜곡된 종교

신에 의해 예언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나중에 사람들에게 의해 변질되어 그 원래의 메시지가 왜곡된 종교이다.

3) 계시에 의하지 않은 종교

신에 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종교이다.

종교들 중 이슬람의 위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최초의 예언자이기도 하며 인류 최초의 종교는 신에 의한 계시의 종교이다. 최초의 예언자 아담으로부터 예언자 ‘예수’에 이르기까지 신에 의해 선택된 모든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신의 유일함과 숭배의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흘러 점차 변질되고 왜곡되었다.

신은 마지막으로 최후의 예언자를 선택하여 그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최후의 종교를 계시하셨다. 그 최후의 예언자는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이고 최후의 종교는 ‘이슬람’이다. 이슬람은 모순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유일하며 완전한 종교로서 진리이다.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진실로 알라의 종교는 이슬람이니라...” (3장 19절)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 결코 수락되지 않을 것이니 내세에서 패망한 자 가운데 있게 되리라.” (3장 85절)

이슬람의 목적

이슬람의 율법은 인류의 행복을 지향한다. 신에 의해 마련된 이 완벽한 율법을 따른다면 인간은 누구나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슬람의 율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된다.



1) 신앙

신앙의 본질을 믿음으로서 정신적인 만족을 얻게 되면 마음은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정화되고 인간 본성에 적합한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2) 행위

인간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 즉, 행위에 대한 율법은 2 가지가 있다.

ㄱ) 신의 권리 즉, 인간이 신을 위하여 행해야 할 숭배의무

ㄴ) 사람들간에 관계를 조정하는 율법

3) 도덕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조정하는 율법.

이슬람의 특징

1) 신에 의한 마지막 종교.

이슬람은 최후의 종교로서 더 이상의 종교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의 율법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유지될 것이다. 최후의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끝으로 더 이상의 예언자는 없을 것이다.

2) 보편적인 종교.

이슬람 이전에 왔던 예언자들이 전한 종교들은 특정 시대와 민족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슬람은 인류 전체를 위한 종교이다.

3) 이슬람의 율법은 모든 인류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이 처한 모든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필요없다.

4) 이슬람은 이전에 신에 의해 보내진 예언자들과 성서들의 존재를 인정한다.

5) 이슬람 이전에 왔던 예언자들이 전달한 율법들 중 일부는



이슬람 안에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율법들은 일부 특정 민족들에게 특정 기간 동안에만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인류 전체에 적용되는 종교이며 종말까지 변경되지 않고 계속 유지 될 종교이다.

이슬람을 ‘보편적 종교’로 만드는 특징

이슬람을 보편적인 종교로 만드는 특징들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인류 전체를 위해 보내진 마지막 종교.

이슬람은 온 인류를 위해 보내진 마지막 종교로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변하지 않을 완전한 종교이다. 최후의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는 이슬람을 전 세계의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해 당시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였다.

2.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종교.

신은 인간에게 이성(理性)을 부여하였으며 이슬람교는 이성을 중요시 여기며 의무자가 되기 위해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슬람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종교로서 인간은 맹목적인 형태로서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다. 지식의 추구는 이슬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모든 무슬림에게 의무로 여겨진다.

3. 현세와 내세의 종교.

이슬람은 인간으로 하여금 현세에서의 행복과 영원한 내세에서의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한다. 어떤 시대에 살던 인류의 행복과 발전,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슬람의 율법은 인간을 향한 신의 자비로움을 내재한다.

즉, 이슬람에 의하면 인간은 현세를 위해서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애쓰고 내세를 위해서는 마치 내일 죽을 사람처럼 노력하여야 한다.



4. 인간이면 누구나 따를 수 있는 쉬운 종교.

이슬람의 율법은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을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그 결과 인간의 삶은 모든 방면에서 올바르고 안전하게 된다. 신은 인간이 그분의 율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예를 들어, 여행 중인 사람은 4라크아 의무예배를 2라크아로 단축하여 드린다. 건강상의 이유로 서 있는 자세가 어려운 사람은 앉아서 또는 자신이 가능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라마단 달에 단식을 하지 못한 환자는 건강이 회복된 후 단식을 하면 된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환자와 단식이 불가능한 노약자들은 단식 대신 자선을 행할 수 있다. 이슬람은 각 개인에 따라 상황이 고려되어 그 율법이 적용되어 어느 한 사람도 신을 숭배하는 실천의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5. 극단적인 가르침은 없다.

이슬람은 극단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신께서 허용한 것들까지도 제한하는 삶을 권장하지 않는다.

6. 평화와 사랑의 종교.

이슬람에서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슬람의 율법 중 상당 부분은 개인과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녕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진실한 신앙인이 라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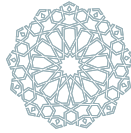
질문:

- 1) 종교란 무엇인가?
- 2) 종교는 몇 가지로 분류되는가?
- 3) 종교들 중 이슬람의 위치는?



- 4) 이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슬람의 율법은 몇 가지로 분류되는가?
- 5) 이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 6) 이슬람을 보편적인 종교로 만드는 특징은 무엇인가?

2. 신앙



주제:

- ‘칼리마이 타위히드’와 ‘칼리마이 샤하-다’
- 근본 신앙
- 초보적 신앙(이즈말리 이만)
- 구체적 신앙(타프실리 이만)
- 신앙에 따른 인간의 3가지 부류
- 신앙이 인간에게 주는 안녕과 행복
- 신앙과 그 실천의 관계
- 신앙의 진실함과 그 조건

‘칼리마이 타위히드’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مُحَمَّدٌ رَسُولُ اللَّهِ

발음: “라~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둔 라수~룰라.”

뜻 : 알라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칼리마이 샤하-다’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أَشْهَدُ أَنَّ مُحَمَّدًا عَبْدُهُ وَرَسُولُهُ

발음: “아슈하두 알라~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를--라.”

뜻 : 나는 알라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임을 증언하나이다.

아랍어로 “샤하-다(Shahadah)”는 ‘신앙의 증언’을 의미하며 개인의 신앙심을 나타내는 가장 근본이 되는 표현이자 이슬람의 기본 신조이다.

근본 신앙

‘신앙’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을 믿는다’이다. 이슬람에 따라 ‘신앙’은 알라께서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صل람)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진리임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이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신앙’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누어진다.

1. 초보적 신앙(이즈말리 이만)
2. 구체적 신앙(타프실리 이만)

1. 초보적 신앙(이즈말리 이만)

알라께서 유일하신 창조주임을 믿고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صل람)는 알라께서 보내신 마지막 예언자임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칼리마이 타위히드 또는 칼리마이 샤하-다(신앙의 증언)’이며 누구나 이 구절 중 하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여 입으로 말하는 그 순간부터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알라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 하는 자는 이 구절을 사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최초로 할 일이다. 이 구절은 이슬람 신앙의 기본이자 요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보적 신앙(이즈말리 이만)’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지속적인 신앙의 길은 단순히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즉, 이슬람 신앙은 좀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2. 구체적 신앙(타프실리 이만)

다음에 제시된 ‘6가지 기본 믿음’이 바로 이슬람 신앙의 근간과 바탕이다. 이것은 무슬림이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신앙의 조건으로 이를 ‘구체적 신앙(타프실리 이만)’이라고 칭한다.

이슬람의 6가지 기본 믿음은 다음과 같다.

1. 알라에 대한 믿음
2. 천사들에 대한 믿음
3. 성서들에 대한 믿음
4.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
5. 내세에 대한 믿음
6. 정명에 대한 믿음

이 6가지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서만이 신앙의 근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아만투(이슬람의 근본 신앙)’는 이 6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أَمَنْتُ بِاللَّهِ وَمَلَائِكَتِهِ وَكُتُبِهِ وَرُسُلِهِ وَالْيَوْمِ الْآخِرِ وَبِالْقَدَرِ خَيْرِهِ وَشَرِّهِ
 مِنَ اللَّهِ تَعَالَى وَالْبَعْثِ بَعْدَ الْمَوْتِ حَقًّا.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أَشْهَدُ أَنَّ
 مُحَمَّدًا عَبْدُهُ وَرَسُولُهُ

발음: “아만투 빌라히 와말라이카티히 와쿠투비히 와루술리히
 와야우밀아키리 와빌까다리 카이리히 와샤리히 민 알라히 따
 알라 왈 바으스 바달마우티 아슈하두 알라~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압두후 와라술루후.”



뜻: 저는 알라와 그 분의 천사들과 성서들과 예언자들과 내세와 정명을 믿습니다. 죽은 후 부활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저는 알라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종복이며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신앙에 따른 인간의 3가지 부류

1) 무으민: 진실한 믿는 자

알라께서 존재하심과 그 분의 유일성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가 알라의 예언자임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이 믿음을 말로 표현한 사람.

2) 무나피끄: 위선자

알라께서 존재하심과 그 분의 유일성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가 알라의 예언자임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3) 까피르: 불신자

알라께서 존재하심과 그 분의 유일성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가 알라의 예언자임을 마음으로도 믿지 않으며 입으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세에서 ‘무으민’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지만 ‘무나피끄’와 ‘까피르’는 불신에 대한 벌로 영원히 지옥의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신앙이 인간에게 주는 안녕과 행복

인간은 몸과 영혼의 결합된 피조물이다. 몸이 영양분의 공급을 필요로 하듯 인간의 영혼 또한 양식이 필요하다.

영혼의 가장 중요한 양식은 ‘확고한 신앙’이다. 알라를 믿고 그 분께 의탁한 사람은 영혼의 풍족한 양식으로 인해 현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신의 도움 없이 인간은 한없이 미약하며 무능하다.



알라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음을 가진 자는 알라를 영원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느니라.” (13장 28절)

신앙은 인간을 외로움과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게 한다. 신앙은 영혼의 양식이며 마음의 빛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의 영혼은 텅 빈껍데기와 같으며 그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둡다.

인간은 살아가며 다양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 때 신앙을 가진 자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다. 알라께 의탁하며 인내와 노력으로 헤쳐 나간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큰 행복을 안겨준다.

신앙이 없다면 쉽게 무너지고 결과는 처참하다. 즉,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과 그 실천의 관계

만약 신앙을 가진 무슬림이 이슬람의 가르침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심판의 날 그는 그에 대한 마땅한 결과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알라께서 명하신 숭배행위들을 열심히 행한 사람과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내세에서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믿음과 실천, 둘 다를 중요시한다.

숭배행위는 신앙을 성숙하게 하며 더욱 강력하게 한다. 단순히 신앙만을 가진 채 숭배행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빛은 결국 언젠가는 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예문을 들고자 한다.

신앙은 빛을 발하는 등불과 같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리로 덮어 보호해야 한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바람으로도 등불은 꺼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에서 빛나고 있는 신앙을 보호하는 것은 숭배행위이다. 예배, 단식 등의 숭배행위들을 행함으로서 우리는 알라께서 명하신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우리의 신앙도 지키게 된다.

숭배행위를 행하지 않는다면 보호받지 못한 등불처럼 신앙의 빛은 꺼지고 그것은 무슬림에게 가장 중요한 천국의 열쇠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신앙의 진실함과 그 조건

다음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진실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1) 신앙은 임종의 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알라를 믿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2) 이슬람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언행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슬람의 어떤 가르침은 인정하지만 일부는 부인한다면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사라질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약 이슬람의 가르침 중 하나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마치 이슬람의 모든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3) 이슬람의 모든 가르침이 진리이며 완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슬람은 알라께서 보내신 마지막이자 완벽한 메시지이며 무슬림의 진실한 신앙은 이슬람을 통해 완성된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가르침 중 어느 한 부분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알라의 권능하심을 의심하는 행위이다.

무슬림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은 ‘신앙’이다.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오직 신앙만이 가치 있게 된다. 따라서 무슬림은 마지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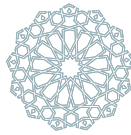


숨을 쉴 때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 신앙을 지닌 채 내세로 가야 한다.

질문:

- 1) ‘칼리마이 타위히드’와 ‘칼리마이 샤하-다’를 정확히 읽고 그 의미를 말해보시오.
- 2) 근본 신앙은 몇 가지인가?
- 3) ‘초보적 신앙(이즈말리 이만)’이란 무엇인가?
- 4) ‘구체적 신앙(타프실리 이만)’이란 무엇인가?
- 5) ‘아만투’를 읽고 그 의미를 말해보시오.
- 6) 신앙에 따라 인간은 몇 가지로 분류되는지 설명하시오.
- 7) 신앙이 인간에게 준 안녕과 행복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 8) 신앙과 그 실천의 관계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 9) 신앙을 진실하게 만드는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 알라에 대한 믿음



주제:

- 알라의 존재함과 유일성
- 알라의 특성
- 알라에 대한 사랑
- ‘진실한 신앙을 가진 소년’ (독서)

알라의 존재함과 유일성

이슬람의 6가지 기본 믿음 중 하나는 ‘알라에 대한 믿음’이다. 이성을 갖춘 사춘기에 이른 모든 인간의 최초의 의무는 알라의 존재함과 유일성을 믿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떠한 것도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다.

일정한 법칙에 의해 완벽하게 운행되는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존재를 증명한다. 창조주께서는 자신을 ‘알라’라고 칭하도록 명하셨다.



알라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 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임을 깨닫는 것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우리가 알라를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그 분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알라의 특성

알라께서는 14가지의 특성을 가지신다. 그 중 6가지는 그 분에 대한 묘사이며, 8가지는 알라의 권능에 대한 것이다.

알라에 대한 6가지 묘사

다음의 6가지는 알라만이 갖고 계신 특성이다.

1) 알-우주드(Al-Wujud)

알라께서는 존재하신다.

2) 알-그담(Al-Qidam)

알라께서는 시작이 없으시다. 그 분께서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며 아무 것도 없었을 때에도 그 분은 존재하고 계셨다.

3) 알-바가(Al-Baqah)

알라께서 끝이 없고 영원하신 분이다. 모든 것이 없어질 때도 그 분은 존재할 것이다.

4) 알-와흐다니야(Al-Wahdaniyyah)

알라께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분과 동등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다.

5) 알-무할라파툼 릴 하와디스(Al-Mukhalafatun lil Khawadith)

알라께서는 그 분의 어떤 창조물과도 닮지 않으신다.

6) 알-끼얌 비나프스히(Al-qiyam Bi'nafsihi)

알라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신다.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모든 창조물들이 그 분을 필요로 한다.



알라의 8가지 권능

1) 알-하얏(Al-Hayat)

알라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신다.

2) 알-일름(Al-Ilm)

알라께서는 과거와 미래, 공개된 것과 비밀로 된 것 즉,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도 그 분 앞에서는 감춰지지 않는다.

3) 알-싸미-으(Al-Sami)

알라께서는 모든 것을 세세히 들으시는 분이다.

4) 알-바씨-르(Al-Baseer)

알라께서는 모든 것을 잘 살펴보시는 분이다.

5) 알-이라다(Al-Iradhah)

알라의 의지는 영원하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다.

6) 알-꾸드라(Al-Qudrah)

알라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7) 알-깔람(Al-Qalam)

알라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를 수 있으신 분이다. 말이나 글이 없어도 그 분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으신 분이다.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셨으며 꾸란도 그 분의 말씀이다.

8) 알-탁윈(Al-Taqwin)

알라께서는 창조하시는 분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창조하고 싶을 때 ‘되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바로 되는 것이다. 또한 창조된 어떤 것이 사라지기를 원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무슬림은 알라를 다음과 같이 믿는다:

알라께서는 존재하시며 유일하시다.

그 분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며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

창조하신 어떤 창조물과도 닮지 않으신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모든 창조물이 그 분을 필요로 한다.

늘 살아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며 보신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그 분의 일에 역행할 수 없다.

영원한 권능을 누리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무엇이든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원하시는 것을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게 하시거나 존재하는 것을 사라지게도 하신다. 우주의 모든 것이 그 분에 의한 창조물이다. 창조하신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그 안에는 지혜가 숨겨져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다.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인간이 지켜야 할 것들을 알리셨다. ‘꾸란’도 그 분의 말씀이다.

알라를 위와 같이 믿는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명예로운 위치를 갖게 되어 본래의 가치를 얻게 된다. 이 신앙은 사람의 마음을 모든 사악한 생각으로부터 정화시키고 좋은 생각과 훌륭한 품성으로 채운다. 누가 보던 안 보던 부도덕적인 행위를 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알라께서 모든 것을 매순간 지켜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다. 그의 모든 언행은 선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한다. 즉, 알라에 대한 믿음은 모든 선의 원천이다.



알라에 대한 사랑

알라께서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 듣기 위한 귀, 말하기 위한 혀, 다양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두 손과 두 발을 주셨고, 이성과 지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어 다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창조하셨다.

그 분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구를 다양한 양식으로 장식하시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에서부터 마시는 물까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놓으셨다. 공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당장 죽게 된다. 매순간 우리가 이 사실만이라도 기억한다면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바뀔 것이다. 알라의 그 수많은 은혜를 인간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알라께서 꾸란에 말씀하시기를,

“...실로 너희가 알라의 은혜를 헤아려 보려하나 헤아릴 수 없으니...” (14장 34절)

인간은 자신에게 잘 해주는 이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존재는 알라이시다. 왜냐하면 그 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계속해서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그녀)를 항상 떠올리며 가까이 하려 하고 존중하고 아끼며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려 한다.

알라에 대한 사랑은 그 분을 염원하며 진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분께서 명하신 숭배행위를 행하고 금하신 것을 멀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알라께서는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것이고 현세에서 베풀어 주실 은혜보다 더 많은 것을 내세에서 베풀어 주심으로 그 분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실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은 알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중에 있는 것이다.



독서

‘진지한 신앙을 가진 소년’

두 번째 칼리파인 우마르(라디알라후 안후)는 그의 시대 때 우유 상인들이 우유에 물을 섞어 파는 것을 금하였고 이를 온 나라에 알렸다. 어느 날 밤 그는 도시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메디나의 거리를 걷다가 피곤함을 느끼고는 잠시 쉬기 위해 한 집의 벽에 기대었다. 그 때 그는 그 집에 사는 어머니와 딸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어머니: 자, 딸아! 어서 일어나서 우유에 물을 섞어라.

딸: 어머니, 칼리파께서 그것을 금지하셨음을 모르시나요?

어머니: 알고 있단다.

딸: 그렇다면 제가 어찌 칼리파께서 금하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어서 일어나서 우유에 물을 섞으라니깐. 우마르께서 어떻게 볼 수 있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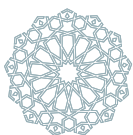
딸: 우마르께서는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서는 보실 수 있어요. 알라께 맹세코, 우리의 이런 행동을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알라께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칼리파 우마르(라디알라후 안후)는 그들의 대화를 들은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신앙이 깊은 이 여자를 자신의 아들 ‘아슴’과 결혼시켰다.

질문:

- 1)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의무는 무엇인가?
- 2) 알라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 알라를 묘사하는 특성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 4) 알라의 권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5) 무슬림은 알라를 어떻게 믿는가?

4. 천사들에 대한 믿음



주제:

- 천사들의 본질과 특성
- 대표적인 천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임무
- 천사들을 믿음으로서 얻는 혜택

천사들의 본질과 특성

이슬람의 6가지 기본 믿음들 중 두 번째는 ‘천사들에 대한 믿음’이다.

천사들은 빛으로 창조된 순수하고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처럼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없으며 남성이나 여성 같은 성(性)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천사들은 알라께 결코 불복종하지 않으며 명령을 어기는 일도 없다. 부과된 모든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죄를 짓지 않는 존재이다.



알라께서는 그 분의 피조물을 다양한 형태로 창조하셨다. 그들 중 일부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일부는 볼 수 없다. 즉, 인간의 시력은 알라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볼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 공기나 바람, 인간의 영혼이나 이성을 볼 수 없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천사들의 존재도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피조물이다. 알라께서는 꾸란을 통해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으며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는 천사들을 보았고 우리들에게 천사들에 대해 알려주었다. 하나님 및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알려주신 모든 것은 다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다.

대표적인 천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임무

천사들은 대지와 하늘에, 우리 주변과 모든 곳에 있다. 그들의 수는 오직 알라만이 아시며 알라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하셨다.

천사들 중 일부는 지속적으로 알라께 숭배를 드린다. 일부는 우주의 섭리를 관리한다. 그들은 인간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수행한다. 사람들에게 선을 촉구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신앙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도 있다. 알라께서는 천사들의 존재를 통해 그 분의 권능을 보여주신다.

대표적인 천사들과 그들의 임무

1. 지브릴(가브리엘) 천사

가장 큰 천사. 알라의 계시를 예언자들에게 전달한다. 알라께로부터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인류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인 꾸란의 계시를 전달한 천사이다.



2. 미카일(Michael) 천사

창조된 모든 세상과 자연의 섭리를 관리한다. (비, 바람, 농작물의 성장 등.)

3. 이스라필(Israfil) 천사

알라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죽음에 이르게 할 나팔을 부르는 임무와 첫 번째 인간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었던 모든 인간을 부활하게 하는 나팔을 부르는 임무를 맡은 천사.

4. 아즈라일(Azra'il) 천사

인간의 생명이 다하면 인간의 영혼을 거두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 나머지 천사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라킵과 아티-드(Raqib & Atid) 천사

천사 라킵과 아티-드를 함께 가리켜 ‘키라만 카티빈’(명예로운 기록자)이라고 칭한다. 라킵은 모든 인간의 오른쪽 어깨에 존재하며 선행을 행할 때마다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아티-드는 왼쪽 어깨에 존재하며 악행을 행할 때마다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각자 현세에서 행한 선행과 악행이 기록된 ‘행위의 기록’을 심판의 날 받게 된다.

문카르와 나키르(Munkar & Nakir) 천사들

인간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오면 그에게 질문을 할 천사들.

리드완(Ridwan) 천사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우두머리.

말리크(Malik) 천사

지옥에 있는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들을 믿음으로서 얻는 혜택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이 있다. 그 천사들은 바로 라킵과 아티-드 천사들이며 그들은 우리의 선행과 악행을 기록한다. 따라서 인간은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다.

천사들의 존재를 믿는 것은 무슬림의 의무이며 그 결과 신앙인은 아무도 보지 않기에 악행을 행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된다. 즉,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포기하고 선행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천사들도 있다. 현세에서 선과 아름다움의 대표는 천사이며 악의 대표는 사탄이다. 천사들은 인간을 끊임없이 선으로 이끌어주지만 사탄은 악으로 이끈다.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이러한 일은 매순간 일어난다. 선행을 하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고 기쁘다. 천사들은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선한 행위를 사탄은 방해하거나 어렵게 만들어 포기하도록 조종한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힘을 갖는다. 그래서 결국 선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천사들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여 훌륭한 품성을 갖도록 해준다.

예언자 무함마드(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도 천사도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져가느니라.

사탄의 임무는 악으로 초대하고 진리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이니라.

천사의 임무는 진리와 선으로 초대하고 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이니라.

누가 그의 마음속에서 선한 쪽으로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것이 천사의 소리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천사의 말을 듣고 알라께 찬미를 드려야 하느니라.

또한 누가 그의 마음속에서 악한 쪽으로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것이 사탄의 소리임을 알아야 한다. 그 소리로부터 멀리하고 알라의 보호를 구해야 하느니라.” (티르미디가 전함)

질문:

- 1) 천사들의 본질과 특성은 무엇인가?
- 2) 우리는 왜 천사들을 볼 수 없는가?
- 3) 대표적인 천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 4) 천사들을 믿음으로서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

5. 성서들에 대한 믿음



주제:

- 계시의 내용과 계시를 알려주는 방법
- 계시 받은 성서들과 부분들
- 꾸란의 계시
- 기록된 꾸란과 그 필사본
- 꾸란의 특징
- 꾸란에 대한 우리의 의무
- ‘꾸란을 읽는 미덕에 대한 예언자 (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말씀’ (독서)

계시의 내용과 계시를 알려주는 방법

‘계시’란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神)이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계시’란 알라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 예언자들에게 알리신 확실한 말씀이다.

알라께서 그 분의 종들 중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알릴 때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특별하고 다양하였다.



1. 꿈

꿈은 알라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도 꿈을 통해 계시를 받으신 적이 있었으며 꿈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2. 영감

알라께서는 원하시는 말씀을 예언자의 마음에 영감이 되게 하셨다.

3. 직접적인 말씀

볼 수 없지만 알라의 말씀을 들음으로서 계시를 받았다.

4. 천사

알라께서는 천사를 통해 예언자들에게 그 분의 말씀을 알리셨다.

이 때 천사는 원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타나기도 했다.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는 예언자와 함께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를 볼 수 있었고 그의 목소리 또한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때때로 천사는 알라의 말씀을 예언자들에게 알릴 때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꾸란’은 ‘천사를 통해’ 계시되었다. 알라께로부터 받은 꾸란 말씀을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에게 전달한 천사는 대천사인 지브릴(가브리엘)이었다.

계시 받은 성서들과 부분들

이슬람의 6가지 기본 믿음 중 세 번째는 알라께서 인류에게 계시하신 ‘성서들에 대한 믿음’이다.

알라께서는 그 분의 종복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 성서들을



보내셨는데 이 성서들은 알라의 명령과 금지하신 내용들, 의무 사항들과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담고 있다.

무슬림은 예언자들을 통해 보내진 성서들의 존재를 믿으나 마지막 계시인 꾸란 이전에 계시된 성서들은 시간이 흘러 그 내용이 왜곡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성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음과 이 성서들의 최초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슬람에서 믿는 이 성서들에 대한 사실은 오늘날의 왜곡된 상태가 아닌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당시 즉, 왜곡되지 않았던 시대의 말씀들이 알라의 말씀임을 믿고 있는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내려진 꾸란은 오늘날까지 일부 조항이 삭제되었다거나 수정 또는 보완된 적이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유일한 성서이다.

알라에 의해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성서들 중 일부는 몇 쪽밖에 되지 않는 얇은 책들이다. 이를 우리는 ‘쪽들’을 뜻하는 ‘수후프’라고 한다.

다른 성서들은 ‘4대 성서’라고 부른다.

‘수후프’는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다.

- 1) 10쪽은 예언자 아담(알라이히 쌀람)에게
- 2) 50쪽은 예언자 쉬트(알라이히 쌀람)에게
- 3) 30쪽은 예언자 이드리스(아녹)(알라이히 쌀람)에게
- 4) 10쪽은 예언자 이브라힘(알라이히 쌀람)에게

이 모두가 총 100쪽이다.

‘4대 성서’는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다.

- 1) 타우라트(토라): 예언자 모세(알라이히 쌀람)에게
- 2) 자부르(시편): 예언자 다윗(알라이히 쌀람)에게
- 3) 인질(복음서): 예언자 예수(알라이히 쌀람)에게
- 4) 꾸란: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꾸란의 계시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는 예언자직이 주어지기 전에도 메카 근처에 있는 히라 산의 한 동굴에 들어가 알라의 위대함에 대해 숙고하곤 하셨다.

610년 라마단 달의 월요일 밤, 히라 산의 동굴에 들어가 온 몸과 마음으로 알라를 숙고하고 있을 때 대천사인 지브릴(알라이히 삿람)이 알라의 명령으로 예언자에게 와서 ‘**읽으라!**’라고 말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빠진 예언자에게 지브릴 천사(알라이히 삿람)가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했을 때 그는 ‘**무엇을 읽으란 말씀입니까?**’라고 물었고 천사 지브릴(알라이히 삿람)은 꾸란의 첫 5구절을 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꾸란의 계시가 시작되었다.

첫 계시가 내렸을 때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나이는 40세였다. 최초로 내려진 첫 5구절은 꾸란의 알라끄(96) 장으로 그 뜻은 다음과 같다.

1. “**읽으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읽으라.**
2. **그 분은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노라.**
3. **읽으라! 주님은 가장 은혜로우신 분으로**
4. **연필로 쓰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5.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노라.”**

꾸란의 계시가 시작됨으로서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가 인류에게 보내어진 마지막 예언자라는 사실이 공표되었다. 꾸란은 때로는 몇 구절, 때로는 몇 장 이렇게 부분부분 내려져 총 23년에 걸쳐 계시되었다. 꾸란의 계시는 대개 어떤 질문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내려졌는데 이러한 질문이나 사건을 ‘아쓰바브 누줄’이라고 한다.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진 꾸란 구절은 바까라 장 281절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다.



“알라 곁으로 돌아갈 어느 날을 두려워하라 모든 인간은 자기
가 얻은 것으로 대가를 받게 되나니 어느 누구도 부정하게 대접
받지 않을 것이니라.” (2장 281절)

기록된 꾸란과 그 필사본

꾸란의 계시가 내려올때마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는 계시를 기록할 서기들을 불러 계시된 구절이 어느 장과, 그 장의 어디에 기록되어야 할지를 알리셨다. 서기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말씀에 따라 기록하였고 예언자의 교우들도 계시된 꾸란 구절들을 소리 내어 읽고 암기하였다. 그리하여 꾸란은 기록과 인간의 머리에 의한 암기의 방법으로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 생존 시 보존되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살아 계신 동안에는 계시가 완료된 꾸란이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분이 돌아가신 후 첫 칼리파인 아부 바크르(라디알라후 안후)가 예언자의 교우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마련하였고 이들은 기록된 꾸란 계시들을 모아 하피즈(Hafiz, 꾸란의 글자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낱말과 음절까지 머리로 암기하는 사람)들이 암기한 꾸란과 비교하여 한 치의 실수 없이 책으로 만들었다. 이 원본을 ‘무스하프(Mushaf, 묶은 책)’라고 한다.

무스하프는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지시한 순서에 따라 꾸란의 장들이 나열되어 만들어졌고 이는 첫 칼리파인 아부 바크르(라디알라후 안후)에 의해 보관되었다.

알라의 마지막 메시지인 이슬람이 세계로 퍼지면서 세 번째 칼리파인 우스만(라디알라후 안후)은 이 꾸란 원본을 필사본으로 만들어 여러 이슬람 중심지로 보냈다.

그리하여 꾸란은 알라께서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계시하신 그대로 단 한 글자의 변질되거나 왜곡됨 없이 오늘날까지 존재한다. 꾸란은 종말까지 알라의 보호에 의해 보존될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꾸란은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생존 시 기록되고 암기되어진, 칼리파 아부 바크르 (라디알라후 안후) 시대 때 무스하프로 만들어진 그리고 칼리파 우스만 (라디알라후 안후)에 의해 필사본으로 만들어진 꾸란과 똑같은 것이다.

꾸란의 특징

마지막이자 제일 위대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하나님(알라)께서 보내주신 꾸란은 무슬림들의 성서이다.

마지막 성서인 꾸란은 다른 계시 받은 성서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ㄱ) 계시된 그대로 종말이 올 때까지 완전하게 보존될 것이다.

꾸란 전에 계시된 다른 성서들 중에 일부는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일부는 변경 되어 단 하나 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원본으로 보존되지 못 했다.

알라께서는 꾸란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알라께서 실로 그 메시지(꾸란)를 계시하셨으니 알라께서 그것을 보호하시리라.” (15장 9절)

이는 현존하는 꾸란을 통해 증명되는 사실이다.

ㄴ) 꾸란은 한 번에 모두 계시되지 않았고 시간과 사건에 따라 구절이나 장의 형태로 부분 부분 내려졌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꾸란을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었다.

ㄷ) 꾸란은 알라의 마지막 성서이다. 꾸란 이후에는 어떤 성서도 계시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꾸란의 말씀은 종말이 올 때까지 유효하며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꾸란 이전의 성서들은 정해진 시기를 위하여 보내어진 것이다.

ㄹ) 꾸란은 온 인류에게 내려진 성서이다. 그것은 시대나 민족을 초월한 진리와 지혜로 가득하다. 그러나 꾸란 이전의 성서들은 일부 민족을 위해 보내진 것이었다.



ㄹ) 꾸란의 낱말과 뜻과 진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기적이다.

꾸란에 대한 우리의 의무

1) 모든 무슬림은 꾸란이 알라의 말씀임을 숙고하고 타즈위드(꾸란을 정확히 발음하고 발성하여 정통 음률로 읽는 법)에 따라 열심히 읽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꾸란을 읽으려 할 때에는 우두를 행한 후 손에 들고 “아우 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스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 힘”(저는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알라의 보호를 구하나이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라고 말한 후 읽어야 한다. 가능한 한 끼블라(카아바 방향)로 향하여 예의 바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꾸란의 뜻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꾸란은 깨끗한 장소에서 암송해야 한다. 다른 일로 바쁘거나 꾸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더러운 장소에서 읽지 말아야 한다.

4) 누군가 꾸란을 암송하면 존경하는 자세로 들어야 한다.

5) 꾸란을 보관할 때는 되도록 바닥이나 낮은 곳을 피하고 깨끗한 곳에 놓아야 한다.

6) 꾸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독서

‘꾸란을 읽는 미덕에 대한 예언자(ﷺ)의 말씀’

“너희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은 꾸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이니라.” (티르미디가 전함)

“누구든 꾸란의 한 글자를 읽는 사람은 선행의 보답을 받게 될 것이며,



알라께서는 그 한 글자의 선행을 열 배로 헤아려 주실 것이니라.” (티르미디가 전함)

“누구든 꾸란의 한 구절을 듣는 사람은 많은 선행의 보답을 받게 될 것이며,

누구든 꾸란의 한 구절을 읽는 사람은 부활의 날 그를 위한 빛이 되어 줄 것이니라.” (다리미가 전함)

“꾸란을 읽도록 하라.

왜냐하면 꾸란은 부활의 날 그를 위한 중재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니라.” (무슬림이 전함)

“누구든 꾸란을 읽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최후 심판의 날 그의 부모는 태양보다 빛나게 될 것이니라.

태양이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태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태양보다 밝을 것이니라.

그러니, 하물며 꾸란을 따르는 그 사람 자신의 복은 어떠하겠느냐?” (아부 다우드가 전함)

아부 다르(라디알라후 안후)가 전하기를,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 아부 다르여! 아침에 가서 알라의 성서(꾸란)에서 한 구절을 배우는 것은

100라크아의 나팔(자발)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븐 마자가 전함)

“누군가 꾸란을 읽고 암기하며 (꾸란이 말하는) 할랄을 할랄로, 하람을 하람으로 여긴다면

알라께서는 그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라.

또한 그의 친척 중 불지옥에 떨어질 10명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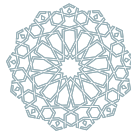


(앗-타르킵 왓-타르힘 2권 342쪽)

질문:

- 1) ‘계시’란 무엇을 뜻하는가?
- 2) 계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계시는 어떤 방법들에 의해 내려졌는가?
- 4) 꾸란은 어떤 계시의 방법으로 내려졌는가?
- 5) 계시받은 성서들과 쪽들은 어느 예언자들에게 내려졌는가?
- 6) 꾸란은 어떻게 계시되었으며 최초로 내려진 구절들은 무엇인가?
- 7) 꾸란이 기록된 것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 8) ‘무스하프’란 무엇인가?
- 9) 꾸란의 특징은 무엇인가?
- 10) 꾸란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 11) 꾸란을 읽는 것에 대한 미덕과 관련된 5개의 하디스를 외우시오.

6.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



주제:

- 예언자직 그리고 예언자에 대한 필요성
- 예언자들의 임무와 특징
- 꾸란에 언급된 예언자들
- 예언자들이 전달하는 종교들의 공통된 근원
- 기적이란 무엇인가?
-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기적
-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특성
-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가 마지막 예언자가 되는 것
- 그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가? (독서)

예언자직 그리고 예언자에 대한 필요성

이슬람의 6가지 기본 믿음 중 네 번째는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이다. 예언자직(예언자의 지위)은 알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임무이다. 알라께서 예언자로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 분



의 길로 인도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가장 훌륭한 이
들이다.

인간은 알라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 알라께서 존재
하심을 알 수 있지만 그 분의 속성과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책임,
알라를 어떻게 숭배해야 하는지, 죽음과 내세의 삶에 대한 것 등
은 예언자와 같은 존재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예언자들의 임무와 특징

모든 예언자들은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창조주에
대해 알려주고 신앙의 근본과 숭배방법에 대해 가르쳤다. 그들은
종교의 규칙과 훌륭한 도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여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임무를 실행해야 했으며 그들을 믿
지 않는 자들에게 알라의 예언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알라의 허
락으로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알라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산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그
렇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예언자들로 선택된 사람들은 알라께 순종하는 훌륭한 품성을
갖춘,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이들이었다.

예언자들이 가져야 할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시드끄(정직함)

예언자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항상 진실한 말만 한
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있었던 일
이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 때가 되었을 때 그것
은 그렇게 되었다.

2. 아마나(신뢰받음)

예언자들은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으며 결코 배신하지 않
는다.



3. 파타나(현명함)

예언자들은 우수한 지능과 정신력 그리고 뛰어난 기억력과 논리력 및 설득력을 가진다.

4. 이스맛(결백함)

예언자들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다. 사적이거나 공정인 장소에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이나 악행으로부터 제외된다.

5. 타블리(온전히 전달함)

예언자들은 알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꾸란에 언급된 예언자들

최초의 예언자는 ‘아담(알라이히 쌀람)’이며 최후의 예언자는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이다. 이 두 분 사이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존재했는데 꾸란에는 그 중 25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우리는 꾸란에 이름이 언급된 예언자들과 더불어 알라만이 아시는 다른 예언자들을 모두 구별 없이 다 믿는다.

꾸란에 이름이 언급된 예언자들은 다음과 같다:

1.아담, 2.이드리스, 3.누흐, 4.후드, 5.살리흐, 6.룻, 7.이브라힘, 8.이스마일, 9.이스학, 10.야굽, 11.유스프, 12.슈아이브, 13.하룬, 14.무사, 15.다우드, 16.솔레이만, 17.아이유, 18.줄키플, 19.유누스, 20.일리아스, 21.엘야사, 22.자카리아, 23.야흐야, 24.이사, 25.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

예언자들이 전달하는 종교들의 공통된 근원

알라께서 각 예언자에게 보내신 종교들이 갖는 공통된 근원은 다음과 같다.

- 1-신앙에 대한 근원
- 2-숭배행위
- 3-도덕에 대한 규칙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상태와 필요성에 따라 일부 근원과 숭배행위의 방법이 바뀌었지만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내려진 종교(이슬람)로 이것들은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기적이란 무엇인가?

기적이란 예언자들이 예언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알라의 도움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특별한 사건들이다. 기적은 예언자직의 특성이다. 이것은 예언자들이 알라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에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알라의 권능으로 예언자들에게만 허락된 일이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분의 존재와 전지전능하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경이란 무엇인가?

경이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종을 통해서 발생한 비상의 일들이다. 이런 비당한 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을 한 경이, 그들이 속하는 예언자를 위한 기적들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기적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는 자신이 알라에 의해 보내진 예언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① 어느 날 아스르(오후)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는 우두(예배 전 몸의 일부를 씻는 행위)를 위한 물을 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 아주 약간의 물이 담겨 있는 술을 가져왔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손을 술 안의 물에 놓자 손가락 사이에서 물



이 솟아내기 시작해서 그곳에 있는 약 300명의 사람들이 우두를 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② 예언자(ﷺ)께서는 메디나에 있는 성원의 한 대추야자 통나무에 올라가서 무슬림들에게 설교하곤 하셨다. 무슬림들의 수가 늘어나자 예언자(ﷺ)께서는 보다 더 높은 곳에서 설교하기 위해 삼 층으로 된 설교단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그 분이 어느 금요일 설교를 이 설교단에서 하자 성원의 다른 쪽에 있던 대추야자 통나무는 더 이상 예언자(ﷺ)께서 자신 위에 서지 않으심에 대해 슬퍼하여 마치 새끼를 잃은 어미 낙타처럼 소리 내어 울었다. 대추야자 통나무의 울음소리를 들은 예언자(ﷺ)께서 설교단에서 내려와 그 통나무를 껴안고 만지시자 통나무의 울음소리가 멈추었다.

③ 예언자(ﷺ)께서 메디나로 이주하기 1년 6개월 전 어느 날 밤, ‘부라크’라고 불리는 탈 것으로 메카에 있는 ‘마스지드 하람’에서 꾸두스(예루살렘)에 있는 ‘마스지드 아끄사’까지 오게 되었다. 그곳에서 천사 지브릴과 함께 하늘들로 승천하였는데 이 여행은 알라께서 예언자를 초대하신 것으로 지구상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알라의 무한한 권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은 ‘이스라와 미라즈(밤여행과 승천)’ 기적이다.

④ 예언자(ﷺ)의 가장 크고 지속적인 기적은 ‘꾸란’이다. 사람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꾸란의 소리와 지혜로 가득찬 뜻 깊은 꾸란의 의미, 인류의 행복을 위해 마련된 완전한 규칙들 그리고 모든 시대에 빛을 비추는 학문적 사실들을 내포하는 꾸란은 유일무이한 기적이다.

예언자 무함마드(ﷺ)의 특성

알라께서 꾸란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내(알라)가 그대를 보냄은 단지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경고하기 위해서니라.” (34장 28절)

“말하라 (오, 무함마드여!) : 사람들이여, 나는 전 인류에게 보내진 알라의 예언자이니라.” (7장 158절)

우리 무슬림들은 모든 예언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믿는다. 다만 최후의 예언자인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특성을 갖고 계신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는

1) 알라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종이다. 또한 창조된 것 중 가장 훌륭한 분이다.

2) 마지막 예언자이다. 그 분 후 다른 예언자는 오지 않을 것이다.

3) 온 인류를 위한 예언자이다. 그 분 이전에 왔던 예언자들은 어떤 민족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었다.

4) 그 분의 예언자직은 종말이 올 때까지 모든 시대를 포함한다. 그러나 다른 예언자들의 임무는 특정기간에만 역할하는 것이었다.

5)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전한 이슬람은 종말이 올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가 마지막 예언자가 되는 것

알라께서 꾸란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알라의 사도이자 최후의 예언자이니라...” (33장 40절)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예언자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온 분이다.

알라의 뜻으로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가 전한



‘이슬람’은 인류를 위한 마지막 종교이며 ‘꾸란’은 온 인류에게 내려진 알라의 마지막 성서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 오심으로 이제 예언자직이 완료되었다. 그 분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예언자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꾸란에 언급되어 있다.

이전에 왔던 예언자들은 정해진 민족들에게만 보내진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집안을 비추는 등불’과 같았다. 그러나 온 인류에게 보내진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는 ‘세상을 비추는 태양’과 같다. 태양이 있으니 이제 등불의 역할은 필요 없게 되었다.

독서

그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무함마드이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 마이클 H. 하트(Michael H. Hart)는 지금까지 실재했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뽑아 저술한 ‘**세계사를 바꾼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 (The 100: A Ranking of the Most Influential Persons in History)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한 인물은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였다.

1978년 10월에 발행된 이 책은 아주 큰 인기를 끌었고 마이클 H. 하트는 그의 저서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를 선택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명부의 첫 번째로 무함마드를 선택한 것은 어떤 독자들에게는 놀라움을 또 다른 독자들에게는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종교적인 기준과 세속적인 기준 두 가지 모두에서 최고로 성공적이었던 역사상 유일한 사람이다.” (터키 종교성 신문 1979년 1월 15일, 205호)



예언자를 깊이 존중한 독일 정치인 비스마르크(Bismark, 1815-1898)는

“당신과 동시대에 살지 못하여 마음이 슬프다, 오, 무함마드!... 인류는 당신과 같은 훌륭한 인물을 단 한 번 보았고 앞으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당신의 위대함 앞에 존경을 표한다.”라고 언급했다.

프랑스 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는

“인류의 인도를 위해 무함마드에게 보내진 꾸란은 지혜로 가득한 성서이다. 무함마드가 진짜 예언자임은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훌륭한 개혁가이다. 그는 인류를 위해 희생한 분이다. 한 공동체를 진리의 빛에 이르게 하였다. 그것만으로도 그 분에게 충만하다. 피 흘림 없이 인류를 구하고 평화에 이르게 했다. 진보의 길을 열었다. 모든 존중을 누릴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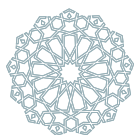
질문:

- 1) 예언자는 누구인가? 예언자는 왜 필요한가?
- 2) 예언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 3) 예언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 4) 꾸란에 언급되어 있는 예언자들 그리고 최초의 예언자와 최후의 예언자는 누구인가?
- 5) 예언자들이 전달하는 종교들의 공통된 근원은 무엇인가?
- 6) 기적이란 무엇인가?
- 7)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기적 중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가?



- 8) 꾸란의 기적은 무엇인가?
- 9)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صل람)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 10)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صل람)가 마지막 예언자가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7. 내세에 대한 믿음



주제:

- 내세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 내세에 대한 믿음의 혜택
- 죽음, 무덤 그리고 종말
- 보상, 처벌, 천국과 지옥

내세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슬람의 6가지 기본 믿음들 중 다섯 번째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다. 사람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죽음이라는 끝이 있듯이 이 세상도 언젠가 끝이 날 것이다. 알라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필 천사가 ‘수르(Sur)’라는 나팔을 불어 귀가 터질 듯한 이 소리로 모든 피조물이 죽음에 이를 것이다. 또한 땅과 하늘의 질서가 없어지고 우주는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종말이라고 하는 이 사건 얼마 후 알라의 명령으로 이스라필 천사가 다시 한 번 ‘수르’라는 나팔을 울릴 것이며 모든 인류는 부활하여 ‘마흐샤르’라는 장소에 모이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알라 앞에서 현세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



받을 것이다. 현세에서는 각 인간마다 천사 2명이 동행한다. (인간의 오른쪽 어깨에 존재하며 선행을 할 때마다 기록하는 천사와 인간의 왼쪽 어깨에 존재하며 악행을 할 때마다 기록하는 천사가 그들인데) 이 2명의 천사들에 의해 기록된 ‘행위의 기록’이 사람들에게 배분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현세에서 자신이 행했던 모든 행위가 기록되었음을 직접 보고 읽을 것이다.

현세에서 비밀로 또는 공개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어느 누구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선행과 악행을 재는 저울로 각 인간이 현세에서 행했던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이 현세에서 어떤 행위를 행했다면 내세에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날 알라께서 행하시는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어느 누구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ﷺ)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의 날에 인간은 다음 네 가지에 관해 질문을 받을 것이니라.

그(그녀)의 삶에 있어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그녀)의 젊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냈는지,

그(그녀)의 재산에 있어서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마지막으로 그(그녀)가 부여받은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바로 그 네 가지이니라.” (앗-타르킵 왓-타르히프 1권 125쪽)

부활로 시작하여 영원히 지속될 ‘내세’는 짧은 현세라는 시험의 결과이다. 따라서 모든 인류가 죽은 후 알라의 명령으로 부활하고 영원히 유지될 영생을 믿는 것은 기본 믿음의 중요한 요소이다.



내세에 대한 믿음의 혜택

1) 내세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해준다. 그 책임감은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도록 이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이란 죽음 후의 부활, 현세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알라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벌이 주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인해 인간은 악을 저지르려는 마음을 멀리하고 선행을 하려고 애쓰게 됨과 동시에 삶에 대한 지혜와 올바른 도덕관을 갖추게 된다.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회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으로 향하도록 이끌어준다. 그 결과 사랑과 신뢰가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실현된다.

2)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내세의 삶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죽음 후에 대한 준비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세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알라의 말씀에 따라 허용하신 것은 행하고 금지하신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다. ‘내세를 위해 양식을 마련하라.’는 알라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내세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내세를 위한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은 그때서야 현실을 깨닫고 알라의 말씀에 따르고자 현세로 돌아가기를 갈망할 것이나 이미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꾸란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죽음이 그들 중 누구에게 이를 때 주여! 저를 다시 돌려보내 주소서. 제가 남겨둔 여생 동안 선을 행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 나...” (23장 99-100절)



3) 내세에 대한 믿음은 절망에 빠진 힘없는 사람을 위로하고 희망을 준다.

현세에서는 많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한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다.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때로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는다. 악행을 저지르고도 법을 피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은 내세에서 모두 올바르게 정리가 될 것이다.

“티끌만한 무게의 선을 행한 사람도 그것을 볼 것이며 티끌만한 무게의 악을 행한 자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99장 7-8절)

죽음

각 사람에게에는 현세에서의 삶이 부여된다. 그 기간이 완료되면 인간은 죽는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이며 육체를 움직이도록 이끄는 것은 영혼이다. 알라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영혼은 우리의 육체를 떠난다. 이것이 곧 ‘죽음’이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꾸란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며...” (3장 185절)

“너희가 어디에 있던 죽음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니라. 비록 높은 탑 위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니라.” (4장 78절)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다. 단지 일시적인 현세에서 영원한 내세의 삶으로 가는 관문일 뿐이다. 현세에서 알라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축복이 된다.

무덤

인간이 죽음 이후부터 부활될 때까지 거쳐야 하는 시간을 ‘무덤의 삶’이라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혀 땅의 일부



가 되지만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무덤의 삶을 시작한다. 이때 ‘문카르’와 ‘나키르’라는 두 천사가 죽은 자의 영혼에게로 다가와서 질문들을 할 것이다. 질문들에 맞는 답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덤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장소가 될 테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고통의 장소가 될 것이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무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실로 무덤은 천국의 정원들 중의 한 정원이거나 지옥의 구덩이 가운데 한 구덩이니라.”

(카시풀 하파(Kashful Hafa) 제2권 90쪽)

종말

알라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필 천사가 ‘수르’라는 나팔을 울릴 것인데 이 나팔소리는 매우 크고 끔찍하여 모든 피조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늘은 갈라지고 지구를 비추는 태양은 은폐되어 그 빛이 사라질 것이며 달은 태양과 하나가 될 것이다. 별들은 그 빛을 잃고 우박이 내리듯이 떨어질 것이며 지구에는 이전에 일어난 적이 없던 대지진과 같은 거대한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바다들은 합쳐질 것이며 산들은 먼지가 되어 휘날릴 것이다. 지구의 모든 질서는 사라지고 하늘과 땅이 새로운 형태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날이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오직 창조주이신 알라만이 아신다.

보상, 처벌, 천국과 지옥

선행에는 보상이 따르고 악행에는 처벌이 따른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삶을 사는 이유는 시험을 위해서이다. 알라의 말씀을 지키고 금지하신 것을 멀리하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사람들은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며 그 결과 천국이라는 영원한 내세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알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나(알라)는 부활의 날을 위해 공정의 저울을 놓을 것이니 그 어떤 이의 그 어떤 것도 부당히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그리고 겨자씨의 무게만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가져올 것이니 계산자는 나로써 충분하노라.” (21장 47절)

“티끌만한 무게의 선을 행한 사람도 그것을 볼 것이며 티끌만한 무게의 악을 행한 자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99장 7-8절)

천국은 진실한 믿는 자들을 위한 영원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천국에는 현세에서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그 누구도 듣지 못했으며, 그 어떤 인간도 생각할 수 없는 양식이 마련되어 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으며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곳이다. 누군가 무엇을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앞에 나타날 것이다.

천국에는 질병이나 고통, 두려움과 슬픔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늙지 않고 항상 젊은 나이의 상태로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며 죽음은 없고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나가지 않으며 완전한 기쁨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꾸란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행을 행하는 자는 천국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2장 82절)

“그곳에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으며 알라 곁에는 더 많은 것이 있노라.” (50장 35절)

반면 지옥은 현세에서 알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금지한 것을 탐닉하며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처벌의 장소이다. 알라를 불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알라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 죄를 일삼은 사람들도 이곳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 즉, 불신으로 죽음을 맞이한 이들에게 지옥은 영원한 곳이지만 알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죄인들은 죄의 대가를 치른 후 천국으로 가게 된다. 지옥은 불신자와 위선자에게는 영원한 처벌의 장소이다.

꾸란에는 불신자와 위선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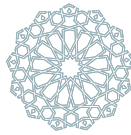
“알라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 속에서 영원히 기거할 것이니라.” (2장 39절)

“위선자들이야말로 지옥의 맨 하층에 있게 되나니 그대는 그들을 위해 어떤 구원자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4장 145절)

질문:

- 1) 내세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 2) 내세에 대한 믿음의 혜택은 무엇인가?
- 3) 죽음이란 무엇인가?
- 4) 무덤의 삶은 어떠한가?
- 5) 종말은 무엇인가?
- 6) 보상과 처벌이란 무엇인가?
- 7) 천국과 지옥이란 어떤 장소이며 누구를 위해 마련된 곳인가?

8. 정명(定命)에 대한 믿음



주제:

- ‘정명’이란 무엇인가?
- 인간이 갖는 책임
- 정명에 대한 믿음의 혜택
- 양식과 죽음의 시간
- 알라께 의탁하는 것과 일하는 것
- 이슬람에서 일의 중요성
- ‘나무를 심자’ (독서)

‘정명’이란 무엇인가?

이슬람의 6가지 기본 믿음들 중에 마지막은 ‘정명에 대한 믿음’이다.

즉, 선과 악의 행위, 우주만물의 법칙이 알라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다.

종교적 용어로 ‘정명(定命; 까다르(Qadar))’과 ‘까다(Qada)’의 뜻은 다음과 같다.



·**까다르(정명)**: 알라만이 절대적인 힘과 지혜로서 모든 사물이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로 생성, 발전, 소멸됨을 정확히 아시며 더불어 그러한 모든 사건의 형태를 결정짓고 관장하심을 뜻함.

·**까다**: 모든 만물의 생성, 발전, 소멸이라는 변화가 알라에 의해서 예정되어진 형태로 미리 결정되어진 시기에 발생함을 뜻함.

·**까다르**를 어떤 계획으로 여긴다면 **까다**는 그 계획에 따라 어떤 것이 실행됨을 의미한다. 우주만물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알라의 뜻에 의한 것이며 그 분 외에는 어떤 존재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다.

까다르(정명)와 까다를 믿는 것은 선과 악 모든 것이 오직 알라에 의한 것으로 알라께서 정하신 때에 발생함을 믿는 것이다.

인간이 갖는 책임

인간의 행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하지 않은 것 즉, 알라께서 창조하셨기에 발생하는 행위들이다. 예를 들어, 심장이 뛰는 것, 숨을 쉬는 것, 키가 작거나 큰 것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알라에 의한 것이므로 인간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둘째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앉고 일어나는 것, 걸어가는 것 등 신체의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알라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유의지를 베푸셨다. 따라서 인간은 이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인간이 만약 선을 행하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행동을 취한다면 알라께서는 그 선을 창조하신다. 또한 악을 저지르기를 택하고 악행을 취한다면 알라께서는 또한 그 악을 창조하신다.



알라께서 부여하신 자유의지에 의해 우리는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저야 한다. 선행에 대한 결과는 보상이지만 악행에 대한 결과는 벌이다.

정명에 대한 믿음의 혜택

정명을 믿는 사람은 우주의 모든 것이 알라의 의지와 창조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다. 또한 알라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와 그 자유의지로 인해 어떤 행위든 성취할 수 있음을 안다. 따라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일을 실천하려고 의지한다면 알라께서 그 일을 창조하시고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또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름을 알기에 악행보다는 선행을 행하려고 노력한다.

정명을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을 때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알라께서 그 일이 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최선의 시기가 아니기에 그것을 성취하지 않도록 이끄셨음을 알기에 그 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불필요하게 절망하거나 방황하는 시간이 없도록 하여 삶을 더욱 효율적으로 살아가도록 해준다.

정명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계획에 따라 그리고 어떤 목적에 따라 창조되었음과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음을 가르친다.

양식

피조물이 먹고 마시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양식이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 알라이시다. 그 분께서 꾸란에 말씀하시기를,

“대지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모두에게는 알라께서 지정 해주신 양식이 있노라.” (11장 6절)



알라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맞는 양식을 정해주시고 제공하셨다. 그러나 양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우리는 알라의 말씀에 따라 허용된 방법으로만 양식을 얻어야 한다. 알라께서는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양식을 제공해주신다. 허용된 방법으로 허용된 양식을 구한다면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금지된 방법으로 금지된 양식을 구한다면 그렇게 해 주신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인간의 것이다.

죽음의 시간

인간을 무(無)에서 창조하신 알라께서는 각 인간의 수명을 정해주셨다. 삶이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때까지 지나간 제한된 시간이다. 죽음이란 삶이 끝나고 현세가 끝나는 시간이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는 오직 알라에 의한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시간을 바꿀 수 없음에 대하여 알라께서 꾸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기간(죽음)이 종료될 때 그들은 벌을 단 한 시간도 지연시킬 수 없으며 또한 앞당길 수도 없노라.” (16장 61절)

인간의 임무: 살아 있는 동안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멀리하고 길지 않은 삶의 시간을 불필요한 일에 낭비하지 않으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최선을 다해 현세를 살고 내일 죽을 것처럼 내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은, 삶이 언제 끝날지, 죽음의 시간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무를 제 시간에 수행하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알라께 의탁하는 것과 일하는 것

인간은 무슨 일을 하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쉽게 포기하거나 대충대충 하지 말아야 한다. 진심을 다해 노력한 후 그 결과는 알라께 의탁한다. 이렇게 알라께 의탁하는 것을 아랍어로 ‘타와쿨’이라고 한다.



좋은 곡식을 얻고자 하는 농부는 먼저 땅을 가장 좋은 상태로 일꾼 후 씨를 심고 물을 주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한 후 알라께 의탁하며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한다. 이것이 바로 ‘타와꿀’이다.

아무 노력 없이 알라께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타와꿀’이 아니다.

낙타를 묶지도 않고 놓아둔 후 알라께 의탁한다고 말한 한 사람에게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먼저 낙타를 묶으라. 그런 후 알라께 의탁하라.”

(카시풀 하파 제1권 144쪽)

하루 다섯 번의 예배와 단식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며 주어진 삶을 사는 것 또한 숭배행위만큼 중요하다.

알라께서 꾸란에 말씀하시기를,

“예배가 끝났을 때 대지에 분산하여 알라의 은혜를 구하고...”

(62장 10절)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는 **“허용된 일을 하는 것은 의무이다.”** (카시풀 하파 제3권 46쪽)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우마르(라디알라후 안후)가 말씀하기를, **“너희들 중 어느 누구도 양식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 알라! 제게 양식을 베풀어주소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잘 알다시피, 하늘에서 금도 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샤리후 아이눌 일림, 제1권 182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슬람의 가르침이며 무슬림의 의무이다. 어떤 일의 성공을 원한다면 우선 최선을 다하고 알라께 의탁해야 한다.



이슬람에서 일의 중요성

이슬람은 사람들에게 현세는 물론 내세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삶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그 빛나는 결과를 보여준다.

알라께서 꾸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실로 인간이 노력하여 얻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느니라.”
(53장 39절)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신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느니라. 알라의 예언자인 다우드(다윗)도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느니라.” (리야둣 싄-리히-인, 59장 543번)

이슬람은 일하는 것을 중요히 여기고 허용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숭배행위로 간주한다.

어느 날 예언자의 교우들이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계신 곳을 지나가는 힘이 센 한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 알라의 예언자시여! 이 사람이 알라의 길에서 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자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사람이 아이들의 생계를 위해 집을 떠났다면 그는 알라의 길에 있느니라. 노인이 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집을 떠났다면 그는 알라의 길에 있느니라. 또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집을 떠났다면 그는 알라의 길에 있느니라. 만일 그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집을 떠났다면 그는 사탄이 길에 있느니라.” (앗-타르킵 왓-타르히프 2권 524쪽)



이슬람의 다섯 가지 기둥 중 자카트(희사)와 성지순례는 경제적, 육체적으로 가능한 무슬림에게 부여된 숭배행위이다. 열심히 일을 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는 이 두 가지 숭배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에 맞는 것이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인류에게 가장 유익한 자이니라.”

(하디스 250선, 121쪽)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열심히 일할 것을 권장하시고 **“이들이 똑같은 사람은 실패한 것이니라.”**(카시풀 하파 제2권 233쪽)고 말씀하시며 무슬림들이 매일 더 나은 하루를 보내기를 강조하셨다.

메디나 출신 무슬림 중 한 명이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자 그 분(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에 팔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느냐?”

그가 답하기를,

“한 쪽으로 몸을 덮고 다른 한쪽으로는 바닥에 까는 천과 물을 마실 수 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그에게 **“가서 그것들을 가져와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렇게 하였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물으시기를,

“이것들을 사기를 원하는 자 있느냐?”

무슬림들 중 한 명이



“오, 알라의 예언자시여! 제가 이 물건을 1 디르함에 사고 싶습니다.”고 말하였다.

예언자(ﷺ)께서는

“더 많이 주고 사기를 원하는 자 있느냐?”고 물으시자

다른 무슬림이 말하기를, “저는 2디르함에 사겠습니다.”

그러자 예언자(ﷺ)께서 물건을 그 무슬림에게 주신 후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몸을 돌리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것(2 디르함) 중 하나로 집을 위해 음식을 사고 다른 하나로 도끼 한 자루를 사서 나에게 가져와라.”

예언자(ﷺ)께서는 그가 도끼를 가져오자 직접 그 분의 손으로 나무자루를 끼우셨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 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라. 그리고 그 나무들을 팔아라. 2주 동안 너를 여기서 보지 않도록 하라.”

2주 후에 다시 나타난 그는 10디르함을 벌었고 돈의 일부로는 음식을 일부로는 옷을 샀다. 그러자 예언자(ﷺ)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일하는 것은 거지로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냐하면 거지로 사는 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 너의 얼굴에 검은 흔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앗-타르킵 왓 타르힘 2권 523쪽)

예언자(ﷺ)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

“너희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은 현세를 위해 내세를 포기하지 않는 자이며, 또한 내세를 위해 현세를 포기하지 않고 두 세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자이니라.”

(무흐타를-아하디스)



독서

‘나무를 심자’

“최후의 날이라 하여도 누군가의 손에 대추야자나무가 있다면 그것을 심도록 하라.” (하디스 250선, 27쪽)

“무슬림이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그것으로부터 얻은 열매를 다른 사람이나 짐승, 그리고 새들이 먹는다면 그것은 모두가 행한 자선이 되느니라.”

(타즈리드 사리흐 번역 및 해설, 제7권, 121쪽)

“누군가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그 나무의 열매만큼 그의 행위의 기록에 보상이 기록되느니라.”

(타즈리드 사리흐 번역 및 해설, 제7권, 122쪽)

한 노인이 작은 묘목을 심는 모습을 보고 **압바시야조 칼리파 하룬 알 라쉬드**는 이렇게 말했다.

“오, 어르신! 지금 심은 묘목에서 나올 열매를 보시지 못할 것인데 왜 자신을 힘들게 하십니까?”

노인은 이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 이전에 왔던 사람들이 나무를 심었고 우리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나무를 심어야 우리 이후에 올 사람들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기에 그에게 한 움큼의 금을 주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하기를,

“이보시오, 저는 제가 심은 묘목의 열매를 벌써 보았습니다.”

노인의 이 대답에 하룬 알 라쉬드는 더욱 흡족했다.

나무와 그 나무가 이룬 숲이 인간과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매우 훌륭한 행위이며 누군가 불필요하게 나무를 베거나 숲은 해친다면 그것은 악



행에 해당된다. 나무를 해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악행이 될 수 있는지 다음의 하디스를 통해 알 수 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살아 있는 나무를 베면 알라께서 최후 심판의 날 그를 거꾸로 불지옥에 던지실 것이니라.”

(파이줄 까디르, 제6권 206쪽)

질문:

- 1) 정명이란 무엇인가?
- 2) 인간의 행위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가?
- 3) 인간은 왜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 4) 정명에 대한 믿음의 혜택은 무엇인가?
- 5) 양식과 죽음은 무엇인가?
- 6) 알라께 의탁하는 것과 일하는 것은 무엇인가?
- 7) 이슬람에서 일의 중요성이란 무엇인가?

제 2 장 송배행위



1. 숭배행위



주제:

- 숭배행위란?
- 왜 숭배행위를 하는가?
- 숭배행위의 종류
- 숭배행위의 단계와 혜택

숭배행위란?

알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분께서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양식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

왜 숭배행위를 하는가?

알라께서는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무(無)에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다. 훌륭한 기능을 해내는 신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이성(理性)과 자유의지를 부여하시어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우수한 위치에 놓으셨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 즉, 공기, 물, 햇빛 등 셀 수 없이 많은 양식을 베푸신다.



또한 그 분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후 예언자들과 성서들을 보내시어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다. 이와 같은 많은 은총들에 반해 알라께서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 분을 인지하고 그 분께 숭배를 드리는 것뿐이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거나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한다면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물며 나를 만드시고 헤아릴 수 없는 양식을 베푸시는 창조주께 숭배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알라를 알고 알라께 숭배하는 것이다. 숭배 의무를 지키므로 알라께 주신 양식을 위해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라의 사랑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알라께 숭배를 행하고 알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알라께서 이 세상에 있는 양식보다 더 많은 양식을 내세에서 주실 것이며 천국으로 들어가게 인도해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실 것이다.

숭배행위의 종류

숭배행위에는 3가지가 있다.

육체적인 숭배행위: 예배나 단식이 이에 포함된다.

자신만이 행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의해 행하여질 수 없는 의무적 숭배행위이다.

재정적 숭배행위: 자카트(회사)나 동물을 희생하는 것(이들 피프르)이 이에 해당된다.

자신이 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이에 의해 대신 행하여질 수 있다.

육체적·재정적 숭배행위: 성지순례가 이에 해당된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지순례를 행하지 못할 정



도로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거나 환자이거나 노인일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 있다.

숭배행위의 단계

숭배행위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단계가 있다.

1) 경외심에 의한 숭배행위

어떤 이익이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알라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 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행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숭배행위.

2) 천국의 보상을 바라며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숭배행위

보상과 처벌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숭배행위.

3) 현세의 이익을 위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의 숭배행위

알라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가식적으로 행하는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숭배행위.

숭배행위의 혜택

우리의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필요로 한다. 영혼의 양식은 바로 신앙과 숭배행위이다. 숭배행위는 영혼을 진리로 이끌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며 강한 신앙과 고귀한 품성을 갖게 한다.

삶에서 겪는 다양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힘과 지혜는 숭배행위를 통해 얻게 된다. 그 분께 복종하여 숭배 드리는 사람에게 알라께서는 평화와 자비를 베푸시며 어려움을 쉽게 해주신다. 숭배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혜택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우두(부분세정)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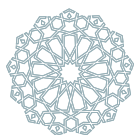
해야 한다. 우두란 몸의 일부분을 씻는 숭배행위로서 우리는 우두를 통해 개인위생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까지도 지킬 수 있다.

예배 중 행하는 예배자세들과 1년에 한 달간 행하는 단식은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소화기관 등 몸 속 기관들에게 휴식을 허락함으로써 여러 질병이 예방된다. 또한 자카트(희사)는 빈부격차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준다.

질문:

- 1) 숭배행위란?
- 2) 왜 숭배행위를 행하는가?
- 3) 숭배행위의 종류는?
- 4) 숭배행위의 단계는?
- 5) 숭배행위의 혜택은?

2. 이슬람



주제:

-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기둥
- ‘무칼라프(의무이행자)’와 그 원칙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이슬람: 알라께서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통해 인류에게 보내신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라와 그분의 예언자에게 복종하며 알라께서 보내신 계시를 받아들임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알라께서 알려주신 신앙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기둥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기둥은 ‘5가지’이다.

1) 신앙의 증언(샤하-다(Shahadah))

아랍어로 “샤하-다(Shahadah)”는 ‘신앙의 증언’을 의미하며 개



인의 신앙심을 나타내는 가장 근본이 되는 표현이자 이슬람의 기본 신조.

“샤하-다”란 “**아슈하두 알라~일라~하 일탈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압두후 와 라수~룰라.**”라고 말하며 그 뜻은 “나는 알라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도임을 증언하나이다.”이다.

2) 예배

하루 다섯 번 예배드리는 것.

3) 단식

매년 라마단 달(한 달간) 단식하는 것.

4) 자카트(희사)

이슬람의 조건에 따라 부를 얻은 자가 소유한 재산의 일부를 매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5) 성지순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능한 사람에 한해 반드시 일생에 한번 성지순례에 임하는 것.

‘무칼라프(Mukallaf, 의무이행자)’는 누구인가?

알라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고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정신적으로는 이성을 갖춰야 하고 육체적으로는 사춘기에 도달해야 한다. 이 2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만이 ‘무칼라프(mukallaf)’ 즉, 알라께서 명하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정신적으로 장애나 병이 있거나 사춘기에 도달하지 않은 어린이들은 책임의 의무가 없다. 사춘기에 도달하는 연령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남자의 경우 12-15세, 여자의 경우 9-15세이다. 따라서 이 나이가 되면 무칼라프가 되는 것이다.



‘무칼라프’의 원칙(8가지):

무칼라프의 8가지 원칙을 ‘아프알리 무칼라핀’이라 칭함. 이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1) 파르드(Fard, 절대의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서 예배와 단식 그리고 자카트(희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파르드의 원칙:** 이를 행한 사람에게는 알려게서 보상을 주시지만 마땅한 이유 없이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분의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된다. 파르드를 불신하는 사람은 신앙을 잃게 된다.

파르드의 종류

① **파르드 아인:** 개인의 판단이 있을 수 없는 절대적 의무로 ‘하루 다섯 번의 예배’가 이에 해당된다.

② **파르드 키파야:** 일부 무칼라프(의무이행자)들에게만 의무인 것으로 고인을 위한 ‘장례예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컨대, 무슬림 중 일부가 장례예배를 드리면 전체가 예배를 드린 것으로 간주된다.

2) 와집(Wajib, 필요의무)

파르드(절대의무)처럼 절대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언자 무함마드(صل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행하는 것이 의무에 가까운 숭배행위를 ‘와집(필요의무)’이라 한다.

이드 예배, 자카툴 피트르(라마단 단식을 마치는 즉시 행하는 특별자선)를 내는 것, 이둘 아드하 때 희생물을 바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와집의 원칙:** 와집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지만 마땅한 이유 없이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알라의 보상과 축복에서 제외된다.



3) 순나(Sunnah, 예언자의 관행)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언행을 따르는 것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강하게 권장된다.

순나의 종류

① **순나트 무앗카다(확인 순나):**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거의 지속적으로 실천하신 행위로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권장된다. 파즈르(새벽), 주후르(정오) 그리고 마그립(저녁) 예배의 순나예배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순나트 가이르 무앗카다(자발 순나):**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자발적으로 실천하신 행위로 아스르(오후) 및 이샤(밤) 예배의 순나예배가 이에 해당된다.

***순나의 원칙:** 순나를 실천하는 사람은 알라께서 보상하시며 심판의 날 예언자의 중재를 얻게 된다. 순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마땅한 이유 없이 순나를 행하기를 꺼려한다면 알라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놓치는 것이다.

4) 무스타합(Mustahab, 권장사항)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때로는 실천하시고 때로는 실천하지 않으신 행위로 두하예배(아침 해가 떠오른 얼마 후부터 주후르(정오)) 예배전까지의 시간에 드리는 예배¹⁾가 이에 해당된다.

***무스타합의 원칙:** 무스타합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는 사람은 알라의 보상을 얻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이익이나 손해도 없다.

5) 무바흐(Mubah, 허용상태)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상태로 먹거나 자거나 걷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1 *다만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에는 예배를 피해야 함.



***무바흐의 원칙:** 행했을 때 어떠한 보상도 별도 따르지 않는다.

6) 하람(Haram, 절대금지)

엄격히 금지된 행위로 살인, 간통, 절도, 음주, 도박, 돼지고기 섭취, 부모에 대한 불효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람의 원칙:** 하람을 행하는 사람은 신앙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 알라를 두려워하고 하람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7) 마크루흐(Makruh, 상대금지)

하람(절대금지)처럼 절대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행하지 않도록 권장된 행위이다.

마크루흐의 종류

① **카라하티 타흐리미야:** 와집(필요의무)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원칙:**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알라의 보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된다.

② **카라하티 탄지히야:** 허용에 가깝지만 피하는 것이 더욱 좋은 행위로 순나(예언자의 관행)와 무스타합(권장사항) 등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원칙:**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알라의 보상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8) 무프시드(Mufsid, 무효가 되는 상태)

숭배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로 예배 중에 이야기를 한다거나 단식 중에 의도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배 중에 이야기를 하거나 웃는다면 그 예배는 무효가 되어 다시 드려야 하고 단식 중에 의도적으로 음식을 먹는다면 그 단식은 무효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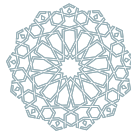


***무프시드의 원칙:** 마땅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숭배행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알라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질문:

- 1)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 2)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기둥은 몇 개이며 어떤 것인가?
- 3) ‘무칼라프(의무이행자)’는 누구인가?
- 4) 사춘기의 연령은 대략 무엇인가?
- 5) 무칼라프의 원칙은 무엇인가?

3. 청결



주제:

- 청결과 이슬람에서 청결의 중요성
- 청결을 위한 물의 종류
- 우두의 혜택
- 우두를 위한 파르드(절대의무)와 순나의 규정 및 예의
- 우두하는 방법
- 우두에 대한 마크루흐(상대금지) 사항과 우두가 무효가 되는 경우
- 우두 없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 양말 위에 실시하는 쓰다듬기(마스흐)
- 상처부위의 쓰다듬기(마스흐)
- 구슬(전체 세정)을 해야 할 상황 및 구슬(전체세정)없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 구슬에 대한 파르드와 순나 그리고 구슬하는 방법
- 숭배행위를 실천함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사람의 경우
- 여성만의 특별한 상황



- 타암뭉(대체세정)에 대한 파르드, 순나 그리고 타암뭉하는 방법
- ‘청결한 환경’ (독서)

청결과 이슬람에서 청결의 중요성

이슬람은 청결의 종교이다. 따라서 무슬림이란 청결한 사람임을 암시한다. 인간은 누구나 청결한 사람을 선호한다. 알라께서는 청결을 중요시 하는 사람을 사랑하심을 우리는 다음의 꾸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실로 알라께서는 회개하는 자들과 청결한 자들을 사랑하시니라.” (2장 222절)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도 “**청결은 신앙의 절반이니라.**”(마샤리굴 안와르(Mashariq Ul Anwar) 제2권 107쪽) 라는 말씀과 함께 청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무슬림이 예배를 드릴 때는 창조주이신 알라 앞에서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몸과 입은 옷 그리고 예배장소는 청결해야 한다. 이때 외적인 청결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순수한 상태로 예배에 임해야 한다.

청결을 위한 물의 종류

① 순수한 물

빗물, 눈물(雪水, 눈이 녹아내린 물), 빙하수, 호수물, 강물, 바닷물, 샘물 및 우물물 등처럼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물을 의미한다.

② 혼합된 물

차이에 우려낸 물, 장미수 등 다른 물질과 섞인 물로서 이런 물로는 우두나 구슬을 할 수 없다.

순수한 물의 종류(5가지)

1) 깨끗하고 세제(洗除) 기능을 갖춘 물: 자연 그대로 순수한 물의 특성을 가진 물로 이전에 사용되지 않은 물이다. 우두와 구



슬 등 몸의 청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요리나 식수로도 사용가능한 물이다.

2) 깨끗하고 세제(洗除) 기능도 갖추었지만 사용이 허락되지 않은 물: 고양이, 닭과 같은 가축 그리고 매와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로부터 남겨진 물이다. 깨끗한 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물로 우두나 구슬을 하는 것과 요리나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깨끗한 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된다.

3) 깨끗하지만 세제(洗除) 기능을 갖추지 못한 물: 이미 우두와 구슬을 위해 사용한 물로서 깨끗해 보이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4) 더러운 물: 오염된 물로서 세제(洗除) 기능을 갖추지 못한 더러운 물이다. 개나 돼지 그리고 맹금류의 새들이 마셨던 물도 이에 해당된다.

5) 의심스러운 물: 당나귀와 노새가 마신 물이 이에 해당되며 만약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물로는 우두나 구슬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깨끗한 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 물로 우두나 구슬을 하는 것이 허락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물로 우두나 구슬한 후 타얌뭍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물이 깨끗한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우두의 혜택

우두란 몸의 일부 기관들을 알라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씻어내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우두의 미덕과 우두를 통한 정신적 혜택에 대하여 예언자(ﷺ)께서 말씀하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무슬림이 우두의 의도를 갖고 손을 씻으면 손으로 인하여 진 죄가 용서되느니라. 얼굴을 씻으면 눈으로 인하여 진 죄가 용서



되느니라. 머리를 쓰다듬으면 귀로 인하여 진 죄가 용서되느니라. 그리고 발을 씻으면 발로 인하여 진 죄가 용서되느니라.”

(앗-타르킵 왓-타르히프 1권 155쪽)

“너희들 중 누군가 완벽하게 우두를 하고 ‘아슈하두 알라~일라~하 일랄라후, 와흐다후 라-샤리-카 라후,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압두후 와라수~루후.(나는 알라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그 분께서는 어떤 동반자도 없는 홀로 계신 분이시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종이 자 사도임을 증언하나이다)’라고 말한다면 그에게는 여덟 개의 천국 문이 열리고 원하는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앗-타르킵 왓-타르히프 1권 171쪽)

우두를 할 때 씻는 신체부위는 일상생활에서 더러움에 쉽게 노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매일 우두를 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우두를 위한 파르드(절대의무) 규정

우두를 위한 파르드(절대의무) 규정(4가지)

- 1) 얼굴을 씻는다.
- 2) 양손을 팔꿈치까지 씻는다.
- 3) 머리 윗부분을 쓰다듬는다.¹
- 4) 발을 발목까지 씻는다.

위 4가지 규정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그 우두는 무효가 된다.

우두를 위한 순나(예언자의 관행) 규정

- 1) 우두를 행하기 전 의도를 한다.

2) 다음 구절을 암송 후 우두를 시작한다: “**아우두 빌라히 미 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스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저는 저주받

¹ 말리키와 한발리 학파에 의하면, 손에 물을 적셔 이마 위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머리 뒤까지 쓰다듬는 것이 파르드이다. 반면 사피 학파는 머리의 일부분만을 쓰다듬는 것이 파르드이다.



은 사탄으로부터 알라의 보호를 구하나이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 3) 손을 손목까지 씻는다.
- 4) 가능하면 미스왁(칫솔 역할을 하는 나뭇가지)이나 칫솔로 치아를 깨끗이 닦는다. 여의치 않다면 손가락으로 비벼서 닦는다.
- 5) 우두를 위해 씻어야 할 기관들을 중단 없이 씻는다. 즉, 몸의 한 기관의 물기가 마르기 전에 다른 기관을 씻는 것.
- 6) 씻을 때 몸의 기관들을 잘 문지른다.
- 7) 손에 물을 담아 입에 넣고 입안을 3번 헹군다. 매번 헹굴 때마다 물을 뱉는다.
- 8) 단식 중이 아닐 때는 물을 충분히 들이마셔서 입안을 잘 헹군다.
- 9) 콧속을 3번 헹구고 매번 왼손으로 풀어낸다. (단식 중이 아닐 때는 코에 물이 충분히 들어가도록 한다.)
- 10) 우두할 때 위에 언급된 순서를 그대로 지킨다.
- 11) 몸의 각 기관을 3회 씻는다.
- 12) 우두할 때 오른쪽부터 시작한다.
- 13) 손과 발을 씻을 때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씻기 시작한다.
- 14) 수영이 많은 사람은 수영의 끝부분까지 쓰다듬는다.
- 15) 우두 시 반지를 살짝 움직여 물이 닿도록 한다.
- 16) 귀를 쓰다듬는다.
- 17) 목덜미를 쓰다듬는다.
- 18) 머리를 쓰다듬는다.
- 19) 손가락 사이를 벌려 씻는다.



우두에 대한 예의

- 1) 예배시간이 되기 전에 우두를 하고 예배를 위한 준비를 마친다.
- 2) 우두할 때 끼블라(카아바 방향)를 향한다.
- 3) 우두한 물이 가능한 몸에 튀지 않도록 한다.
- 4) 우두 중일 경우 (우두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 5) 우두할 때 가급적 말을 삼간다.
- 6) 물 3 3을 낭비하지 않는다. 즉, 우두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만 사용한다.
- 7) 우두를 마친 후 끼블라를 향하여 샤하-다를 말한다.

우두하는 방법

먼저 소매를 걷어 붙인 후 가급적 끼블라를 향하고 ‘알라를 위해 우두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의도하며 “**아우두 빌라히 미낏샤 이따 니르라짐, 비스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을 말한다.

이제 다음의 8단계로 우두한다.

1. 손을 손목까지 3회 씻는다. 손가락에 반지가 있다면 살짝 움직여 물이 닿도록 한다.
2. 오른손으로 물을 담아 입안을 3번 헹군다.
3. 오른손에 물을 담아 콧속을 3번 헹구고 왼손으로 풀어낸다.
4. 양손으로 얼굴을 골고루 3번 씻는다.
5. 먼저 왼손으로 오른쪽 팔을 팔꿈치까지 3번 씻고, 오른손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왼쪽 팔을 팔꿈치까지 3번 씻는다.
6. 손에 물을 적셔 머리 윗부분을 쓰다듬는다.
7. 양 손가락에 물을 적셔 양 귀속에 넣고 귀안을 돌려 씻어내



며, 이때 집게손가락으로는 깃바퀴 안을, 엄지손가락으로는 깃바퀴 뒤를 문지르며 닦아낸다. 그런 후 젖은 두 손등으로 목을 닦을 때 목덜미 뒤쪽에서 양쪽 손가락이 서로 맞닿을 정도로 위 아래로 닦아낸다.

8. 마지막으로 오른발과 왼발을 발목까지 3회씩 씻는다. 발을 씻을 때는 오른발은 새끼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으로, 왼발은 엄지발가락에서 새끼발가락 순서로 씻으며 물이 발가락 사이사이로 완전히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끼블라로 향하여 샤하-다를 말하면 우두를 마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파르드와 순나 그리고 예의에 맞는 우두이다. 우두할 때 암송하는 기도들(본서의 끝부분에 있는 ‘우두 시 기도문’ 참고)이 있는데 만일 이것을 암송하면 더 좋다. 하지만 암송하지 않는다 해도 우두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사진으로 설명된 우두방법은 본서의 마지막 부분에 게재됨).

우두의 마크루흐(상대금지)

- 1) 규정된 양보다 물을 과도히 사용하는 것
- 2) 규정된 양보다 물을 적게 사용하는 것
- 3) 우두를 할 때 신체부분을 물로 지나치게 세게 때리는 것
- 4) 우두 시 잡담하는 것
- 5) 청결하지 못한 장소에서 우두하는 것

우두가 깨지는 경우

우두한 사람은 아래의 경우들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된다면 다시 우두해야 한다.

- 1) 몸에서 피나 고름 혹은 유사물질이 유출됐을 때
- 2) (한 손 가득 차게) 토했을 때



3) 각혈 즉, 기도를 통한 출혈이 있을 때(만약 이것이 침보다 미미한 경우는 무방)

4) 대소변을 보았을 때나 방귀를 끼었을 때

5) 기절했을 때나 취했을 때

6) 예배 중 소리 내어 크게 웃었을 때(우두도 예배도 다시 해야 함)

7) 깊은 잠을 자고 났을 때

우두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4가지를 할 수 없다

1) 예배를 드릴 수 없다.

2) 꾸란에 손을 댈 수 없다.

3) 사즈다툼 툴라와트(Sajdat al-Tilawat, 꾸란에 사즈다 구절을 읽을 때나 들을 때 행하는 절)를 할 수 없다.

4) 카아바 순례를 할 수 없다.

양말 위에 실시하는 쓰다듬기(마스흐)

'마스흐'는 우두 시 마지막 단계인 발을 씻는 과정에서 손에 물을 적신 후 그 젖은 두 손으로 (가죽 또는 두꺼운) 양말 등을 아래에서 위로 한번 쓰다듬는 행위를 말한다. 양 발을 물로 직접적으로 씻지 않고도 이 '마스흐'를 통해서 우두가 성립된다.

마스흐는 비여행자에게 24시간(1일)동안 유효하다. 24시간 동안 우두할 때마다 발을 씻는 단계에서 물에 젖은 손으로 (가죽 또는 두꺼운) 양말 위를 쓰다듬어 발 세정을 대신하면 되는데 그 시간이 완료되어 다시 우두해야 할 때는 발을 반드시 물로 씻어야 한다. 그리고 마스흐는 여행자에게는 72시간(3일) 동안만 유효하다.

마스흐를 하는 방법: 우두할 때 발을 씻는 단계에서 젖은 오른손을 오른발 위에 놓고 세손가락으로 발목 위까지 신고 있는(가죽 또는 두꺼운) 양말을 문지르고, 왼발도 왼손으로 같은 방법으로 문지른다. (가죽 또는 두꺼운) 양말의 바닥부분은 쓰다듬지 않는다.



마스흐의 조건: 마스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한다.

- 1) 우두를 모두 마친 후 (가죽 또는 두꺼운) 양말을 착용해야 한다.
- 2) (가죽 또는 두꺼운) 양말은 복숭아뼈를 가려야 한다. 만약 복숭아뼈를 가리지 않는 양말을 신었다면 ‘마스흐’를 할 수 없다.
- 3) (가죽 또는 두꺼운) 양말은 만이천 개의 걸음이나 그 이상의 길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야 한다.
- 4) (가죽 또는 두꺼운) 양말은 발가락 세 개가 나올 정도로 낡거나 구멍이 있거나 찢어진 것이면 안 된다.
- 5) (가죽 또는 두꺼운) 양말은 끈이 필요 없을 정도 튼튼해야 한다.
- 6) (가죽 또는 두꺼운) 양말에는 물이 흡수되지 말아야 한다.
- 7) 발과 (가죽 또는 두꺼운) 양말의 앞부분 사이의 여유는 새끼손가락 두께의 세배 정도여야 한다.

발가락이 절단된 경우에는 마스흐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물을 직접 닿는 방법으로 씻어야 한다. 한쪽 발가락이 절단된 경우에도 반드시 양 발 모두 씻어야 한다.

마스흐가 깨지는 경우:

- 1) 우두가 깨어지는 경우들과 동일한 규정이 마스흐에도 적용된다.
- 2) (가죽 또는 두꺼운) 양말의 한쪽이나 양쪽을 벗거나 벗겨진 경우에 만일 우두가 있는 상태라면 단지 발 부분의 우두만으로도 전체 우두가 유효하다고 간주된다. (가죽 또는 두꺼운) 양말 중 한 쪽만 벗겨져도 양 발을 우두의 규정에 따라 씻어야 한다. 만일 우두가 깨어진 상태라면 발을 씻는 단계까지 포함하여 다시 우두를 한다.
- 3) 마스흐의 착용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만약 아직 우두가 있는 상태라면 (가죽 또는 두꺼운) 양말을 벗고 발 부분의 우두만 하면



충분하다. 만일 우두가 깨어진 상태라면 발을 씻는 단계까지 포함하여 다시 우두를 한다.

상처부위의 쓰다듬기(마스흐)

몸의 어떤 부분이 부러졌거나 상처가 났기 때문에 붕대로 감겨 있다면 우두나 구슬을 할 때 붕대를 풀어서 그 부분을 씻어야 하나 만약 그럴 경우 감염의 위험이 있다면 붕대를 풀지 않고 젖은 손으로 붕대를 한차례 가볍게 문지름으로써 세정을 대신할 수 있다.

상처 위에 약이 발라져 있고 붕대로 감겨 있지 않는 상태일 경우 감염의 위험이 없다면 씻을 수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할 경우에는 상처부분은 씻지 않고 젖은 손으로 문지르기만 한다. 만약 문지르는 것도 위험하다면 문지르지 않고 그냥 둔다.

구슬(전체 세정)

‘구슬(Ghusl)’이란 온 몸을 물로 씻는 행위를 말한다.

구슬을 해야 하는 경우

- 1) 몽정 또는 사정을 했을 경우
- 2) 부부관계 후
- 3) 여자의 경우, 생리나 출혈이 끝났을 때와 산욕기가 끝났을 때

위 3가지 경우에 구슬하기를 지연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구슬을 한다.

구슬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종교의식을 행할 수 없다.

- ㄱ) 예배를 드리는 행위
- ㄴ) 꾸란을 읽는 행위
- ㄷ) 꾸란을 만지는 행위



ㄹ) 메카의 카아바를 순례하는 행위

ㄻ) 성원에 들어가는 행위

금요일 합동예배 전, 이드(축제) 예배 전에 구슬을 하는 것은 순나(예언자 무함마드의 관행)이며 권장사항이다.

구슬을 할 때 지켜야 할 파르드(절대의무)

- 1) 물로 입과 목안을 씻어낸다.
- 2) 콧속에 물을 넣어 코를 닦아낸다.
- 3)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를 씻는다.

구슬에 대한 순나

1) “비쓰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히-임(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이라고 말한다.

2) 구슬을 위한 의도를 한다.

3)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불결해진 신체부위와 몸에 묻은 정액 등을 씻어낸다.

4) 왼손으로 국부부터 씻기 시작한다.

5) 순서에 따라 우두를 행한다.

6) 우두를 마친 후, 3회에 걸쳐 머리와 양쪽 어깨를 물로 씻어낸다. 몸에 어떠한 부분도 물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몸 전체를 물로 적신다.

7) 몸을 철저히 문질러서 닦아내야 한다.

8) 물이 하수구로 흘러내려가지 않고 발부분에 모인다면 우두를 할 때 발을 씻는 단계를 구슬을 마친 후에 행한다.

구슬을 하는 방법

1. “비쓰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히-임(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을 말하며 구슬을 위한 의도를 한다.



2. 먼저 손을 손목까지 씻은 후 왼손으로 국부부터 씻기 시작한다.

3. 오른손으로 3회에 걸쳐 입에 물을 넣고 매번 입과 목안을 씻어낸다. 만약 단식 중이면 목구멍 깊숙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콧속에 3회에 걸쳐 물을 넣어 매번 왼손으로 코를 풀어 닦아낸다.

5. 우두를 한다.

6. 우두를 마친 후 머리를 3회, 오른쪽 어깨를 3회, 왼쪽 어깨를 3회에 걸쳐 씻는다. 이 단계에서 매번 물이 이르는 데까지는 손으로 문질러야 한다. 몸에 어떠한 부분도 물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몸 전체를 물로 적신다.

구슬할 때 주의할 점

-배꼽, 귓바퀴의 안쪽, 귀걸이 구멍, 치아사이, 콧수염, 턱수염, 그리고 머리카락 속에 물이 잘 닿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구슬 중 기도하지 않는다.

-몸을 끼블라로 향하지 않으며 되도록 말을 하지 않는다.

-만약 강이나 바다 또는 호수에서 구슬을 해야 할 경우, 입과 코에 물을 넣고 잘 헹군 후 몸 전체를 적시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파르드와 순나에 의한 구슬이다.

승배행위를 실천함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사람의 경우

우두가 깨지는 경우 중 하나가 예배 시간 내내(예배시간이 끝나고 다음 예배시간이 시작할 때까지) 지속된다면 ‘승배행위를 실천함에 있어서 결함’이라고 말하며 이를 겪는 사람을 우리는 ‘승배행위를 실천함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어떤 병으로 인하여 코에서 피가 자꾸 흘러나오거나 몸에서



피나 고름, 배뇨 등이 나오는 사람의 경우 예배시간 동안에는 그것이 중단된다면 우두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시간 동안에도 지속된다면 그 사람은 ‘송배행위를 실천함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예배시간 동안에 피나 고름, 배뇨 등이 계속된다 해도 우두하고 예배를 드린다. 또한 이 특별한 상황 외에 우두가 깨질 수 있는 다른 상황이 없는 이상 그 예배 시간동안에 원하는 만큼 예배(의무예배와 더불어 순나예배와 나팔(자발) 예배(의무 예배 이외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송배행위를 실천함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사람이 행한 우두는 그 예배시간이 지나가면 무효가 된다. 따라서 각 예배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우두를 해야 한다.

알라께서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우두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그가 올바른 길에 있도록 자비를 베푸신다.

여성만의 특별한 상황(3가지)

1) 생리: 여성이 사춘기에 이르면 나타나는 몸의 변화들 중 하나인 ‘생리’는 매달 정해진 기간에 이루어지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55세까지 계속된다. 생리기간은 짧으면 3일 길면 10일정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생리가 중간에 지속되지 않아도 생리기간으로 간주한다.

다음의 행위들은 생리기간 중에 금지된다.

- 1) 예배
- 2) 단식
- 3) 꾸란을 읽거나 만지는 것
- 4) 카아바 순례
- 5) 성원출입



6) 부부관계

생리가 끝난 후에는 구슬을 해야 하며 구슬 후에는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생리기간 중 드리지 못한 예배는 보충할 필요는 없으나 라마단 달의 단식은 단식하지 못한 날수만큼 계산하여 추가로 보충해야 한다.

2) 출산: 출산 후 최대 40일까지는 산욕기간으로 간주된다. 산욕기간은 40일 전에도 끝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40일을 다 채울 필요 없이 구슬을 하고 숭배행위를 실천할 수 있다. 만약 몸에서 나오는 피가 며칠 동안 멈췄다가 다시 나온다면 산욕기간으로 간주된다.

생리기간 중 금지된 행위들은 산욕기간에도 금지된다.

산욕기간이 끝나면 구슬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드리지 못한 예배는 보충할 필요는 없으나 단식은 못한 날수만큼 계산하여 추가로 보충해야 한다.

3) 이스티하자(Istihaza)

생리가 시작되어 하루나 이틀만 지속된다면 그것은 생리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삼일 짜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생리기간이 10일을 넘어간다면 그 때부터는 생리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11일부터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만약 산욕기간이 40일 이상 계속되거나 임신 중에 몸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예배와 단식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타얌뎀(Tayammum; 대체세정)

‘타얌뎀’이란 의도 후 손을 펴 두 손 바닥을 깨끗한 흙이나 모래 또는 돌 위에 가볍게 두드린 후 얼굴과 양 팔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우두나 구슬을 해야 하지만 물을 구할 수 없을 경우 행하는 것이다.



타암묵의 파르드

1) 의도(니얄)

2) 손을 펴 두 손 바닥을 깨끗한 흙이나 모래 또는 돌 위에 가볍게 한 번 두드린 후 맨 처음 얼굴을, 그 다음 다시 한 번 손을 펴 두 손 바닥을 깨끗한 흙이나 모래 또는 돌 위에 가볍게 한 번 두드린 후 양 팔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는 것.

타암묵의 순나

1) “비쓰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히-임”을 암송

2) 타암묵을 순서에 맞게 행함

3) 타암묵을 행할 때 중간에 멈추지 않기

4) 흙 위에 손바닥을 놓고 손을 앞쪽으로 문지르기

5) 그런 후 손을 뒤쪽으로 문지르기

6) 손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행하기

7) 손을 비빈 후 손에 묻은 먼지를 양손을 부딪쳐서 털어내기

타암묵하는 방법

소매를 걷는 후 (우두나 구슬을 위한) 의도한다. 손을 펴 깨끗한 흙이나 모래 또는 돌 위에 손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두 손 바닥을 놓고 가볍게 한 번 두드린다. 만일 손에 먼지가 많이 있으면 양 손을 가볍게 맞부딪친다.

그 다음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한 번 쓰다듬는다.

그 다음 다시 한 번 손을 펴 두 손 바닥을 깨끗한 흙이나 모래 또는 돌 위에 가볍게 한 번 두드린 후 왼손 바닥으로 오른손 끝부터 팔꿈치까지 쓸어내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왼손 끝부터 팔꿈치까지 한 번 쓸어내린다.

타암묵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두나 구슬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암무를 한 후에는 꾸란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능하다.

타암물이 무효가 되는 경우

- 1) 우두가 무효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 2) 타암무를 했으나 우두나 구슬을 위한 물을 발견한 경우 타암물은 무효가 되어 물로 다시 우두나 구슬을 해야 한다.
- 3) 병중이어서 물을 사용하면 병이 악화되거나 회복이 늦어질 수 있었다가 회복되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타암물은 무효가 된다.

반드시 타암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들

- 1) 우두나 구슬을 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을 경우
- 2) 마실 물밖에 없거나 질병이나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오염된 물인 경우
- 3) 병중이어서 물을 사용하면 병이 악화되거나 회복이 늦어질 수 있을 경우

독서

‘청결한 환경’

이슬람에서 청결이란 우리 자신과 주위를 깨끗이 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청결은 신앙의 바탕이며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덕목이다. 무슬림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알려께서 창조하신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해나 불편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다.

예언자(ﷺ)께서 “**마당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시며 집 안과 더불어 집 밖의 청결도 중요함을 강조하셨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는 사람들 중에 있기를 멀리하도록 하라.”

그러자 그 분의 교우들이 묻기를,

“오, 알라의 예언자시여!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그리고 그늘 아래(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자들이니라.”

(리야뚓 쌀-리히-인, 351장 1771번)

무슬림은 자신이 머물렀던 장소를 깨끗이 하며 만약 길을 가다 쓰레기나 장애물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치워야 한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고여 있는 물(저수지나 연못 등)에 소변을 보는 것을 금지하셨고 이슬람성원 벽에 묻어 있는 침을 보시고 그것을 돌로 제거하셨다. 또한 땅에 침을 뱉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불쾌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또한 피하라고 권고하셨다.

“양파나 마늘을 먹은 자는 우리에게서 떨어져 있거나 성원 가까이 오지 않아야 하느니라.”

(리야뚓 쌀-리히-인, 311장 1703번)

이슬람에서 양파나 마늘을 먹는 것은 허용된 일이지만 그 입냄새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성원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양파나 마늘 등을 먹지 않도록 하고 만약 먹었다면 입에서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는 사람들 주위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알라께서는 꾸란에서 청결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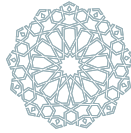


말씀하셨습니다. 청결은 모든 숭배행위의 기본임을 기억하며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질문:

- 1) 이슬람에서 청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2) 청결을 위한 물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 3) 우두의 혜택은 무엇인가?
- 4) 우두의 파르드와 순나 그리고 예의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5) 우두하는 방법은?
- 6) 우두에 대한 마크루흐(상대금지) 사항과 우두가 무효되는 상황들은 무엇인가?
- 7) 우두를 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 8) 양말 위에 실시하는 쓰다듬기 방법은?
- 9) 어떤 상태에서 상처부위를 쓰다듬는가?
- 10) 구슬이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구슬을 해야 하는가?
- 11) 구슬을 하지 않았을 때 행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인가?
- 12) 구슬에 대한 파르드와 주요 순나는 무엇인가?
- 13) 구슬을 하는 방법은?
- 14) ‘숭배행위를 실천함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우두와 예배를 하는가?
- 15) 여성만의 특별한 상황이란 무엇인가?
- 16) 타얌뭉이란? 타얌뭉에 대한 파르드와 순나는 무엇인가?
- 17) 타얌뭉을 하는 방법은?
- 18) 타얌뭉은 어떤 경우에 행하는가?

4. 예배 (I)



주제:

- 예배의 중요성 및 누구에게 의무인가?
- 예배시간과 예배를 피해야 할 시간들
- 예배의 종류
- 예배에 대한 파르드와 와집 그리고 순나
- 예배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들
- 하루 다섯 번 드리는 예배의 방법
- 새벽(파즈르) 예배를 드리는 방법
- 정오(주후르) 예배를 드리는 방법
- 오후(아스르) 예배를 드리는 방법
- 저녁(마그립) 예배를 드리는 방법
- 밤(이샤) 예배를 드리는 방법
- 위트르 예배를 드리는 방법
- 예배 후의 기도문



예배의 중요성

이슬람의 신앙과 실천의 5가지 기둥들 중 알라의 존재함과 유일함 그리고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가 알라의 예언자임을 선언하는 ‘신앙의 증언(샤하-다)’ 다음으로 가장 우선시 되는 의무는 ‘예배’이다. 하루 다섯 번의 예배는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 메디나로 이주하기 1년 반 전, 미이라즈(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 알라의 부름을 받아 승천했던 사건) 때 모든 무슬림들에게 의무화되었다.

예배는 영혼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밝히며 인간을 알라께 가깝게 하는 숭배행위이다.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예배는 종교의 기둥이니라.” (카시풀 하파 제2권 31쪽)

예배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화시키는 빛이다. 무슬림은 예배를 통해 지은 죄들을 씻어내어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가진 종이 된다.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그분의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다.

“너희들은 문 앞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하루에 다섯 번 목욕을 하는 사람의 몸에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언자의 교우들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루에 예배를 다섯 번씩 하는 것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니라. 알라의 은총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씻겨나갈 것이니라.”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예배는 사람의 마음속에 알라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 그를 죄



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따라서 매일 하루 다섯 번씩 예배드리는 무슬림은 알라에 대한 경외심을 재확인하여 그 분께서 금하신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예배는 모든 잘못된 행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와 관련하여 알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그 성서(꾸란)를 낭송하며 예배를 드리라. 실로 예배는 추악한 행위나 비난받을 행위를 예방하노라.”

(29장 45절)

예배를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강해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알라의 만족을 얻고 천국의 길로 향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반드시 예배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صل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할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자녀가 일곱 살이 되면 예배를 가르쳐라.”

(카시풀 하파 제2권 203쪽)

부모가 이 말씀을 따라 자녀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가르친다면 자녀는 사춘기를 지나 어른이 되어서도 예배를 드리는 무슬림이 될 것이다.

예배는 누구에게 의무인가?

예배는 다음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의무가 된다.

- 1) 무슬림일 것.
- 2) 사춘기에 이를 것.
- 3) 이성을 지닐 것.

예배시간

하루 5번인 예배 시간은 새벽(파즈르), 정오(주후르), 오후(아스르), 저녁(마그립) 그리고 밤(이샤)이다. 이렇게 각 예배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며 이것은 예배 성립의 조건이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 이



전이나 이후에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성립되지 않는다. 예배의 시간을 인간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께서 정하신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분께 복종함을 의미한다. 알라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함을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실로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실천해야 할 의무로 지정되었노라.” (4장 103절)

하루 5번의 예배 시간과 다른 주요 예배 시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새벽(파즈르) 예배: 아직 깜깜한 새벽 ~ 해뜨기 전 미광이 있기 전까지

정오(주흐르) 예배: 태양이 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로부터 (그림자가 동쪽으로 기울이기 시작함) ~ 대상의 그림자가 대상과 똑같은 길이일 때까지

오후(아스르) 예배: 정오예배 시간이 끝난 후 ~ 해질녘 전까지

저녁(마그립) 예배: 해가 진 직후 ~ 지평선에 남아 있던 붉은 노을빛이 완전히 자취를 감출 때까지

밤(이샤) 예배: 저녁예배 시간이 끝난 후 ~ 새벽예배 전까지

위트르 예배: 이샤(밤) 예배 후부터 파즈르(새벽) 예배 전까지

금요합동(주므아) 예배: 정오(주흐르) 예배의 시간

타라위흐 예배: 라마단 달 밤(이샤) 예배를 드린 후

이드 예배: 이드 날 새벽 해뜨기 약 50분이 지난 후 ~ 태양이 정점에 오를 때까지

예배를 피해야 하는 시간들

1) 해가 뜰 때: 태양이 뜨기 시작할 때부터 약 50분 동안의 시간



2) 태양이 정점에 있는 동안: 태양이 아직 서쪽으로 지나가기 전의 시간

3) 해가 질 때: 해가 지기 약 45분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의 시간

*다만 오후(아스르) 예배를 미처 드리지 못한 경우에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된다.

예배의 종류

가) 파르드(절대의무) 예배

나) 와집(필요의무) 예배

다) 나팔(자발) 예배(의무 예배 이외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 파르드(절대의무) 예배

- 하루 다섯 번 예배

- 금요합동(주므야) 예배

- 장례(자나자) 예배

하루 다섯 번의 예배의 파르드와 순나 그리고 라크아 수

1) 새벽(파즈르) 예배: 4라크아 = 2라크아 순나 + 2라크아 파르드

2) 정오(주흐르) 예배: 10라크아 = 4라크아 순나 + 4라크아 파르드 + 2라크아 순나

3) 오후(아스르) 예배: 8라크아 = 4라크아 순나 + 4라크아 파르드

4) 저녁(마그립) 예배: 5라크아 = 3라크아 파르드 + 2라크아 순나

5) 밤(이샤) 예배: 10라크아 = 4라크아 순나 + 4라크아 파르드 + 2라크아 순나



하루 다섯 번의 예배 외에 파르드 예배들

1) **금요합동(주므아) 예배:** 10라크아 = 4라크아 순나 + 2라크아 파르드 + 4라크아 순나

2) **장례(자나자) 예배:** 모두에게 의무이지만 일부가 예배를 드리면 전체가 예배를 드린 것으로 간주된다.

나. 와집(필요의무) 예배

1) **위트르 예배:** 3라크아

2) **이들 피뜨르 예배:** 2라크아

3) **이들 아드하 예배:** 2라크아

다. 나팔(자발) 예배(의무 예배 이외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파르드(절대의무)와 와집(필요의무) 예배 이외의 예배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눈다.

1) **파르드(절대의무) 예배와 함께 드리는 예배:** 파르드 예배 전이나 후에 드리는 순나예배와 라마단 달 밤(이샤) 예배 후에 드리는 타라위흐(Tarawih) 예배이다.

2) **파르드(절대의무) 예배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드리는 예배:** 무스타합(권장사항)예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알라의 보상을 얻기 위해 특별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로 다음 3가지 예배가 이에 해당된다.

① **두하(Duha) 예배:** 아침 해가 떠오른 얼마 후부터 주흐르(정오) 예배 전까지의 시간에 드리는 예배로 자발예배이기에 2라크아씩 2라크아부터 12라크아까지 드릴 수 있다.

② **타हत주드(Tahajjud) 예배:** 한밤중에 일어나 드리는 예배로 2라크아씩 2라크아에서 8라크아까지 드릴 수 있다.

③ **타히야틀 마스지드(Tahiyat al-Masjid) 예배:** 성원에 들어가 앉기 전에 드리는 2라크아 예배이다.



예배의 12가지 파르드(절대의무) 원칙

예배에 있어서 12가지의 파르드(절대의무)가 있는데 만약 그중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완벽하지 않다면 완전한 예배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중 6가지는 예배의 순서와 관계되며 나머지 6가지는 예배 중에 지켜야 할 사항들이다. 예배의 순서와 관계가 있는 6가지를 ‘예배의 조건’이라고 하고 예배 중에 지켜야 할 6가지 사항들은 ‘루쿰(Rukun)’이라고 한다.

예배의 조건(예배의 순서와 관련)

1) 불결한 상태(하다쓰)로부터의 청결: 깨끗한 물로 우두하거나 구슬을 함으로서 청결해진다.

2) 오물(나자사)로부터의 청결: 예배드릴 사람은 자신의 몸이나 의복 그리고 예배장소를 반드시 오물이 없이 깨끗이 하여 청결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3) 아우라(가려야 할 부분): 예배 시 성인 남성의 아우라는 배꼽에서 무릎까지이며 성인 여성의 아우라는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분이다.

4) 끼블라를 향하는 것: 무슬림의 예배 방향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위치한 하람성원의 ‘카아바’이다. 카아바는 알라께 숭배를 드리기 위해 지구상에 최초로 건축된 예배 장소로 최초로 예언자 아담에 의해 건립되었지만 나중에 예언자 이브라힘과 그의 아들 이스마일에 의해 재건축되었다.

5) 예배 시간의 도래: 정해진 시간 내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직 예배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성립되지 않는다.

6) 의도(니야): 예배를 드리기 전 알라를 향해 마음가짐을 갖추어 말로 한다. 예를 들어 “저는 알라께 ‘파즈르예배의 파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의 루쿰(예배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1) **타끄비라툼 이흐람:** 예배 시작 시 타끄비르(“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는 것.
- 2) **끼얌:** 예배 시 서 있는 자세에 있는 것.
- 3) **끼라아:** 서 있는 자세에서 꾸란의 일부를 암송하는 것.
- 4) **루쿠:** 두 손을 무릎위에 대고 허리를 굽혀 반절을 하는 것.
- 5) **수주드:** 양손과 양발가락, 양 무릎, 코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
- 6) **카다-이 아키라:** 예배의 마지막 라크아의 두 번째 수주드 후 ‘앗-타샤후드’¹를 말할 정도의 시간동안 앉아 있는 자세.

예배에 대한 와집(필요의무) 행위들

- 1)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한 후 예배를 시작하는 것.
- 2) 파르드 예배의 첫 2라크아에서, 그리고 나팔(자발) 예배의 각 라크아에서 파티하장을 암송하는 것.
- 3) 파르드 예배의 첫 2라크아에서, 그리고 위트르와 나팔(자발) 예배의 각 라크아에서 파티하장을 암송한 후 꾸란 장이나 구절을 암송하는 것.
- 4) 파티하 장을 다른 장보다 먼저 암송하는 것.
- 5) 수주드(절) 중 이마와 함께 코도 바닥에 닿도록 하는 것.
- 6) 3라크아나 4라크아로 구성된 예배의 2번째 라크아에서 앉는 것. (이것을 ‘카다이 올라(첫 번째 앉음)’이라고 한다.)
- 7) 예배의 첫 번째 앉음과 두 번째 앉음에서 ‘앗-타샤후드’를 말하는 것.
- 8) 예배를 인도하는 이مام이 새벽(파즈르), 금요합동(주므아), 이드, 타라위흐 그리고 위트르 예배의 각 라크아에서, 또한 저녁(마

1 본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배 중의 기도문”을 참고.



그립)과 밤(이사) 예배의 첫 두 라크아에서 파티하장에 뒤이어 다른 장을 소리 내어 암송하는 것. 그리고 이맘이 정오(주후르)와 오후(아스르) 예배의 첫 두 라크아에서 파티하장에 뒤이어 다른 장을 마음속으로 암송하는 것.

9) 이맘을 따르는 예배자들은 파티하장과 다른 장을 암송하지 않고 이맘이 암송하는 꾸란을 들으며 그대로 서 있는 것.

10) 위트르 예배 때 꾸누트 기도²를 위한 타끄비르(알라후 아크바르)와 함께 꾸누트 기도를 말하는 것.

11) 다른 예배와는 달리 이드 예배 중에는 (각 라크아에서 정해진 수에 맞게) 타끄비르(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는 것.

12) 서 있는 자세에서는 똑바로 서 있고, 루쿠에서는 등과 머리가 수평으로 일직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 (여성은 남성보다 허리를 덜 구부린다.) 허리를 펴서 선 자세로 돌아갈 때 정상적인 자세로 서는 것. 두 번의 절 사이의 허리를 펴 앉아 있는 자세를 충분히 취하는 것.

13)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쌀람을 하는 것.

14) 예배 도중 망각으로 인해 실수를 범했을 경우 수주뚏 사흐우(예배 마지막에 드리는 두 번의 절)를 하는 것. 예배 도중 파르드나 와집 의식 중 하나를 착오하여 행하지 않은 경우 수주뚏 사흐우를 해야 한다. 만일 와집 의식 중 하나를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예배는 무효가 되며 따라서 다시 드려야 한다.

예배에 대한 순나 행위들

1) 각 예배를 시작할 때 말하는 타끄비르(알라후 아크바르)와 위트르 예배의 ‘꾸누트’기도 전에 말하는 타끄비르 그리고 이드 예배 때 (각 라크아에서 정해진 수에 맞게) 말하는 타끄비르 때 양손을 올리는 것(남성은 양손을 들어 엄지손가락이 귓볼 부근에 닿도록 하고 여성은 양손 끝을 어깨까지 올린다).

² 본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배 중의 기도문”을 참고.



2) 하루 다섯 번의 예배와 금요합동(주르야) 예배를 위한 아단과 이까마를 하는 것(여성들에게는 아단과 이까마를 하는 것이 순나가 아니다). 아단을 듣는 것은 무스타합(권장사항)이다.

아단을 듣는 사람은 무앗진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 말하며 무앗진이 ‘하이야 알랏 쌀라-’ 그리고 ‘하이야 알랄 팔라-’라고 할 때 ‘라 하울라 왈라 꾸와타 일라빌라힐 알리일 아짐’라고 말하며 아단이 끝나면 다음의 기도를 한다.

“알라훤마 랍바 하디히트 다으와티트 탐마 왓쌀라틸 까이마, 아티 무함마다닐 와실라타 왈파딜라, 와브아쓰후 마까만 마흐무다닐 라디 와앗타후”

오, 알라! 이 완전한 부름과 확고히 정립될 예배의 주인이시여. 부디 무함마드에게 중재의 권리와 우월함을 주십시오. (부활의 날) 당신께서 약속하신 천국에서 가장 좋고 높은 자리에 그를 보내주소서.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이 기도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단이 끝난 후 누가 위와 같은 기도를 하면 부활의 날 그를 위한 나의 중재가 허락될 것이니라.”

(리야둣 쌀-리히-인, 186장 1039번)

아단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아슈하두 알라-일라-하 일랄라-

아슈하두 알라-일라-하 일랄라-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룰라-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룰라-

하이야 알랏 쌀라-



하이야 알랏 쌀라-

하이야 알랄 팔라-

하이야 알랄 팔라-

앗쌀라-투 카이룸 미난 나움³

앗쌀라-투 카이룸 미난 나움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라~일라-하 일랄라-

이까마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아슈하두 알라-일라-하 일랄라-

아슈하두 알라-일라-하 일랄라-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룰라-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룰라-

하이야 알랏 쌀라-

하이야 알랏 쌀라-

하이야 알랄 팔라-

하이야 알랄 팔라-

까드 까마틓쌀라

까드 까마틓쌀라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라~일라-하 일랄라-

3 이 부분은 새벽(파즈르) 예배를 위한 아단을 부를 때만 암송한다.



3) (타끄비라를 이흐람(“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우고나서) 다음의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 “수브하나칼라흐마, 와비함디카, 와타바카스무카, 와 타알라 잣두카, 와 라 일라하 가이루카.” (이하 “수브하나칼라흐마...”)

4) 첫 라크아에서 (3)번에 언급된 기도문) “수브하나칼라흐마...”를 말한 후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스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을 말하고 파티하장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다른 라크아들에서는 파티하장을 암송하기 전에 “비스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만을 말하는 것.

5) “수브하나칼라흐마...”와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스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을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

6) 파티하장 낭송을 끝냈을 때 이맘과 예배자들은 작은 소리로 ‘아~민’⁴이라고 말하는 것.⁵

7) 예배 시작할 때 말하는 타끄비르 이외의 모든 타끄비르.

8) 루쿠에서 일어나 다시 서 있는 자세로 돌아올 때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를 말하고 곧 이어서 ‘랍바나 왈라칼 함드’를 말하는 것.

9) 루쿠에서는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그리고 각 수주드에서는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반복하여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

10) 끼얌(서 있는 자세)에서의 두 발사이의 간격은 발가락 4개정도여야 한다.

11) 루쿠에서 양 손가락을 펼쳐 무릎을 굳건히 잡고 있는 것 (여성의 루쿠에서는 손가락 사이를 퍼지 않으며 무릎을 잡지 않고 두 손을 무릎위에 두기만 한다).

4 뜻: “오 알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5 사피와 한발리 학파에 의하면, 이맘이 파티하장을 소리 내어 암송한 후 예배자들은 소리 내어 ‘아~민’이라고 한다. (여성 예배자들은 작은 소리로 ‘아~민’이라고 한다.)



12) 루쿠에서 무릎과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똑바로 하는 것
(여성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등과 머리는 완전한 수평이 되지 않는다).

13) 수주드할 때는 먼저 무릎을 그 다음은 양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하는 것. 수주드에서 일어날 때는 먼저 코와 이마를 그 다음 양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손을 무릎위에 두는 자세로 일어나는 것.

14)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양손을 허벅지 위에 두는 것.

15) 앉아 있는 자세에서 오른발은 세우며 왼발은 뉘여 자세를 낮게 하고 손가락을 끼블라 방향으로 하는 것(여성은 앉아 있는 자세에서 양발을 오른쪽으로 뉘여 엉덩이 위에 앉는다).

16) 예배의 마지막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앗-타샤후드**”, “**앗-쌀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⁶ 그리고 기도(예: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를 말하는 것.

17) 고개를 돌릴 때 먼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는 것.

18) 고개를 돌릴 때는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하는 것.

예배에 대한 예의

가) 끼얌(서 있는 자세)에서는 수주드 할 지점을,

나) 루쿠에서는 발끝을,

다) 앉은 상태에서는 배를,

라) 수주드에서는 코의 양쪽 끝을,

마) 고개를 돌릴 때는 어깨 쪽을 응시한다.

예배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들

1) 예배 도중에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

⁶ 본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배 중의 기도문”을 참고.



- 2) 예배 도중에 먹거나 마시는 것
- 3) 자신이 들을 정도로 웃는 것(웃는 소리를 옆 사람들까지 듣는다면 예배뿐만 아니라 우두도 무효가 됨)
- 4)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받는 것
- 5) 몸을 끼블라 방향에서 벗어나게 움직이는 것
- 6) 세속적으로 슬픈 일이나 몸의 아픔 때문에 소리 내어 우는 것(알라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예배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 7) 일부로 헛기침을 하는 것(어쩔 수 없는 기침이라면 예배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 8) 예배 도중에 다른 일을 하는 것
- 9) 어떤 것을 (입으로) 부는 것
- 10) 꾸란의 뜻이 바뀔 정도로 잘못 암송하는 것
- 11) 꾸란을 보면서 구절들을 읽는 것
- 12) 예배 도중 우두를 깨는 것
- 13) 타암뭉을 한 상태에서 물을 발견하는 것, 마스흐의 유효기간이 (예배 중) 끝나는 것
- 14) 새벽(파즈르) 예배를 드리는 중 일출이 일어나는 것
- 15) 남녀가 같은 줄에서 사이에 커튼 없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 16) 예배 도중 감춰야 할 신체부분이 노출되는 것(만일 신체부분이 노출된 시간이 예배의 한 자세동안 유지될 정도면 예배는 무효가 된다)

예배시의 마크루흐(상대금지) 행위들

- 1) 예배 도중 몸이나 옷으로 장난을 치는 것, 손을 깍지 끼어 손마디를 긁어 소리를 내는 것, 팔짱을 끼는 것
- 2) 하품하거나 기지개를 펴는 것



3) 눈을 감는 것, 여기저기를 쳐다보는 것(만일 쳐다볼 때 몸을 끼블라 방향에서 벗어나도록 움직이면 예배는 무효가 된다)

4) 소매를 걷은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여성은 소매를 걷은 자세로 예배드리면 예배가 무효가 된다)

5) 아무 이유 없이 다리를 꼬고 앉거나 쪼그리고 앉는 것, 또는 무릎을 세워 앉는 것

6) 사람의 얼굴을 향하거나 타고 있는 불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양초, 등잔 등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크루흐 행위가 아니다)

7) 얼굴에 있는 땀이나 먼지를 닦는 것, 몸을 긁는 것, 수주드 지점에 있는 돌을 치우는 것(만일 놓인 돌 때문에 수주드를 하기 힘들어 그 돌을 치운다면 이 행위는 마크루흐가 아니다)

8) 루쿠나 수주드 자세에서 할 말(“수브하나 랍비알 아담”과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을 하지 않거나 세 번 이하로 말하는 것

9) 예배드리는 사람의 앞이나 위에 또는 오른쪽이나 왼쪽에 인간이나 동물의 그림이 있는 것. 또는 인간이나 동물의 그림이 있는 것 위에서 수주드하는 것(나무나, 꽃 또는 자연의 그림이 있는 것은 마크루흐 상황이 아니다)

10) 예배 도중 어떤 것에 기대는 것

11) 수주드 자세에서 이마만을 바닥에 닿고 코를 땅에 닿지 않는 것

12) 수주드할 때 두 손을 무릎 보다 먼저 땅에 닿는 것. 수주드가 끝나고 일어날 때 무릎을 두 손 보다 먼저 올리는 것(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마크루흐가 아니다)

13)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더러운 곳에서, 무덤 위에서, 대소변에 가까운 곳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그의 소유지에서 예배드리는 것



14) 두 번째 라크아에서, 첫 번째 라크아에서 암송했던 장이나 구절보다 더 긴 장이나 구절을 암송하는 것

15) 다른 꾸란 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와 둘째 라크아에서 같은 꾸란 장을 암송하는 것

16) 두 번째 라크아에서, 첫 번째 라크아에서 암송했던 장이나 구절 (꾸란의 순서에 따라) 이전의 장이나 구절을 암송하는 것. 예를 들어, 첫 번째 라크아에서는 ‘파티하’ 장 후에 ‘필’장(105장)을, 두 번째 라크아에서는 ‘파티하’ 장 후 ‘꾸라이쉬’장(106장)을 암송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첫 번째 라크아에서는 ‘파티하’ 장 후에 ‘꾸라이쉬’장(106장)을, 두 번째 라크아에서는 ‘파티하’ 장 후 ‘필’장(105장)을 암송한다면 이것은 마크루흐에 해당된다.

17) 첫 번째 라크아에서는 파티하 장 후 다른 한 장을 암송하고 두 번째 라크아에서는 첫 번째 라크아에서 파티하 장 후 암송한 꾸란 장에 뒤이은 장이 아니라 그 다음 장을 암송하는 것. 예를 들어, 첫 번째 라크아에서는 ‘파티하’ 장 후에 ‘필’장(105장)을, 두 번째 라크아에서는 ‘파티하’ 장 후 ‘꾸라이쉬’장(106장) 대신 ‘마운’장(107장)을 암송하는 것은 마크루흐이다. 그러나 두 번째 라크아에서, 첫 번째 라크아에서 ‘파티하’ 장 후 암송한 꾸란 장보다 두개 이상 장을 넘어서 암송하는 것은 마크루흐가 아니다.

18) 예배 도중 윗옷(외투, 점퍼 등)을 입지 않고 어깨에 걸치는 것

19) 성원에서 예배 시 앞줄에 빈자리가 있는데도 뒷줄에 서는 행위

하루 다섯 번 드리는 예배의 방법

예배가 온전한 숭배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파르드, 와집 그리고 순나를 제대로 지켜야 하며 예배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들과 마크루흐가 되는 행위들을 피해야 한다.



새벽(파즈르) 예배를 드리는 방법

새벽(파즈르) 예배는 2라크아 순나, 2라크아 파르드로 총 4라크아이다. 새벽(파즈르) 예배 때는 먼저 순나를 그 다음에 파르드를 근행한다.

새벽(파즈르) '순나'예배의 방법

첫 번째 라크아

1) 예배자는 두 발 사이의 간격이 발가락 4개 정도가 되도록 하여 끼블라(카아바 방향) 쪽으로 향해 선다.

의도

2) ‘저는 알라께 오늘의 ‘파즈르 순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의 시작(타끄비라틀 이흐람)

3) 타끄비라틀 이흐람, 즉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소리 내어 말한다.

*남성의 경우, 두 손바닥을 끼블라 쪽으로 향해 손가락을 살짝 펴서 두 손을 들어 엄지손가락이 귓볼 부근에 닿도록 한다.

*여성의 경우, 두 손바닥을 끼블라 쪽으로 향해 손가락을 살짝 펴서 손가락 끝부분이 어깨 높이에 오를 정도로 든다.

끼얌(서 있는 자세)

4) 타끄비라틀 이흐람을 한 후, 두 손을 내리는 동작에서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이때 시선은 절을 할 때 코와 이마가 닿을 곳을 향한다.

*남성은 오른손바닥이 왼손 위를 잡을 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왼쪽 손목을 잡는 자세로 양손을 배 부근에 둔다.⁷

*여성은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양손을 가슴위에 둔다. 남성처럼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으로 왼쪽 손목을 잡지 않는다.

7 샤피 학파에 의하면 남성은 양손을 가슴위에 둔다. 반면 말리키 학파는 양손을 내린 자세로 서 있다.



끼라아(서 있는 자세에서 꾸란을 암송하는 것)

5) 서 있는 자세에서는 다음의 순서대로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암송하셨던 “수브하나칼라흐마...” 기도문과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마음속으로 암송한다.⁸

루쿠

6)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소리 내어 말하며 루쿠(허리를 굽혀 두 손바닥을 무릎위에 놓는) 자세에서

“**수브하나 랍비얄 아딤**”⁹을 3회 암송한다. 루쿠 자세에서의 시선은 발을 향한다.

*남성은 등과 머리가 수평이 되도록 일직선을 이루어야 하며 양손바닥이 무릎을 감쌀 때 손가락을 살짝 펴야 한다. 무릎과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는다.

*여성은 남성보다 허리를 덜 구부리고 양손바닥이 무릎을 감쌀 때 손가락을 펴지 않으며 무릎도 덜 구부린다.

루쿠 자세에서 허리를 펴는 것

7) 루쿠 자세에서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¹⁰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뒤이어 서 있는 자세로 “**랍바나 왈라칼 함드**”¹¹라고 말한다.

수주드

8)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때 먼저 무릎 다음에 두 손바닥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마와 코가 바닥에 닿도록 한다. 머리는 양 손 사이의 위치에 놓여야 하며 발이 공중에 떠서는 안 된다. 수주드에서의 시선은 코의 양쪽 끝을 응시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얄 아울라**”¹²를 3회 마음속으로 말한다.

8 예배 도중 암송하는 기도문과 일부 꾸란 장은 본서의 뒤에 있는 ‘우두하는 방법’ 부분 이전에 있다.

9 뜻: “가장 위엄하신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10 뜻: “알라께서는 그 분께 찬미 드리는 자를 들으셨습니다.”

11 뜻: “우리의 주님이시여! 당신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12 뜻: “지고하신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남성은 수주드 자세에서 팔은 바닥에 닿지 않고 팔꿈치는 몸에 붙지 않는다. 발은 발가락위에 있도록 똑바로 한다. 손가락은 카아바 방향으로 하되, 양 손바닥은 바닥과 밀착시킨다.

*여성은 수주드 자세에서 팔꿈치가 몸에 붙도록 하고 발은 발가락위에 있도록 똑바로 한다. 손가락은 카아바 방향으로 하되, 양 손바닥은 바닥과 밀착시킨다.

두 수주드 사이에 앉는 것

9)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잠깐 앉는다. 이때 양손은 허벅지 위에 두며 시선은 배를 응시한다. 그리고 “수브하-날라-”를 말할 정도의 시간 동안 앉는다.

*남성은 오른발은 세우며 왼발은 누여 자세를 낮게 하고 손가락을 끼블라 방향으로 한다.

*여성은 앉아 있는 자세에서 양발을 오른쪽으로 누며 엉덩이 위에 앉는다.

10)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올라”를 3회 속으로 말한다.

11)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수주드 자세에서 일어선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수주드 자세에서 일어날 때는 먼저 머리부터 그 다음은 두 손 그리고 두 손이 무릎위에 있는 자세로 일어난다.

타끄비라툴 이흐람을 시작으로 두 번의 절을 하고 일어서게 되는 과정을 ‘제 1 라크아’라고 한다.

두 번째 라크아

1) 서 있는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마음속으로 암송한다.

①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② 파티하 장

③ 꾸란의 다른 장

2) 첫 번째 라크아에서 그랬듯이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며



루쿠(허리를 굽힘)를 하는데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속으로 말한다.

3)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 후 이어서서 있는 자세로 “랍바나 왈라칼 함드”라고 말한다.

4)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말한다.

5)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펴 “수브하날라”를 말할 정도의 잠시의 시간만 앉는다.

6)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말한다.

카다-이 아키라(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앉는 것)

7)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한 후 허리를 펴 앉는다. 이때 양손은 허벅지 위에 두며 시선은 배를 응시한다.

*남성: 오른발은 세우며 왼발은 뉘여 자세를 낮게 하고 발가락을 끼블라 방향으로 한다.

*여성: 앉은 자세에서 양발을 오른쪽으로 뉘여 엉덩이 위에 앉는다.

8) 앉은 자세에서는 다음의 순서대로 말한다.

① “앗-타샤후드”

② “앗-쌀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

③ 기도(예: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끼나 아다반나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쌀람을 하는 것

9) 먼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하며 이 때 시선은 어깨를 응시한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쌀람을 하는 것



10) 그런 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 라흐마툴라”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여 두 라크아의 예배가 완성된다.

새벽(파즈르)예배의 파르드를 드리는 방법

새벽(파즈르)예배의 파르드는 새벽(파즈르)예배의 순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드리는데 다만 의도를 할 때는 ‘순나’ 대신에 ‘파르드’라고 말해야 한다. 또한 남성은 파르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까마를 해야 한다.

새벽(파즈르)예배의 파르드를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도한다.

‘저는 알라께 오늘의 ‘파즈르 파르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¹³

정오(주후르) 예배를 드리는 방법

정오(주후르)예배

총 10라크아 = (파르드 예배 전) 4라크아 순나+4라크아 파르드 + (파르드 예배 후) 2라크아 순나

정오(주후르)예배의 (파르드 예배 전) 순나예배를 드리는 방법

첫 번째 라크아

1) ‘저는 알라께 오늘의 ‘주후르 (파르드 예배 전) 순나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의도한다.

2)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3) 서 있는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수브하나칼라훤마...”,

¹³ 새벽(파즈르) 예배의 파르드를 사진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본서의 마지막 부분(‘예배드리는 방법’)에 있다.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말한다.

4)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허리를 굽힘)를 하는데 이 자세에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반복하여 말한다.

5) 루쿠 자세에서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선 자세로 “**랍바나 왈라칼 함드**”라고 말한다.

6)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반복하여 속으로 말한다.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잠깐 앉는다.

8)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9)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수주드 자세에서 (두 번째 라크야를 위해) 일어선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두 번째 라크야

1) 서 있는 자세로 다음의 순서대로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말한다.

2)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를 하는데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반복하여 속으로 말한다.

3)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선 자세로 “**랍바나 왈라칼 함드**”라고 말한다.

4)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반복하여 속으로 말한다.



5)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앉는다.

6)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을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허리를 펴 앉는다. 앉은 자세에서 “앗-타샤후드”를 말한다. (이를 ‘첫 번째 앉음’이라고 한다.)

8)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앉은 자세에서 (세 번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선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세 번째 라크아

1) 서 있는 자세로 다음의 순서대로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말한다.

2)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를 하는데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속으로 반복한다.

3)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선 자세로 “랍바나 왈라칼 함드”라고 말한다.

4)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을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5)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앉는다.

6)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을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수주드 자세에서 (네 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선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네 번째 라크아

1) 서 있는 자세로 다음의 순서대로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말한다.

2)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를 하는데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속으로 반복한다.

3)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서 있는 자세로 “**랍바나 왈라칼 함드**”라고 말한다.

4)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5)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앉는다.

6)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허리를 펴 앉는다.

8) 앉은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앗-타샤후드”, “앗-쌀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 기도(예: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를 말한다.

9) 먼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 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여 정오(주후르) 예배의 (파르드 예배 전) 4 라크아 순나 예배가 완성된다.

정오(주후르) 예배의 파르드를 드리는 방법

첫 번째 라크아

1) (남성만) 이까마를 한다.



2) ‘저는 알라께 오늘의 ‘주후르 파르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의도한다.

3)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소리 내어 말한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4) 서 있는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수브하나칼라훴마...”,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말한다.

5)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허리를 굽힘)를 하는데 이 자세에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속으로 반복한다.

6) 루쿠 자세에서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선 자세로 “랍바나 왈라칼 함드”라고 말한다.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8)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잠깐 앉는다.

9)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10)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수주드 자세에서 (두 번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선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두 번째 라크아

1) 서 있는 자세로 다음의 순서대로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말한다.

2)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를 하는데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속으로 반복한다.



3)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서 있는 자세로 “**랍바나 왈라칼 함드**”라고 말한다.

4)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5)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앉는다.

6)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허리를 펴 앉는다.

8) 앉은 자세에서 “앗-타샤후드”를 말한다.

9)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앉은 자세에서 (세 번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선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세 번째 라크아

1) 서 있는 자세로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과 파티하장을 속으로 말한다.

2)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를 하는데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속으로 반복한다.

3)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선 자세로 “**랍바나 왈라칼 함드**”라고 말한다.

4)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5)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앉는다.

6)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수주드 자세에서 (네 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선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네 번째 라크아

1) 서 있는 자세로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과 파티하장을 속으로 말한다.

2)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를 하는데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속으로 반복한다.

3)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선 자세로 “랍바나 알라칼 함드”라고 말한다.

4)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5)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앉는다.

6)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허리를 펴 앉는다.

8) 앉은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앗-타샤후드”, “앗-쌀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 기도(예: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를 말한다.

9) 먼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 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여 정오(주후르)예배의 4라크아 파르드예배가 완성된다.

그 다음은 “알라훤마 안탓쌀람, 와 민캣쌀람, 타바-라크타 야



달잘랄리 왈이크람.¹⁴을 말한 후 ‘정오(주후르) 파르드 예배 후 2 라크아 순나예배’를 드린다.

정오(주후르) (파르드 예배 후) 순나예배를 드리는 방법

‘저는 알라께 오늘의 ‘주후르 (파르드 예배 후) 순나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의도한 후 마치 ‘새벽(파즈르) 순나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주후르 (파르드 예배 후) 순나예배를’ 드린다.

오후(아스르) 예배를 드리는 방법

오후(아스르)예배

총 8라크아 = 4라크아 순나 + 4라크아 파르드

오후(아스르)예배의 순나를 드리는 방법

첫 번째 라크아

1) ‘저는 알라께 오늘의 ‘아스르 순나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의도한다.

2)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소리 내어 말한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3) 서 있는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수브하나칼라훤마...”,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말한다.

4)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소리 내며 루쿠(허리를 굽힘)를 하는데 이 자세에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속으로 반복한다.

5) 루쿠 자세에서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선 자세로 “랍바나 왈라칼 함드”라고 말한다.

6)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¹⁴ 뜻: “오, 고귀하시고 관대하신 평화의 알라이시여! 그 평화는 당신으로부터 있습니다. 당신은 은총이시며 가장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잠깐 앉는다.

8)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9)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수주드 자세에서 (두 번째 라크야를 위해) 일어선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두 번째 라크야

1) 서 있는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말한다.

2)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를 하는데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속으로 반복한다.

3)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서 있는 자세로 “랍바나 왈라칼 함드”라고 말한다.

4)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5)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앉는다.

6)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허리를 펴 앉는다.

8) 앉은 자세에서 “앗-타샤후드”와 “앗-쌀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를 말한다.

9)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며 앉은 자세에서 (세 번째 라크야를 위해) 일어선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세 번째 라크아

1) 서 있는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수브하나칼라훤마...”,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말한다.

2)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를 하는데 이 자세에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속으로 반복한다.

3) 루쿠 자세에서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선 자세로 “랍바나 알라칼 함드”라고 말한다.

4)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5)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잠깐 앉는다.

6)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수주드 자세에서 (네 번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선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네 번째 라크아

1) 서 있는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말한다.

2)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를 하는데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속으로 반복한다.

3)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서 있는 자세로 “랍바나 알라칼 함드”라고 말한다.



4)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5)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앉는다.

6)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허리를 펴 앉는다.

8) 앉은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앗-타샤후드”, “앗-쌀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 기도(예: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를 말한다.

9) 먼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 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여 ‘오후(아스르)예배의 4라크아 순나예배’가 완성된다.

***정오(주후르)예배의 (파르드 예배 전) 4라크아 순나예배와 오후(아스르)예배의 4라크아 순나예배를 드릴 때의 차이점은,**

정오(주후르)예배의 (파르드 예배 전) 4라크아 순나예배는 “순나툴 무아까다” 즉,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지속적으로 행하셨지만 아주 가끔 행하지 않으신 숭배행위(파르드나 와집이 아닌)에 속한다. 따라서 두 번째 라크아의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앗-타샤후드”만이 말하며 세 번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설 때는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후(아스르)예배의 4 라크아 순나예배는 “순나티 까이르 무아까다” 즉,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때로는 행하셨고 때로는 행하지 않았던 숭배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두 번째 라크아의 앉은 자세에서는 “앗-타샤후드”와 “앗-살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를 말하고 세 번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설 때는 “수브하나칼라훤마...”,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말하는 것이다.

오후(아스르)예배의 파르드를 드리는 방법

- 1) (남성만) 이까마를 한다.
- 2) ‘저는 알라께 오늘의 ‘아스르 파르드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의도한다.

오후(아스르)예배의 파르드는 마치 정오(주후르)예배의 파르드를 드리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드린다.

저녁(마그립) 예배를 드리는 방법

저녁(마그립)예배

총 5라크아 = 3라크아 파르드 + 2라크아 순나

저녁(마그립)예배의 파르드를 드리는 방법

첫 번째 라크아

- 1) (남성만) 이까마를 한다.
- 2) ‘저는 알라께 오늘의 ‘마그립 파르드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의도한다.

3)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소리 내어 말한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4) 서 있는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수브하나칼라훤마...”,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말한다.

5)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허리를 굽힘)를 하는데 이 자세에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속으로 반복한다.



6) 루쿠 자세에서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를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선 자세로 “**랍바나 알라칼 함드**”를 말한다.

7)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얄 아을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8)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잠깐 앉는다.

9)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얄 아을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10)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며 수주드 자세에서 (두 번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선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두 번째 라크아

1) 서 있는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말한다.

2)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며 루쿠를 하는데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얄 아딤**”을 3회 속으로 반복한다.

3)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서 있는 자세로 “**랍바나 알라칼 함드**”를 말한다.

4)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얄 아을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5)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앉는다.

6)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얄 아을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허리를 펴 앉는다.

8) 앉은 자세에서 “앗-타샤후드”를 말한다.

9)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며 앉은 자세에서 (세 번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선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세 번째 라크아

1) 서 있는 자세로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과 파티하장을 속으로 말한다.

2)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를 하는데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속으로 반복한다.

3)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선 자세로 “랍바나 알라칼 함드”라고 말한다.

4)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5)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앉는다.

6)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허리를 펴 앉는다.

8) 앉은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앗-타샤후드”, “앗-살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 기도(예: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야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를 말한다.

9) 먼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앗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다. 그런 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앗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여 ‘저녁(마그립)예배의 3라크아 파르드예배’가 완성된다.

저녁(마그립)예배의 순나를 드리는 방법

‘저는 알라께 오늘의 ‘마그립 순나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의도한다. 저녁(마그립)예배의 순나는 새벽(파즈르) 순나예배의 방법과 같다.

밤(이샤) 예배를 드리는 방법

밤(이샤) 예배

총 10라크아 = (파르드 예배 전) 4라크아 순나 + 4라크아 파르드 + (파르드 예배 후) 2라크아 순나

밤(이샤)예배의 (파르드 예배 전) 순나를 드리는 방법

‘저는 알라께 오늘의 ‘이샤 (파르드 예배 전) 순나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의도한다.

밤(이샤)예배의 (파르드 예배 전) 순나는 오후(아스르) 순나예배의 방법과 같으며 이 두 예배 모두 “순나티 까이르 무아까다”에 속한다.

밤(이샤)예배의 파르드를 드리는 방법

- 1) (남성만) 이까마를 한다.
- 2) ‘저는 알라께 오늘의 ‘이샤 파르드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의도한다.

밤(이샤)예배의 파르드는 정오(주후르) 파르드예배의 방법과 같다.

밤(이샤) 예배의 (파르드 예배 후) 순나를 드리는 방법

‘저는 알라께 오늘의 ‘이샤 (파르드 예배 후) 순나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의도한다.



이샤 (파르드 예배 후) 순나예배는 새벽(파즈르) 순나예배의 방법과 같다.

위트르 예배를 드리는 방법

밤(이샤) 예배 이후에 드리는 3라크아의 위트르예배¹⁵는 다른 예배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라크아에서 파티하 장과 꾸란의 다른 장을 말한 후 곧바로 루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루쿠를 하는 대신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한 후 두 손바닥을 끼블라 쪽으로 향하며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그런 후 꾸누트 기도를 암송하고 나서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고 루쿠를 한다.

위트르 예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라크아

1) ‘저는 알라께 오늘 밤의 위트르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의도한다.

2)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3) 서 있는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수브하나칼라훤마...”,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말한다.

4)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허리를 굽힘)를 하는데 이 자세에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속으로 반복한다.

5) 루쿠 자세에서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선 자세로 “랍바나 왈라칼 함드”라고 말한다.

6)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¹⁵ 위트르 예배는 3 라키아를 이어서 드려도 되고 2라키아 후 앓-살람을 하고나서 다시 1라키아를 드려도 됩니다.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잠깐 앉는다.

8)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을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9)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수주드 자세에서 (두 번째 라크야를 위해) 일어난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두 번째 라크야

1) 서 있는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말한다.

2)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를 하는데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속으로 반복한다.

3)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선 자세로 “랍바나 왈라칼 함드”라고 말한다.

4)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을라”를 3회 반복하여 속으로 말한다.

5)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앉는다.

6)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을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허리를 펴 앉는다.

8) 앉은 자세에서 “앗-타샤후드”를 말한다.

9)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앉은 자세에서 (세 번째 라크야를 위해) 일어난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세 번째 라크아

1) 서 있는 자세에서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과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말한다.

2)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두 손바닥을 끼블라 쪽으로 향하며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3) 꾸누트 기도¹⁶를 암송한다. (꾸누트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 대신에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라고 말한다.)

4)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를 하는데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3회 속으로 반복한다.

5)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선 자세로 “**랍바나 알라칼 함드**”라고 말한다.

6)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앉는다.

8)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9)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허리를 펴 앉는다.

10) 앉은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앗-타샤후드”, “앗-쌀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 기도(예: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를 말한다.

11) 먼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 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다.

¹⁶ 372 쪽을 참조



이렇게 하여 ‘3라크아 위트르예배’가 완성된다.

예배 후의 기도문

파르드예배가 끝나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اللَّهُمَّ أَنْتَ السَّلَامُ وَمِنْكَ السَّلَامُ تَبَارَكْتَ يَا ذَا الْجَلَالِ وَالْإِكْرَامِ

“알라훤마 안타쌀람, 와 민카쌀람, 타바-라크타 야 달잘랄리
알이크람.”¹⁷

파르드예배 후에 순나예배가 없으면 (새벽(파즈르)예배와 오후(아스르)예배처럼) 다음을 말한다.

اللَّهُمَّ صَلِّ عَلَى سَيِّدِنَا مُحَمَّدٍ وَعَلَى آلِ سَيِّدِنَا مُحَمَّدٍ

“알라훤마 빨리 알라 세이디나 무함마딘 와알라 알리 세이디
나 무함만.”¹⁸

만일 파르드예배 후에 순나예배가 있으면(정오(주후르), 저녁(마그립) 그리고 밤(이샤)예배처럼) 순나예배를 드린 후 위의 기도문을 하고
이어서 다음 기도를 말한다.

سُبْحَانَ اللَّهِ وَالْحَمْدُ لِلَّهِ وَ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اللَّهُ أَكْبَرُ وَلَا حَوْلَ وَلَا قُوَّةَ إِلَّا بِاللَّهِ
الْعَلِيِّ الْعَظِيمِ

“수브하날라히 왈함두 릴라히 와 라 일라하 일랄라후 왈라후
아크바르 와 라 하울라 왈라 꾸와타 일라빌라힐 알리울 아딤.”¹⁹

이어서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
라흐마 니르라힘”을 말한 후 “아야툴 쿠르씨(꾸란 2장 255절)”를 말
한다.

17 뜻: “오, 알라! 당신은 평화이시며 당신으로부터 평화가 비롯되며 장엄함과 명예
로움을 지니신 오, 당신은 축복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18 뜻: “오, 알라! 우리의 귀감인 무함마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
감인 무함마드의 가족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19 뜻: “알라께 모든 영광을 드리나이다. 모든 찬미는 알라께 있나이다. 알라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도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 외에는 악을 저지하거나 선행
을 할 힘을 가진 존재가 없느니라. 그 분께서는 가장 높이 계시노라.”



اللَّهُ لَا إِلَهَ إِلَّا هُوَ الْحَيُّ الْقَيُّومُ لَا تَأْخُذُهُ سِنَّةٌ وَلَا نَوْمٌ لَهُ مَا فِي السَّمَوَاتِ
وَمَا فِي الْأَرْضِ مَنْ ذَا الَّذِي يَشْفَعُ عِنْدَهُ إِلَّا بِإِذْنِهِ يَعْلَمُ مَا بَيْنَ أَيْدِيهِمْ وَمَا
خَلْفَهُمْ وَلَا يُحِيطُونَ بِشَيْءٍ مِنْ عِلْمِهِ إِلَّا بِمَا شَاءَ وَسِعَ كُرْسِيُّهُ السَّمَوَاتِ
وَالْأَرْضَ وَلَا يَئُودُهُ حِفْظُهُمَا وَهُوَ الْعَلِيُّ الْعَظِيمُ

“알라후 라 일라하 일라 후왈 하이울 까이움
라타으쿠두후 시나툰 왈라나움
라후 마핏싸마와티 와 마필아르드
만달라디 야쉬파우 인다후 일라 비이드니히
야을라무 마 바이나 아이디힘 와 마 칼파흠
왈라 유희뚜나 비세이인 민일미히 일라 비마샤아
와시아 쿠르시유훗 싸마와티 왈아르드
왈라 야우두후 히프두후마 와후왈 알리울 아딤.”

뜻: 알라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 분은 살아 계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라.

졸음도 잠도 그 분을 엄습하지 못하노라.

천지의 모든 것이 그 분의 것이니

그 분의 허락 없이 어느 누가 알라 앞에서 중재할 수 있겠느냐?

그 분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그들은 그 분에 대하여 그 분이 허락한 것 외에는

그 분의 지식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모르니라.

권자가 천지에 펼쳐져 있어 그것을 보호하는데 피곤하지 아니하시니

그 분은 가장 높이 계시며 가장 거룩하시니라.

그 다음은 알라를 영원하는 아래의 말씀을 말한다.

اللَّهُ سُبْحَانَ اللَّهِ “수브하날라” 33번



اَلْحَمْدُ لِلّٰهِ “알함두릴라” 33번

اَللّٰهُ اَكْبَرُ “알라후 아크바르” 33번

마지막으로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حْدَهُ لَا شَرِيكَ لَهُ، لَهُ الْمُلْكُ وَلَهُ الْحَمْدُ وَهُوَ عَلَى كُلِّ شَيْءٍ
قَدِيرٌ

“라일라하 일랄라후 와흐다후 라샤리칼라후, 라홀 물쿠 와라
홀 함두 와후와 알라 클리샤이인 까디르.”²⁰

예배가 끝난 후에는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권장하신 다음의 기도문을 말할 수 있으며 알라께 간청할 것들
기도드려도 된다. 양손을 가슴높이까지 올려 기도드린다.

“온 우주의 주님이신 알라께 찬미를 드립니다. 예언자 무함마
드와 그 분을 따르는 이들과 그 분의 교우들 모두에게 알라의 자
비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 알라!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현세와 내세에서 고난과 슬픔을 초래
할 일들과 적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고민들로부터 당신께 안식처
를 구합니다.

오, 알라!

부디 저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저희를 보호해주시시오.

저희에 대하여 만족하시고 저희가 행하는 숭배행위들을 받아
들여주시시오.

저희를 천국에 들게 하시고 지옥으로부터 멀리해주시시오.

현세와 내세의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²⁰ 뜻: “알라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도다. 그 분께서는 어떤 동반자도 없는 홀로
계신 분이시니라. 만물과 영광이 그 분의 것이며 생명을 부여하고 또 앗아가나니
그 분은 살아 계시오다. 그 분의 손에 자비가 있으며 그 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는 어떤 힘도 권한도 없으니라.”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당신을 더 잘 숭배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오, 알라!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를 좋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현세의 슬픔과 내세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주십시오.

오, 알라!

저희는 당신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관용을 간구합니다.

어떠한 죄에도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모든 선행에 대한 당신의 보물을 간구합니다.

천국의 승리를 안겨주시고 지옥으로부터 구하여주십시오.

오, 알라!

저희가 지었던 죄들 중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겪은 슬픔 중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기쁨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에게 모든 빛을 갚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당신께서 만족하시도록 저희가 현세와 내세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베풀어주십시오.

당신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알라!

저희를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축복하여 주시고 불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하여주십시오.



당신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니 은혜를 베풀어주시십시오.

오, 알라!

저와 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심판의 날 당신의 관용으로 용서해주십시오.

당신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니 은혜를 베풀어주시십시오.

모든 예언자들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무한한 영광은 온 우주의 주님이신 알라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도문을 말한 후 다음의 기도를 하며 양손으로 얼굴을 쓰다듬는다.

سُبْحَانَ رَبِّكَ رَبِّ الْعِزَّةِ عَمَّا يَصِفُونَ وَسَلَامٌ عَلَى الْمُرْسَلِينَ
وَ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수브하~나 랍비카 랍빌 잇자티 암마 야시푸나 와 싘라문 알랄 무르살리-나 왈 함두 릴라히 랍빌 알라~민.”²⁰

질문:

- 1) 예배의 중요성을 설명하십시오.
- 2) 예배는 누구에게 의무인가?
- 3)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예배를 피해야 하는 시간에 대해 말하십시오.
- 4) 예배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 5) 예배에 대한 파르드(절대의무) 원칙은 무엇인가? 예배의 순서와 관계가 있는 조건들은 무엇인가?



- 6) 예배의 루쿤(예배 중에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7) 예배에 대한 와집과 순나 행위들은 무엇인가?
- 8) 예배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들은 무엇인가?
- 9) 예배시의 마크루흐(상대금지) 행위들은 무엇인가?
- 10) 4라크아 파르드 예배와 4라크아 순나 예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11) “순나툼 무아까다”와 “순나티 까이르 무아까다” 예배를 드릴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12) 다른 예배와는 달리 위트르 예배 때 암송하는 것은 무엇인가?
- 13) 예배가 끝난 후에는 무엇을 암송하는가?

5. 예배 (II)



주제:

- 수주듯 사흐우(예배 중 생긴 착오의 만회를 위한 부복)
- 합동예배의 보상
- 성원에서 지켜야 할 예의, 합동예배의 방법
- 금요일과 금요합동(주므아)예배 그리고 금요합동(주므아)예배를 드리는 방법
- 이드예배
- 타고비르 타쉬리크
- 타라위흐예배
- 앉은 자세와 암시로 드리는 예배
- 여행자예배
- 까다(보충)예배
- 사즈다툴 툴라와트(꾸란의 사즈다 구절을 읽을 때나 들을 때 행하는 절)
- 장례예배



수주듯 사흐우(예배 중 생긴 착오의 만회를 위한 부복)

예배 도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배자는 ‘수주듯 사흐우’를 행해야 한다.

1) 잊었거나 실수로 인해 예배의 지정된 시기에 행해야 할 파르드(절대의무) 의식을 늦게 행한 경우

2) 잊었거나 실수로 인해 예배의 지정된 시기에 와집(필요의무) 의식을 늦게 또는 행하지 않은 경우

예배 도중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예배의 마지막부분에 두 번의 절을 하는데 이를 ‘수주듯 사흐우’라고 하며 이것은 와집이다. 두 번의 절을 함으로써 예배 중의 착오를 만회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의 파르드 의식 중 하나를 잊었거나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배가 무효되므로 ‘수주듯 사흐우’를 행할 수 없으며 예배를 다시 드려야 한다. 예를 들어, 루쿠를 하는 것을 잊고 바로 수주드를 했다면 ‘수주듯 사흐우’를 행할 수 없고 예배를 다시 드린다. 또한 와집 의식 중 하나를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배를 다시 드려야 한다.

‘수주듯 사흐우’의 실시방법

예배 도중 예배의 파르드나 와집 의식 중 하나를 늦게 행했거나 예배의 와집 의식을 행하지 않은 경우에 예배의 마지막 앉은 자세에서 “앗-타샤후드”를 말한 후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 후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절)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마음속으로 반복한다. 그런 후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고 허리를 펴 앉는다.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며 두 번째로 엎드려 수주드(절)를 하고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마음속으로 반복한다. 그런 후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고 허리를 펴 앉는다. 이제 다시 이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앗-타샤후드”, “앗-쌀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 기



도(예: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 반나르)를 말한다. 그리고 먼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 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다.

합동예배의 보상

이슬람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합동예배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 알라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고귀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더욱 깊어진다. 예배와 더불어 이슬람에 대한 지식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눌 수도 있으며 모인 형제들 중 신앙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도 있다. 신앙이 강한 형제의 올바르고 고귀한 행동을 곁에서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천사들처럼 알라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무슬림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합동 예배는 혼자서 드리는 예배보다 27배의 더 큰 보상이 있느니라.”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밤(이샤)예배에 참여한 자는 밤의 앞부분(밤을 반으로 나눌 때)을 예배드리는 것과 같으니라. 새벽(파즈르)예배에 참여한 자는 밤새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으니라.” (무슬림이 전함)

“누군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우두를 정갈히 하고 성원으로 향할 때,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알라의 축복이 더해지고, 그가 지은 죄 하나하나가 씻겨 나가게 되느니라.”

(앗-타르킵 왓-타르힉, 1권 260쪽)

파드르예배는 혼자서도 드릴 수 있지만 성원에 가서 다른 무슬림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하



지만 순나나 나팔(자발)예배는 다른 무슬림들과 함께 드리지 않는다. 라마단 달에 드리는 타라위흐 예배는 순나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또는 합동으로 드릴 수 있다. 또한 위트르 예배는 와집이지만 라마단 달에는 합동으로 드릴 수 있다. 금요합동(주므야)예배와 이드예배는 반드시 합동으로 드려야 한다.

성원에서 지켜야 할 예의

성원은 무슬림들이 알라께 숭배를 드리는 고귀한 장소로,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며 ‘알라의 집’이라고 한다. 알라께 숭배를 드리기 위해 성원을 방문하는 무슬림은 알라의 손님 또는 방문객이라 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듯이 성원을 방문하는 무슬림들에게 알라께서 큰 보상을 베푸실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صل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우두를 정갈히 하고 성원으로 가는 자는 알라의 방문자이니라. 알라께서는 그 분을 방문하는 자를 대접하실 것이니라.”

(앗-타르킵 왓-타르힉, 1권 214쪽)

성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이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 1) 우두를 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간다.
- 2) 성원에 들어갈 때는 오른발로 들어가면서 예언자를 위해 다음의 기도를 한다.

“알라훤마 쏘리 알라 무함마딘 와알라 알리 무함맘”

오, 알라! 무함마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함마드의 가족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 3) 성원에서 나갈 때는 왼발로 나간다.
- 4) 깨끗한 발이나 양말로 들어간다.



-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리를 펴서 앉지 않는다.
- 6)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말아야 하며 세속적인 대화를 삼간다.
- 7) 양파나 마늘 등으로 인해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성원에 오는 것을 피해야 하며 트림 등과 같이 옆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 8) 누군가 꾸란을 읽고 있거나 이슬람강의가 진행 중이라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경청한다.
- 9) 성원에 늦게 도착한 무슬림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아야 하며 앉아 있는 다른 무슬림 형제(자매)의 어깨를 넘어서 지나가지 말아야 한다.

성원이란 어떤 곳인가?

한 국가의 상징물이 되기도 하는 성원은 무슬림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핵심 장소로서 지역사회의 무슬림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무슬림들의 역사가 깃드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슬람역사상 많은 훌륭한 성원 건축가들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경이로운 성원들을 건축했으며 그 기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와 이슬람성원을 건축할 때 사용되고 있다.

마스지드(이슬람성원)

‘이슬람 성원’을 뜻하는 ‘마스지드’라는 말은 ‘엮드리는 장소’라는 의미의 아랍어이다. 인간이나 동물과 같은 어떠한 형상이나 동상, 그림 또는 사진은 마스지드 내에 존재할 수 없으며 마스지드는 오직 알라께 엮드려 숭배 드리는 장소이다.

다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슬람성원들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메카에 있는 **하람성원(마스지드 하람)**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메디나에 있는 **예언자의 성원**(마스지드 나바위)

-꾸두스(예루살렘)에 있는 **아끄사 성원**(마스지드 아끄사)

성원의 주요부분들

미흐랍(Mihrab)

전 세계 모든 무슬림의 예배방향은 오직 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 방향을 ‘끼블라(Qibla;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카아바 방향)’라고 한다. 성원의 예배실에는 벽면이 반원형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를 ‘미흐랍(Mihrab)’이라고 한다. 이 부분의 목적은 성원을 처음 찾아온 예배자들로 하여금 끼블라 방향 즉, 예배드리고 있는 방향을 쉽게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민바르(Minbar)

미흐랍의 바로 오른쪽에는 계단으로 된 설교대.

금요일 합동예배나 이드 예배 때 이맘이 이곳에 올라가 설교를 한다.

미나렛(Minaret)

예배시간을 육성으로 알리기 위해 성원 옆에 건축된 첨탑.

세레페(Sherefe)

미나렛에서 아단을 부르는 장소. 미나렛 내부의 계단을 통해 여기에 도달한다.

일반적으로는 미나렛에는 세레페가 하나만 있지만 여럿 있는 경우도 있다.

알렘(Alem)

미나렛의 꼭대기에 설치된 초승달모양의 부분.



합동예배를 드리는 방법

1. 예배의 첫 번째 라크아에서 이맘을 따르는 경우

이맘의 인도 하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예배에 대한 의도뿐만 아니라 이맘을 따를 것이라는 의도도 함께 행한다. ‘정오(주후르) 파르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자.

1) ‘저는 이맘의 인도에 따라 알라께 오늘의 ‘주후르 파르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의도한다. 모든 합동 예배에서 이맘의 인도 하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의도할 때 “이맘의 인도에 따라”라는 말을 추가해야 한다.

2) 이맘이 (두 손바닥을 끼블라 쪽으로 향하며 손가락을 살짝 펴서 두 손을 들어 엄지손가락이 귓볼 부근에 닿도록 하여)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면 예배자들도 이맘에 이어서 똑같이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그리고 “수브하나칼라훤마...”를 속으로 말한다. 이 기도문 이외에는 서 있는 자세에서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맘이 파티하 장을 암송한 후에는 예배자들은 속으로 ‘아~민’이라고 말한다.

3) 루쿠를 할 때는 예배자들은 “수브하나 랍비얄 아딤”을 3회 속으로 반복한다. 이맘이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를 말하며 허리를 펴면 예배자들도 허리를 편 후 서 있는 자세로 “랍바나 왈라칼 함드”를 소리 내어 말한다.

예배자들은 수주드 자세에서도 “수브하나 랍비얄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반복한다.

4) 앉은 자세에서 예배자들은 이맘과 함께 “앗-타샤후드”,

“앗-살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기도(예: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를 속으로 말한다. 그리고 이맘과 함께 고개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리며 “앗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다.



이맘의 인도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타끄비라툴 이흐람(알라후 아크바르)을 할 때나 루쿠를 할 때 또는 루쿠에서 허리를 펼 때나 수주드할 때 그리고 수주드에서 허리를 펴 앉거나 고개를 돌릴 때 반드시 이맘의 인도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이맘의 행동보다 앞서서 행해서는 안 된다. 즉, 이맘의 행동 반 박자 후에 그 행동을 따라한다.

만약 이맘이 루쿠자세에서 아직 몸을 바로 세우지 않았을 때 예배시간에 늦은 예배자가 얼른 의도를 하고 타끄비라툴 이흐람을 한 후 바로 루쿠자세에 동참했다면 그 예배자는 예배를 처음부터 함께 드린 것으로 간주된다.

2. 예배의 두 번째 라크아에서 이맘을 따르는 경우

첫 번째 라크아를 놓친 자는 아직 예배 전체를 놓친 것이 아니므로 얼른 의도를 하고 타끄비라툴 이흐람을 한 후 이맘의 인도에 따라 예배에 참석한다. 그는 예배의 마지막 앉아 있는 자세에서 “앗-타샤후드”를 외운 후 이맘이 고개를 돌리기를 기다린다. 이맘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 때 처음에 놓쳤던 라크아를 메꾸기 위해 고개를 돌리지 않고 바로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일어선다. 서 있는 자세에서는 “수브하나칼라흐마...”,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암송한다. 그 다음 루쿠와 수주드를 행하고 허리를 펴 앉는다. 이 자세에서 “앗-타샤후드”, “앗-살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기도(예: 랍바나 아티나 피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를 말한 후 고개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리며 “앗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하며 예배를 마친다.

3. 예배의 세 번째 라크아에서 이맘을 따르는 경우

4 라크아로 구성된 예배의 세 번째 라크아부터 예배에 참석한 자는 예배의 마지막 앉아 있는 자세에서 “앗-타샤후드”를 외운 후 이맘이 고개를 돌리기를 기다린다. 이맘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바로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고 일어서서 놓쳤던 2라크아를 다음과 같이 드린다.

서 있는 자세에서는 “수브하나칼라훤마...”,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암송한다. 그 다음 루쿠와 수주드를 행하고 다시 일어선다. 그 자세에서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암송한 후 루쿠와 수주드를 하고 허리를 펴 앉는다. 이 자세에서는 “앗-타샤후드”, “앗-살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기도(예: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를 외운 후 고개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리며 “앗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하며 예배를 마무리한다.

3 라크아로 구성된 저녁(마그립)예배와 위트르 예배의 세 번째 라크아부터 예배에 참석한 자는 이맘과 함께 세 번째 라크아를 드린다. 앉아 있는 자세에서 “앗-타샤후드”를 말한 후 이맘이 고개를 돌리기를 기다린다. 이맘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바로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일어선다. 서 있는 자세에서 “수브하나칼라훤마...”,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외우고 루쿠와 수주드를 행한 후 허리를 펴 앉는다. 이 자세에서는 “앗-타샤후드”만을 말한다.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일어선다. 서 있는 자세에서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암송하고 루쿠와 수주드를 행하고 나서 허리를 펴 앉는다. 이 자세에서 “앗-타샤후드”, “앗-살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기도(예: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를 말한 후 고개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리며 “앗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하며 예배를 마무리한다.



4. 예배의 네 번째 라크아에서 이맘을 따르는 경우

4 라크아로 구성된 예배의 네 번째 라크아부터 예배에 참석한 자는 이맘과 함께 네 번째 라크아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앉아 있는 자세에서 “앗-타샤후드”를 말한 후 이맘이 고개를 돌리기를 기다린다. 이맘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바로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일어선다. 서 있는 자세에서 “수브하나칼라흐마...”,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암송하고 루쿠와 수주드를 행한 후 허리를 펴 앉는다. 이 자세에서 “앗-타샤후드”만을 말한다. 다시 한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일어선다. 서 있는 자세에서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속으로 외우고 루쿠와 수주드를 행하고 나서 다시 일어선다. 서 있는 자세에서는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과 파티하 장만을 속으로 암송하고 루쿠와 수주드를 한 후 허리를 펴 앉는다. 이 자세에서 “앗-타샤후드”, “앗-살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기도(예: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를 말한 후 고개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리며 “앗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하며 예배를 마무리한다.

이맘이 마지막 루쿠 자세에서 일어난 후부터 예배에 참석한 자는 이맘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바로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일어선다. 그리고 놓친 모든 라크아를 드려 예배를 마무리한다.

금요일과 금요합동(주므아)예배

무슬림들에게 1주일 중 가장 중요한 날은 금요합동(주므아)예배일이다. 따라서 매주 금요일은 무슬림들에게 알라의 축복이 가득한 작은 축제일과 마찬가지로이며 모두 기쁜 마음으로 성원에 모



여 함께 예배와 기도를 드린다. 성원에 올 때는 순나에 따라 가급적 구슬(전체세정)을 한 후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온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우두를 완벽하게 하고 금요합동예배에 참석하며 조용히 쿠뜨바(설교)를 경청한다면 금요일과 금요일 사이, 그리고 3일을 더한 날들 동안에 지은 작은 죄들이 용서되느니라.”

(리야둣 쌀-리히-인, 210장 1148번)

금요합동(주므아)예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총 ‘10라크아’=(파르드 예배 전) 4라크아 순나+2라크아 파르드+(파르드 예배 후) 4라크아 순나
- 정오 시간에 드리므로 정오(주후르)예배를 대체한다.
- 반드시 개인이 아닌 합동으로 드려야 한다.
- 만약 금요합동(주므아)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개인적으로 정오(주후르)예배를 드려야 한다.

금요합동(주므아) 예배는 누구에게 의무인가?

- 1) 남성(여성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 2) 자유인
- 3) 거주자
- 4) 몸이 건강한 자
- 5)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
- 6) 걸을 수 있는 자

위의 6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금요합동(주므아) 예배가 의무이다. 만약 이 6조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성원에 가서 금요합동(주므아)예배를 드렸다면 그가 행한 예배는 정오(주후르)예배로 간주된다.



올바르고 완전한 금요합동(주므아)예배가 되려면 다음의 6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1) 정오(주흐르)예배 시간에 드려야 한다.
- 2) 파르드 예배 전에 쿠뜨바(설교)를 해야 한다.
- 3) 금요합동(주므아)예배의 장소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 4) 이맘을 제외하고 적어도 세 사람은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 5) 이맘은 공무원이어야하고 예배인도의 자격을 갖춘 무슬림이어야 한다.
- 6) 금요합동(주므아)예배의 장소는 도시나 도시로 여길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금요합동(주므아)예배를 드리는 방법

금요일에는 정오 시간에 아단이 올린 후 4라크아 순나예배를 드린다. 순나예배를 위한 의도는 다음과 같다. “저는 알라께 오늘의 ‘주므아 (파르드 예배 전) 순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요합동(주므아)예배의 (파르드 예배 전) 순나는 정오(주흐르)예배의 (파르드 예배 전) 순나 예배와 똑같다. 순나 예배가 끝난 후 성원 예배실 내에서 다시 한 번 아단이 올린다. 그런 후 이맘이 민바르에 올라가서 쿠뜨바를 한다. 쿠뜨바가 끝나면 이까마를 하고 이맘의 인도와 함께 금요합동예배의 2라크아 파르드예배를 드린다. 이맘의 인도 하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의도한다. “저는 알라께 이맘의 인도에 따라 오늘의 ‘주므아 파르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파르드 예배 후 주므아의 ‘4라크아 (파르드 예배 후) 순나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의 방법도 금요합동예배의 (파르드 예배 전) 순나와 똑같다. ‘4라크아 (파르드 예배 후) 순나 예배’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저는 알라께 오늘의 ‘주므아 (파르드 예배 후) 순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금요합동(주므아)예배가 완성된 것이다.

이드(축제) 예배

무슬림 간의 연례 재회의 특성을 아울러 갖는 것이 바로 이드 예배이다. 이드 예배를 통해 무슬림들은 서로 만나 이드의 기쁨을 함께 하며 알라 안에서 결속하고 단결하게 된다.

모든 무슬림들은 다음과 같이 해마다 두 번의 이드를 맞이하

1) 이드 피뜨르

2) 이드 아드하

이드예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금요합동예배가 파르드(절대의무)가 되는 무슬림에게 이드예배는 와집(필요의무)이다.¹

- 두 라크아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집단으로 드린다.

- 아단이나 이까마를 부르지 않는다.

- 이드예배 때 쿠뜨바를 하는 것은 순나이며 쿠뜨바는 예배 후에 한다. (금요합동 예배 때의 쿠뜨바는 파르드이며 예배 전에 한다)

- 다른 예배와는 달리 첫 번째 라크아에서 타끄비르(알라후 아크바르)를 3회² 말하고, 두 번째 라크아에서도 타끄비르를 3회³ 말한다. 이를 ‘자와이드 타끄비르’라고 한다.

1 한발리 학파에 의하면 이드 예배는 ‘파르드 키파야’이고 샤피와 말리크 학파에 의하면 ‘순나트 무앗카다’이다.

2 샤피 학파에 따르면 첫 번째 라크아에서 타끄비르(알라후 아크바르)를 7회 말한다. 또한 말리키와 한발리 학파에 의하면 첫 번째 라크아에서 타끄비르(알라후 아크바르)를 6회 말한다.

3 샤피, 말리키와 한발리 학파에 따르면 두 번째 라크아에서 타끄비르(알라후 아크바르)를 5회 말한다.



이드 예배를 드리는 방법

‘이들 피뜨르 예배’를 드리는 방법

1. 첫 번째 라크아

1) 이맘의 인도 하에 예배드리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의도한다.

“저는 알라께 이맘의 인도에 따라 오늘의 ‘이들 피뜨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2) 이맘이 (두 손바닥을 끼블라 쪽으로 향하며 손가락을 살짝 펴서 두 손을 들어 엄지손가락이 컷불 부근에 닿도록 하며) “알라후 아크바르”(타끄비라를 이흐람)라고 말하면 예배자들도 그의 행동과 말을 따라한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3) 이맘과 예배자들은 “수브하나칼라훴마...”를 속으로 말한다. 그 후 3회 다음과 같이 타끄비르를 한다.

첫 번째 타끄비르: 이맘이 (타끄비라를 이흐람을 하듯이 두 손바닥을 끼블라 쪽으로 향하며 손가락을 살짝 펴서 두 손을 들어 엄지손가락이 컷불 부근에 닿도록 하며)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소리 내면 예배자들도 그의 행동을 따라하며 속으로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고 양 손을 내린다. 잠시 기다린다.

두 번째 타끄비르: 첫 번째 타끄비르와 동일.

세 번째 타끄비르: 첫 번째 타끄비르와 동일하나 양손을 내리는 대신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4) 이맘이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을 속으로,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소리 내며 암송한다. (예배자들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이맘의 소리를 듣는다.)

5) 루쿠와 수주드를 한 후 두 번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서서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2. 두 번째 라크아

6) 이맘이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을 속으로, 파티하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소리 내어 암송한다. 그 다음 이맘은 소리 내어서, 예배자들은 속으로 (첫 번째 라크아에서 했듯이) 3번 타끄비르를 한다. 세 번째 타끄비르 후에는 양손을 내린다. 네 번째의 타끄비르를 한 다음 루쿠와 수주드를 한다.

7) 이맘과 예배자들은 앉은 자세에서 “앗-타샤후드”, “앗-살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 기도(예: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 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를 말한 후 고개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리며 “앗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다. 이맘은 이드 예배 후 쿠뜨바를 한다.

‘이들 아드하 예배’를 드리는 방법

1) 예배자들은 이맘 뒤에 도열한 후 다음과 같이 의도한다.

“저는 알라께 이맘의 인도에 따라 오늘의 ‘이들 아드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2) 이맘이 (두 손바닥을 끼블라 쪽으로 향하며 손가락을 살짝 펴서 두 손을 들어 엄지손가락이 귓볼 부근에 닿도록 하며)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면 뒤에 서 있는 예배자들도 이어서 똑같이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그 다음은 ‘이들 피뜨르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똑같다. 예배 후에는 이맘이 쿠뜨바를 한다.

‘타끄비르 타쉬리크’

타끄비르 타쉬리크는 둘 히자 달(12월)의 9번째 날(이들 아드하 전날) 새벽(파즈르)예배부터 13번째 날 오후(아스르)예배까지의 모든 파르드 예배 직후에 소리 내어 암송하며 이는 권장사항이다.

타끄비르 타쉬리크는 다음과 같다.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라-일라-하 일랄라후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와 릴라-힐 함드.”**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 외에는 숭배 받을 준재가 없
도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께서는 찬미를 받으시는 분이
시니라

타끄비르를 하는 것은 거주자이든 여행자이든 개인 또는 합동
으로 파르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남녀무슬림에게 권장되며 남성은
적당한 소리로, 여성은 작은 소리로 한다.

만일 타끄비르 타쉬리크를 하는 기간(5일)동안 그전에 놓쳤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 예배 후에 타끄비르 타쉬리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타끄비르 타쉬리크 기간이 지나간 후 놓쳤던 예배
를 드리고자 한다면 타끄비르 타쉬리크를 하지 않는다.

이드를 임하는 자세

- 이드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구슬하고 향수를 바르고 깨끗
한 옷차림으로 성원에 간다.

-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기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
넨다.

-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준다.

- 무슬림형제(자매)에게 이드축하인사를 하고 어른들을 방문
한다.

- 이미 세상을 떠난 친지들을 위해 자선을 행하고 그들의 무
덤을 방문하여 꾸란을 암송하고 그들을 위해 알라께 기도드린다.

-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이 화해하도록 중재한다.

- 어린이들에게 축복받은 이드 날을 경험하게 해주며 작은 선
물을 준다.



타라위흐 예배

타라위흐 예배의 특징

- 20라크아로 이루어져 있다.
- 남녀모두에게 “**순나를 무아까다**(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지속적으로 행하셨지만 가끔은 행하지지 않은 숭배행위로, 파르드나 와집이 아니다.)”이다.
- 라마단 달 동안에 드린다.
- 병중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단식을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권장된다. 개인적 또는 합동으로 드릴 수 있는데, 성원에서 합동으로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더 큰 보상을 얻는다.

타라위흐 예배의 보상에 관하여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누군가 라마단 단식월 밤에 진심으로 타라위흐 예배를 드리고 알라께로부터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면 그가 지었던 과거의 죄들이 용서될 것이니라.”

(리야둡 쌀-리히-인, 213장 1187번)

타라위흐 예배를 드리는 방법

타라위흐 예배는 밤(이샤)예배 후 위트르 예배 전에 드린다. 위트르 예배는 타라위흐 예배 전에도 드릴 수 있다. 그러나 타라위흐 예배는 밤(이샤)예배 전에 드릴 수 없다.

20라크아의 타라위흐 예배는 2라크아씩 드리거나 4라크아씩 드릴 수도 있다.⁴

타라위흐 예배를 합동으로 2라크아씩 드리는 방법

‘밤(이샤)예배 파르드’와 ‘(파르드 예배 후) 순나예배’를 드린 후 타라위흐 예배를 시작한다.

4 샤푸 학파에 의하면 타라위흐 예배는 2라크아씩 드린다.



이맘은 의도(‘저는 알라께 타라위흐 예배를 이맘으로서 드리고자 합니다.’) 후 (두 손바닥을 끼블라 쪽으로 향하며 손가락을 살짝 펴서 두 손을 들어 엄지손가락이 귓볼 부근에 닿도록 하며) “알라후 아크바르”(타끄비라를 이흐람)라고 말한다. 예배자들도 “저는 이맘의 인도에 따라 알라께 ‘타라위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의도하며 이어서 똑같이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이맘과 예배자들은 “수브하나칼라훤마...”를 속으로 말한다. 이맘이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을 속으로,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소리 내어 말한다. (예배자들은 아무 것도 암송하지 않고 조용히 이맘의 소리를 듣는다.) 이맘의 인도를 따라 다 함께 루쿠와 수주드를 하고 두 번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선다.

이맘이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을 속으로,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소리 내어 말한다. 그 후 예배자들은 이맘의 인도에 따라 루쿠와 수주드를 하고 앉는다.

이맘과 예배자들은 앉은 자세에서 “앗-타샤후드”, “앗-살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 기도(예: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를 말한 후 고개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리며 “앗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여 타라위흐 예배의 2라크아가 완성된다.

위와 같이 2라크아씩 총 10번 행하면 20라크아의 타라위흐 예배가 완성되며 타라위흐 예배 후에는 3라크아의 위트르 예배를 합동으로 드린다.

타라위흐 예배를 개인으로 2라크아씩 드리는 방법

“저는 알라께 ‘타라위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의도한 후 새벽(파즈르)예배의 2 라크아 순나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같이 2라크아의 타라위흐 예배를 드린다.



20라크아가 완성될 때까지 2라크아씩 예배를 계속 드린 후 위트르 예배를 드린다.

타라위흐 예배를 합동으로 4라크아씩 드리는 방법

이맘과 예배자들은 위에 언급했듯이 의도한 후 (두 손바닥을 끼블라 쪽으로 향하며 손가락을 살짝 펴서 두 손을 들어 엄지손가락이 귓볼 부근에 닿도록 하며) “알라후 아크바르”(타끄비라를 이흐람)라고 말한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이맘과 예배자들은 “수브하나칼라훤마...”를 속으로 말한 후 이맘이 “**아우두 빌라히 미낏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을 속으로,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소리 내어 말한다.(이맘 뒤에 도열한 예배자들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이맘의 소리를 듣는다.) 이맘의 인도를 따라 다 함께 루쿠와 수주드를 하고 두 번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선다.

이맘이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을 속으로,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소리 내어 말한다. 그 후 예배자들은 이맘의 인도에 따라 루쿠와 수주드를 하고 앉는다.

이맘과 예배자들은 앉은 자세에서 “앗-타샤후드”와 “앗-쌀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를 말한 후 세 번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선다.

세 번째 라크아에서 이맘과 예배자들은 “수브하나칼라훤마...”를 속으로 말한 후 이맘이 “**아우두 빌라히 미낏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을 속으로,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소리 내어 말한다. 이맘의 인도를 따라 다 함께 루쿠와 수주드를 하고 네 번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선다.

이맘이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을 속으로, 파티하 장 그리고 꾸란의 다른 장을 소리 내며 말한다. 그 후 예배자들은 이맘의 인도에 따라 루쿠와 수주드를 하고 앉는다.

이맘과 예배자들은 앉은 자세에서 “앗-타샤후드”, “앗-쌀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 기도(예: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를 말한 후 고개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여 4라크아의 타라위흐 예배가 완성된다.

위와 같이 4라크아씩 총 5번을 행하면 20라크아의 타라위흐 예배가 완성된다.

또한 타라위흐 예배가 후에는 3라크아의 위트르 예배를 합동으로 드린다.

타라위흐 예배를 개인으로 4라크아씩 드리는 방법

“저는 알라께 ‘타라위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의도한 후 오후(아스르)예배의 4라크아 순나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같이 4라크아의 타라위흐 예배를 드린다. (이 두 가지 예배는 의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는 똑같다.)

20라크아가 완성될 때까지 4라크아씩 예배를 계속 드린 후 이어서 3라크아의 위트르 예배를 드린다.

앉은 자세와 암시로 드리는 예배

알라께서는 예배드리는 무슬림을 사랑하시며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분의 종이 예배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예를 들어 원래의 예배자세가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가능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신다.

예배자가 서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루쿠와 수주드를 행하여 예배드린다. 수주드할 때 이마가 땅에 닿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머리를 굽히는 행위로 수주드 할 위치를 암시하면서 수주드하는데, 이를 ‘암시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 루쿠와 수주드의 행위를 머리를 굽히는 행위로 대체하는 것으로 루쿠 자세에서는 머리를 살짝 굽히며 수주드 자세에서는 루쿠 자세보다는 조금 더 많이 굽힌다. 만약 루쿠할 때보다 수주드할 때 머리를 더 많이 굽히지 않는다면 예배는 무효가 된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원하는 자세로 누워서



머리를 굽히는 행위로 예배를 드린다. 만약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몸이 회복된 후 예배드린다.

여행자 예배

일반적인 속도로 걸어서 18시간(약 9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자를 이슬람에서는 ‘여행자(무사피르)’로 규정한다.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류할 목적으로 집(거주지)을 떠난 사람도 여행자로 여긴다. 그러나 15일 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체류할 의도로 집을 떠났다면 여행자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여행자 예배가 아닌 원래대로 예배를 드린다.

여행자의 편의를 위한 이슬람의 규정

여행자는 파르드예배 4라크아를 2라크아로 줄여서 드릴 수 있다. 이 규정은 정오(주후르) 예배, 오후(아스르)예배, 밤(이샤)예배의 파르드에 적용되지만 새벽(파즈르)예배의 2라크아 파르드예배와 저녁(마그립)예배의 3라크아 파르드예배 그리고 3라크아 유티르예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행 중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원래대로 순나예배를 드린다.

여행자가 여행자가 아닌 이맘의 인도 하에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4라크아 파르드예배를 다 드린다. 그러나 본인이 여행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이맘이 된다면 2라크아만 드린 후 쌀람(고개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하는 것)을 하여 예배를 마무리하면 되지만 그의 뒤에 도열한 여행자가 아닌 거주자들은 이맘이 2번째 라크아를 끝내고 쌀람을 할 때 일어나서 4라크아까지 예배를 채워야 한다.

여행자가 여행 중이었을 때 놓쳤던 예배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파르드 예배 4라크아를 2라크아로 줄여서 드릴 수 있다.

여행자는 만 3일 동안에는 처음 우두를 하고 착용한 가죽 또는 두꺼운 양말 위를 물이 젖은 손으로 쓰다듬는 행위로 발 세정을 대신할 수 있다.



라마단 달 동안 여행을 하는 사람은 원한다면 라마단 달 단식을 하는 것이 좋지만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채우지 못한 단식일수에 대해서는 라마단 달 이후 보충단식을 해야 한다.

여행자는 금요합동(주므아)예배와 이드예배를 드리도록 되지만 드리지 않아도 된다. 금요합동(주므아)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대신 정오(주후흐)예배를 드린다.

이처럼 여행자와 관련된 이슬람의 규정은 여행자가 당면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여기에는 알라의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다.

까다(보충) 예배

하루 다섯 번의 파르드예배를 정해진 시간 내에 드리지 못하고 추후에 드리는 것을 “까다 예배”라고 한다. 알라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정해주셨고 그것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그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행위이다.

정해진 시간에 드리지 못한 예배를 나중에라도 드린다면 놓친 예배가 보충되지만 정해진 시간에 드린 예배와 같은 보상은 받지 못하며 예배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알라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루 다섯 번의 파르드예배와 위트르예배는 보충할 수 있지만 순나예배는 보충하지 않는다. 단지 새벽(파즈르)예배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드리지 못했다면 새벽예배의 2라크아 파르드예배와 함께 2라크아 순나예배를 정오가 되기 전까지는 보충해야 한다.

보충예배라 할지라도 해가 뜰 때, 태양이 정점에 있는 동안 그리고 해가 질 때 이 세 가지 시간에는 예배드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⁵

만일 예배자가 보충할 예배가 언제 그리고 하루 다섯 번의

5 역자의 주: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은 ‘우리의 주인은 태양이다’라고 하며 위에 언급된 세 가지 시간에 그들의 숭배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이 세 가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 어떤 예배인지 기억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이 의도한다. **“저는 알라께 드리지 못했던 최초의 ‘파즈르 파르드예배’를 드리 고자 합니다.”** 예배자가 드리지 못한 다른 파르드예배를 위해서 의도할 때는 위에 언급된 “최초의 파즈르” 대신에 “최초의 주후르”, “최초의 아스르”, “최초의 마그립”, “최초의 이사”, “최초의 위트르”라고 말한다.

사즈다툼 툴라와트(꾸란의 사즈다 구절을 읽을 때나 들을 때 하는 절)

‘사즈다툼 툴라와트’는 알라에 대한 경외의 표시이다. 꾸란에 언급되어 있는 사즈다 구절은 14개이며 누군가 예배 중 또는 혼자서 꾸란의 사즈다 구절을 읽거나 듣는다면 한 번 절하는 것이 와집이다.⁶

예배를 드리는 도중 서 있는 자세에서 사즈다 구절을 암송한다면 그 순간 사즈다 구절을 위한 한 번의 절을 드린다. 만일 사즈다 구절 다음의 구절을 이어서 암송하고 싶다면 다시 일어서서 암송을 계속한다.

사즈다 구절을 위한 한 번의 절을 한 후 사즈다 구절 다음의 구절을 계속 이어서 암송하고 싶지 않다면 다시 일어서서 한 두 구절만 또는 세 구절까지 암송하고 루쿠와 수주드를 한다.

예배 중 사즈다 구절이 암송되는 소리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누군가가 들었다면 그는 사즈다 구절을 위해 한 번의 절을 해야 한다.

예배 중 사즈다 구절을 암송하면 반드시 사즈다 구절을 위한 한 번의 절을 드려야 하는데 이때 이 절을 예배 후에 해서는 안 된다.

이맘이 사즈다 구절을 암송하면 그는 곧바로 옆드려 절하는데, 이때 예배자들도 이맘을 따라 절을 한다. 이맘과 함께 한 번 절한 후 이맘은 일어서서 사즈다 구절로 인해 중단되었던 꾸란장을 이어서 암송한다.

6 샤피, 말리키 그리고 한발리 학파에 의하면 ‘사즈다툼 툴라와트’는 순나이다.



예배가 의무가 되는 자들만이 ‘사즈다툴 툴라와트’를 행하며 생리나 산욕기에 있는 여성에게는 이것은 와집이 아니다.

예배 이외에 ‘사즈다툴 툴라와트’를 행하는 방법

우두 후 카야바 방향으로 서 있는 자세에서 손을 양쪽으로 올리지 않고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후 바로 수주드를 한다. 수주드 자세에서 “수브하나 랍비얄 아을라”를 3회 작은 소리로 말한 후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일어선다. 일어설 때는 ‘구프라-나카 랍바나- 와 일라이칼 마씨-르(우리는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당신께로 우리 모두는 돌아가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스타합(권장사항)이다. 수주드는 한 번만 하며 수주드 후 고개를 돌려 쌀람을 하지 않는다.

꾸란에 언급되어 있는 사즈다 구절의 장과 절의 번호는 다음과 같다.

- | | |
|------------------|-------------------|
| 1) 아으라프(7장) 206절 | 8) 나물(27장) 25절 |
| 2) 라아드(13장) 15절 | 9) 싸즈다(32장) 15절 |
| 3) 나흘(16장) 48절 | 10) 사드(38장) 24절 |
| 4) 이스라(17장) 107절 | 11) 푸질라트(41장) 37절 |
| 5) 마리아(19장) 58절 | 12) 나즘(53장) 62절 |
| 6) 핫즈(22장) 18절 | 13) 인쉬까끄(84장) 21절 |
| 7) 푸르칸(25장) 60절 | 14) 알라끄(96장) 19절 |

장례예배

고인이 된 무슬림을 위해 알라께 장례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슬람공동체의 의무(파르드 키파야)이다. 장례예배는 무슬림 여러 명에 의해 또는 당시에 참석한 몇 명의 무슬림에 의해 가능하며 참석하지 못한 다른 무슬림들에게는 책임이 면제된다. 장례예배에 참석한 예배자들은 알라께 고인의 죄에 대한 용서를 빌며 고인(무슬림형제/자매)을 위해 마지막 임무를 행한다.



장례예배의 6가지 조건

- 1) 고인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한다.
- 2) 시신은 이슬람식에 따라 깨끗이 씻긴 후 이슬람식 수의로 모든 부위를 감싸야 한다.
- 3) 장례예배 때 시신은 예배를 드릴 집단 앞에 놓여야 한다.
- 4) 신체의 전체나 신체의 반 이상 또는 머리와 신체의 반이 있어야 한다.
- 5) 장례예배에 참석한 예배자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 자세로 있어야 한다.
- 6) 고인을 사람들의 어깨나 동물의 등이 아닌 반드시 바닥에 놓아야 한다.

장례예배는 ‘파르드 키파야’이므로 모든 무슬림의 참석을 요하지 않는다. 남자 무슬림 한 명 또는 여자 무슬림 한 명이라도 참석하면 된다. 예배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들은 장례예배 때도 똑같이 적용되며 예배를 피해야 하는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장례예배를 할 수 있다.

장례예배는 4번의 타끄비르와 끼암(서있는 자세)으로 이루어지며 쌀람을 하는 것은 와집이며 루쿠와 수주드는 없다.

장례예배에 대한 순나

- 1) 예배를 인도할 이맘은 고인의 가슴 쪽에 선다.
- 2) 첫 번째 타끄비르를 한 다음 “수브하나칼라훤마...”를 말한다.
- 3) 두 번째 타끄비르를 한 다음 “앗-쌀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를 말한다.
- 4) 세 번째 타끄비르를 한 다음 기도를 한다.



장례예배를 드리는 방법

깨끗이 씻긴 후 수의가 입혀진 상태의 고인을 장례예배를 드릴 곳에 놓는다. 장례예배에 참석한 예배자들은 고인이 있는 곳 앞에 서며 이맘은 고인의 가슴 쪽에 선다. 예배자들은 이맘 뒤에서 끼블라를 향하여 도열하며 가능하면 세 줄로 도열하는 것이 권장된다.

장례예배를 위한 의도를 할 때는 고인이 성별과 어른인지 아이인지를 밝혀야 한다.

예배를 인도할 이맘은 고인의 성별과 어른인지 아이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도한다.

“저는 알라께 **이 남성의** 장례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알라께 **이 여성의** 장례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알라께 **이 남자아이의** 장례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알라께 **이 여자아이의** 장례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맘 뒤에 도열한 예배자들도 다음과 같이 의도한다.

“저는 알라께 **이맘의 인도에 따라 이 남성의** 장례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알라께 **이맘의 인도에 따라 이 여성의** 장례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알라께 **이맘의 인도에 따라 이 남자아이의** 장례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알라께 **이맘의 인도에 따라 이 여자아이의** 장례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장례예배에 참석한 자들 중 고인의 성별 또는 어른인지 아이인지 잘 모른다면 다음과 같이 의도한다.



“저는 알라께 **이맘의 인도에 따라 이 고인의 장례예배**를 드리
고자 합니다.”

이맘이 두 손바닥을 끼블라 쪽으로 향하며 두 손을 들어 엄지
손가락이 귓볼 부근에 닿도록 올리며 고인을 위한 예배를 드리
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소리 내어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
면 예배자들도 속으로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이맘의 인
도를 따라 다른 예배에서처럼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
면서 팔짱을 낀다.

이맘과 예배자들은 속으로 “수브하나칼라훤마...”를 말하는데
이때 다른 예배에서와는 달리 “수브하나칼라훤마...”를 말할 때

“와 잘라 사나우카”를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수브하나칼라훤마, 와비함디카, 와타바라카스무카, 와 타알
라 잣두카, **와 잘라 사나우카**, 와 라 일라하 가이루카.”

“수브하나칼라훤마...”를 말한 후 손을 올리지 않은 자세로 이
맘은 소리내어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예배자들은 속으로 “**알라
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두 번째 타끄비르를 한다. 이맘과 예배
자들은 속으로 “앗-쌀라투 알란 나비”를 말한다.

그런 후 손을 올리지 않은 자세로 이맘은 소리내어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예배자들은 속으로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
며 세 번째 타끄비르를 한다. 이맘과 예배자들은 속으로 장례예
배기도를 한다. 장례예배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대신 꾸누트 기도
를 말한다. 꾸누트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다음의 꾸란 구절을 말
한다.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올리지 않은 자세로 이맘은 소리내
어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예배자들은 속으로 “**알라후 아크바
르**”라고 말하며 네 번째 타끄비르를 한다. 이 때 어떤 꾸란 장이
나 기도 없이 먼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



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 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앗살라 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여 장례예배가 완성된다.

장례예배 세 번째 타고비르를 한 후 말하는 기도는 다음과 같다.

모든 고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드린다.

اللَّهُمَّ اغْفِرْ لِحَيِّنَا وَمَيِّتِنَا وَشَاهِدِنَا وَغَائِبِنَا وَذَكَرِنَا وَأُنثَانَا وَصَغِيرِنَا وَكَبِيرِنَا
اللَّهُمَّ مَنْ أَحْيَيْتَهُ مِنَّا فَاحْيِهِ عَلَى الْإِسْلَامِ وَمَنْ تَوَفَّيْتَهُ مِنَّا فَتَوَفَّهُ عَلَى
الْإِيمَانِ

“알라흐마그피르 리하이이나 와 마이이티나 와 샤히디나 와 가-이비나, 와다카리나-와 운싸-나 와 씨기-리나 와 카비리나-.

**알라흐마 만 아흐야이타후 민나 파아흐이히 알랄-이슬람
와 만 타와파이타후 민나 파타와파 알랄 이-만.”**

오, 알라! 저희의 삶과 죽음에 대해 용서를 베풀어주시며, (여기에) 있는 이들과 없는 이들, 젊은이와 노인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용서를 베푸소서.

오, 알라! 저희들 중 당신께서 삶을 허락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슬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시며, 저희들 중 당신께서 죽게 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앙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인이 남성이면 다음과 같이 기도드린다.

وْخُصَّ هَذَا الْمَيِّتَ بِالرُّوحِ وَالرَّاحَةِ وَالرَّحْمَةِ وَالْمَغْفِرَةِ وَالرِّضْوَانِ
اللَّهُمَّ إِنْ كَانَ مُحْسِنًا فَرِّدْ فِي إِحْسَانِهِ وَإِنْ كَانَ مُسِيئًا فَتَجَاوَزْ عَنْهُ وَلِقِّهِ
الْأَمْنَ وَالْبُشْرَى وَالْكَرَامَةَ وَالرُّلْفَى بِرَحْمَتِكَ يَا أَرْحَمَ الرَّاحِمِينَ



“와 쿿사 하달마이이타 비라우히 와 라-하티 와 라흐마티 왈
마그피라티 와르드완.

알라훤마 인 카나 무흐시난 파지드 피 이흐사니히 와인 카나
무시안 파타자와즈 안후 와 라끄힐암나 왈부쉬라 왈카라마타
와 즐파 비라흐마티카 야 아르하마라-히민.”

오, 주님이시여! 이 (남성) 고인에게 쉬움과 편함과 죄의 용서와 당신의 만족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오, 알라! 이 고인이 선을 행했던 사람이라면 보상을 베풀어주시옵소서. 만일 악을 저질렀다면 그를 용서해주시옵소서.

이 고인에게 안심과 기쁨과 관용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당신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니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고인이 여성이면 다음과 같이 기도드린다.

وَحُصِّ هَذِهِ الْمَيْتَةَ بِالرُّوحِ وَالرَّاحَةِ وَالْمَغْفِرَةَ وَالرِّضْوَانَ اَللّٰهُمَّ اِنْ كَانَتْ
مُحْسِنَةً فَرِّدْ فِيْ اِحْسَانِهَا وَاِنْ كَانَتْ مُسِيئَةً فَتَجَاوَزْ عَنْهَا وَلِقَّهَا الْاَمْنَ
وَالْبُشْرَى وَالْكَرَامَةَ وَالرُّلْفَى بِرَحْمَتِكَ يَا اَرْحَمَ الرَّاحِمِيْنَ

“와 쿿사 하디힐 마이타타 비라우히 와 라-하티 왈마그피라티
와리르드완.

알라훤마 인 카나트 무흐시나탄 파지드 피 이흐사니하 와인
카나트 무시아탄 파타자와즈 안하 와 라끄힐암나 왈부쉬라 왈카
라마타 와즐파 비라흐마티카 야 아르하마라-히민.”

오, 주님이시여! 이 (여성) 고인에게 쉬움과 편함과 죄의 용서와 당신의 만족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오, 알라! 이 고인이 선을 행했던 사람이라면 보상을 베풀어주시옵소서. 만일 악을 저질렀다면 그를 용서해주시옵소서.

이 고인에게 안심과 기쁨과 관용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당신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니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고인이 남자아이면 다음과 같이 기도드린다.

اللَّهُمَّ اجْعَلْهُ لَنَا فَرْطًا وَاجْعَلْهُ لَنَا أَجْرًا وَذُخْرًا وَجْعَلْهُ لَنَا شَافِعًا وَمُشَفَّعًا

“알라흐마즈알후 라나 파라탄 와즈알후 라나 아즈란 와 두
크란 와즈알후 라나 샤-피안 와 무샤파안.”

아, 알라! 이 남자 아이를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보상의 근원이 되게 해 주소서.

오, 알라! 이 남자 아이를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되게 해 주시고 그의 중재자 임무를 받아들여 주소서.

고인이 여자아이면 다음과 같이 기도드린다.

اللَّهُمَّ اجْعَلْهَا لَنَا فَرْطًا وَاجْعَلْهَا لَنَا أَجْرًا وَذُخْرًا وَجْعَلْهَا لَنَا شَافِعَةً وَمُشَفَّعَةً

“알라흐마즈알하 라나 파라탄 와즈알하 라나 아즈란 와 두
크란 와즈알하 라나 샤-피아탄 와 무샤파아.”

아, 알라! 이 여자 아이를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보상의 근원이 되게 해 주소서.

오, 알라! 이 여자 아이를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되게 해 주시고 그녀의 중재자 임무를 받아들여 주소서.

장례예배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다음의 꾸란 구절을 말한다.

رَبَّنَا آتِنَا فِي الدُّنْيَا حَسَنَةً وَفِي الْآخِرَةِ حَسَنَةً وَقِنَا عَذَابَ النَّارِ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 (꾸란 2장 201절)



오, 주여! 현세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세에서도 축복하여 주시며 불지옥의 고층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질문:

- 1) ‘수주뚝 사흐우’란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행하는가?
- 2) 합동예배의 보상은 무엇인가?
- 3) 성원에서 지켜야 할 예의는 무엇인가?
- 4) 성원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5) 이맘의 인도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 6) 금요합동(주즈마)예배는 누구에게 의무인가?
- 7) 금요합동(주즈마)예배는 몇 라크아인가?
- 8) 이드예배는 누구에게 와집인가?
- 9) 이드예배와 다른 예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10) ‘타끄비르 타쉬리크’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11) 이드를 임하는 자세는 무엇인가?
- 12) 타라위흐 예배의 보상은 무엇인가?
- 13) 타라위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 14) 앉은 자세와 암시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 15) 이슬람에서 ‘여행자’는 누구인가? 여행자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 16) 까다(보충)예배는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가?
- 17) ‘사즈다툴 툴라와트’는 무엇이며 어떻게 행하는가?
- 18) 장례예배의 조건은 무엇인가?
- 19) 장례예배를 위한 의도는 어떻게 하는가? 장례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6. 단식



주제:

- 단식의 중요성과 단식의 이득
- 단식은 누구에게 부과되는 의무인가?
- ‘수후르’와 ‘이프타르’에 대한 보상, 이프타르 기도
- 단식에 대한 의도는 언제 하며 그 방법은 무엇인가?
- 단식의 종류
- 라마단 달의 단식을 나중에 보충할 수 있는 상황과 단식할 능력이 없는 자가 내는 배상
- 라마단 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식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규정
- 의도적으로 단식을 깬 이유로 ‘까다’와 ‘카파라트’를 해야 하는 경우
- 단식을 깬 이유로 ‘까다’만을 해야 하는 행위
- 단식이 깨지지 않는 경우
- 단식 중 마크루흐(상대금기)가 되는 행위들
- 단식 중 마크루흐(상대금기)가 되지 않는 행위들



단식의 중요성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5가지 기둥들 중 세 번째인 ‘단식’은 라마단 달에 행해진다. 라마단 달의 단식은 히즈라(이슬람력) 2년에 무슬림들에게 의무화되었다.

단식을 한다는 의도를 시작으로 지평선에 희미한 빛줄기가 보일 때(새벽(파즈르) 예배 시간이 들어오기 직전)부터 일몰 때까지 음식과 음료, 담배, 약물 등 체내에 들어가는 모든 것과 성관계를 금하는 것이 단식이다.

이슬람력은 음력의 일종으로 한 달이 총 29일이나 30일이다. 따라서 라마단 달의 한 달은 29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30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완전한 한 달에 해당된다.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도 라마단 달의 단식을 아홉 번 행하셨는데 그 중 4번은 29일이었고 5번은 30일이었다.

라마단 달은 무슬림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달이다. 왜냐하면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 라마단 달에 알라의 첫 계시를 받으셔서 이슬람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천개월보다 더 좋은 “라일라툴 까드르(Laylat al-Qadr; 권능의 밤)”도 라마단 달에 있으며 모든 죄와 잘못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을 정화시키는 단식이 라마단 달에 행하여진다.

알라께서 꾸란에서 말씀하시기를,

“오, 믿는 자들이여! 그대들 이전의 자들에게 의무로 규정되었던 것처럼 그대들에게도 단식이 의무로 규정되었으니 그대들이 알라를 경외하게 될 것이니라.” (2장 183절)

단식은 우리를 현세의 악으로부터 멀리하고 내세의 지옥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숭배행위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는 단식을 행하는 무슬림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



“라마단 기간 동안 믿음을 지닌 채 알라를 위해 단식하는 자는 그가 과거에 지은 죄가 용서되느니라.”

(리야둣 쌀-리히-인, 217장 1219번)

단식의 이득

1) 아름다운 품성을 갖게 한다

단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알라의 위대하심을 상기시키며 그 분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한다. 마음에 생길 수 있는 악한 생각과 감정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며 타인에게 행할 수 있는 잘못된 행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단식을 하는 사람의 눈은 그릇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며 혀는 무익한 말과 거짓말로부터, 귀는 험담이나 나쁜 것을 듣는 것으로부터, 위는 알라께서 금하신 음식으로부터, 손은 악행을 저지르는 행위로부터, 발은 악한 곳을 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단식은 알라를 위해 스스로 식욕을 통제하여 배고픔을 인내하는 숭배행위로서 알라께 순종함을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2)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처지를 알게 하고 동정심을 일깨운다

단식을 통해 배고픔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은 어렵고 가난한 자들의 처지를 알게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갖게 한다.

3) 알라께서 베푸신 양식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인간은 가진 것을 잃었을 때야 그 가치를 깨닫는 경우가 많다. 단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동안 알라께서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하여 음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4)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식을 하라. 그러면 건강할 것이니라.”

(카시폴 하파, 제2권 33쪽)

1년의 11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인간의 위는 한 달간의 단식으로 인해 쉴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몸은 정화가 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예방해준다. 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단식의 혜택에 대해 언급하는데, 프랑스의 외과의사, 생리학자이자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알렉시 카렐(Alexis Carrel) 박사는 ‘단식은 몸을 정화시키고 조직을 개선하며 독소를 배출하는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5) 인내심을 길러준다

매년 한 달 간의 단식으로 단련된 정신과 육체는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시련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단식은 누구에게 부과되는 의무인가?

단식은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남녀 모두에게 의무인 숭배행위이다.

- 1) 무슬림일 것
- 2) 이성을 지닐 것
- 3) 사춘기에 이를 것

아직 사춘기에 이르지 않은 아이에게 단식은 의무가 아니지만 만약 부모가 단식을 할 때 함께 단식을 하고자 한다면 하루나 며칠간만 단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이때 단식을 왜 하는지 등 단식에 대해 가르침을 주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단식은 단지 굶는 행위일 뿐이라고 여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생리중이나 해산 후의 경우에는 단식과 예배를 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 빠뜨린 단식 날 만큼 보충해야 한다. 예배는 보충하지 않아도 된다.

‘수후르’와 ‘이프타르’에 대한 보상

수후르(Suhoor; 새벽 예배 전에 먹는 식사) 시간에 일어나서 식사하는 것은 무스타합(권장사항)이다.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수후르 식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후르 식사를 하라. 진실로 수후르에는 축복이 있느니라.”

(리야둣 싄-리히-인, 221장 1229번)

수후르 식사를 하는 것은 알라께서 기뻐하실 행위로 알라께서 단식하는 사람에게 베푸신 자비이다. 단식을 시작하기 전 축복이 가득한 수후르 식사를 하여 하루 종일 단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시간 중 하나는 수후르 시간이다. 수후르 식사를 위해 일어난 사람은 알라께 기도드리며 바라는 것을 간청하고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 한다.

무슬림이 하루 종일 단식을 행하고 이프타르(Iftar; 단식을 깨뜨리는 저녁 식사) 시간에 이르렀을 때에 느끼는 기쁨은 매우 크다. 왜냐하면 그는 단식에 대한 보상을 심판의 날 알라 앞에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식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기쁨이 있느니라. 단식을 깬 때의 기쁨과 그의 주님을 만나 뵈게 될 때의 기쁨이 그것이니라.”

(앗-타르킵 왓-타르히프, 2권 81쪽)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이프타르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거절되지 않고 알라께서 그 기도를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프타르 기도

이프타르 시간에 다음의 기도를 하는 것은 순나이다.

“알라훤마 라카 숨투 와 비카 아만투, 와 알라이카 타왁칼투,
와 알라- 르지끄카 아프타르투, 와 사우말까-디 민 샤흐리 라
마다

나 나와이투, 파그피르리 마- 까맘투 와 마- 아카르투.”

오, 알라! 저는 당신을 위해 단식하였고 당신을 믿으며 당신께 의탁하였고
당신의 주신 이 양식으로 저의 단식을 중단합니다. 라마단 달 중 내일의 단식
을 행할 것도 의도합니다. 제가 지은 과거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해주
십시오.

단식에 대한 의도는 언제 하며 그 방법은 무엇인가?

단식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도를 해야 하고 만약 의도 없이
단식을 했다면 그 단식은 무효가 된다.

라마단 달 단식에 대한 의도는 저녁과 두하(아침 해가 떠오른 열
마 후부터 주흐르(정오)예배 전까지의) 시간 사이에 행할 수 있는데, 일
반적으로는 수후르 식사를 한 후에 행한다. 그러나 수후르 시간
에 일어나지 못하여 해가 뜬 후 일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두하 시
간까지는 의도를 행할 수는 있다. 다만 일어난 후부터는 단식을
깎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수후르 시간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라면 저녁 시간이 지나간
후부터 내일의 단식을 위한 의도를 행할 수도 있으므로 한밤중
에 다시 일어나서 의도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수후르 시간에 일
어나서 수후르 식사는 했지만 의도하는 것을 잊었다면 두하 시
간까지 의도할 수 있다. 실수로 인하여 의도를 늦게 하였다면 단
식을 행하는 데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두하 시간이 지
나간 후에는 단식을 위한 의도를 행할 수 없다. 만약 라마단 달에
단식을 온전히 하지 못하였다면 빠뜨린 단식 일수만큼 보충해야
하는데 그 때의 의도는 밤에만 해야 한다. 그리고 단식 중 의도적



으로 단식을 깬 행위에 대해서는 단식 즉, “카파라트 단식”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도도 밤에만 할 수 있으며 해가 뜬 후부터는 의도할 수는 없다.

‘의도’는 전능하신 알라를 위한 숭배행위를 하기 전 마음가짐을 갖는 것으로 단식을 위한 의도를 마음으로 하여도 충분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 권장된다. 단식을 위한 의도는 다음과 같다. “저는 라마단 달을 맞이하여 내일 단식을 행할 것을 의도합니다.”

단식의 종류 6가지

1) 파르드(절대의무) 단식

- 라마단 달의 단식
- 라마단 달에 행하지 못한 단식의 추가보충
- 카파라트 단식(의도적으로 단식을 깬 행위에 대한 벌칙 단식)

2) 와집(필요의무) 단식

- (간청이 이루어지면 알라를 위해 단식하겠다는) ‘맹세 단식’
- 깨뜨린 나팔(자발) 단식의 보충

3) 순나 단식

무하람 달의 제9일과 제10일 또는 제10일과 제11일의 단식

4) 무스타합(권장사항) 단식

- 음력 매월 제13일, 제14일 그리고 제15일의 단식
-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의 단식
- (라마단 달에 이은) 샤왈 달의 6일간 단식

5) 마크루흐(상대금지) 단식

- 무하람 달의 제10일에 행하는 단식
- 금요일만 또는 토요일만 행하는 단식



6) 하람(절대금지) 단식

이들 피뜨르 날의 첫 번째 날과 이들 아드하 4일간은 단식이 금지된 날이다.

이드 날은 알라께서 종들에게 베풀어주신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단식하지 않는다.

라마단 달의 단식을 나중에 보충할 수 있는 상황

특별한 이유 없이 라마단 달에 단식하지 않는 것은 큰 죄이며 그것에 대한 벌칙도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은 단식을 하지 않거나 단식을 깨뜨려도 된다.

1) 환자

단식을 함으로써 병이 더 위중해질 수 있다고 염려되는 환자. 대신 건강이 회복되어 단식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라마단 이후의 시기에 하지 못한 단식을 보충해야 한다.

2) 여행

라마단 달 중에 9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은 단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라마단 이후의 시기에 하지 못한 단식을 보충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여행 중에 단식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면 단식하는 것이 권장된다.

3) 위협

단식을 깨도록 목숨을 위협받는 사람은 단식을 깨도 되나 후에 못한 날만큼 단식을 보충해야 한다.

4) 임신과 수유

임신 중이거나 모유수유 중인 산모는 단식을 행할 경우 자신 또는 아기의 건강에 문제가 될 것이 의심된다면 단식을 하지 않거나 단식을 깰 수 있으며 만약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보충단식을 행해야 한다.



5)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갈증과 배고픔

단식 중 만약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갈증과 배고픔으로 의식을 잃거나 쓰러질 위험에 처할 경우 단식을 깨뜨릴 수 있다. 그러나 후에 보충단식을 행해야 한다.

6) 노인

나이가 많거나 질병에 있어 단식할 능력이 없는 자는 단식하지 않아도 된다. 단식을 보충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뜨린 일수만큼 가난한 한 사람을 먹이거나 쌀이나 밀과 같은 식생활에서 주(主)가 되는 음식물(이하 ‘주식물’)을 주어야 한다.

단식할 능력이 없는 자가 내는 배상

단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병의 치유가 어려워 단식을 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라마단 달 단식의 각 날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해진 양의 주식물이나 돈을 주어 상환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하루에 내는 양(量)은 식사 두 끼에 해당하는 주식물이나 금액으로 보면 이 양은 라마단 달 시작이나 중간 또는 마지막에 줄 수도 있다.

단식하지 못하는 날의 수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할 하루의 양을 계산해서 총 양을 가난한 사람 한 명에게만 줄 수도 있고 양을 나누어서 여러 명에게 주어도 된다. 만일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이에 대해 알라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단식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병의 회복이 어려워 단식을 전혀 할 수 없는 환자들이 나중에 단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미 준 것은 무효가 되어 행하지 못한 단식을 보충해야 한다.

라마단 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식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규정

라마단 달의 단식은 알라께서 꾸란에 명하신 의무행위이다. 따라서 무슬림이 라마단 달에 이유 없이 단식을 하지 않는다면 단식하지 않은 날수만큼 보충해야 하는데 이때 카파라트(벌칙단



식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카파라트(벌칙단식)는 단식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닌 단식 중 의도적으로 즉, 일부러 단식을 깬 행위에 대한 벌칙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식하지 않는 자는 알라의 명령에 거역한 것에 대해 알라께 용서를 구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단식을 하지 않은 날수만큼 ‘까다’ 즉, 보충단식을 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단식을 깬 이유로 ‘까다’와 ‘카파라트’를 해야 하는 경우

단식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 1) 먹거나 마시는 것(음식 또는 약)
- 2) 성행위
- 3) 흡연

‘까다’: 단식을 지키지 못한 날수만큼 보충하는 단식. 하루 단식을 못하면 하루 보충단식을 한다.

‘카파라트’: 의도적으로 깬 하루 단식을 위해 두 달(60일) 연속 단식해야 한다. 즉, ‘깨어진 1일 단식’=‘60일 연속단식’.

라마단 달에 의도하고 단식을 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위에 언급한 1),2),3) 중 한 가지를 하면 단식이 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날의 단식을 메꾸는 즉, 보충단식(까다)을 하는 동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단식을 깬 죄에 대한 회개로 60일을 연속적으로 단식해야 한다. 만일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단식을 중단하거나 60일보다 덜 단식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60일 연속의 단식을 시작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으로 인하여 중간에 단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생리가 끝나자마자 이어서 단식을 완성해야 한다.

단식을 깬 이유로 ‘까다’만을 해야 하는 행위

- 1) 음식이나 약이 아닌 것을 삼키는 것(예) 흙, 모래, 종이, 솜...)



- 2) 코에 약을 흡입하는 것
- 3) 귀에 약을 투여하는 것
- 4) 우두 중 입이나 코를 물로 헹굴 때 무의식적으로 목구멍에 물이 들어가는 것
- 5) 색실을 입에 물어 실의 색소가 침에 섞였고 그 침을 삼키는 것
- 6)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단식이 깨어지는 것
- 7) 잠자는 중 (누군가에 의해) 목구멍에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
- 8) (의도적인) 구토 (한손 가득하게)
- 9) 해가 저물지 않았지만 해가 저물었다고 오판하여 단식을 깨는 것
- 10) 새벽(파스르) 예배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먹거나 마시는 것

단식이 깨지지 않는 경우

- 1) 단식 중임을 잊고 먹거나 마시는 것 (단식 중임을 깜박 잊어버리고 무의식중에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순간 단식중임을 깨달았다면 그 행위를 바로 중지하고 입을 헹군 후 단식을 계속한다. 하지만 만약 단식중임을 깨달은 후 입에 있는 것을 삼킨다면 단식은 깨진다.)
- 2) 코에 물이 들어가는 것
- 3) 눈에 약을 넣는 것
- 4) 물로 세수 또는 샤워하는 것
- 5) 무의식적인 구토
- 6) 취침 중 몽정을 한 경우 (잠에서 깬 후 목욕(구슬)을 해야 함)
- 7) 헌혈
- 8) 먼지나 연기의 비의도적인 흡입
- 9) 침을 삼키는 것



단식 중 마크루흐(상대금기)가 되는 행위들

- 1) 삼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음식의 맛을 보는 것.
- 2) 침을 입안에서 모아 삼키는 것 (입안에 모았던 침을 입 밖으로 낸 후 삼킨다면 단식이 깨진다.)
- 3) 몸이 약해질 정도로 헌혈이나 심한 노동을 하는 것

단식 중 마크루흐(상대금기)가 되지 않는 행위들

- 1) 장미나 좋은 향기의 냄새를 맡는 것
- 2) 양치질을 하는 것
- 3) 입 안을 헹구어 내는 것(단, 물을 삼키면 안 됨)
- 4) 코를 물로 헹구어 내는 것
- 5) 목욕하는 것

질문:

- 1) 단식이란 무엇인가?
- 2) 단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 3) 단식은 누구에게 부과되는 의무인가?
- 4) 이프타르 기도를 배웁시다.
- 5) 단식에 대한 의도는 언제 하며 그 방법은 무엇인가?
- 6) 단식의 종류는 무엇인가?
- 7) 라마단 달의 단식을 나중에 보충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 8) 단식할 능력이 없는 자가 내는 배상은 무엇인가?
- 9) ‘까다’와 ‘카파라트’란 무엇인가?
- 10) 단식을 깬 이유로 ‘까다’와 ‘카파라트’를 해야 하는 행위들은 무엇인가?



11) 단식을 깬 이유로 ‘까다’만을 해야 하는 행위들은 무엇인가?

12) 단식이 깨지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

13) 단식 중 마크루흐(상대금기)가 되는 행위와 마크루흐가 되지 않는 행위는 무엇인가?

7. 회사



주제:

- 회사의 중요성과 혜택
- 회사는 누구에게 부과되는 의무인가?
- 니삐(회사가 의무화되는 특정한 양)
- 회사의 수혜 대상자는 누구인가?
- 회사가 적용되지 않는 재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 회사가 적용되는 재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 자카트 피트르(라마단의 단식을 마치는 즉시 하는 특별자선)

회사의 중요성과 혜택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5가지 기둥들 중 네 번째는 ‘회사(자카트(Zakat))’이다. 회사는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 메디나로 이주하신 후 두 번째 되던 해에 단식 보다 먼저 모든 무슬림들에게 의무화되었으며 재산으로 행하는 숭배행위이다.

일정한 양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무슬림이 매년 순수입의



40분의 1을 가난하고 불우한 무슬림에게 주어야 한다. 회사는 가난한자의 어려움과 고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슬람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 즉, 알라께서 부를 더 많이 소유하도록 허락하신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가진 부를 나누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회사는 가난한 무슬림형제자매에게 부를 나누어줌으로서 물질의 풍요로 인해 인색해질 수 있는 마음을 정화하고 형제애를 강화시킨다.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의 감소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시킨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들 수 있는 부자에 대한 시기과 질투심이 사라지고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완화되어 삶의 희망을 갖게 된다.

이슬람은 인간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 알라께서 명하신 회사는 완벽한 사회복지체계로 회사를 행함으로서 가진 부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즉, 알라께서는 회사의 의무를 행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베푸시며 사악한 사람들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해주신다. 알라의 보호를 받는 재산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는 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재산을 회사함으로서 보호하도록 하라.”

(앗-타르킵 왓-타르히프, 1권 520쪽)

다른 숭배행위와 마찬가지로 회사 또한 알라께 복종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부유함을 베푸시는 분이신 알라께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회사를 하는 사람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알라의 기쁨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진 부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순수한 의도가 없는 회사는 알라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으며 오직 알라를 진실하게 믿는 신앙심에 의한 회사만이 받아들여진다.



회사는 누구에게 부과되는 의무인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회사를 행한 의무를 갖는다.

- 1) 무슬림
- 2) 이성을 지닌 자
- 3) 사춘기에 이른 자
- 4) 자유인
- 5) 부를 가진 자: 기본 생계비와 부채를 제외하고 회사가 의무화되는 특정한 양의 재산이나 돈을 소유한 자
- 6) 회사를 해야 할 재산이나 돈은
 - ㄱ) 회사가 의무화되는 특정한 양 즉, 소유한 금이 80.18g 이상이어야 한다.
 - ㄴ) 소유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이슬람력 기준으로 1년, 즉 354일이 지나야 한다.
 - ㄷ) 이익이 되는 소유물이어야 한다.

니삿(회사가 의무화되는 특정한 양)

‘니삿’은 이슬람법이 정한 부의 측정기준이다. 이슬람에서는 부채와 기본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한 양 또는 그 이상을 소유했다면 회사가 의무화되는 상태로 판단한다. 자카트 피트르 그리고 양이나 소를 희생하기 위해서도 니삿 정도의 재산이나 돈을 소유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회사의 수혜 대상자는 누구인가?

회사의 정당한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 1) **가난한 무슬림:** 회사가 의무화되는 특정한 양의 재산이나 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2) **불우한 무슬림:** 어떤 소유물도 없는 사람들

3) **빛이 있는 무슬림:** 빛이 많아서 희사가 의무화되는 특정한 양의 재산이나 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4) **무슬림 여행자:** 고향에 재산이 있으나 여행 중 타지에서 궁지에 빠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고향에 갈 수 있을 정도의 희사금을 줄 수 있다.)

5) **이슬람을 연구하거나 전파함으로써 알라의 길에서 희생하는 무슬림:** 알라의 길에서 투쟁하거나 성지순례를 위해 집을 떠났지만 가진 돈이 바닥나 소유한 재산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과 이슬람을 전파하고 알라의 말씀을 드높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희사를 받을 수 있는 무슬림의 우선순위

동생, 동생의 자식들,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그 외의 친척과 이웃들, 거주하는 동네와 나라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받은 희사금을 그릇되게 사용하거나 낭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사금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희사의 비수혜 대상자는 누구인가?

- 1) 부모, 조부모
- 2) 아들, 아들의 자녀들, 딸, 딸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손들
- 3) 스스로 희사를 낼 능력이 있는 부유한 자
- 4) 비무슬림
- 5) 아내와 남편(서로에게 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희사가 적용되지 않는 재산의 종류

본인과 그(그녀)의 보살핌 하에 있는 자들의 물품 중 실제적 효용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희사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재산: 거주중인 집, 집안의 자재도구, 옷, 자동차, 판매목적이 아닌 서적, 기술자가 사용하는 기계, 진주,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등의 장식품으로 판매하여 현금화시킬 목적이 아닌 것.

회사가 적용되는 재산의 종류와 그것에 해당되는 회사의 수량

회사가 의무화되는 특정한 양과 해당되는 재산에 대한 회사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 1) **금:** 80,18g이나 이상의 경우 40분의 1을
- 2) **은:** 561g이나 이상의 경우 40분의 1을
- 3) **돈:** 회사가 의무화되는 특정한 양이나 그 이상의 경우 40분의 1을 (금 80,18g에 해당되는 돈을 소유해야 함.)
- 4) **상거래를 위한 보유물품:** 물품의 가치가 회사가 의무화되는 특정한 양에 도달했을 때 해당 금액의 40분의 1을
- 5) **양과 염소:** 양 40마리의 경우 양 1마리를, 염소 40마리의 경우 염소 1마리를
- 6) **소와 물소:** 소나 물소 30마리의 경우 한 살이 된 송아지 1마리를
- 7) **낙타:** 낙타 5마리의 경우 양 1마리 또는 염소 1마리를 회사금으로 낸다.

가축의 수가 증가할수록 회사금의 양도 달라진다. 또한 대지의 수확물에 해당되는 회사도 다양한데, 위에 언급된 물품에 대한 회사는 현금으로 할 수도 있다.

회사의 행위가 알려지게 받아들여지는 조건은 바로 의도인데 의도는 회사를 할 때 마음속으로 하면 된다. 만약 그 의도가 알라를 위함이 아니면 회사의 의미는 상실된다.



자카톨 피트르(라마단의 단식을 마치는 즉시 하는 특별자선)

부채와 기본 생계비를 제외하여 회사가 의무화되는 특정한 양의 재산이나 돈을 소유한 무슬림에게 자카톨 피트르를 내는 것은 와집(필요의무)이다. 자카톨 피트르는 회사의 경우와 달리 소유한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라마단 달에 가난한 무슬림들에게 주는 자선인 ‘자카톨 피트르’는 이드 첫 날 해가 뜬 후부터 행하는 것이 와집이지만 그전에도 행할 수 있다. 자카톨 피트르는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몫까지 내는 것이 와집이다.

자카톨 피트르는 다음의 4가지 식품을 아래와 같은 수량으로 준다.

종류 수량

- 1- 밀 1,460g
- 2- 보리 2,920g
- 3- 말린 포도 2,920g
- 4- 대추야자 2,920g

위와 같이 식품을 자카톨 피트르로 낼 수 있듯이 그것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도 낼 수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식품 또는 돈)이면 그것을 주는 것이 더 낫다. 한 사람의 자카톨 피트르는 가난한 사람 한 명에게만 줄 수 있으며 나누어서 여러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없다. 하지만 한 명 이상 사람들이 자카톨 피트르를 모아서 가난한 사람 한 명에게는 줄 수 있다. 자카톨 피트르를 낼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의도하는데 이때 드러내놓고 ‘이것이 당신을 위한 자카톨 피트르입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라마단 달 단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들도 회사가 의무화되는 특정한 양의 재산이나 돈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카톨 피트르를 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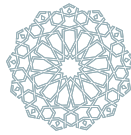


한 달간의 라마단 단식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이드 날을 맞이하는 동시에 자카톨 피트르로 가난한 형제자매를 돕게 됨으로써 부족한 단식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또한 자카톨 피트르를 행함은 무슬림을 죽음의 고통과 무덤에서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질문:

- 1) 회사의 혜택은 무엇인가?
- 2) 회사는 누구에게 부과되는 의무인가?
- 3) 회사의 수혜 대상자는 누구인가?
- 4) 회사의 비수혜 대상자는 누구인가?
- 5) 회사가 적용되지 않는 재산의 종류는 무엇인가?
- 6) 회사가 적용되는 재산의 종류와 그것에 해당되는 회사의 양은 무엇인가?
- 7) ‘니삿’이란 무엇인가?
- 8) ‘자카톨 피트르’란 무엇인가?

8. 성지순례



주제:

- 성지순례의 중요성과 혜택
- 성지순례는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행하는 의무인가?
- 성지순례의 종류
- 이흐람, 탈비야, 따와프, 싸이 그리고 우크프
- 핫즈(대순례)의 과정
- 우므라(소순례)

성지순례의 중요성과 혜택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5가지 기둥들 중 마지막은 ‘성지순례’로 정해진 시간에 특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정해진 순서와 방법에 따라 행해지는 숭배의식이다.

성지순례는 이슬람력 9년에 무슬림들에게 의무화되었으며 신체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능력이 되는 무슬림은 반드시 평생에 한번은 성지순례를 행해야 한다. 다른 모든 숭배행위와 마



찬가지로 성지순례 또한 인간에게 필요한 지혜와 혜택들이 담겨 있다.

성지순례를 위해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무슬림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메카로 모인다. 이렇게 모인 무슬림들은 성지순례를 행하며 형제애를 강화하고 알라 안에서 하나가 된다.

성지순례에 임하는 무슬림들은 빈부의 차이를 막론하고 모두 이흐람(Ihram, 두 장의 바느질 하지 않은 흰 천)을 입는데 이는 이슬람이 평등하고 통일된 인류를 가능하게 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최후 심판의 날에도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이 알라 앞에 동등한 상태로 모일 것임을 상기시킨다. 성지순례를 통해 알라께서 주신 현세라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세속적인 모든 욕심의 덧없음을 깨닫게 된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발자취가 서린 이 성스러운 장소를 방문하는 경험은 순례객으로 하여금 알라를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한다. 성지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정해진 방법대로 행해야 하는 숭배행위로서 성지순례에 임하는 무슬림은 알라를 기쁘게 해드릴 성지순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다른 무슬림 형제자매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알라께서는 성지순례자의 죄들을 용서해주시다. 따라서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친 무슬림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와 같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누가 알라를 위해서 성지순례를 행하고 순례 동안에 아내(남편)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언쟁하지 않는다면 그(그녀)는 마치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갓 나온 것처럼 깨끗하고 죄 없는 상태로 집에 돌아가느니라.”

(리야둣 싄-리히-인, 233장 1274번)



성지순례는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행하는 의무인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무슬림은 반드시 성지순례를 행해야 한다.

1) 이성을 지닌 자

2) 사춘기에 이른 자

3) 무슬림

4) 자유인

5) 성지순례가 무슬림에게 의무임을 인지하고 있는 자 (비무슬림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슬람에 입교하였으나 성지순례가 의무임을 알지 못하여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6) 성지순례를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교통비와 여행비)과 함께 성지순례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부모, 아내, 자녀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자

7) 심신이 건강한 자

8) 정해진 기간에 성지순례의 수행이 가능한 자

위에 언급된 조건 이외에 성지순례를 직접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도 충족해야 한다.

성지순례를 행할 시의 조건

1) 몸이 건강해야 한다. (성지순례의 모든 과정을 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인, 노약자는 성지순례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2) 보호소나 교도소에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3) 순례를 행하는 행로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여성은 반드시 남편이나 마흐람(당사자와 결혼이 불가능한 남성(아버지나 아들, 손자, 친오빠/친남동생)나 친오빠/친남동생)의 아들, 삼촌이나 외삼촌 등) 보호자의 동행 하에 성지순례를 행해야 한다.¹

¹ 샤피 학파에 의하면 남편이나 마흐람이 없는 여성은 신뢰할 수 있는 2명이나 2명



5) 남편이 사망하여 과부가 되었을 경우 또는 이혼을 한 여성으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임신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의 확인을 위해서 일정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성지순례 시 의무행위들

- 1) 이흐람을 입는다.
- 2) 아라파트 평원에서 우크프(서서 알라께 용서를 비는 행위)를 행한다.
- 3) 카아바를 방문하여 따와프(카아바 주위를 7번 순회하는 것)를 행한다.

성지순례의 종류

순례를 행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뉜다.

1) 알이프라드(AI-Ifrad) 순례

우므라(소순례) 없이 행하는 성지순례로, 이흐람을 입을 때에 오직 핫즈(대순례)만을 행하겠다는 의도를 한 후 대순례의 의식들을 행한다. 이 성지순례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가축을 희생하는 것이 와집(필요의무)이 아니다.

2) 앗타맛투우(At-Tamattu) 순례

우므라(소순례)와 핫즈(대순례)를 위해 각각 이흐람을 입고 순례의 의식들을 행하는 것이다. 먼저 우므라를 행하기 위해 이흐람을 입고 우므라 의식들을 행한 후 이흐람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다. 정해진 날이 오면 다시 이흐람을 입고 대순례의 의식들을 행한다. 이 성지순례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가축을 희생하는 것이 와집(필요의무)이다.

3) 알끼라안(AI-Qiraan) 순례

우므라(소순례)와 핫즈(대순례)를 (한 번도 벗지 않고) 같은 이흐람으

이상의 여성동행자 하에 성지순례를 행할 수 있다.



로 행하는 것이다. 이흐람을 입을 때에 우므라(소순례)와 핫즈(대순례)를 위한 의도를 함께 한다. 먼저 우므라를 행하여 의식들을 마친 후 이흐람을 벗지 않고 이어서 대순례를 행한다. 이 성지순례를 행하는 사람에게도 가축을 희생하는 것이 와집(필요의무)이다.

성지순례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에서 언급된 3종류의 순례방법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성지순례에 임한다.

이흐람, 탈비야, 따와프, 싸이 그리고 우크프

‘**이흐람(Ihram)**’ 상태를 갖는다는 것은 핫즈(대순례)와 우므라(소순례)를 행할 사람이 평상시에 행하도록 허용된 행위들을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피함을 의미한다. 즉, 이흐람을 입은 무슬림이 이흐람을 벗을 때까지는 금지된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핫즈(대순례)와 우므라(소순례)를 위해 의도하고 탈비야를 부름으로부터 이흐람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탈비야(Talbiyah)**’는 순례자가 이흐람을 입는 상태에서 큰 소리로 다음을 부르는 것이다.

“랍바이칼라 훔마 랍바이크, 랍바이카 라 샤리카 라카 랍바이크, 인날 함다 완 니오마타 라카 왈 물크, 라 샤리카 라크.”

오, 주여! 당신의 부름을 받고 순례를 왔습니다. 당신에게 비유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은혜와 주권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에게 비유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성 순례자들은 남성보다 작은 소리로 탈비야를 부른다.

‘**따와프(Tawaf)**’는 카아바 주위를 7번 정해진 의식에 따라 순회하는 것이다.

‘**싸이(Say)**’는 카아바 주변에 있는 ‘싸파(Safa) 언덕’과 ‘마르와(Marwa) 언덕’ 사이를 왕복하는 것으로 ‘싸파 언덕’에서 ‘마르와 언덕’까지 4번, ‘마르와 언덕’에서 ‘싸파 언덕’까지 3번 빠른 걸음으로 보행한다.



‘우크프(Wuquf)’는 대순례 때 ‘아라파트’와 ‘무즈달리파’라는 곳에 정해진 시간동안 체류하는 것이다. 아라파트에서 체류하는 것은 파르드(절대의무)이며 무즈달리파에서 체류하는 것은 와집(필요의무)이다.

하즈(대순례)의 과정

-대순례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례를 위한 경비를 충분히 마련한다.

-순례를 위해 떠나기 전 지은 빛이 있다면 모두 갚고 가까운 무슬림형제(자매)에게 그 동안 잘못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지은 죄가 있으면 알라께 회개한다.

-그동안 행하지 못한 숭배행위(예배, 단식 등)가 있다면 보충하도록 한다.

-순례를 위해 집을 떠나기 전에 2라크아의 예배를 드린다.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순례를 위한 여행을 떠난다.

-여행 중이나 성지순례 의식을 행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언행을 피한다.

-이흐람을 입을 장소인 ‘미카트’에 도착하기 전에 손발톱을 깎고 가능하면 구슬을 한다. 구슬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우두를 한다.

-남성은 바느질하여 만든 평복을 벗고 ‘리다(하의 대용의 하얀 큰 수건)’는 허리에, ‘이자르’상의 대용의 하얀 큰 수건)는 어깨에 걸친다. 이흐람 상태를 갖는 동안 복사뼈와 발가락이 보이는 신발을 신고 머리에는 아무 것도 쓰지 않는다. 여성은 평상복을 입는다.

-‘미카트’ 장소에서 2라크아의 예배를 드리고 성지순례를 위한 의도를 하고 탈비야를 부른다. 이리하여 이흐람 상태에 있게



된다. 그 상태가 유지되는 한 금지된 행위들(성적관계, 꿰매어진 의복 착용, 논쟁, 도살, 동식물에 해를 가하는 것 등)을 멀리해야 한다.

-메카에 도착하면 구슬이나 우두를 하고 카아바 주위를 7회 순회하는 따와프를 행한 다음 2라크아의 따와프 예배를 드린다.

-이어서 싸파 언덕과 마르와 언덕 사이를 의식에 따라 왕복한다.

-이흐람 상태에서 메카에 머무른다.

-메카에 있는 동안 가능한 한 하람 성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발 따와프를 행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하람 성원은 일반 이슬람 성원과 같지 않으며 그곳에서 행하는 선행은 다른 곳에서 행한 선행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성지순례달 8일(탈비야) 아라파트 평원에 올라가서 9일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며 예배와 기도와 알라를 염원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오시간이 되면 정오(주후르)와 오후(아스르) 예배를 다 함께 드린다.

-해가 진 다음 저녁(마그립) 예배를 제시간에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지달리파로 이동한다. 무지달리파에서 저녁(마그립)과 밤(이샤) 예배를 밤예배 시간에 함께 드린다. 밤을 무지달리파에서 지낸 무슬림들은 사탄에게 던질 콩알만한 깨끗한 돌을 준비한다.

-이드날(10일) 아침 새벽(파즈르) 예배를 일찍 드린 후 무지달리파에서 체류한다. 해가 뜬 후 미나로 향한다.

이드 첫 날 미나에서의 순례의식

-자마라툴 아끄바(Jamaratul Aqabah, 대(大)사탄의 표석)에 7개의 조약돌을 한 개씩 던진다.

-머리를 깎은 후 이흐람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 (알이프라드 순례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가축을 희생하는 것이 와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마라툴 아끄바에 조약돌을 던진 후 머리를 깎고 이흐람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 앓타맛투우 순례와 알끼라안 순례를 행하는 자들은 자마라



를 아끄바에 조약돌을 던지고 가축을 희생하고 머리를 깎은 후 이흐람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

-시간이 있을 때 메카로 내려가서 의무행위인 ‘방문 따와프’를 행한다.

이드 둘째 날의 순례의식

-미나에 가서 작은 사탄과 중간 사탄 그리고 대사탄의 표석 3개에 7개씩 21개의 조약돌을 던진다. 이드 첫 날 ‘방문 따와프’를 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드 둘째 날에 이를 행한다.

이드 셋째 날의 순례의식

-다시 미나에 가서 작은 사탄과 중간 사탄 그리고 대사탄의 표석 3개에 7개씩 21개의 조약돌을 던진다.

-같은 날 미나에서 메카로 내려가서 ‘고별 따와프’를 행하면 성지순례의식이 완성된다.

위에 언급된 설명은 알이프라드 순례에 대한 것이다. 앳타맛투우 순례와 알끼라안 순례를 행하는 방법은 알이프라드 순례와는 조금 다르다.

앳타맛투우 순례과정

-‘미카트’라는 장소에서 우므라를 행하기 위해 이흐람을 입는다.

-메카에 도착하면 순례 의식에 따라 우므라를 행한 후 머리를 깎고 이흐람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 순례달 8일까지는 메카에서 이흐람을 입지 않는 상태로 기다린다. 그러나 순례달 8일부터는 메카에서 다시 이흐람을 입고 위에 언급되었듯이 순례 의식을 완성한다.

알이프라드 순례와는 달리

1) 이드 첫날 자마라툼 아끄바(대(大)사탄의 표석)에 7개의 조약



돌을 한 개씩 던진 다음 가축을 희생하고 머리를 깎고 이흐람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

2) ‘방문 따와프’를 행한 후 싸파 언덕과 마르와 언덕 사이를 순례의식에 따라 왕복한다.

알끼라안 순례과정

- ‘미카트’라는 장소에서 우므라(소순례)와 핫즈(대순례)를 위한 의도를 함께 하고 이흐람을 입는다.

- 메카에 도착하면 먼저 우므라를 행하여 의식들을 마친 후 따와프와 사이를 행하지만 이흐람을 벗지 않는다.

- 이흐람을 입은 상태에서 순례달 8일에(탈비야) 아라파트 평원에 올라가 위에 언급되었듯이 순례의식을 행한다.

알이프라드 순례와는 달리, 이드 첫 날 자마라툼 아끄바(대(大) 사탄의 표석)에 7개의 조약돌을 한 개씩 던진 후 가축을 희생하고 머리를 깎고 이흐람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

우므라(소순례)

우므라(소순례)를 행하는 데는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순례의식에 따라 이흐람을 입고 따와프를 행하고 사이를 한 후 머리를 깎는 것으로 완성된다.

우므라는 순나이므로 순례달 9일째와 4일간의 이드 날(즉, 일년에 5일만)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우므라(소순례)의 과정

- ‘미카트’라는 장소에서 구슬 또는 우두를 한 후 우므라를 위해 의도하고 탈비야를 부르며 이흐람을 입는다.

- 메카에 도착하면 순례의식에 따라 카아바 주위를 7회 순회하여 따와프를 마친 후 2라크아 따와프 예배를 드린다. 이어서 싸파 언덕과 마르와 언덕 사이를 의식에 따라 왕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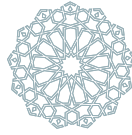


-머리를 깎고 이흐람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우므라가 완성된다.

질문:

- 1) 성지순례란 무엇인가?
- 2) 성지순례의 혜택은 무엇인가?
- 3) 성지순례는 누구에게 부과되는 의무인가?
- 4) 성지순례의 종류는 무엇인가?
- 5) 가축을 희생하는 것이 와집이 아닌 성지순례는 무엇인가?
- 6) ‘이흐람’, ‘탈비야’, ‘따와프’, ‘싸이’ 그리고 ‘우크프’란 무엇인가?
- 7) ‘우므라’란 무엇인가?

9. 희생



주제:

- 희생의 중요성
- 희생은 누구에게 부과되는 의무인가?
- 언제 그리고 도살방법은 무엇인가?
- 희생된 동물의 고기와 가죽
- 희생이 허용된 동물과 금지된 동물
-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
- 결심(나즈르)
- 맹세의 종류

희생의 중요성

‘희생’은 숭배행위를 목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동물을 도살하는 것이다.

희생은 재정적 숭배행위이며 와집(필요의무)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이슬람력 2년에 무슬림들에게 의무화되었다. 가축을 희생하는 의식은 알라의 길에서 재산을 바치는 것임을 상징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양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한다.



부유한 자들이 도살한 동물의 고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는 무슬림들 간에 형제애와 돌봄을 강화시켜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만든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부자들에게 ‘희생’의 행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재산에 대한)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희생하지 않는 자는 우리 성원에 가까이 오지 말라.”

(앗-타르킵 왓-타르힉, 2권 155쪽)

희생은 누구에게 부과되는 의무인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희생’은 와집이다.

- 1) 무슬림
- 2) 이성을 갖춘 자
- 3) 사춘기에 이른 자
- 4) 자유인
- 5) (여행자가 아닌) 거주자
- 6) 희사가 의무화되는 특정한 양의 재산을 소유한 자 (양이나 소를 희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양의 재산이나 돈을 소유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도 됨)

언제 그리고 도살방법은 무엇인가?

희생을 행할 수 있는 기간은 이둘 아드하의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날이다. 그러나 셋째 날 저녁부터는 희생을 행할 수 없다.

희생할 가축을 희생할 장소로 데려갈 때는 세계 밀거나 당기지 않으며 부드럽게 데려가야 한다. 반드시 무딘 칼이 아닌 날카로운 칼로 빠르게 도살하여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숨이 천천히 끊어지게 되면 죽는 동안 고통을 느끼게 되고 뇌신경까지 피



가 흘러 유입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가축을 도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잘 하지 못한 사람은 잘 하는 사람에게 맡겨도 된다.

동물의 얼굴 왼편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소재한 카아바로 향하게 하여 눕힌다. 동물을 도살할 사람은 ‘비쓰밀라’(알라의 이름으로)와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시다)를 암송한 후 도살해야 한다. 목구멍, 숨통 그리고 목 혈관들을 베어냄으로써 척수를 베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동물이 죽기 전에 머리를 완전히 자르고 가축을 벗기는 것은 마크루흐(상대금지)이다. 만일 동물을 도살할 때 의도적으로 ‘비쓰밀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동물의 고기는 먹을 수 없다.

희생된 동물의 고기와 가축

동물을 도살하는 자는 동물의 고기를 본인도 먹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다.

희생된 동물의 고기의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3분의 1은 이웃과 친구들(무슬림 형제자매들)에게, 나머지 3분의 1은 가축(자신을 포함)과 친척들에게 분배한다. 희생된 동물의 전체를 다른 무슬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희생된 동물의 고기와 가축을 팔수는 없다. 다른 사람에게 동물을 도살하기 위해 맡긴 경우에는 그에게 도살한 비용 대신에 고기를 줄 수 없다. 가축을 예배카펫이나 가축용품으로 가공하는 것이 허용되며 가난한 사람이나 이슬람 기관에 주는 것도 허용된다.

희생이 허용된 동물과 금지된 동물

양, 염소, 소, 물소 그리고 낙타는 희생이 허용된 동물이다. 양과 염소는 1살, 소와 물소는 2살, 낙타는 5살에 도달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양이 6개월에 도달했지만 1살이 된 것처럼 보이면 희생할 수 있다. 염소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1살에 도달해야 희생에 사용할 수 있다.



양이나 염소는 한 사람이 한 마리를 희생해야 하나 소와 물소 그리고 낙타는 일곱 사람까지 한 마리를 희생할 수 있다. 뿔이 조금 깨지거나 이빨의 일부만 없는 것 또는 절름발이인 경우 그 동물의 희생을 허용한다.

다음의 결함이 있으면 그 동물은 희생에 사용될 수 없다

- 1) 하나 또는 두 눈이 안 보이는 경우
- 2) 뿔 중 하나 또는 두 개의 끝부분이 깨진 경우
- 3) 귀나 꼬리의 반 이상이 잘려진 경우
- 4) 발이 땅을 밟지 못할 정도 절름발이인 경우
- 5) 귀나 꼬리가 태어날 때부터 없는 경우
- 6) 이빨이 거의 없어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여) 배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경우
- 7) 병에 걸린 경우
- 8) 동물의 뼈 속에 골수가 없을 정도로 야윈 경우
- 9) 젓꼭지가 잘린 경우
- 10) 양이나 염소의 젓 중 하나, 소의 젓 중 두 개가 젓이 마른 경우

닭이나 수탉 등 조류는 희생이 허용되지 않은 동물이다.

먹을 수 있는 동물

양, 염소, 소, 물소, 낙타, 닭, 거위, 오리, 기린, 타조, 비둘기, 메추라기, 공작새, 제비, 부엉이, 토끼, 두루미, 참새, 찌르레기 등의 동물들은 이슬람식으로 도살되었다면 먹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물속에 사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도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는 동물

-송곳니가 있는 동물의 고기: 늑대, 곰, 사자, 호랑이, 다람쥐,



족제비, 원숭이, 돼지, 하이에나, 고양이, 개, 코끼리, 도마뱀, 여우 등.

-말, 노새, 당나귀 고기.

-움켜쥐기만 해도 먹이 동물을 곧바로 죽이는 강력한 발톱을 가진 조류: 독수리, 검은대머리수리, 황새, 큰 까마귀, 새매, 매, 박쥐, 까마귀 등.

-쥐, 전갈, 뱀, 개구리, 거북, 바다거북, 두더지, 고슴도치, 민달팽이, 지렁이, 애벌레, 파리, 해충, 벌, 나비.

결심(나즈르)

‘결심(나즈르)’이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알라께 복종하겠다고 스스로 결심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2가지이다.

1) 절대적 나즈르

누군가가 “나는 알라를 위해 도살하겠다.”라고 표현하며 결심하면 그 사람에게는 희생하는 것이 필요의무가 된다.

2) 조건적 나즈르

예를 들어, “병든 나의 친척이 회복하면 알라를 위해 도살하겠다.”라고 표현하며 결심한다면 친척이 회복되면 그때 희생하는 것이 필요의무가 된다. 그러나 친척이 회복하기 전에 희생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즈르는 희생 할 수 있는 동물로만 가능하다.

희생된 동물의 고기는 나즈르를 한 당사자와 그의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과 손자들 그리고 회사가 의무화되는 특정한 양의 재산이나 돈을 소유한 자들은 먹을 수 없으며 고기 전체를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나누어주어야 한다.

고인을 위한 희생을 행하는 경우

고인을 위해 희생을 행하는 것은 이틀 아드하 기간 동안에



만 허용된다. 이런 목적으로 희생된 고기는 희생을 행한 당사자가 먹는 것이 허용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줄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이 죽기 전에 자신을 위해 희생을 행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면 희생을 행한 당사자는 고기를 먹을 수 없으며 고기 전체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

맹세의 종류

맹세(알-야민)는 대화 시에 강조를 위해 알라의 이름을 언급할 때나 알라의 속성을 말할 때 사용된다. 맹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알-야민 알-라우우(al-Yamin al Laghw, 실수로 인한 맹세)

실수로 행한 맹세를 의미한다.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알라히(알라를 두고 맹세하사) 돈이 없다”라고 맹세한 경우처럼 이러한 맹세는 죄악이 아니며 그에 대한 속죄 또한 필요 없다.

2) 알-야민 알-가무쓰(al-Yamin al-Ghamus, 의도적인 맹세)

의도적으로 행하는 거짓맹세를 의미한다.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 “알라히(알라를 두고 맹세하사) 내가 보았어.”, 또는 빛을 갠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라히(알라를 두고 맹세하사) 빛을 갠지 않았어.”라고 맹세하는 경우처럼 타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짓맹세는 큰 죄악으로 만약 이러한 거짓맹세를 하였다면 알라께 용서를 빌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나 피해를 주었다면 우선적으로 이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만약 중상이나 혐담을 하여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의도적인 거짓맹세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매우



큰 해를 입히는 죄에 속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3) 알-야민 울-무나아끼다(al-Yamin ul-Mun'aqidah, 미래의 행동에 대한 맹세)

“알라히(알라를 두고 맹세하사) 내일 빛을 갓겠다.”, “알라히(알라를 두고 맹세하사) 그와 만나지 않겠다.” 등처럼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것에 대하여 하는 맹세이다. 만약 맹세한 그대로 지킨다면 속죄할 필요가 없으나 맹세를 어긴다면 그에 대한 속죄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무리 확신한다 하여도 알라를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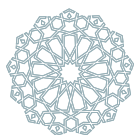
맹세의 속죄

앞서 언급했듯이 알라를 두고 맹세하였으나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면 속죄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10명의 불우한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거나 10명의 불우한 사람에게 ‘자카툼 피트르’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3일간을 계속해서 단식해야 한다.

질문:

- 1) 희생은 누구에게 부과되는 의무인가?
- 2) 희생은 언제 행하는가?
- 3) 희생된 동물의 고기와 가죽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4) 희생이 허용된 동물과 금지된 동물들은 어떤 것인가?
- 5) ‘결심(나즈르)’이란 무엇인가? ‘결심(나즈르)’의 경우 언제 희생을 행하는가? 이렇게 희생된 고기와 가죽은 어떻게 하는가?
- 6) 이슬람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은 어떤 것인가?
- 7) 맹세란 무엇인가? 맹세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 8) 맹세의 속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 이슬람의 축제일과 주요 날들



주제:

- 금요일과 이드 날들
-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출생일: '마울리드(Mawlid)'
- 라가입과 미으라즈 밤
- 바라트와 까드르 밤

금요일

합동예배가 있는 금요일은 무슬림들에게 축복된 날로서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원에 모이는 무슬림들은 함께 알라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알라 안에서 하나임을 느낀다.

금요일은 이슬람 역사상 주요 사건들이 발생했던 의미 있는 날이며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태양이 떠오른 날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은 금요일이니라. 이 날 아담이 창조되었고, 이 날 (아담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곳으로부터 내려 보내졌으며 이 날 심판이 있으리라.”



“**금요일에는 어떤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무슬림이 예배하고 기도를 드린다면 그가 요청하는 무엇이든 알라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주실 것이니라.**” (리야둣 싄-리히-인, 210장 1156번)

이드 날들

이슬람에는 다음과 같이 1년에 두 번의 축제일이 있다.

- 1) 이들 피뜨르
- 2) 이들 아드하

‘**이들 피뜨르**’는 무슬림들이 알라의 말씀에 복종하여 라마단 한 달 동안의 단식을 마친 바로 다음 날로 알라의 자비로 단식을 무사히 마친 기쁨을 나누고 다함께 이드예배를 드리고 행복을 만끽하는 축제일이다.

‘**이들 아드하**’는 예언자 이브라힘(알라이히 싄람)이 알라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아들 이스마일(알라이히 싄람)을 희생시켜 바치고자 했던 진실한 순종의 자세를 기념하기 위하여 소나 양, 염소와 같은 가축을 희생하고 희생한 고기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며 무슬림들이 다함께 이드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 두 축제일 모두 희사의 개념을 포함하는데 즉, 이들 피뜨르에는 자카트 피뜨르(라마단의 단식을 마치는 즉시 하는 특별자선)를, 이들 아드하에는 희생한 소나 양의 고기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축제일로부터 소외되는 일없이 부자이건 가난하건 다 함께 알라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기쁨의 날을 누린다.

이드 날에는 주로 부모님과 친척어른들을 방문하고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은 화해하여 무슬림형제애를 돈독히 한다.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해 꾸란을 암송하기도 하며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다까(자발적인 자선)를 하기도 한다.

이드는 무슬림들이 서로를 초대하고 대접하는 날이며 화를 내거나 싸우는 일 없이 알라 안에서 서로를 축복해주는 날이다.



예언자 무함마드(صلا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출생일:

'마울리드(Mawlid)'

알라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صلا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는 서기 571년, 음력으로는 라비올 아우왈(3월) 달의 12번째 밤에 태어나셨다. 이 밤을 '마울루드' 즉, 예언자 무함마드(صلا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출생일이라고 한다.

그 분이 태어났던 세상은 지구 어디를 가든 무지와 박해 그리고 부도덕이 만연해 있었다. 한 분이신 창조주에 대한 신앙은 소멸되고 인류는 암흑 속에 있었으며 세상은 살 만한 곳이 못 되었다.

예언자 무함마드(صلا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태어남으로 세상은 밝아졌고 사람들의 마음에 알라에 대한 신앙의 빛이 가득 차게 되었다. 사람들 사이에 평등, 정의 그리고 형제애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며 알라의 말씀을 따르는 사회는 진실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예언자(صلا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면에서 특별한 아름다움과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시공을 초월한 인류의 귀감인 예언자의 품성과 행위를 따르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다.

라가입 밤

라잡(7월), 샤반(8월) 그리고 라마단(9월) 이 세 달들은 다른 달들보다 더 우수하고 축복이 많다. 라잡 달이 다가오면 예언자 무함마드(صلا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드리곤 하셨다.

“오, 알라! 우리에게 라잡과 샤반 달을 축복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라마단 달에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이맘 수유티의 알-자미웃 싸이르에서, 제5권 131쪽)

라잡 달의 첫 금요일 밤을 '라가입 밤'이라고 한다. '라가입 밤'은 알라께서 종들에게 자비와 관용을 가득 베푸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아들여시는 성스러운 밤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기도가 거절되지 않는 다음의 5가지 밤이 있느니라. 이 밤들은

- 라잡 달의 첫 금요일 밤,
- 샤반 달의 15번째의 밤,
- 금요일 밤,
- 이돌 피뜨르의 밤, 그리고
- 이돌 아드하 밤이니라.”

(이맘 수유티의 알-자미웃 싸이르에서, 제3권 454쪽)

미으라즈(승천)의 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어느 날 밤 알라의 부름으로 천사 지브릴(가브리엘)과 함께 메카의 하람성원에서 꾸두스(예루살렘)의 아끄사성원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서 하늘로 오르는 천상여행을 체험하게 되었다. 일곱 번째 하늘까지 오르신 후 ‘시드라틀 문타하’라는 곳에 도착하셨다. 거기서부터는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홀로 나가서 어떠한 수단 없이 알라와 만나셨다.

이 성스러운 밤 여행 중 메카에서 꾸두스까지의 부분을 ‘이스라(Isra)’라고 하고, 꾸두스로부터 마지막 목적지까지의 부분을

‘미으라즈(Miraj)’라고 한다. 미으라즈 밤에 알라께서는 예언자에게 하루 다섯 번의 예배가 모든 무슬림의 의무임을 명하셨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가장 큰 기적 중 하나인 미으라즈는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메디나로 이주하기 1년 반 전인 라잡 달 27일째 되는 밤에 생긴 사건이다.



바라트 밤

‘바라트 밤’은 사반 달의 15번째의 밤으로 이 밤에 알라께서는 그 분께 기도드리며 회개하는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빛, 죄 또는 벌로부터 면제된다는 뜻을 가진 ‘바라트’의 종교적 의미는 ‘죄가 사해지는 밤’을 뜻한다.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는 이 밤에 잠자는 대신 알라께 용서를 빌며 기도를 드리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반 달의 15번째의 밤이 되면 알라께 숭배하도록 하라. 낮에는 단식을 하라. 왜냐하면 알라께서 그 날 밤은 해가 뜰 때까지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니라.

-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 있는가? 내가 그를 용서해주리라.
- 양식을 달라고 하는 자 있는가? 내가 그에게 양식을 주리라.
- 병에 걸린 자가 있는가? 내가 그를 낫게 해주리라.
- 그들이 그 외에 무엇을 소원하든 내가 해주리라.”

(이븐 마자가 전함, 이까마 191번)

따라서 우리는 이 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알라께 회개하며 간청을 드리도록 해야 한다.

까드르(권능) 밤

꾸란의 계시가 바로 라마단 달의 까드르 밤에 시작되었다.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는 이 밤으로부터 알라께서 부여하신 예언자의 임무를 맡게 되었고 이슬람의 빛이 이 밤을 시작으로 세상에 비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사건들로 인해 까드르 밤은 무슬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다.

꾸란에서는 이 밤을 “천 개월 보다 더 좋다”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도 이 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까드르(권능)의 밤을 신앙으로써 그리고 알라의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용서받으리라.” (앗-타르킵 왓-타르히프, 2권 119쪽)

까드르 밤은 알라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주신 큰 은혜이므로 우리는 이 축복받은 밤에 더 많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꾸란을 읽어야 한다.

아이샤(라디알라후 안하)가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에게 묻기를,

“오, 알라의 예언자시여! 권능의 밤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오, 알라, 진실로 당신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용서해주시기를 원하시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리야둡 삿-리히-인, 214장 1195번)

위 기도문을 기억하여 까드르 밤에 암송하며 알라께 죄의 용서를 빌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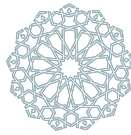
질문:

- 1) 금요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2) 이슬람 축제일은 몇 개이며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
- 3) 마울리드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4) 라가입 밤은 무엇인가?
- 5) 미으라즈 밤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 6) 바라트 밤은 언제인가? 그 밤의 혜택은 무엇인가?
- 7) 까드르 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8) 이러한 중요한 밤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제 3 장 윤리



1. 이슬람과 윤리관



주제:

- 윤리
- 이슬람의 윤리관
- 훌륭한 품성을 갖추기 위한 신앙과 숭배행위의 역할
- 가장 훌륭한 품성: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와살람)
-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윤리의 중요성
- 경제생활과 윤리
- 품성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 이슬람에서 이성과 지식의 중요성

윤리

윤리는 영혼의 좋은 습관이다.

습관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 1) 좋은 습관
- 2) 나쁜 습관



행동은 영혼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영혼이 좋은 습관을 따른다면 행동도 좋을 것이고 나쁜 습관을 따른다면 행동도 나쁠 것이다. 좋은 습관은 훌륭한 품성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나쁜 품성으로 우리를 만들어낸다. 땅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결실을 이루는 농작물이 달라지듯이 어떤 습관으로 우리의 영혼을 길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품성도 바뀐다.

이슬람의 윤리관

이슬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한 품성’을 갖도록 이끈다. 즉, 이슬람의 모든 가르침은 인간의 품성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게 되도록 훈련시킨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훌륭한 품성과 도덕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 보내졌 느니라.” (카시풀 하파, 제1권 211쪽)

무슬림의 가치는 오직 얼마나 훌륭한 품성을 갖느냐에 따라 판단된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은 가장 훌륭한 품성을 갖춘 자 이니라.” (리야둣 쌀-리히-인, 73장 625번)

누군가가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알라 앞에서 가장 훌륭한 종은 누구입니까?”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품성이 가장 훌륭한 이니라.” (하디스집, 32쪽)

송배행위의 목적들 중 하나는 인간을 악으로부터 멀리하고 훌륭한 품성을 갖추도록 이끄는 것이며 이는 윤리규범을 준수하는 것에 의해 이뤄진다.



훌륭한 품성을 갖추기 위한 신앙과 숭배행위의 역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알라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천사들이 기록하고 있음을 믿는다. 또한 현세에서의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의 날 심판을 받아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보상을 얻고 악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을 것임을 믿는다.

알라께서는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티끌만한 무게의 선을 행한 사람도 그것을 볼 것이며, 티끌만한 무게의 악을 행한 자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99장 7-8절)

이러한 믿음은 사람을 죄짓는 것으로부터 멀리하고 선을 행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현세의 삶 동안 알라께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여 올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알라의 공정한 심판은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 되겠지만 창조주의 존재를 무시한 채 악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후회와 두려움의 순간이 될 것이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무슬림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점검하며 알라에 대한 경외심으로 악행은 멀리하고 선행은 행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숭배행위는 신앙심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품성을 갖게 한다.

하루 다섯 번의 예배는 인간으로 하여금 항상 알라를 기억하게 하고 악을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근원으로부터 보호한다. 단식은 타인을 향한 동정심과 이타심을 키워주고 우리의 마음이 알라께 복종하도록 이끈다. 희사는 소유한 부를 정화시키고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킨다.

숭배행위로 단련된 신앙은 우리를 훌륭한 품성의 소유자로 만들며 가장 가치 있는 인간으로 거듭나게 한다. 품성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잎사귀도 꽃도 피지 않고 과일도 열리지 않는 나무와 같다.



가장 훌륭한 품성: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 분의 모범적인 품성은 그 분을 마치 ‘살아 있는 꾸란’으로 비유할 정도였다. 예언자의 품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아내 아이샤(라디알라후 안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분의 품성은 꾸란 그 자체였다.**” (샤리우 씨파 알리울 까리(Sharhu'sh-Shifa, Aliyyu'l-Qari), 제1권 222 쪽)

즉, 꾸란에서 가르치고 있는 품성이 그대로 반영된 실천 귀감이었다는 것이다.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모범적인 윤리행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실천하셨다. 항상 의로움과 선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훌륭한 품성의 모범을 보이셨다. 알라께서는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가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분임을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알라께서 보내신 예언자로서 훌륭한 모범이 있으니...” (33장 21절)

그 분의 품성과 행위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 된다. 우리가 그 분을 모범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분의 삶을 배우고 그 분의 품성을 삶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윤리의 중요성

민족 또는 국가라 칭하는 거대한 사회의 근본은 가정이며 가정은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건강한 개인이 존재하려면 건강한 가정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상호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약 윤리의 중요성이 간과된다면 건강한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생성될 수 없다. 썩은 나무판으로 튼튼한 배를 만들 수 없듯이 좋은 품성을 갖추지 못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경제생활과 윤리

이슬람은 알라께서 허락하신 한계를 벗어나지만 앎는다면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일하여 번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알라께서 허용하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하고 그 분이 금하신 방법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행위는 멀리해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의 날에 인간은 부를 어떻게 축적했고 그것을 어떻게 소비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기 전에는 발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라.” (앗-타르킵 왓-타르히프, 1권 125쪽)

그 분이 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무슬림을 속이거나 해를 끼치는 자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느니라.” (하디스 250선, 159쪽)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상거래를 할 때 정직함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다음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

“상거래를 할 때 정직함을 지키는 사람은 심판의 날 예언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디스 250선, 62쪽)

정직함은 무슬림에게 아주 중요한 품성이다. 알라께서는 정직한 거래를 허용하시며 또 그것을 축복하신다. 따라서 무슬림은 모든 거래 시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속이는 일없이 정직하게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은 무슬림이 있다면 정직할 것을 충고하고 법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사기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야 한다.

생산자의 임무는 질이 좋고 모조품이 아닌 정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노동자와 공무원의 임무는 맡겨진 일을 능률적이고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생각



하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는다면 그것은 이슬람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 한 개인의 성실하지 못한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알라를 믿는 사람은 훌륭한 품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보는 이가 없어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유익한 사람으로 알려지게서 축복을 베푸신다.

품성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아기는 이 세상에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지만 부모의 양육방식과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품성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좋지 않은 품성을 갖게 된 사람의 경우 훌륭한 품성으로 바뀌도록 할 수 있는가? 병에 걸린 몸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듯이 품성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품성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라.”

(아흐마드 함디 악세키, 윤리강의 19쪽)

병이 전염되듯이 악한 품성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친다. 훌륭한 품성을 가지려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자는 미스크(Misk, 향수)를 갖고 다니는 자와 같고 나쁜 사람과 함께 있는 자는 대장간 화로에 바람을 불어넣는 자와 같으니라. 미스크(향수)의 주인은 너희들에게 향수를 선물로 줄 수 있던지 아니면 너희들이 그로부터 향수를 살 수 있거나 최소한 (그와 함께 있는 동안) 향수의 냄새는 맡을 수 있느니라. 한편 후자는 네 옷을 불에 태우거나 너는 화로에서 나는 연기 냄새를 마시게 되느니라.” (이맘 수유티의 알-자미웃 싸이르에서)



훌륭한 품성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면 신앙은 강화되고 현세와 내세를 위해 유익함을 얻게 될 것이다. 반면에 품성이 나쁜 사람과 함께 한다면 현세와 내세에서 해를 입게 될 것이다. 훌륭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욱 유익한 것들을 나누며 알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끈다. 반면 악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알라와 멀어지는 행위를 일삼고 스스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삶을 파멸로 이끈다.

이슬람에서 이성과 지식의 중요성

이성(理性)은 알라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큰 축복이다. 이성은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사용하도록 알라께서 부여하신 것으로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다.

이슬람에서는 ‘의무이행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성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알라에 대한 믿음과 그 분에게 숭배행위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이성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숭배행위를 할 의무가 없다.

이슬람에서 지식의 추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무슬림에게 의무인데 최초로 계시된 꾸란 구절이 “읽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함은 알라께서 인간에게 지식의 추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음을 알 수 있다. 알라께서는 지식과 지식인의 가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같을 수 있느냐?..” (꾸란 39장 9절)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지식의 추구가 무슬림들에게 주요 의무 중 하나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지식의 추구는 남녀 모든 무슬림들의 의무이니라.”

(미시카툼 마사비히, 제1권 233쪽)

개인의 지식추구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 또한 이슬람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여긴다.



오스만 제국의 왕들 중 야부즈 술탄 셀림(Yavuz Sultan Selim)은 이집트에서 이스탄불로 돌아가는 중 유명한 이슬람 학자 이븐 카말과 함께 흠탕물이 많은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슬람 학자 이븐 카말이 탔던 말이 흠탕물을 밟아 그 흠이 야부즈 술탄 셀림 (술탄은 ‘왕’을 의미)의 옷을 더럽혔다. 이븐 카말은 자신이 왕의 옷을 더럽힌 것에 대하여 슬퍼하자 야부즈 술탄 셀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승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학자가 탄 말의 발굽에서 튕흠은 우리에게 장식입니다.”

왕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흠이 묻은 이 옷을 잘 보관하였다가 내가 죽을 때 내 관 위에 놓도록 하라!”

이 말씀으로 왕은 학자를 존중함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질문:

- 1) ‘윤리’란 무엇인가?
- 2) 이슬람에서 윤리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3) 훌륭한 품성을 갖추기 위한 신앙과 숭배행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4) 예언자 무함마드(ﷺ)의 품성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5)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6)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윤리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7) 품성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8) 이슬람에서 이성과 지식을 중요시함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2. 윤리적 의무



주제:

- 이슬람의 윤리적 의무
- ‘알라’와 ‘예언자’와 ‘꾸란’에 대한 의무
- ‘자신’에 대한 의무
-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무
-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의무
- 식사 예절
- 혐의 간수
- 신체의 다른 기관들의 간수
- ‘이슬람은 낭비를 금한다’ (독서)

이슬람의 윤리적 의무

이슬람에는 5가지 윤리적 의무가 있다.

1. ‘알라’와 ‘예언자’와 ‘꾸란’에 대한 의무
2. 자신에 대한 의무
3. 가족에 대한 의무



4. 조국과 민족에 대한 의무
5. 모든 인류에 대한 의무

1. ‘알라’와 ‘예언자’와 ‘꾸란’에 대한 의무

1) ‘알라’에 대한 의무

무(無)의 상태였던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완벽한 신체기관들을 베푸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알라’이시다. 오직 인간에게만 이러한 특권을 부여하신 알라께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다.

- ① 알라께서 존재하심과 그 분의 유일성을 믿는 것
- ② 알라께 숭배행위를 행하는 것
- ③ 알라의 말씀에 따라 허락하신 것만을 행하고 금하신 것은 멀리하는 것
- ④ 알라에 대한 경외심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 ⑤ 알라의 이름을 진실한 마음으로 염원하는 것
- ⑥ 알라께서 베푸신 양식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

2) ‘예언자’에 대한 의무

알라께서는 이슬람을 인류에게 전하는 임무를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부여하셨다.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도 알라의 신성한 계율과 계시를 인류에게 전함으로서 무지와 어둠의 질곡에서 인류를 구원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 ① 그 분이 알라의 마지막 예언자임을 믿고
- ② 그 분을 존경과 헌신으로 사랑하고 그 분의 이름이 언급될 때 “앗-쌀라투 알란 나비”¹⁾를 말하고

1 “앗-쌀라투 알란 나비”란 예언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나 다른 이에 의해 언급될 때 “알라께서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 분의 가족에게 자비와 축복을 베풀어주시기를...”이라고 염원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언자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말하여집니다.



③ 그 분의 발자취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가꾸어야 하며

④ 그 분을 모범으로 삼아 그 분의 삶을 배우고 그 분의 품성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3) ‘꾸란’에 대한 의무

① 꾸란이 알려께서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에게 계시하신 마지막 성서임을 믿는 것

② 꾸란의 읽는 방법에 따라 가능한 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거나 암송하는 것

③ 꾸란의 뜻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

④ 꾸란을 읽거나 들을 때는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것

⑤ 꾸란에 의해 명하여진 것은 행하고 금하여진 것은 멀리하는 것

2. ‘자신’에 대한 의무

인간이 신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피조물이므로 ‘자신’에 대한 의무는 다음 2가지로 나뉜다.

1)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무

2)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의무

1)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무

① 영양의 균형

순수한 마음과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맑은 영혼과 깨끗하고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는 섭취하는 음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꾸란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그 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또는
 • **알라훤마 싹리 알라 무함마딘 와알라 알리 무함말**(오, 알라! 무함마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함마드의 가족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오, 사람들이여! 땅 위에 있는 허용된 좋은 것만을 먹도록 하라...” (2장 168절)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도 무슬림에게 있어 건강을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다.

“**강한 신앙인이 약한 신앙인보다 더 훌륭하며 알라의 사랑을 더 받느니라.**” (마샤리쿨 안와르, 제2권 112쪽)

② 건강의 유지

몸이 병에 걸렸거나 쇠약해졌을 때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 알라의 종복들이여! 반드시 회복되리라. 알라께는 회복되지 않는 어떠한 질병도 주시지 않았느니라.**”

(이맘 수유티의 알-자미웃 싸이르에서)

이슬람은 우리 몸에 해로운 ‘술’과 ‘마약’을 금했으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모든 행위들로 멀리할 것을 명한다.

알라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총은 ‘건강’이다. 따라서 인간은 건강할 때 이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알라께 행하는 숭배행위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된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속담은 이것이 인류의 공통된 진리임을 나타낸다.

건강의 가치를 잘 알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잘 보살펴야 한다. 건강이 알라께서 베푸시는 은총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망각하여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건강을 잃고서야 그것의 가치를 깨닫는다.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두 가지의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과 (선을 행하기 위한) 여가시간이니라.”

(리야둣 쌀-리히-인, 11장 97번)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을 잘 지켜야 한다. 만약 병에 걸린다면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균형 잡힌 식사, 개인위생, 운동 등으로 건강한 몸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강조하신 **“강한 신앙인이 약한 신앙인보다 더 훌륭하며 알라의 사랑을 더 받느니라.”**라는 말씀을 늘 명심해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전염병에 걸린 자로부터 멀리해야 함을 다음의 하디스를 통해 강조하셨다.

“사자로부터 피하듯이 나병자로부터 피하도록 하라.”

(부카리가 전함)

또한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흑사병이 전염된 지역에는 들어가지 말고. 만일 우연히 그곳에 있게 되었다면 그곳에서 나오지 마라.”** (카시풀 하파, 제1권 104쪽)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신 **“알라께서는 치유되지 않는 어떠한 질병도 주시지 않았느니라.”**라는 하디스가 질병에 걸린 사람은 알라께서 부여하신 모든 능력을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임을 보여준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도 몸이 아프셨을 때 치료를 받으셨으며 무슬림들에게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셨다. 병의 치료에 대한 이슬람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은 많은 유명한 의학자들을 배출했는데 이븐 시나(Ibn Sina), 아부 바크르 알-라지(Abu Bakr Al-Razi) 등과 같은 의학자들이 저술한 의학과 관련된 저서들이 유럽에서 수세기동안 표준 의학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는 것은 알라를 의탁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알라께 의탁하고 그 분께서 낮게 해주시리라 믿고 함께 최선을 다해 병의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히려 치료를 위한 아무 노력 없이 알라께 기도만 드리는 것은 옳바르지 않은 행동이다. 이것은 마치 논밭에 씨도 뿌리지 않고 결과물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③ 청결유지

이슬람에서 청결은 신앙의 기본이며 건강한 삶의 바탕이다. 따라서 무슬림은 항상 몸과 주변을 청결히 하도록 노력한다.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도 “**청결은 신앙의 절반이니라.**” (마샤리쿨 안와르, 제2권 107쪽) 라고 말씀하셨다. 즉, 청결하지 않은 사람의 신앙은 완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치아를 깨끗하게 닦고 구강위생에 신경 쓰도록 권고하셨다.

“너희들은 치아가 노랗게 된 상태로 어떻게 나를 방문할 수 있는가? 미스왁(치솔 역할을 하는 나뭇가지)²을 사용하도록 하라.”

(바이하키가 전함)

2)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의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청결 또한 매우 중요하다.

- ① 영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순된 신앙을 제거하는 것
- ② 옳은 신앙을 확립하는 것
- ③ 옳고 유익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
- ④ 악한 생각이나 행동으로부터 멀리하는 것
- ⑤ 좋은 생각과 훌륭한 품성을 기르는 것

2 ‘미스왁(Miswak: 나무 칫솔)’이란 일반적으로 ‘아라크 나무’라고 불리는데 이 천연 나뭇가지 칫솔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흔히 사용한다. 치아 사이가 깨끗이 닦일 뿐만 아니라 나무재질이기에 때문에 부드럽고 치아와 입안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



다음의 악행들로부터 영혼을 멀리하기

적개심, 노여움, 질투, 거짓말, 약속을 어기는 것, 위선, 수치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무례함, 버릇없는 행위, 무자비, 비겁, 게으름, 인색, 잘난 척하는 것, 억압, 부당함, 배신, 성급함, 거친 행위 등.

다음의 훌륭한 품성들로 영혼을 가꾸기

애정, 자비, 성실함, 너그러움, 용기, 부지런함, 인내심, 존중, 인간애, 약속을 지키는 것, 친절함, 선함, 정의, 예의, 용서, 겸손, 노여움의 통제, 좋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 등.

식사 예절

- 1) 음식은 오직 알라께서 허용하신 재료로만 준비되어야 하는 것
- 2)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것
- 3)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식사가 끝나면 “**알함두릴라**”(모든 찬미는 알라께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것
- 4) 오른손으로 식사하며 자신에게 가까운 쪽에 있는 음식부터 먹기 시작하는 것
- 5) 적당한 크기의 음식을 입에 넣고 충분히 씹은 후 삼키는 것
- 6) 입안에 음식이 가득한 채 말하는 것을 삼가는 것
- 7) 한 조각을 삼키기 전에 다른 조각을 입에 넣지 않는 것
- 8) 음식을 식히기 위해 입으로 부는 것을 삼가는 것
- 9) 물을 마실 때 컵 안에 숨을 내쉬는 것을 삼가는 것
- 10) 식사 중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는 것



11) 접시에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음식을 놓고 남기지 않게 다 먹는 것

12) 다 함께 식사할 때 다른 이들이 아직 식사 중이라면 먼저 일어나지 않는 것

13)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는 것

14) 길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서서 식사하지 않는 것

혀의 간수

혀는 인간이 가장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신체기관이다. 이슬람에서는 혀를 잘 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래와 같이 가르친다.

말할 때 지켜야 할 예절

1) 말하기 전에 먼저 신중히 생각한 후 하며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사과가 뒤따를 것 같은 말은 삼가는 것

2) 현세와 내세를 위한 불필요한 말을 삼가는 것

3)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피하며 상대가 말하고 있을 때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것

4)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직분을 고려하여 말하는 것

5) 누군가를 지나치게 칭찬하지 않는 것

6)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삼가는 것

7) 불필요한 말이나 말다툼을 피하는 것

8)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일부러 부각시키는 말을 삼가는 것

9) 나쁜 말이나 거짓말, 거짓 맹세, 험담, 거친 말 등을 삼가는 것

10)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말을 하거나 별명을 붙여 말하는 것을 삼가는 것



11) 비밀로 여겨야 할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하는 것

누군가가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그 분께서는, “**혀를 잘 간수하도록 하라.**” (리야둣 쌀-리히-인, 254장 1520번) 라고 답하셨다.

예언자의 교우 중 한 명이 “**오, 알라의 예언자시어! 저에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이에 그 분께서는 자신의 혀를 내보이시면서, “**이것(혀)을 잘 간수하라.**”(리야둣 쌀-리히-인, 254장 1517번) 고 답하셨다.

또한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알라와 내세를 믿는 자는 옳은 말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침묵하느니라.” (리야둣 쌀-리히-인, 254장 1511번)

알라께서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혀를 주셨고 매순간 그 혀를 어떻게 쓰는가는 우리자신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가 혀를 잘 간수하고 입에서 나올 말을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중요 윤리적 원칙이다.

신체의 다른 기관들의 간수

- 1) 하람에세부터 손과 발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삼가는 것
- 2) 자신이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찾는 것을 삼가는 것
- 3) 귀로 거짓말, 험담, 현세와 내세를 위해 유익하지 않는 말 등을 듣는 것을 삼가는 것
- 4)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신성하게 여기는 것



독서

‘이슬람은 낭비를 금한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이슬람의 가르침이지만 돈을 낭비하며 불필요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알아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셔라 그러나 도를 넘어서는 안 되느니라. 실로 알아께서는 낭비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꾸란 7장 31절)

이슬람은 인색하지도 낭비하지도 않는 삶을 살기를 권장한다. 알아께서는 꾸란에서 그 분의 자비를 얻게 되는 종들이 중용의 삶을 사는 이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다.

“(이들은) 돈을 쓰되 낭비하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며 항상 그 사이의 중용을 택하는 자들이며” (꾸란 25장 67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알아께서 부여하신 것이며 알아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로부터 가져가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돈과 마찬가지로 시간 또한 알아를 기쁘게 해 드릴 일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니라.”** (카시풀 하파, 제2권 189쪽) 라고 말씀하시며 낭비가 가난을 불러올 수 있음을 강조하셨다.

심판의 날 알아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들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의 날에 인간은 다음 네 가지에 관해 질문을 받지 않고는 알아 앞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라.

그(그녀)의 삶에 있어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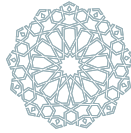


그(그녀)의 젊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냈는지,
 그(그녀)의 재산에 있어서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마지막으로 그(그녀)가 부여받은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가 바로 그 네 가지이니라.” (앗-타르깍 왓-타르힉, 1권 125쪽)

질문:

- 1) 이슬람의 ‘윤리적 의무들’은 주로 몇 가지인가?
- 2) ‘알라’와 ‘예언자’와 ‘꾸란’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가?
- 3) ‘자신’에 대한 의무는 몇 가지인가?
- 4)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가?
- 5)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가?
- 6) 좋은 품성은 무엇이고 나쁜 품성은 무엇인가?
- 7) 식사 예절에 대한 윤리적 원칙들은 무엇인가?
- 8) 말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들은 무엇인가?
- 9) 우리는 신체의 다른 기관들을 어떻게 간수해야 하는가?

3. 가족에 대한 의무



주제:

- 이슬람에서 가족의 중요성
- 가족 구성원간의 의무
- 부부간의 의무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
-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은 아들’ (독서)
- 형제간의 의무
- 친척간의 의무
- 이웃간의 의무
- ‘무슬림이 이웃을 대하는 방식’ (독서)

이슬람에서 가족의 중요성

가족이란 부부와 그 자녀(들)로 구성된 최소형태의 사회이다.

민족은 수많은 가족의 집합체이며 따라서 가족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하면 그 민족도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가족은 민족성과 가치관 그리고 전통의식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교육기관이다. 알라에 대한 의무, 애국애족에 대한 교육의 1차적 바탕이 되는 가족은 가족구성원 각자가 의무를 충실히 완수함으로써 소기의 목표에 이를 수 있다. 가족 안에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그대로 닮게 된다. 이렇게 하여 아이들의 영혼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순수한 영혼을 가졌기에 어른들을 그대로 흡수한다. 따라서 부모나 집 안에 있는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될 행동을 해야 한다. 알라를 기쁘게 해 드릴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올바른 모범이 될 것이다.

가족 구성원간의 의무

가족의 기본인 부부에 대해 예언자(ﷺ)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이 아내들도 여러분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니라.”

(리야둣 싄-리히-인, 34장 276번)

1) 부부간의 의무

- 1) 부부간에 진정한 애정과 사랑을 유지해야 한다.
- 2) 남편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
- 3) 남편은 아내가 종교적, 세속적 의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 4) 남편은 아내를 항상 존중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ﷺ)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무슬림은 보다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나라. 그리고 너희들 중 가장 좋은 사람은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이나라.”(리야둣 쌀-리히-인, 34장 278번)

5) 아내는 남편을 가장으로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협조하며 가정경제의 합리적 운용과 자녀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6) 아내는 남편이 벌어들인 돈을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아내는 아내로서 순결과 명예를 지켜야 한다. 예언자(쌀랄라 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성이 하루 다섯 번 예배를 드리고 라마단 달에 단식하며 순결을 지키고 남편에게 헌신한다면 그녀에게 ‘원하는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할 것이니라.” (하디스 250선 186쪽)

또한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을 떠나는 아내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티르미디가 전함)

2)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가족의 장식이자 행복의 근원인 자녀는 알라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선물이다. 부모는 올바른 가정교육과 건강한 돌봄을 통해 자녀들이 창조주이신 알라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사회와 더 나아가 세상에 이익이 되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현세에서 각자 할 일이 있으며 무의미하게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자녀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무슬림으로서 알라를 경외하고 숭배행위를 하는 어른이 되도록 돕는다.

2) 반드시 합법적으로 번 돈을 자녀들을 위해 사용한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알라의 길에서 사용한 돈 중에서 가장 큰 보상은 가족을 위하여 사용한 이니라.” (리야둣 싄-리히-인, 36장 290번)

또한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부양가족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그 죄만으로도 충분하니라.” (리야둣 싄-리히-인, 36장 294번)

3)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짓는다.

4)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며 스스로 모범이 되는 성품을 보여준다.

예언자(ﷺ)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훌륭한 예의범절이니라.”**

(이맘 수유티의 알-자미웃 싸이르에서)

5) 자녀에게 예배방법과 함께 종교적, 윤리적 의무를 가르친다.

6) 자녀에게 할 수 있는 한 훌륭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에게 맞는 합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제 4대 칼리파 알리(라디알라후 안후)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치 있는 미래의 삶에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시대 외에 있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도록 하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오.”

7) 자녀를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을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예언자(ﷺ)께서도 그 분의 자녀들을 매우 사랑하시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셨다.

8)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나 물질적인 것을 제공할 때 동등하게 차별 없이 한다.



9) 자녀가 결혼할 나이에 이르면 결혼을 시킨다.

3)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

1) 부모에게 효도한다.

2)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부모를 부양한다.

3) 부모에게 공손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대하고 그들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피한다.

4) 부모에게 항상 친절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간다.

5) 부모가 부를 때 그 부름에 지체하지 말고 얼른 응답한다.

6) 부모가 알라에 대해 거역하는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지 않는 한 부모의 명령을 따른다.

7) 부모의 마음이 항상 만족되도록 노력한다.

8) 부모 앞에서 큰 소리로 내지 않는다.

9) 노인이 된 부모는 자녀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바라게 되는데 이때 부모를 공손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보살핀다.

10) 길에서 함께 걸어갈 때 그들 앞을 지나가지 않는다.

11)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나서지 않는다.

12) 부모가 돌아가신 후 이들의 용서를 알라께 빌어야 하며 부모의 이름으로 선행이나 자선을 한다. 또한 부모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고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 안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와 관련하여 예언자(صل랄라후 알라이히 와 쌀람)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알라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행위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니라.”

(리야둣 쌀-리히-인, 40장 312번)



“알라께서 심판의 날 얼굴을 쳐다보시지 않는 부류 중 하나는 부모에게 불복한 자이니라.” (앗-타르킵 왓-타르힉, 3권 327쪽)

“알라께서는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원하시면 심판의 날로 연기해주실 수 있지만 부모에게 불복하는 자에 대한 벌을 그(그녀)가 죽기 전에 주시느니라.” (하디스집, 58쪽)

독서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은 아들’

압둘라 본 아부 아우파(라디알라후 안후)가 전하기를, 우리가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와 함께하였을 때 누군가가 와서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알라의 예언자시여! 죽을 날이 임박한 어느 젊은이가 있는데 그에게 ‘라-일라-하 일랄라(알라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도다)’라고 말하라고 했지만 그 젊은이가 이를 말하지 못합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그 젊은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시자 찾아온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일어나시어 그 젊은이에게 가셨고 우리도 그 분과 함께하였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젊은이에게 “왜 ‘라-일라-하 일랄라’를 말하지 못하냐?”고 물으시자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찾아갔던 사람이 “이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순종적이지 않은 자식입니다.”라고 말했다.

젊은이의 나쁜 행실에 대해 그의 어머니가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신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젊은이의 어머니가 살아 계시냐고 물으시자 그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젊은이의 어머니를 여기로 부르라고 하셨다. 이에 그의 어머니가 왔는데 예언자(쌀랄라



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 젊은이가 당신의 아들이 오?**”고 물으시자 그녀가 “네, 제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군가 큰 불을 내고, ‘당신이 아들을 위해 중재를 하면 그를 이 불 속에 던져 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중재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당신의 아들을 던져 넣을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위해 중재를 할 것인가?”

그녀가 “물론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그렇다면,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은 아들을 지옥의 불로부터 구하기 위해)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나와 알라를 증인으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그녀는 “오, 알라! 당신과 당신의 예언자를 증인으로 삼고 제 아들의 잘못을 용서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말씀하셨다.

“라- 일라-하 일랄라후 와흐다후 라- 샤리-카 라후 와 아슈하 두 안나 무함마단 압두후 와 라술-루후(알라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다는 것과 그 분께는 어떤 동반자도 없다는 것을 증언하며 무함마드는 그 분의 종이며 그 분의 예언자임을 증언하나이다.)”

젊은이는 예언자의 말씀을 되풀이하였다. 이에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를 통하여 이 젊은이가 지옥의 불에서 구원받게 된 것을 알라께 감사드리나이다.” (하디스집, 161쪽)



4) 형제간의 의무

- 1) 형제간에 진실한 형제애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2) 형제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퍼즐과 같다. 서로간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한다.
- 3) 상속권, 돈이나 재산 등으로 인해 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한다.
- 4) 큰 형제는 작은 형제의 부모와 같다. 따라서 형은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며 동생 또한 형을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을 갖는다.
- 5) 형제들의 일은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돕고 형제의 재산과 권리를 서로 지켜준다.

5) 친척간의 의무

- 1) 친척을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 대한다.
- 2) 친척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를 돕는다.
- 3) 서로 방문하여 갖은 것을 나누며 관계를 긴밀히 유지한다.
- 4) 상대 친척이 관계를 소홀히 하더라도 연락이나 방문을 하여 관계가 나아지도록 노력한다.

가까운 친척들을 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친척간의 의무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ﷺ)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친척과 단절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리야둡 샬-리히-인, 41장 339번)

압둘라 본 아부 아우파(라디알라후 안후)가 전하기를, 우리가 예언자(ﷺ)와 함께하였을 때 예언자(ﷺ)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친척과 단절하는 자는 우리와 함께 앉지 않았으면 하느니라.” 예언자의 말씀을 듣자 자기의 이모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한

젊은이가 일어나서 이모의 집으로 갔다. 그는 이모와 화해한 후 다시 우리가 있던 자리에 왔다. 그러자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친척과 단절하는 자들이 있는 사회에는 알라의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느니라.”** (하디스집, 208쪽)

6) 이웃간의 의무

가족과 친척 다음으로 가까운 사이는 이웃이다. 거의 매일 마주치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고 알려께서는 명하셨고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도 이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알라와 내세를 믿는 자는 그의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느니라.” (리야둣 쌀-리히-인, 39장 309번)

“알라와 내세를 믿는 자는 그의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느니라.” (리야둣 쌀-리히-인, 39장 308번)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자들은 진실한 믿는 자가 될 수 없으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다.

이웃에 대한 주요 의무

- 1)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처가 되는 언행을 삼간다.
- 2) 이웃을 친절과 예의로 대하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함께한다.
- 3) 이웃이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일처럼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며 가진 것을 나누어 알려께서 주신 축복을 함께 한다.
- 4) 소음이나 냄새 등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
- 5) 아플 때 병문안을 하고 장례식이 있으면 참석하여 위로한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지 않



는 일을 이웃을 위해서도 원하지 않는 것이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이웃을 대하는 방법이다. 만약 이웃이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이슬람의 방식대로 따뜻하게 대한다. 이슬람 역사를 살펴보면 무슬림들이 비무슬림 이웃을 어떠한 차별 없이 존중하고 모범적으로 대하는 수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제 2대 칼리파 우마르(라디알라후 안후)의 아들 압둘라가 어느 날 그의 노예에게 양을 도살시키도록 하고 고기의 일부를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때 먼저 비무슬림 이웃들부터 시작할 것을 세 번이나 강조하였다.¹

독서

‘무슬림이 이웃을 대하는 방식’

이스탄불을 정복한 오스만 제국 왕인 **파티 술탄 메흐메트**는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의 품질과 가격을 검사하기 위해 일반사람 처럼 옷을 입고 시장으로 향하였다. 한 가게에 들러 인사를 한 후 가게 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3kg의 버터, 3kg의 꿀, 그리고 3kg의 치즈를 주시오.”

가게 주인은 3kg 분량의 버터를 주고는 가격을 말하며 이렇게 요청했다.

“손님, 다른 물건들은 맞은편에 있는 이웃가게에 가서 구입해 주시겠습니까? 그 가게의 물건의 질이 더 좋기도 하고 그 친구는 아직 첫 개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왕은 두 번째의 가게에 가서 3kg의 꿀과 3kg의 치즈를 달라고 하자 그 가게 주인은 3kg의 꿀을 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알리울 까리 샤리후 아이눌 일름(Aliyyu'l-Qari Sharhu Aynu-l Ilm), 제1권 291쪽



“손님, 알라께 감사드리니 저는 덕분에 첫 개시를 하여 저의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오늘 필요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제 이웃가게는 아직 첫 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훌륭한 품성을 가진 한, 이 민족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알라께서 이 민족의 올바른 정신을 말살시키는 자들을 멸하시기를.” (타흐신 위날, ‘오스만터키인들의 미덕’ 중에서)

질문:

- 1) 이슬람에서 가족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 2) 부부간의 의무는 무엇인가?
- 3)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무엇인가?
- 4)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무엇인가?
- 5) 형제간의 의무는 무엇인가?
- 6) 친척간의 의무는 무엇인가?
- 7) 이웃간의 의무는 무엇인가?

4. 인류에 대한 의무



주제:

- 인간에 대한 윤리적 의무
- 동물에 대한 의무
- ‘눈물을 흘릴만한 장면...’ (독서)
- 이슬람적 윤리태도를 갖춘 무슬림의 특성
- 이슬람에서 금지된 행위들
- 인류를 위협하는 대재앙: ‘술’과 ‘마약’ (독서)

인간에 대한 윤리적 의무

1)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이슬람에는 사람의 생명, 재산, 자유, 그리고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신성한 권리이다. 무슬림은 다른 무슬림형제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에게 해가 되는 모든 언행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언자(صلوات الله وسلامه عليه)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무슬림이란 자신의 손과 말로 다른 무슬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니라.”

(리야둡 쌀-리히-인, 26장 211번)

2)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과 관대함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며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슬림으로서 취해야 할 행동이다.

3) 어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

어른을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 대하며 어린이들이나 고아들, 힘없는 자들에게 따뜻함을 베푸는 것은 무슬림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예언자(ﷺ)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린이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이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니라.” (하디스집, 218쪽)

4) 인사를 나누는 것

알라께서는 무슬림들에게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인사 방법과 그 규칙 또한 마련해주셨다. 따라서 모든 무슬림은 사용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이슬람식으로 인사한다. 상대방에게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것은 순나이고 그 인사에 답하는 것은 파르드(절대의무)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한다. 이슬람에서 인사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5) 무슬림형제를 회피하지 않는 것

만일 무슬림이 어떤 이유나 사건으로 인해 상대 무슬림형제를 회피한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화해하여 관계가 다시 좋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언자(ﷺ)께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형제가 형제를 3일 이상 회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느니라.”

(리야둣 쌀-리히-인, 208장 1591번)

그 분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누가 무슬림 형제를 1년 동안 회피하면 마치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리야둣 쌀-리히-인, 208장 1596번)

6) 서로를 회피한 이들을 화해시키는 것

만약 무슬림형제 두 명이 서로를 회피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 알라께서 꾸란에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은 한 형제라 그러므로 싸우는 너희 두 형제들 사이를 화해시키며...” (49장 10절)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가장 훌륭한 자선은 (서로를) 회피하는 이들을 화해시키는 것이니라.” (하디스집, 237쪽)

7) 친한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

무슬림은 무슬림형제, 친척, 그리고 부모님의 친구 분들을 방문해야 하며 방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적합한 때에 방문한다.
- ② 불편을 끼칠 정도로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
- ③ 방문 전에 가급적 미리 연락을 취한다.
- ④ 방문 시 옷차림은 깨끗하고 깔끔해야 한다.
- ⑤ 주인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또는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8) 손님을 대접하는 것

찾아온 손님에게 진심 어린 친절을 베푸는 것은 이슬람이 권장하는 행위 중 하나이다. 손님에 대한 예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손님을 미소와 친절로 맞이한다.
- ②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한다.
- ③ 만약 아이가 손님 앞에서 장난을 친다면 큰소리로 화내거나 야단치지 않고 조용히 타이른다.
- ④ 손님이 떠날 때 배웅한다.

9) 초대에 응하는 것

무슬림은 그 초대가 이슬람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 한 초대에 응해야 한다. 누군가 초대를 했을 때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무슬림형제애를 더욱 강화시킨다. 예언자(ﷺ)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들 중 누군가가 형제의 결혼식 대접이나 다른 것에 대하여 초대를 받으면 그것에 응답하라.”

(이맘 수유티의 알-자미웃 싸이르에서)

예언자(ﷺ)께서는 초대를 받으셨을 때 초대하는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예이든 상관없이 응하셨다.

10) 어른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

무슬림국가들 중에는 존경의 표현으로 어른이나 스승의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11)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지 않는 것

무슬림은 무슬림형제의 잘못이나 실수를 들춰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거나 비판하지도 않는다. 사생활을 들춰내지도 않으며 만약 무슬림형제가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언한다.

12) 악행을 저지른 자를 용서하는 것

훌륭한 품성을 갖춘 무슬림은 자신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한다. 심지어 그 사람이 악행을 멈추도록 노력하여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한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알라께서 다음의 세 가지 품성을 가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천국에 들게 하시니라.” 그 품성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그 분께서 다음과 같이 답하셨다.

“(나에게)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

(나를) 찾아오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나를) 억압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니라.” (하디스집, 211쪽)

13) 환자를 방문하는 것

무슬림형제가 아프게 되었다면 그를 병문 안 하여 위로하고 건강의 회복을 위해 알라께 기도드려 주어야 한다. 아플 때 누군가를 방문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는 병을 이겨낼 기운을 얻게 된다. 다만 병문 안 하여 슬픈 소식이나 마음을 힘들게 할 이야기나 병의 악화를 불러올 언행은 삼가야 한다.

14)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

무슬림형제 중에 누군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의 장례예배에 참석하고 무덤까지 함께 하고 그를 위해 알라께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은 무슬림으로서 해야 할 의무이다.

15) 무슬림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진심으로 믿는자는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것을 다른 무슬림형제를 위해서도 바래야 한다. 자신이 겪은 어려움이나 문제를 다른 형제가 겪기를 원해서도 안 된다.

이슬람 안에는 인간을 위한 가장 훌륭한 윤리적 가르침이 담겨 있다.



동물에 대한 의무

알라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대할 때 인간은 자비롭고 친절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 동물을 억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금지이며 악행으로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된다.

다음의 하디스는 동물을 억압하는 일이 얼마나 큰 악행이 될 수 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다. 예언자(ﷺ)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마리의 고양이를 죽을 때까지 가두어 놓았던 한 여성이 벌을 받았느니라. 그녀는 이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느니라. 그녀는 고양이를 가두어 놓고 음식도 물도 주지 않았으며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벌레도 먹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기 때문이니라.”

(부카리가 전함)

목마른 개에게 물을 주는 선행을 베푼 한 남자에 대해 예언자(ﷺ)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길을 걸어가고 있던 한 사람이 매우 목이 말랐느니라. 한 우물을 발견하였고, 그곳에 가 물을 마셔 갈증을 해소하고 밖으로 나왔느니라. 그런데 한 마리의 개가 혀를 늘어뜨리면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진흙을 핥고 있었느니라.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느니라. “이 개도 내가 느꼈던 것처럼 갈증을 느끼는구나.” 그는 다시 우물로 가서 자신의 신발에 물을 담았고 그것을 입으로 물고 올라와 개에게 주었느니라. 알라께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기뻐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느니라.”

예언자(ﷺ)의 교우들이 그 분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분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베푸는 친절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르느니라.” (리야둣 쌀-리히-인, 13장 126번)

독서

‘눈물을 흘릴만한 장면...’

무슬림군과 비잔틴군 간의 야르묵 전투에 참전한 쿠자이파툴 아다비(라디알라후 안후)는 말한다.

“야르묵 전투 때 일이다. 나는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던 내 삼촌의 아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에게 줄 약간의 물도 가지고 있었는데, 겨우 찾은 그는 전장 한복판에서 죽음 직전 최후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나는 그를 돕기 위해 물을 가지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런데 바로 그 때, 그의 옆에 또 다른 상처 입은 병사가 쓰러져 고통으로 신음하기 시작했다. 나의 삼촌의 아들은 고개를 돌려 그를 보더니 내가 가져온 물을 그에게 주라며 손짓을 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다른 아님 아쓰의 아들 히삼(라디알라후 안후)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채 다가가기 전에, 또 다른 사람 하나가 그 근처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히삼 역시 그를 가리키며 그에게로 가라고 내게 손짓을 했다. 아! 그러나, 내가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에, 나는 다시 사력을 다해 히삼에게 돌아갔지만, 그 역시 이미 죽어 있었다. 그래서 다시 내 삼촌의 아들에게로 달려갔으나 그 역시 앞서 간 두 사람을 따라간 뒤였다. 따라서 그들 중 아무도 물을 마시지 못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목마름으로 죽어간 예언자의 교우들의 이 고귀한 행동은 얼마나 훌륭한가!

(아흐마드 함디 악세키, ‘군인들을 위한 종교서’ 269쪽)

이슬람적 윤리태도를 갖춘 무슬림의 특성

바람직한 무슬림은

1)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다.



- 2) 알라께서 명하시고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보여주신 대로 숭배행위를 행한다.
- 3) 이슬람이 금한 술, 도박, 절도와 사기 등을 삼간다.
- 4) 거짓말하지 않으며 거짓 증언이나 맹세를 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
- 5) 말로 또는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
- 6) 약속을 지키고, 맡겨진 물건은 잘 보관한다.
- 7) 본인에게 부과된 과제와 책무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한다.
- 8) 사람들 간에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모든 언행은 피하고 서로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돕는다.
- 9)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간다.
- 10) 품성이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나쁜 사람들은 멀리한다.
- 11) 부모에게 효도한다.
- 12)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한다.
- 13)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선을 행한다.
- 14)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사과하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돌려준다. 그리고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해 알라께 진심으로 회개한다.
- 15)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베푼다.
- 16)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현세를 위해 애쓰고 알라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수입을 얻고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내세를 위해 준비한다.



17)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궁핍한 사람을 도와준다.

18) 최선을 다해 알라와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을 택한다.

19)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한다.

20) 모든 무슬림 형제들을 자신처럼 소중히 여긴다.

21) 위험과 곤란에 직면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알라께 의탁하며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발휘하여 최선을 다한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알라께서 보살펴주시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이슬람에서 금지된 행위들

알라께서 금지하신 것을 ‘하람(Haram)’이라고 한다.

알라께서 만물을 창조하심에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하셨으며 단지 이것들 중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들만을 금지하셨다. 따라서 알라께서 금지하신 것들은 인간에게 곤란함이나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고 더 편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알라께서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알라께 복종하는 자가 아니며 알라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실 것이다. 알라께서 금하신 행위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무슬림의 도리이다.

금지된 행위들

1) 알라의 유일성을 불신하여 그 분과 어떤 것을 대등하게 두는 것

2)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 3) 적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
- 4)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 간음하는 것
- 5) 인간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도덕적 관념을 망각하게 하며 사악한 행위나 비이성적 행위를 부추기는 음료(술)나 중독성이 있는 물질(마약)을 사용하는 것
- 6) 도박하거나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
- 7) 절도나 사기를 치는 것
- 8) 죽은 동물의 고기나 돼지고기 그리고 다른 금지된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
- 9) 거짓말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거짓 증인이 되는 것,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말을 하는 것, 중상모략 하는 것, 조롱하는 것, 나쁜 별명을 붙이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 10) 질투하는 것, 원한을 품는 것, (무슬리형제를) 회피하는 것
- 11) 군대에서 탈영하는 것, 적에게 조국을 파는 것
- 12) 사람들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뒤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것
- 13)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며 오만한 태도를 갖는 것
- 14)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 판단하는 것
- 15) 악한 사람들과 사귀는 것
- 16) 점을 치는 것과 점쟁이의 말을 믿는 것
- 17) 재산을 낭비하는 것 또는 인색한 것
- 18) 허락 없이 누군가의 집이나 방에 들어가는 것
- 19) 알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숭배 행위나 선을 행하는 것

- 20)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찾아내는 것
- 21) 사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과 협조하는 것
- 22) 자신에게 맡겨진 것(물건)을 지키지 않는 것

독서

인류를 위협하는 대재앙: ‘술’과 ‘마약’

이슬람은 인간의 건강을 중요시 여기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마시거나 사용하는 것 또는 어떤 방법을 막론하고 몸에 투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이렇게 나쁘고 불결하고 해로운 것들을 인간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슬람의 법은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도덕성과 지혜, 건강과 재산, 숭배행위의 실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을 철저히 파멸로 이끄는 술이나 마약의 금지는 알라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이다.

예언자(صلوات الله وسلامه عليه)께서는 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도덕심을 잃게 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셨다.

“술을 조심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술은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카시풀 하파, 제1권 382쪽)

“술을 조심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술은 모든 악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이맘 수유티의 알-자미웃 싸이르에서)

인간의 뇌 안에는 제어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잘못된 행위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어한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이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되는 것이다. 음주는 다양한 범죄의 근원이며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난동은 기내 안에서의 음주로 인한 것이다.



술을 섭취하면 기억상실, 심각한 행동 장애가 유발되고, 자살 시도, 정신 분열증, 기억력 감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음주는 가정폭력, 성폭력, 강간, 약탈 및 아동 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음주는 현실을 도피하는 탈출구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그 가정이 술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

알라께서는 꾸란을 통해 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술)을 멀리하라, 그대들이 성공하게 될 것이니라.”

(5장 90절)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무슬림들에게 술을 멀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취하게 하는 모든 술은 금지이니라.” (부카리가 전함)

“많은 양으로 취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적은 양으로 취하게 하는 것도 금지되느니라.” (이맘 수유티의 알-자미웃 싸이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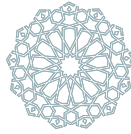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음주나 약물 남용은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음주나 마약사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알라께서 베푸신 생명과 건강을 음주나 마약으로 해친다면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삶까지도 파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알라께서 허용하신 것들과 금지하신 것들에 대해 반드시 가르치고 그것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많은 위험과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 자녀들의 삶에 항상 관심을 갖고 알라께서 금지하신 행동을 행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즉시 그것을 고치도록 타일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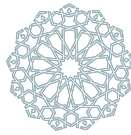
**질문:**

- 1) 인간에 대한 윤리적 의무들에 대해 설명하시오.
- 2) 손님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가?
- 3) 친한 사람들을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4) 동물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가?
- 5) 이슬람적 윤리태도를 갖춘 무슬림의 특성은 무엇인가?
- 6) 이슬람에서 금지된 행위들은 무엇인가?

제 4 장
예언자 무함마드
(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삶



1.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출생과 어린 시절



주제:

- 이슬람 이전 아라비아반도의 상황
-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가문
-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출생
-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어린 시절
- ‘알라께서 카아바를 보호해주신다’ (독서)

이슬람 이전 아라비아반도의 상황

이슬람 이전 아랍사람들은 암흑 속에 있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소수였고 인권은 없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눌렀다. 여성은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렸고 여자아이를 산채로 매장하는 악습은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알라의 유일성에 입각한 신앙은 망각되었고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우상들이 즐비했다. 카아바는 알라께 숭배하기 위해 예언자 이브라힘(알라이히 쌀람)과 아들 이스마일(알라이히 쌀람)에 의해 건축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아바 안에는 360개 이상의 우상들이 존재했다.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우상을 놓고 섬겼다. 술과



도박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들로 사회는 무질서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자비가 남아 있지 않았다. 지구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암흑 속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고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인도할 마지막 예언자의 도래가 시급했다.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가문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아버지 이름은 ‘압둘라’였고 압둘라의 아버지(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할아버지)는 ‘압둘 무딸립’으로 꾸라이쉬(Quraish) 부족의 한 일가인 바누 하심에 속했으며 메카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이였다.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어머니 이름은 ‘아미나’였으며 그녀는 꾸라이쉬 부족의 한 일가인 바누 주흐라에 속한 ‘와흡’의 딸이였다.

매우 명예로운 가문의 부모를 둔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혈통은 예언자 이브라힘(알라이히 삿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출생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는 서력 571년 4월 20일, 라비올 아우왈(이슬람력 3월) 달 12일 월요일 새벽에 메카에서 태어났다. 그 분이 태어난 아침의 세상은 빛으로 가득했다. 아버지 압둘라는 이미 두 달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들을 보지 못했다. 어머니 아미나가 아기를 낳았다는 기쁜 소식을 접한 할아버지 압둘 무딸립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에게 ‘무함마드’라고 이름 지었다.

사람들이 압둘 무딸립에게 손자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었냐고 묻자 “무함마드”라고 답했다.

선조들 중에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없는데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를 하늘에서 알려께서 땅



에서 사람들이 칭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택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태어났던 밤 지구 곳곳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 날 밤 페르시아 왕의 궁궐을 받치는 기둥 중 14개가 쓰러졌고 사와(현재 이란에 소재함) 호수가 말랐고 불을 숭배하는 자들의 숭배하고 있던 불(천년동안 계속 타고 있던)이 갑자기 꺼졌다. 이러한 사건들은 곧 페르시아왕국과 비잔틴제국이 무너질 것이고 더 이상 우상숭배가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어린 시절

메카의 더운 날씨로 인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건강을 위해 메카 주변에 사는 유목민여성들에게 아기를 맡기는 전통이 있었다.

아미나는 3일 동안, 예언자의 삼촌의 하녀인 수와바는 이틀 동안 예언자에게 모유를 주었다. 그 후 싸아드 부족에 속한 ‘할리마’라는 여성에게 예언자가 맡겨진다. 유모 할리마는 예언자를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잘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할리마의 막내 딸 샤이마도 아이 무함마드와 친구가 되어 항상 함께 놀았다. 무함마드가 할리마의 집에 온 다음 그 집에 은총이 가득 차다. 할리마의 남편이 어느 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할리마!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후부터 양들이 양유를 많이 주는구려. 우리 집에 양식이 많아져 형편이 나아지고 있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소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는 그 가족과 5년 동안 함께한 후 다시 메카에 있는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메디나에는 어머니 아미나의 친척들이 있었고 아미나는 그 친척들에게 들르며 아들의 아버지의 무덤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메디나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다.



아미나가 아들 그리고 그녀의 하녀인 움무 아이만과 함께 메카로 향하였다. 저녁이 되자 ‘아브와’라는 시골에 들러 그 날 밤을 거기서 지냈는데 아미나가 그곳에서 몸이 편찮게 되었다. 그녀는 옆에 앉아 있던 아들을 사랑으로 껴안고 입 맞추었다. 이제 죽음이 곧 앞에 있음을 알게 된 어머니가 아들과 헤어질 것을 느껴 현세의 눈으로는 다시 볼 수 없을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새 것이 헛 것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 나도 죽을 것이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 같은 순수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세상에 훌륭하고 유익한 존재를 남긴다.”

이 말을 한 후 어머니 아미나는 세상을 떠났다. 그 때 무함마드는 여섯 살이었다. 움무 아이만은 어머니를 잃은 무함마드를 메카로 데려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무함마드는 이제 할아버지 아부 무딸립 밑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2년 동안 할아버지의 품속에서 자란 무함마드는 죽기 전 압둘 무딸립이 편찮았을 때 무함마드의 삼촌인 아부 딸립에게 맡겨졌다. 할아버지는 무함마드가 여덟 살 때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제 삼촌인 아부 딸립과 그의 아내 파티마가 무함마드를 친아들처럼 사랑으로 돌보았다.

독서

‘알라께서 카아바를 보호해주신다’

카아바는 지구상에서 알라께 숭배하기 위해 건축된 최초의 예배장소이다. 카아바는 알라의 명령으로 최초로 예언자 아담(알라이히 썰람)에 의해 건립된 후에 예언자 이브라힘(알라이히 썰람)과 그의 아들 이스마일(알라이히 썰람)에 의해 재건축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소재한 카아바는 역사상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는 곳이다.



이슬람 이전에는 카아바가 아랍인들에 의해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알라께 숭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순수한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630년에 메카를 정복하여 카아바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깨부숴버렸다. 이슬람 이전에 ‘메카’라는 도시는 아랍인들에게 무역의 중심지로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카아바의 순례를 위해 방문하는 곳이었다.

에티오피아의 예멘 총독이었던 아브라하(Abrahah)는 사람들이 카아바로의 순례를 그만두고 새로운 순례지로 예멘의 ‘사나(San'a)’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이곳에 교회당을 지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새로운 순례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메카를 공격하여 카아바를 파괴하기로 결심하고 군대를 일으켰다. 아브라하는 군대와 더불어 코끼리들까지 대동하여 메카 앞에 도달했다.

메카를 공격하기 전, 아브라하의 군대는 메카사람들의 낙타를 약탈했고 그 중에는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조부이자 메카 꾸라이쉬족의 소장인 ‘압둘 무딸립’의 낙타 100마리도 있었다. 자신의 낙타들이 아브라하의 군대에 의해 빼앗긴 것을 알게 된 압둘 무딸립은 아브라하를 찾아갔다. 아브라하는 그에게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다. 압둘 무딸립은 자신의 낙타들을 돌려달라고 말했고 이 말에 아브라하는 놀라며 답했다.

“저는 당신이 카아바를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러 온 줄로 알았는데 당신은 메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카아바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빼앗긴 낙타들에만 신경을 쓰다니!”

압둘 무딸립은 말했다.

“나는 단지 내가 빼앗긴 낙타들의 주인이므로 그것들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카아바의 주인은 알라이시므로 카아바는 그 분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하는 그에게 낙타들을 돌려주었다.

압둘 무딸립은 주변에 흩어져 있는 여러 우상들을 지나 카아바로 가서 알라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오, 알라! 당신이 이 집(카아바)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당신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성스러운 집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적으로부터 이 집을 지켜주십시오.”

큰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한 메카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 주위의 산으로 도망쳤다.

아브라하는 자랑스럽게 그의 군대에게 메카로 전진할 것을 명령했다. 그런데 카아바가 보이자 선두에 있던 코끼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달래어도 보고 채찍질도 해보았지만 코끼리는 메카를 향해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병사들이 코끼리를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면 움직였으나 메카 방향으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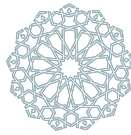
이 때 알라께서 부리와 양발에 조약돌을 지닌 새의 무리를 보내셨다. 새의 무리는 아브라하의 군대에게 돌을 던져 공격하였고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조약돌들에 병사들은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아브라하의 군대는 카아바에 어떤 해도 끼치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도망쳤다. 전투가 끝나자 들판에 남은 것은 온통 처참한 시체들뿐이었다. 이렇게 아브라하의 군대는 전멸했고 카아바는 적들로부터 보호되었다. 부상을 당한 아브라하는 도망가던 중 숨졌다. 압둘 무탈립이 기도를 드린 대로 카아바는 알라께서 보호해주셨다.

알라께서는 카아바를 파괴하고 모순된 신앙을 퍼뜨리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벌을 주셨다. 그 분께서는 아브라하의 군대가 카아바를 파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얼마 후 그분의 마지막 예언자가 될 무함마드가 이 세상에 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571년에 발생한 이 사건 50일 후에 예언자 무함마드(살라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가 태어났다.

**질문:**

- 1) 이슬람 이전 아라비아반도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 2)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는 어디서, 언제 태어났으며 그 분을 돌본 유모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가 태어난 밤에 발생했던 사건들은 무엇이었으며 이 사건들이 무엇을 암시하였는지 설명하십시오.
- 5)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이름을 누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가?
- 6)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 세상을 떠났는가?
- 7)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분은 누가 돌보았는가?

2.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청년기와 결혼



주제:

-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교역 여행
-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교역 활동
-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와 ‘카디자’의 결혼 및 자녀들
- 카아바 재건축과 중재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교역 여행

삼촌 아부 딸립은 무역하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가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교역 여행길에 동반했다. 교역단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근처에 있는 ‘부스라’라는 곳에 들렀을 때 그들은 ‘바히라’라는 수도사와 만났다.

바히라는 토라와 복음서에 이름과 특성이 언급되어 있는 마지막 예언자의 증표가 이 아이(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부 딸립에게 이 아이를 얼른 메카로 데려갈 것을 요청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해를 입힐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부 딸립은 바



히라의 말에 따라 가지고 왔던 모든 물건을 부스라에서 팔아치우고 메카로 돌아갔다.

예언자 무함마드(ﷺ)는 17세 때도 삼촌 주바이르와 함께 예멘으로 가본 적이 있었다.

예언자 무함마드(ﷺ)의 교역 활동

꾸라이쉬의 가장 영예로운 여성들 중 사업가이자 미망인이었던 카디자는 일부 사람들에게 자금을 주고 그들과 함께 교역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언자 무함마드(ﷺ)에게도 자금을 주어 시리아에 보냈다. 예언자 무함마드(ﷺ)께서는 사업에 소질이 있었으며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품으로 교역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예언자 무함마드(ﷺ)께서 교역에 참여할 때마다 기대 이상의 큰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카디자는 이에 매우 만족했다.

예언자 무함마드(ﷺ)와 카디자의 결혼 및

자녀들

예언자 무함마드(ﷺ)께서 다마스쿠스로의 교역여행에서 돌아온 후 꾸라이쉬의 가장 영예로운 여성과 결혼했다. 예언자 무함마드(ﷺ)는 25세, 카디자는 40세였다. 나이의 차이를 넘어 그들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했다.

예언자 무함마드(ﷺ)의 자녀는 모두 7명으로, 세 명의 아들과 네 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들 중 6명은 카디자로부터, 1명은 마리아로부터 낳은 자녀들이었다. 예언자 무함마드(ﷺ)의 아들들의 이름은 까심, 압둘라 그리고 이브라힘이었고 딸들의 이름은 자이납, 루꾸이야, 움꿀숨 그리고 파티마였다. 까심과 압둘라는 예언자 무함마드(ﷺ)께서 예언자 임무를 받기 전인 어린 나이에 메카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이브라힘은 메디나로 이주 후 태어났지만 또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분의 딸들 모두 다 자라서 결혼했으

나 파티마 이외의 모든 딸들은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 생전에 세상을 떠났다. 예언자의 후손은 알리와 결혼한 파티마에 의해 이어져갔다.

카아바 재건축과 중재

한 번은 심각한 홍수로 카아바의 담이 손상되어 재건축을 하게 되었을 때 꾸레이쉬의 주요 부족들간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것은 어느 부족에게 신성한 검은 돌(알하자르 알 아쓰와드)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 영예가 돌아갈 것인가에 관한 것 때문이었다. 다툼이 시작되려 할 때 원로들 중 한 명이 “이 문으로 최초로 들어오는 사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자”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모두 누가 처음으로 그 문을 통과하는지를 지켜보며 기다리는데 마침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들어오자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는 곧 상황을 파악하고 돌을 운반할 천을 가져오도록 하였으며 천에 신성한 검은 돌을 올려놓고 부족의 각 대표들에게 천의 한 귀퉁이씩을 잡고 들어 올리라고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도 돌을 제자리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이리하여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는 논쟁과 그로 인해 일어날 큰 싸움까지 방지하였다. 그 분의 나이 35세의 일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는 알라께서 주신 예언자 임무를 부여받기 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무함마드 알-아민’, 즉, ‘신뢰할 수 있는 무함마드’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바로 그의 정직함과 고상한 인품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분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했고 모범적인 그 분의 삶은 메카의 사회에 한 줄기 빛이었다. 알라께서 말과 행동 그리고 높은 도덕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 예언자 임무를 부여하실 시기가 점점 도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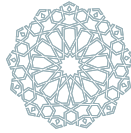
질문:

- 1)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유년기와 청년기 때 어디를 여행했는가?
- 2)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누구와 언제 결혼했는가?



- 3)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자녀들은 모두 몇 명이었는가?
- 4)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카아바 재건축시 행했던 중재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 5) 사람들이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무함마드 알-아민’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무엇인가?

3. 예언자 무함마드(ﷺ)의 예언자 임무의 부여와 비공개적 초대



주제:

- 첫 계시 (서기 610년)
- 계시가 중단된 기간
- 이슬람으로의 초대
- 최초의 무슬림들
- 아비시니아(현재의 에티오피아)로의 첫 이주
- 아비시니아의 나자쉬 왕의 무슬림들에 대한 태도

첫 계시 (서기 610년)

예언자 무함마드(ﷺ)께서는 마흔이 되자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하며 양식을 챙겨 메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알-누르’라는 산 근방의 외딴 동굴 ‘히라’를 자주 찾았다. 그곳에서 홀로 우주를 창조하신 알라의 위대하심을 명상했다. 그 분이 꾸 꿈은 새벽녘의 여명처럼 모두 현실로 이루어졌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6개월 정도 지속되었다.



서기 610년 라마단 달의 월요일 밤, 히라 동굴에서 알라를 깊이 염원하며 묵상 중이던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는 갑자기 어떤 다른 존재가 곁에 있음을 감지했는데 그 존재는 바로 천사 지브릴(가브리엘)이었다. 천사 지브릴은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읽으라!”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는 **“저는 읽을 줄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천사 지브릴이 두 번째로 **“읽으라!”**라고 말했다.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 또 **“저는 읽을 줄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천사 지브릴이 세 번째로 **“읽으라!”**라고 말했다.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 **“무엇을 읽으란 말입니까?”**라고 묻자 그 순간 천사 지브릴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읽으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읽으라.

그 분은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노라.

읽으라! 주님은 가장 은혜로우신 분으로

연필로 쓰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노라.” (꾸란 96장 1-5절)

이리하여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에게 알라의 첫 계시인 위 꾸란 구절들이 전달되었고 천사 지브릴은 갑자기 사라졌다. 예언자께서는 마음에 위 꾸란 구절들을 새기듯 암송하였다.

갑작스럽게 겪은 굉장한 사건으로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의 몸은 심하게 떨렸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 카디자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카디자는 당황하지 않고 남편을 안정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알라께 맹세코, 알라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모욕을 주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은 친척관계를 돈독히 해왔고, 불쌍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도와왔습니다. 또한 손님을 용서하고 대접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계시가 중단된 기간

꾸란의 알라크(96)장의 첫 다섯 구절이 계시된 후 얼마동안은 천사 지브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계시도 내려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계시를 받을 마음의 충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드디어 천사 지브릴이 나타나 무다씨르(74) 장의 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계시하였다.

“오, 담요로 덮인 자(무함마드)여!

일어나서 경고하라.

그리고 그대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대 옷을 정화하라.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라.” (꾸란 74장 1-5장)

이후로부터는 완료될 때까지 꾸란 구절들이 23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시되었다.

첫 계시 후에 얼마동안 계시가 내려오지 않았던 기간을 ‘계시가 중단된 기간’이라고 한다.

이슬람으로의 초대

첫 계시가 내려온 후부터 ‘예언자’로서의 임무가 시작된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자신과 친분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소개하고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였다. 최초의 무슬림들은 비공개적으로 알라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는 3년이나 걸렸다. 그동안 이슬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수는 모두 30명 이상이었다.



최초의 무슬림들

이슬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 최초의 여성은 예언자의 아내인 ‘카디자’였고, 최초의 아이는 예언자의 조카인 ‘알리’였으며, 최초의 노예는 ‘자이드 본 카리사’이었고, 최초의 남성은 예언자의 친한 친구인 ‘아부 바크르’였다.

아비시니아(현재의 에티오피아)로의 첫 이주

메카에서 무슬림들에게 행해지는 박해가 갈수록 심해져 알라께 행하는 숭배행위와 꾸란 암송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는 무슬림들을 보다 안전한 곳인 아비시니아로 이주시켰다.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예언자의 임무를 부여받은지 5년째 되던 해에 11명의 남자와 4명의 여자로 이루어진 한 무리가 비밀리에 메카에서 홍해를 통해 아비시니아로 이주했다. 그들 중에는 (제 3대 칼리파가 될) 우스만(라디알라후 안후)과 그의 아내이자 예언자의 딸인 루꾸이야도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

아비시니아로 피난처를 찾았던 첫 무리가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된 메카 무슬림들의 80명으로 구성된 두 번째의 무리가 1년 후 아비시니아로 이주했다. 그 무리의 대표자는 (제 4대 칼리파가 될) 알리의 동생인 자이파르 알 타이아르 본 아비 딸립이었다.

아비시니아의 나자쉬 왕의 무슬림들에 대한 태도

메카의 우상숭배자들은 무슬림들이 아비시니아로 이주하여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 반발하여 그들을 메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아비시니아의 나자쉬 왕에게 바칠 멋진 선물들과 함께 두 명을 보냈다. 이 두 명의 메카 우상숭배자들은 나자쉬 왕에게 이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을 반환토록 요청했다. 기독교인인 나자쉬 왕은 무슬림들을 불러 이슬람에 대해 물었다. 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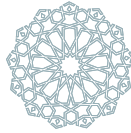


무슬림들과 메카에서 온 우상숭배자들 양쪽의 의견을 다 들은 후 무슬림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리하여 메카의 우상숭배자들은 메카로 돌아갔으며 그 사건 후 나자쉬 왕은 무슬림들을 더 보호하게 되었고 아비시니아 국민들도 무슬림들과의 사이도 좋았다.

질문:

- 1) 첫 계시가 내려진 것은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나이가 몇 세 때이며 첫 계시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 내려졌는가?
- 2) ‘계시가 중단된 기간’이란 무엇인가?
- 3) 이슬람으로 초대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 4) 최초의 무슬림들은 누구였는가?
- 5) 무슬림들이 아비시니아로 이주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 6) 무슬림들은 아비시니아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4. 이슬람으로의 공개적 초대



주제:

- 이슬람으로의 공개적 초대의 시작
- 우상숭배자들이 무슬림들에게 행한 박해와 학대
-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에게 적대심을 드러낸 자들
- 꾸라이쉬인들이 이슬람을 반대한 이유
- 우상숭배자들이 아부 딸립에게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에 대해 제안한 사건과 예언자의 응답
- 함자와 우마르가 무슬림이 된 이야기

이슬람으로의 공개적 초대의 시작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는 이슬람을 3년 동안 비공개적으로 전파하시다 아래의 꾸란 구절들이 계시되자 이슬람으로의 공개적인 초대를 시작하셨다.



“그대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경고하라. 믿는 자 중에서 그대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대의 날개를 낮추라 그들이 그대를 배척한다면 말하라! 실로 나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없노라.”

(26장 214-216절)

“그대가 명령받은 것을 분명히 가르쳐라. 그러나 불신자들로 부터 멀리하라.” (15장 94절)

위의 꾸란 구절들이 계시되자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먼저 가까운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고 그들에게 알라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알리며 이슬람으로 초대했다. 그러나 그들 중 예언자의 삼촌인 아부 라합이 예언자의 이슬람으로의 초대에 반대하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해산시켰다.

얼마 후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기 위해 카아바 근처에 있는 싸파 언덕으로 올라가서 메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 메카 사람들이여! 만일 내가 이 산의 건너편에 적군이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무함마드, 우리는 당신을 믿고 있으며 당신이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저는 한 명의 경고자로서, 우리가 무서운 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알라께서 저에게 명하시기를, 나의 가장 가까운 친지인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알라께서 한 분이시며 그 분 이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다는 부름에 초대합니다. 저는 알라의 종복이자 예언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 말을 받아들이면 여러



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라께서는 한 분이시며 그 분 이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다고 증언하지 않는 한 저 자신은 지상에서든 천국에서든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 때 예언자의 삼촌인 야부 라합이 “네게 파멸이 있으라.”라고 고함쳤고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홀로 둔 채 흩어졌다.

우상숭배자들이 무슬림들에게 행한 박해와 학대

메카의 우상숭배자들은 무슬림들을 더 이상 믿지 않았으며 이슬람의 빛을 소멸하기 위해 그들을 박해하고 고문했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아비시니아인 흑인 노예 빌랄은 이슬람을 가장 강력히 반대한 이들 중 ‘우마이야 본 칼라프’라는 잔인한 주인에 의해 뜨거운 모래 위에서 사지를 쭉 뺀 채 가슴에 크고 무거운 바위가 놓이는 고문을 당했다. 빌랄의 주인은 “이제 너의 알라는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조롱하며 빌랄을 괴롭혔다. 그러나 아무리 고문을 많이 가한들 빌랄의 신앙심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빌랄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고문에도 불구하고 “알라께서는 한 분이시다. 알라께서는 한 분이시다!”라고 외쳤다. 드디어 야부 바크르가 노예 빌랄을 그의 잔인한 주인인 우마이야 본 칼라프로부터 사서 해방시켰다.

최초의 무슬림들 중 암마르 본 야시르는 뜨거운 모래 위에 눕히어 정신을 잃을 때까지 고문을 당했고 그의 어머니 수마이야는 야부 자흐에 의해 창에 찔려 살해당했으며 암마르 본 야시르의 아버지(야시르) 또한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리하여 야시르와 그의 아내인 수마이야가 이슬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합밥 본 아라트는 타고 있던 석탄 위에 눕혀졌고, 야부 푸가 이하는 발이 끈으로 묶인 채 뜨거운 모래 위에서 끌려다니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다. 그들 외에 많은 무슬림들이 박해와



고문을 당했지만 강한 신앙심으로 절대로 이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부 바크르는 이슬람을 위해 헌신하며 박해와 고문을 당한 많은 노예와 하녀를 사서 해방시켜 무슬림들의 고난을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예언자 무함마드(ﷺ)에게 적대심을 드러낸 자들

예언자와 함께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을 향한 우상숭배자들의 박해는 갈수록 심해졌다.

예언자 무함마드(ﷺ)에게 가장 심한 적대심을 드러낸 자들은 다음과 같다.

1. 아부 라합: 그는 예언자 무함마드(ﷺ)의 친삼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가장 큰 적이었다. 아부 라합은 자신의 모든 일상생활을 제쳐두고 예언자 무함마드(ﷺ)의 뒤를 쫓으며 이슬람을 알리는 일을 방해하여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아부 라합의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예언자(ﷺ)를 해칠 목적으로 그 분께서 늘 다니는 길목에 가시나무들을 놓아 어두운 길을 걷던 예언자(ﷺ)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다. 알라께서는 예언자를 괴롭히고 모욕한 아부 라합과 그의 아내를 목적으로 마사드(111) 장을 계시하셨다. 아부 라합은 바드르 전투가 무슬림들의 승리로 끝나자 슬픔에 빠져 사망하였다.

아부 라합의 아들 우타이바는 예언자의 옷을 찢으며 공격한 적도 있었는데 예언자(ﷺ)께서는 그를 쳐다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알라께서 너를 벌하시도록 기도하겠노라.”

얼마 후 우타이바는 친구들과 함께 장사를 하러 여행을 떠나 어느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잠들어 있을 때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조용히 우타이바에게 다가와 앞발로 그의 머리를 세게 쳤다.



2. 아부 자흘: 그는 예언자(꺄랠라후 알라이히 와꺄랠람)에게 적대심을 보인 가장 사악한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암마르 본 야시르의 어머니를 이슬람을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아부 자흘은 바드르 전투에서 사망했다.

3. 아쓰 본 와일: 예언자(꺄랠라후 알라이히 와꺄랠람)의 아들 꺄심이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아쓰 본 와일은 예언자(꺄랠라후 알라이히 와꺄랠람)에게 “저 아브타르(아들이 없는 자)의 대가 끊겼다.”라고 말하며 조롱하여 예언자(꺄랠라후 알라이히 와꺄랠람)를 슬프게 하였다. 이 사건 이후 알라께서는 카우사르(108) 장을 계시하시어 예언자(꺄랠라후 알라이히 와꺄랠람)를 다음과 같이 위로해주셨다.

“실로 그대를 질시하는 자, 그가 바로 후대와 좋은 일에서 단절된 자이니라.” (꾸란 108장 3절)

아쓰 본 와일은 메카 근처에 있는 산길을 지나던 중 타고 있던 동물이 그를 떨어뜨려 그의 발을 물었는데 그는 이 상처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4. 왈리드 본 무기라

5. 우마이야 본 칼라프

6. 우투바 본 라비아

꾸라이쉬인들이 이슬람을 반대한 이유

1. 이슬람은 사람들간의 인위적인 차별, 즉 계급이나 부나 지위, 민족, 피부색깔이나 출생에 의한 차별을 없애 모든 사람들이 알라 앞에 동등함을 선언한다. 따라서 꾸라이쉬의 우두머리들은 자신들이 일반인들과 동등한 위치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만일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2. 메카는 아랍인들에게 무역의 중심지로서 매우 번창한 곳이었다. 메카에 위치한 카아바 안에는 360개의 우상들이 있었는데 꾸라이쉬 사람들은 아랍인들이 메카를 찾는 이유가 바로 이 우상들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이 만일 이슬람을 받아들



이면 카아바의 우상들이 제거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 이상 메카를 찾지 않게 되어 메카라는 도시가 무역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3. 우상숭배는 아라비아반도에서 수백년 동안 이어온 전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조들의 이러한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 이슬람은 아랍인들에게 이러한 전통을 그만두고 한 분이신 알라에 대한 믿음만이 진리임을 선언했다.

4. 당시 아랍사회에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미덕이나 능력 등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오직 두 가지 조건, 즉 부와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것만 충족되면 가능했다.

예언자 무함마드(ﷺ)께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언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꾸라이쉬 부족 내의 ‘하심’ 일가와 ‘우마이야’ 일가 사이에는 예전부터 부족장의 지위를 놓고 경쟁이 존재했고 예언자 무함마드(ﷺ)께서는 꾸라이쉬의 ‘하심’ 일가에 속했기 때문에 그 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마이야 일가에 속한 자들이었다.

우상숭배자들이 아부 딸립에게 예언자 무함마드(ﷺ)에 대해 제안한 사건과 예언자의 응답

아부 딸립은 조카인 예언자 무함마드(ﷺ)를 매우 사랑하였다. 그는 조카를 늘 도와주고 보호해주었다. 따라서 메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꾸라이쉬 부족장들은 아부 딸립에게 그의 조카가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것을 저지시키거나 그를 보호하기를 그만두라고 부탁했다.

아부 딸립이 조카인 예언자 무함마드(ﷺ)에게 그들의 말을 전달하자 예언자 무함마드(ﷺ)께서는 침착하고 명료하게 답했다.

“알라께 맹세코! 만일 그들이 내 오른손에 태양을, 내 왼손에 달을 올려놓는다 해도, 알라를 위해서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



을 것이오. 알라께서 이를 승리로 이끄실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 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말이오.”

아부 딸립이 조카의 말을 들은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넌 말은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여라. 내가 살아 있는 한 아무도 너를 괴롭힐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부 딸립은 예언자 무함마드(ﷺ)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약속했다.

함자가 무슬림이 된 이야기

예언자 무함마드(ﷺ)께서는 당면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셨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도 갈수록 증가했다.

그 분이 알라의 첫 계시를 받으신 후 6년째 되던 해, 하루는 예언자(ﷺ)께서 싸파 언덕에 앉아 있었을 때 그분 곁을 지나던 아부 자흘이 그분을 구타했으나 아무 말이 없자 이번에는 돌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자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한 여성이 이를 목격하고서 예언자의 삼촌인 함자를 찾아가서 전했다. 함자는 그 당시 아직 무슬림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의 조카가 당한 구타에 대해 매우 분노하여 꾸라이쉬 우두머리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아부 자흘을 찾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동생의 아들을 구타하고 그를 슬프게 한 자가 바로 너냐? 나는 이제 그가 믿는 종교를 따르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함자는 이 말을 한 후 갖고 있던 활로 그의 머리를 때렸다.

이 사건 이후 함자는 무슬림이 되어 예언자(ﷺ)의 편이 되었고 이슬람을 위해 헌신했다.

우마르가 무슬림이 된 이야기

함자가 무슬림이 된 것 그리고 무슬림들의 세력이 갈수록 강해지는 상황은 꾸라이쉬 우두머리들을 걱정스럽게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두들 ‘다룬 나드와’



라는 장소에서 모였고 그 모임에서 아부 자흐의 제안으로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암살하자고 결론지었다. 그 일을 할 사람으로 우마르가 선택되었고 당시 33세였던 우마르는 자신의 목에 칼을 걸고, 그 길로 곧장 암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떠났다.

무슬림들은 아르캄의 집에 모여 있었고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도 그곳에 계셨다. 우마르는 가는 도중 누아임을 만났고 누아임은 그에게 “어디 가는가, 우마르?” 하고 물었다. 그러자 우마르가 대답했다.

“나는 무함마드를 끌장내러 가는 길일세.”

누아임이 또 말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맡았군!”

그러자 우마르는 이렇게 말했다.

“누아임 자네도 무함마드의 편인가?”

누아임이 이렇게 말했다.

“우마르! 자네는 자네 집안 단속이나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걸세. 자네의 여동생 파티마와 처남 싸이드 역시 이슬람으로 개종했단 말일세.”

이 말을 들은 우마르는 불같이 화가 나서 단걸음에 여동생 집으로 달려갔다. 도착해 보니, 여동생 집 문은 안쪽에서 빗장이 질러져 있었다. 여동생과 그의 남편은 새로 계시된 꾸란의 ‘따하’장을 읽고 있던 중이었다. 우마르가 문을 두드렸고, 그들은 우마르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자 꾸란이 친필로 적혀 있는 종이를 숨겼다. 그의 여동생이 문을 열자, 우마르는 그녀의 머리를 때리며 이렇게 말했다.

“오, 나의 적이여! 너마저 우리의 종교를 저버렸단 말이냐!”

그녀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물었다.



“무슨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게야? 밖에서 낯선 사람 목소리가 들리던데?”

그의 처남이 대답했다. “우리 둘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마르는 이렇게 물었다.

“자네도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의 종교를 저버리고 새로운 종교로 전향한 것인가?”

이에 처남이 대답했다. “하지만, 새 종교가 더 좋고 진정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마르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를 때려눕히고 그의 수염을 잡아당기며 맹렬히 난타하기 시작했다. 여동생이 그를 말리자 그는 이미 피를 흘리고 있는 그녀의 머리를 심하게 때렸다.

우마르의 여동생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우마르! 단지 무슬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이렇게 때리시다니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무슬림으로서 기꺼이 죽기를 결심하였답니다. 그러니, 오라버니 좋으실 대로 하세요.”

이 말을 들은 우마르는 좀 진정되는 듯했고, 여동생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자 조금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 때, 그는 “아까 읽었던 것을 내게 보여 다오. 나도 한 번 읽어보자꾸나.” 라고 말했다.

여동생은 꾸란이 적혀 있는 종이를 그에게 주었다. 우마르가 그 종이를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따하 장이었다. 그는 따하 장의 첫 부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이 구절에 이르렀을 때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말이 또 있을까! 나를 무함마드(ﷺ)에게 데려다 주려무나.”

라후 알라이히 와쌀람)



마침내, 우마르는 예언자(ﷺ)에게로 가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마르가 무슬림이 된 것은 다른 무슬림들에게 큰 영광이자 명예와 기쁨이 되었다.

우마르는 이슬람을 받아들인 형제들이 모두 몇 명이냐고 묻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을 포함하여 총 40명이다.”**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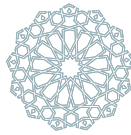
우마르의 제안으로 예언자(ﷺ)와 함께 모든 무슬림들이 카아바로 가서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우마르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된 일은 꾸라이쉬 우두머리들의 사기에 큰 타격을 주었다.

예언자(ﷺ)를 암살하려 했던 우마르는 여동생의 집에서 꾸란을 읽는 순간 무자비함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한 없이 부드러워졌으며 이슬람의 빛으로 채워졌다. 알라의 말씀인 꾸란이 그의 예언자(ﷺ)에 대한 적대심을 사랑으로 바꾸었다.

질문:

- 1) 예언자 무함마드(ﷺ)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슬람에 초대했는가?
- 2) 우상숭배자들이 무슬림들에게 행한 박해와 학대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3) 예언자 무함마드(ﷺ)에게 적대심을 드러내는 자들은 누구였는가?
- 4) 꾸라이쉬인들이 예언자 무함마드(ﷺ)를 반대하는 이유들은 무엇이었나?
- 5) 아부 딸립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예언자 무함마드(ﷺ)를 어떻게 보호해주었는가?
- 6) 함자와 우마르는 어떻게 무슬림이 되었는가?

5. 봉쇄 및 슬픔의 해



주제:

- 메카 우상숭배자들의 무슬림들에 대한 봉쇄
- 아부 딸립과 카디자의 사망
- 타이프 지역 여행
- 아까바 맹약
- 미으라즈 기적
- 미으라즈 밤의 선물: ‘예배’

메카 우상숭배자들의 무슬림들에 대한 봉쇄

함자와 우마르가 무슬림이 된 것 그리고 이슬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현실은 메카 우상숭배자들을 두려움에 빠뜨렸다. 따라서 메카의 족장들은 새로운 정책을 세웠다. 예언자 무함마드(ﷺ) 이후 알라이히 와살람)와 그 분의 교우들을 강제로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살게 하고 식량공급을 중단하였다. 그들의 봉쇄에 대한 조약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제부터 무슬림들과 그들을 보호하는 자들과 무함마드의 친척인 하심 일가와의 모든 관계는 끝이다. 아무도 그들과 만나지 못하며 매매나 혼인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상숭배자들 중 만수르 본 이크리마가 이 조약을 쓴 후 우상숭배자들이 함께 카아바의 벽에 이 조약을 걸었다.

메카의 우상숭배자들은 물과 식품의 공급을 봉쇄하면서 메카로 들어오는 모든 식품을 구매하여 무슬림들을 더욱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었다. 무슬림들은 이제 식량과 물이 끊긴 채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 수일간 심지어는 수주일 동안 굶게 되었다. 이러한 저항은 꾸란의 계시가 시작된지 7년이 되는 해에 시작되어 3년간이나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의 알라에 대한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모든 굶주림과 목마름을 인내심으로 견뎠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무슬림들은 가시덤불의 잎사귀까지 먹었으며 배가 고파 울어대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비참했다.

이러한 심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을 포기하는 무슬림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슬림들의 신앙은 더욱 강력해졌다. 그 때 나방 한 마리가 카아바 벽에 걸려 있던 조약의 종이에 적혀 있던 “알라”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제외하고 조약의 다른 문구들을 모두 갉아 먹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만수르 본 이크리마의 조약을 썼던 손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 당시에는 ‘비쓰밀라(알라의 이름으로)’라는 문구 대신에 ‘비쓰미칼라훤마(당신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알라의 은총으로, 무슬림들을 박해하는 자들 가운데 일부 마음이 따뜻한 이들은 더 이상 무슬림들에게 행하는 해악을 견딜 수 없어 조약을 폐기하여 결국 박해는 점차 약해져 갔으며 식량 금지령도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무슬림들은 봉쇄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아부 딸립과 카디자의 사망

드디어 가혹한 봉쇄조치는 끝났으나 그렇다고 메카 우상숭배자들이 평화와 공존의 뜻을 비치거나 무슬림들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봉쇄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삼촌 아부 딸립이 사망했으며 그의 사망 며칠 후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아내 카디자도 사망했다.

아부 딸립은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자식처럼 사랑하고 보호해주었으며 카디자는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이슬람으로의 초대를 최초로 받아들였고 가장 힘든 시절에 그 분을 위로하고 늘 도움을 주었던 충실한 아내였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자신을 항상 지지했던 이 두 분을 잃은 것에 대해 크게 슬퍼하셨고 따라서 이 두 분이 사망한 해는 ‘슬픔의 해’로 불리게 되었다.

아부 딸립과 카디자가 사망한 후 메카 우상숭배자들의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향한 박해와 학대는 더욱 심해졌다. 그 분이 거리를 지나갈 때 누군가가 그 분의 머리와 얼굴에 흙을 뿌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얼굴이 흙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딸 파티마는 그 분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얼굴을 닦아 드리며 눈물을 흘렸다. 딸의 눈물을 본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울지 말거라. 알라께서는 너의 아버지를 보호해주실 것이다.”

타이프 지역 여행

아부 딸립과 카디자가 사망한 후 메카 우상숭배자들은 박해와 학대를 공개적으로 재개했다.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찬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타이프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기 위해 자이드 본 카리사와 함께 타이프로 가셨다. 그러나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하러 찾아가셨던 타이프에서 우상 숭배자들인 타이프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



다. 예언자를 모시던 자이드가 몸으로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를 보호하다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머리와 얼굴에서 피가 낭자하였다.

타이프를 떠나 피신한 곳을 찾던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는 포도밭에 숨어 앉아 안도의 숨을 내쉬며 휴식을 취했다. 슬픔으로 가득 차 메카로 되돌아왔다. 타이프 여행은 매우 큰 고난이었으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알라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계속 수행하셨다.

아까바 맹약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 수년 동안 메카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했지만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분에게 많은 고난을 주었다. 그러나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셨다. 알라께서는 이슬람의 빛이 퍼지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바로 메디나였다.

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 계시를 받으신지 11년 되는 해, 성지순례 기간에 메카 외곽으로 나가셨다. 그 때 메디나에서 온 순례객 6명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자신이 알라께서 선택하신 예언자임을 알리고 꾸란을 암송하셨다. 알라께서 명하신 것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셨다. 이에 메디나 사람들은 예언자의 설명이 논리적이고 진실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슬림이 되었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그들은 메디나로 돌아가서 메디나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이슬람을 소개했다.

제 1 아까바 맹약(예언자 무함마드(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께서 계시를 받으신지 12년 되는 해)

그 다음 해 순례기간에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인정하는 12명의 메디나 사람들이 메카 근처에 있는 ‘아까바’라는 장소로 예언자(삿랄라후 알라이히 와삿람)를 찾아왔다. 그들 대표자의 이름은 아사



드 본 주라라였다. 그들 중에는 작년에 무슬림이 된 5명도 있었다. 그들은 예언자(ﷺ)에게 “알라와 대등한 존재를 두지 않는 것,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거짓과 중상모략을 삼가는 것, 예언자에게 거역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맹약했다. 이를 ‘제1 아까바 맹약’이라고 칭한다.

메디나 사람들이 이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요청하자 예언자(ﷺ)께서는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스압’을 파견하셨다. 무스압은 메디나에서 이슬람을 가르치고 알리는 일에 큰 역할을 하였다.

제 2 아까바 맹약(예언자 무함마드(ﷺ)께서 계시를 받으신지 13년 되는 해)

그 다음 해에 여성 2명을 포함한 메디나 지역 무슬림 75명이 메카로 와 ‘아까바’라는 곳에서 예언자(ﷺ)를 만나는 제 2 아까바 맹약이 이루어졌다. 이 맹약에 따라 메디나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아내와 딸을 보호하듯이 예언자(ﷺ)를 보호해주겠다고 맹세했다.

예언자(ﷺ)께서는 그들 중 12명의 대표를 선정하도록 요청했다. 선출된 12명은 예언자(ﷺ)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에게 복종하고, 항상 정직하며, 알라의 길에서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맹약했다.

아까바 맹약은 이슬람 전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미으라즈 기적

‘미으라즈’라는 단어의 의미는 ‘승천하다’이며, ‘이스라’는 ‘밤 여행’을 뜻한다. 예언자(ﷺ)께서는 메디나로 이주하기 1년 반 전인 라잡 달 27일째 되는 밤에 메카 하람성원에서 꾸두스(예루살렘)의 아끄사 성원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서 하늘로 천상여행을 하게 되었다.



천상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이 기적의 여행 이야기를 들은 메카의 우상숭배자들은 그 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무슬림들은 의심할 바 없이 미으라즈에 대해 믿었다.

메카 우상숭배자들은 ‘무함마드가 하룻밤에 하늘로 올라갔다 돌아온 것을 당신도 믿느냐?’고 아부 바크르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 분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언자를 시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부 바크르는 “씨디끄, 즉, ‘정직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

미으라즈 밤의 선물: ‘예배’

누군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친한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가져오듯 예언자(ﷺ)께서도 미으라즈에서 중요한 기쁜 소식과 선물을 가져오셨다.

미으라즈에서 예언자(ﷺ)께서는 가장 근접하여 알라를 만나셨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물을 부여받으셨다.

1. 꾸란의 바까라 장의 마지막 두 구절(285-286절)

2. 무슬림 공동체 중 알라와 대등한 존재를 두지 않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쁜 소식

3. 하루 5번의 예배

이렇게 하여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두 번째 기둥인 ‘예배’가 무슬림들에게 미으라즈 밤에 의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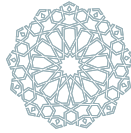
질문:

- 1) 메카 우상숭배자들은 무슬림들에게 어떤 봉쇄조치를 했는가? 그리고 그 기간은 몇 년이었는가?
- 2) 아부 딸립과 카디자가 사망한 시기는? 그 해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3) 예언자 무함마드(صلوات الله وسلامه عليه)의 타이프 지역 여행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4) 제 1, 2 아까바 맹약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5) 예언자 무함마드(صلوات الله وسلامه عليه)께서는 언제 미으라즈를 하셨는가?
- 6) 예언자 무함마드(صلوات الله وسلامه عليه)께서 받으신 미으라즈 밤의 선물들은 무엇인가?

6. 이주와 메디나에서의 초기시절



주제:

-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메카에서 메디나로의 이주
- 메디나에서의 환대
- 마스지드 나바위의 건축
- 안사르와 무하지룬 간의 형제애 구축
- 예언자의 학교와 ‘아스하브 알 수파’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메카에서 메디나로의 이주 (서기 622년)

이슬람역사에는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주한 것을 “히즈라(Hijrah)”라고 하며 이슬람력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메카 우상숭배자들이 무슬림들에게 박해와 학대를 지속적으로 가했기에 예언자 무함마드 (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무슬림들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도록 하셨으며 따라서 무슬림들은 여러 무리로 메디나로의 이주를 시작했다. 그들은 알라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태어나고 자란 정든 고향과 모든 재산을 뒤로 한 채 희망의 빛이 있는 메디나로 향하였다.

메카에는 예언자 무함마드(ﷺ)와 함께 아부 바크르 그리고 알리와 몇 명의 무슬림들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예언자(ﷺ)께서는 갖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이슬람 전파에 헌신하여 메카에서의 임무를 완수하였다.

메카 우상숭배자들은 메디나 사람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메카 무슬림들도 메디나로 이주하여 메디나의 무슬림들과 함께 견고한 이슬람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였다. 따라서 이슬람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다룬 나드와’라는 장소에서 비상소집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아부 자흐의 제안에 따라 예언자(ﷺ)를 암살하기로 합의한 그들은 각 부족들 중에서 한 사람씩 용사들을 선발하여 칼로 무장한 이들이 예언자의 집을 둘러싸서 그 분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메카 우두머리들이 이와 같은 계락을 준비하느라 분주할 때, 알라께서는 예언자에게 이주를 명령하셨다. 지브릴 천사가 예언자에게로 와 우상숭배자들의 계락을 알려 그날 밤 침대에서 잠자지 않도록 일렀다. 따라서 예언자는 알리에게 이날 밤 자신의 침대에서 자도록 하였다. 예언자는 집 밖으로 나가 밖에서 기다리던 젊은 용사들 사이를 안전하게 빠져 나가 아부 바크르의 집에도착했으나 용사들 중 그 누구도 예언자를 보지 못했다.

여정 준비가 끝난 다음 예언자(ﷺ)와 아부 바크르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할 때 안전을 위해 한 밤 중에 메카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싸우르 동굴’에 가서 몸을 피하셨다. 아침이 되자 예언자(ﷺ)가 집을 떠났음을 알게 된 우상숭배자들은 예언자를 찾기 위해 사방을 수색하



였다. 메카의 우두머리들은 예언자를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사람에게 낙타 100마리를 포상금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와 아부 바크르가 동굴에서 쉬고 있을 때, 추적에 나선 우상숭배자들이 동굴 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동굴입구가 거미줄로 막혀 있고 비둘기 두 마리가 거기에 동지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동굴 안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만약 이 동굴로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이렇게 입구를 막고 있지 못할 것 아닌가?”라고 말하자 모두 되돌아갔다.

우상숭배자들이 동굴 앞에 이르렀을 때 아부 바크르가 걱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알라의 예언자시여! 그들 중의 누군가가 자신의 다리를 쳐다보게 되면 밑에 있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슬퍼하지 말라 알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동굴 입구에 거미들이 거미줄을 친 것, 그곳에 나타난 나뭇가지에 비둘기들이 동지를 만들어 알을 낳은 것은 알라께서 행하신 기적이다. 알라께서는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이 기적들로 보호해주시고 동굴 입구까지 왔던 우상숭배자들이 동굴 안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셨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와 아부 바크르는 그 동굴 안에서 사흘 낮과 밤을 머무른 다음 메디나로 출발하였다.

‘수라까 이븐 말릭’이란 사람이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와 일행을 발견하였을 때 사정거리까지 쫓아왔지만 갑자기 말에서 떨어졌다. 그는 말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자였다. 다시 말에 올라탔지만 그 순간, 수라까의 말의 앞 다리가 무릎까지 땅속에 묻혔다. 수라까는 겨우 말을 수습하여 다시 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말의 발이 다시 땅에 쳐 박혔다. 말에서 떨어지는 일이 세 번 되풀이되자 그는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



쌀람)가 진실로 알라의 예언자임을 깨닫고 그 분을 체포하는 것을 포기한 채 돌아갔다. 수라까는 사람들에게 “이 지역을 다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여 그들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수라까는 후에 무슬림이 되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1주일이 걸려 월요일에 메디나 근처에 있는 꾸바 마을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셨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꾸바에서 10일정도 머물렀는데 그곳에 이슬람역사의 첫 성원인 ‘꾸바 성원’을 건립했다. 그 분은 돌들을 모아 성원을 건축하는 일에 몸소 참여하셨다. 알리도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메카를 떠나신지 3일 후에 메디나로 출발하여 그들은 꾸바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메디나에서의 환대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일행과 함께 금요일에 꾸바 마을에서 메디나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바누 살림 가문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였고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그곳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금요합동예배가 파르드(절대의무)가 되었음을 알리고 다 함께 첫 금요합동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인도하신 후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메디나로 향하였다.

모든 메디나 사람들이 이 고귀한 손님을 마중하기 위해 길 양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분이 지나갈 때 그들은 “어서 오십시오! 오, 알라의 예언자시여!”라고 말하며 어린이들은 “알라의 예언자께서 오셨다!”라고 기쁘게 외치고 있었다.

메디나에서의 이런 환대와 함께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칼리드 본 자이드의 집에서 7개월 동안 머물렀다.

마스지드 나바위의 건축

아부 아유브 알 안사리(Abu Ayyub Al-Ansari) 집 옆에는 비어 있는 땅이 있었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이 땅을 사서 성원과 자신이 거주할 장소를 만들었다. 오늘날 무슬림들이 메디나에 가서 방문하는 ‘마스지드 나바위(예언자의 성원)’



가 바로 이때 만드신 곳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흙벽돌을 어깨에 짊어지시며 몸소 성원건축에 참여 하셨다.

안사르와 무하지룬 간의 형제애 구축

‘메카 이주민’ 즉, 예언자 시절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메카 무슬림들을 ‘무하지룬(Muhaajirun)’이라 하고, ‘메디나 후원자’ 즉, 예언자 시절 메카 무슬림 이주민들을 도와준 메디나 무슬림들을 ‘안사르(Ansar)’라고 한다.

집 등 모든 재산을 메카에 두고 온 무하지룬(메카 무슬림)들에게 안사르(메디나 무슬림)들은 따뜻한 환영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들의 집에 머물게 하며 성심 성의껏 잘 보살펴 주었다. 알라 안에서 한 형제인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포용하였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무하지룬과 안사르에서 각각 한 명씩 연결시켜 형제를 마련해주었고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친형제간보다 더 강력했다. 이리하여 무하지룬과 안사르는 이슬람을 위한 헌신적인 진실한 형제애를 발휘하게 되었다.

예언자의 학교와 ‘아스하브 알 수파’

‘수파(Suffah)’란 ‘예언자의 성원 옆에 만들어진 집’을 의미하며 ‘아스하브 알 수파(Ashab al Suffah)’란 ‘메카에서 이주해 수파에서 머무르며 예언자의 교육을 받은 집 없는 가난한 교우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일자리가 생기면 일을 하여 생계를 이어갔으며 만약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와 경제적으로 넉넉한 무슬림들이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들 중 누군가 결혼하게 되면 수파를 떠나 다른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아스하브 알 수파’들은 항상 예언자와 함께하며 그 분으로부터 이슬람을 배웠다. 이슬람지식을 쌓고 알라께 숭배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슬람 최초의 교육기관은 수파 학교였으며 선생님은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였다. 예언자의 교우들 중 가장 많은 하디스를 전언한 사람인 아부 후라이라도 이 학교에서 교육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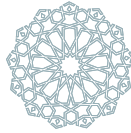


수파 학교에서 훌륭한 이슬람교육을 받아 꾸란과 하디스를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등장하였고 이들 중 다른 지역에 가서 이슬람을 가르칠 선생들을 뽑았다. ‘아스하브 알 수파’는 이슬람이 아라비아반도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질문:

- 1) ‘히즈라’는 무엇인가?
- 2)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صل람)와 무슬림들이 이주한 이유는 무엇인가?
- 3) 이주 사건과 이주 중에 일어난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صل람)의 기적들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4) 이슬람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성원은 무엇인가?
- 5)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صل람)께서 메디나에 도착했을 때 메디나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또한 그 분은 누구의 집에서 머물렀는가?
- 6) ‘마스지드 나바위’란 무슨 뜻이며 어디서 건축되었는가?
- 7) ‘안사르’와 ‘무하지룬’은 누구인가?
- 8) ‘아스하브 알 수파’는 누구이며 이슬람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7.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참전한 전투 (I)



주제:

- 바드르 전투의 원인
- 바드르 전투와 그 결과
- 우후드 전투의 원인
- 우후드 전투와 그 결과
- 참호 전투의 원인
- 참호 전투와 그 결과
- 후다이비야 협정
- 후다이비야 협정의 결과
- 이웃 국가 왕들에게 보내진 이슬람으로의 초대 편지
- 카이바르 정복
- 카아바 방문 (소순례)

바드르 전투의 원인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메카 무슬림들과 함께 메디나에 정착한 후에도 메디나 근처까지 와서 무슬림들의 낙타를 빼앗아가는 등 메카 우상숭배자들의 적대심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메카 우상숭배자들은 메디나의 카즈라즈 부족 출신 우두머리 중 한 명이자 위선자인 압둘라 본 우바이에게 예언자를 암살하거나 메디나에서 쫓겨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만일 그가 메카 우상숭배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메디나를 공격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메카 우상숭배자들은 대규모 교역단을 다마스쿠스로 보내 물건을 모두 팔아 그 돈으로 전부 무기를 사서 무슬림과 전쟁을 벌일 계략이었다.

무슬림들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기에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교역단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히즈라의 두 번째 해, 라마단 달에 305명으로 구성된 이슬람 군대를 인솔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메카 우상숭배자들은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메디나로 이동하여 ‘바드르(Badr)’라는 곳에 도착한 후 그곳의 우물을 점령했다.

무슬림들이 메디나에서 이동한 이유는 메카 우상숭배자들과 싸우기 위함이 아닌 그들의 교역단을 막기 위해서였다.

메카에서 큰 수의 군대가 오고 있음을 알게 된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그분의 교우들과 함께 논의하신 후 적과 맞서기로 결정했다.

바드르에 도착한 이슬람군대는 모래 너머에 머물렀는데 그곳에는 우물이 없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자들이 이미 우물이 있는 곳을 지배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알라의 은총으로 그 날 밤에 많은 비가 내려서 무슬림들은 물이 부족함 없이 견딜 수 있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이슬람을 전파할 때 좋은 언행으로 초대하도록 하셨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강제적으로 믿도록 강요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메카 우상숭배자들의 공격에는 방어하여 싸울 것을 알려께서는 허락하셨다.

바드르 전투와 그 결과 (히즈라 2년/서기 624년)

메카 우상숭배자들의 군대는 수와 장비 면에서 무슬림 군대보



다 월등히 우수했다. 따라서 그들은 승리를 자부했으나 무슬림들의 신앙심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 바드르 전투는 진리와 거짓, 신앙과 불신의 대결이었다. 그리고 이슬람의 미래는 이 전투의 결과에 달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 두 군대는 정면으로 맞붙었고 이 때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두 팔을 하늘로 펼치시고 다음과 같이 기도드리셨다.

“오, 알라! 당신께서 도와주시어 승리로 이끌어주신다는 약속을 이행하시어 저희에게 승리를 주소서! 만약 당신께서 이 한줌의 무슬림들을 저버리시면 당신을 숭배하는 이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알라께서는 그 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며 무슬림들에게 가장 영광된 승리를 선사해 주셨다.

무슬림들은 용감히 싸웠고 알라의 도움으로 몇 배 이상인 적군을 패배시켰다. 메카 우상숭배자들은 70명의 사상자와 70명의 포로를 두고 후퇴했으며 사상자 중에는 이슬람의 가장 큰 적들 중 한 명인 아부 자후도 있었다. 바드르 전투로 인하여 무슬림들은 빛나는 완승을 거두었으나 14명의 고귀한 희생자들을 낳았다.

이슬람 군대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메디나로 돌아갔으며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무슬림들에게 심한 박해를 가했던 메카의 우상숭배자 포로들을 살해하거나 고문하는 대신 그들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이슬람의 법에 따라 대우하였다. 역사상 최초로 전쟁 포로들은 승리자와 마찬가지로 먹여지고 재워졌으며 자비로운 대우를 받았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그들 중 읽기와 쓰기를 아는 포로들이 무슬림어린이 10명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친다면 자유인이 되도록 하였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포로의 경우에는 일정한 돈을 지불하면 자유를 주었고 아무런 능력이나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었다.



우후드 전투의 원인

메카 우상숭배자들에게 바드르 전투에서의 패배는 큰 충격이었고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가장 적대하였던 아부 라합은 슬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그들은 복수를 위하여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하였는데 바드르 전투에서 사망한 우상숭배자들의 친척들 중 여성들의 상당수도 여기에 참가했다. 아부 스프얀의 지휘 하에 군대는 메디나 근처의 우후드(Uhud) 산에 숙영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삼촌인 압바스는 아직 무슬림이 되지 않아 메카에 있었는데 그는 메카 우상숭배자들이 메디나로 이동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를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보냈다. (압바스는 나중에 무슬림이 되었다.)

우후드 전투와 그 결과 (히즈라 3년/서기 625년)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그 분의 교우들과 논의하여 1,000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적군이 주둔해 있는 우후드 산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우후드 산으로 가는 도중 300명의 위선자가 이탈하여 무슬림군의 수는 700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우후드 산에 도착한 무슬림들은 계곡 아래가 흰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진을 쳤다. 따라서 메카군은 메디나와 무슬림군 사이에 놓이게 되었다.

예언자는 무슬림 전사들의 진열을 정비했다. 후방은 우후드 산이, 전방은 메디나 쪽을 향하도록 군대를 배치했다. 이슬람 군대의 왼편에는 언덕이 있었으며 언덕 위로는 좁은 통로가 나 있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이곳을 작전의 기밀지로 택하시고 50명의 활 쏘는 병사들을 배치하시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격히 명령했다.

“우리의 후방을 보호하라.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배치된 지역을 절대로 벗어나지 마라.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다른 명령을 내



릴 때까지 절대로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우리가 적을 격퇴시켰더라도 움직이면 안 된다.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더라도 우리를 도우려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곳으로 적의 기병들이 접근하면 화살을 집중적으로 날려라. 화살 공격이 있으면 기병들은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군은 용맹히 싸워 메카군을 패배시켰다. 메카군에 있던 여성들도 우후드 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투가 아직은 완전히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메카군을 끝까지 쫓아 공격하여 확실한 승리를 거두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슬림군인들은 예언자의 말씀을 어기고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성급히 판단하여 적군의 남긴 전리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통로를 지키는 50명의 군사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리를 떠나지 말 것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대부분이 메카군이 퇴각하는 것을 보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전쟁이 이제 끝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지휘관과 몇 명의 전사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언덕을 지키고 있던 이슬람군사들의 숫자가 확 줄어든 것을 본 메카 우상숭배자들은 휘하의 기마병들을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이동시켜 언덕에 남아 있던 몇 명의 무슬림 군사를 몰살시킨 후 곧바로 이슬람 군대의 후방전선을 공격했다. 교우들은 미처 전열을 재정비할 기회도 없이 후방의 적들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상황은 순식간에 돌변했다. 무슬림 전사들은 전후방 양쪽의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고 승리로 끝날 것만 같던 전투는 패배로 끝나게 되었으며 예언자의 삼촌인 함자와 많은 무슬림들이 순교했다. 예언자의 치아가 부러졌고 얼굴에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얼굴에서 떨어지는 피를 닦으시며 다음과 같이 기도드리셨다.

“오, 알라! 저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이를 모릅니다.”

이것은 그 분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의 몸에 칼을 휘두



르고, 치아를 부러뜨리고, 얼굴을 피투성이로 만든 이들에 대한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동정심과 인류애이다.

우후드 전투에서 무슬림군 70명이 희생되었고 메카군은 22명이 사상되었다. 무슬림 여성들은 전투 중 이슬람군에게 물을 제공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함으로써 도움을 주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수년 후 우후드 원장을 지나가실 때 그 슬픈 날을 상기하시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 무슬림들이여! 이제부터 너희들이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에 대해 아주 작은 의심조차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가장 걱정한 것은 너희들이 현세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니라.”

우후드 전투에서 승리는 하였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메카군은 우후드를 떠났다. 다시 모인 이슬람군이 적군을 뒤쫓았지만 싸울 용기를 잃은 메카군은 메카로 돌아갔다. 이슬람군도 메디나를 향해 출발했다.

우후드 전투로 얻은 교훈

초기에는 승리가 거의 확정되었지만 왜 패배하였을까?

예언자와 어른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고 장군에게 불복종한 것뿐만 아니라 책임을 망각하고 이익을 위해 개인행동을 한 것 (전리품에 손을 댄 것)이 바로 그 이유였다. 그 결과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로 돌아갔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무슬림들에게 중요한 교훈과 경고를 남겼다.



참호 전투의 원인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메디나로 이주한 후 메디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꾸바 마을 근처에 사는 유대인 나디르 부족은 우후드 전투 후부터는 무슬림들과의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심지어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암살할 계획까지 세웠다. 따라서 유대인 나디르 부족은 메디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 우두머리들이 함께 메카로 가서 이슬람을 적대시하고 예언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메카 우상숭배자들과 동조하기로 했다. 우후드 전투 2년 후 아부 수프얀이 1만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인솔하여 메디나로 출격하였다. 메카군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항상 그랬듯이 교우들과 논의한 후 이번에는 아주 다른 전략으로 메디나를 지키기로 결정했다.

참호 전투와 그 결과 (히즈라 5년/서기 626년)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와 교우들이 전쟁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드디어 적군의 기습을 막기 위해 메디나 주위에 참호를 파서 방어하는 전술에 찬성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비롯하여 모든 무슬림들이 힘을 합쳐 6일내에 참호를 파는 데 성공했다.

메카군이 메디나에 도착하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참호 장벽을 보고 매우 당황하였다. 메디나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찾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무슬림들이 밤낮으로 자리를 지켜 적군의 기습을 방어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도 밤새도록 초보를 서시며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메카군의 포위 작전이 길어질수록 메디나는 굶주림에 휩싸이게 되었다. 겨울이었기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무슬림들은 큰 고난을 겪었다.

포위 작전 27일째 날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드리셨다.



“오, 꾸란을 내려주신 주님이시여! 적에 대한 처벌에 가장 빠르신 주님이시여! 이 적군 무리를 파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 얼굴이 평안해지셨다. 왜냐하면 알라께서 그 분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예언자께서는 알라의 도움이 있을 것임을 무슬림들에게 알리셨다.

저녁 무렵 적군에게 얼음같이 차갑고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 모래가 적군의 얼굴을 날카롭게 치고 천막과 요리도구와 무기들을 날려버렸다. 혹한 추위가 급하고 빠르게 진행되니 적군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었다. 만 명의 군사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대부분의 식품과 물건을 놓고 철수했다.

아침이 되자 폭풍이 가라앉았고 메디나 주위에는 적군이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았다. 무슬림들은 알라께 감사를 드렸다. 바드르, 우후드 그리고 참호 전투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한 메카 우상숭배자들은 이제 이슬람의 빛을 끄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았다. 이후 메디나는 더 이상 침략당하지 않았다.

후다이비아 협정 (히즈라 6년/서기 628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그리워하며 메카에 가서 순례하기를 갈망했다. 따라서 예언자가(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히즈라 6년에 우므라(소순례)를 위해 1,400명의 무슬림들과 함께 메카로 이동했다. 하지만 메카 우상숭배자들은 무슬림들이 메카에 와서 순례의식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다음 해에 오기를 요청했다.

여러 협상 후, 메카 족장들과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 사이에 10년간의 협정이 맺어졌다.

이 협정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무슬림들이 금년에는 소순례를 행하지 않고 메디나로 돌아가야 한다.
2. 내년엔 다시 와서 순례를 하되 메카에서 3일 이상 머무를 수 없다.
3. 무기를 소지한 채 메카에 들어올 수 없다.
4. 메카에 있는 무슬림들을 메디나로 데려갈 수 없지만 메디나 사람들 중 메카에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허락한다.
5. 메카 출신 무슬림이나 우상숭배자가 메디나로 가면 돌려보내야 하지만 무슬림 중 누군가가 메카 우상숭배자 측에 속하고 싶어 한다면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6. 다른 아랍 부족들도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편입될 수 있다. 그들은 무슬림 또는 우상숭배자들과 연합할 수 있다.
7. 협정의 유효기간은 10년간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양측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와 그분의 교우들이 다음 해에 메카를 방문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소순례를 행하지 않고 메디나로 돌아갔다.

후다이비야 협정의 결과

히즈라 6년에 메카인들과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 사이에 ‘후다이비야 협정’이라는 휴전 협정이 맺어졌다. 이는 꾸레이쉬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았지만 이슬람에 있어서는 하나의 승리였다. 협정기간 동안 많은 비무슬림들이 원래의 삶의 방식과 이슬람의 삶의 방식을 비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엄청난 수의 메카인들과 부족민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많은 무슬림들은 협정의 내용에 만족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협정이 메카측에 더 유리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협정을 승리로 선언하셨



다. 왜냐하면 결국 이 협정으로 인해 무슬림들은 혜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무슬림들이 메디나로 돌아오는 중 꾸란의 파트흐(48)장이 계시되었다. 이 장을 통해 알라께서는 무슬림들에게 큰 승리에 대한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 즉, 이 협정으로 인하여 메카 우상숭배자들은 최초로 무슬림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협정 후 얼마 되지 않아 메카 출신 사람들 중 일부가 무슬림이 되어 메디나로 갔다. 그러나 협정의 조건에 따라 메카 우상숭배자들은 무슬림이 된 사람들을 메카로 돌려보내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이슬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메카와 메디나 사이의 어느 곳에 정착했다. 그곳은 메카의 교역단이 지나가는 중요한 지점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이곳에 모이는 무슬림들의 수가 증가하여 강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메카 우상숭배자들은 교역단의 노선이 위태롭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따라서 그들은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사절단을 보내 메카 출신 무슬림들이 원한다면 메디나로 가도 되도록 협정의 조항을 폐지할 것을 간청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그들을 동정하여 이를 수락하셨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무슬림들에게 불리했던 이 조항이 오히려 메카 우상숭배자들의 간청으로 폐지됨으로서 이슬람을 선택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메디나로 올 수 있게 되었다.

후다이비야 협정을 통해 무슬림들과 우상숭배자들간의 긴장 상태가 완화되었고 무슬림들은 우상숭배자들의 위협에서 다소 안전하게 되었다. 무슬림들은 이제 평화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메카의 주요 우두머리들이 메디나로 와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결국 이 협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이슬람의 빛은 점차 더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웃 국가 왕들에게 보내진 이슬람으로의 초대 편지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보내진 예언자이다. 따라서 후다이비야 협정 이후부터 전 세계에 이슬람을 전달할 임무를 수행하는데 착수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무함마둔 라수-룰라(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은으로 된 반지를 만들어 비잔틴, 페르시아, 이집트, 아비시니아(에티오피아), 오만, 바흐레인의 통치자들에게 사절단을 통해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들의 아래쪽에 이 은옥새를 찍었다.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편지를 받은 아비시니아 왕은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비잔틴 황제와 이집트 왕은 비록 예언자의 사절단을 잘 대해주었지만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르시아 왕은 예언자의 편지를 읽자 화가 치밀어 올라 편지를 낚아채더니 찢어버렸는데 어느 날 밤 그 페르시아 왕은 아들의 칼에 의해 난자당해 사망했다.

카이바르 정복 (히즈라 6년/서기 628년)

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는 카이바르는 유대인들의 거주지였다. 그곳에는 일곱 개의 성이 있었다. 메디나에서 추방된 유대인들 중 일부도 여기에 정착해 있었다. 카이바르 유대인들이 메디나를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그들에게 사절단을 보내 합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합의를 거절했고 가타판 부족에게 함께 싸우자는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무슬림들이 1,600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카이바르에 3일내에 도착했다. 이슬람군대를 본 유대인들은 성으로 들어가버렸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알라께 기도드렸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에게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익과 선을 간청합니다. 우리는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사악함으로부터 당신께 피난처를 구합니다.”

예언자(ﷺ)께서 유대인들에게 항복하기를 제안했지만 거절하자 전투는 시작되었다. 10일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카이바르의 모든 성들이 하나씩 차례로 무슬림병력에 의해 정복되었다. 전투 중 한 유대인이 칼로 알리의 방패를 내리치는 바람에 방패가 땅에 떨어졌고 곤경에 처한 알리는 성의 정문을 방패삼아 싸우기 시작했다. 카이바르 전투에서 무슬림군 10명이 순교했고 유대인군 93명이 사상했다. 일부 무슬림 여성들도 이 전투에 참전하여 이슬람군에게 옷을 만들어 주거나 약이나 물을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었다.

희망을 잃은 유대인들은 대표를 보내 평화협정을 요청해 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 수확물의 절반을 무슬림들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예언자(ﷺ)께서는 이 제안을 수락하셨고 그들에게 존중을 표하셨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언자를 잔치에 초대하여 독약으로 살해하려 했다. 알라께서 예언자에게 음식에 독이 있음을 알리시자 그 분은 입에 넣었던 음식을 뱉어버려 안전하게 되었다.

카아바 방문 (소순례) (히즈라 7년/서기 629년)

1년 전에 체결한 후다이비야 협정에 따라 무슬림들은 금년에 메카로 가서 소순례의식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예언자(ﷺ)께서는 2,000명의 무슬림들과 함께 메디나를 출발해 메카에 도착하셨다. 카아바를 보자 다 함께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쳤고 순례의식에 따라 따와프(카아바 주위를 7번 순회하는 것)를 했다. 다음 날 예언자(ﷺ)께서 카아바 안으로 들어가셨고 정오 시간에 빌랄이 아단을 부른 후 2,000명의 무슬림들이 함께 주후르 예배를 드렸다.

무슬림들은 메카에서 3일 동안 머무른 후 메디나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메카를 방문했을 때 보여주었던 훌륭한 성품과 청결하



고 예의바른 행동가짐은 메카인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들의 마음에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온정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꾸라이쉬 우두머리 중 칼리드 본 왈리드와 아므르 본 아스가 메디나에 가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질문:

- 1) 바드르 전투는 언제 그리고 어떤 이들 사이의 전투였는가?
- 2) 바드르 전투의 원인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 3) 우후드 전투는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벌어졌는가?
- 4) 우후드 전투의 원인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 5) 무슬림들이 우후드 전투로 인하여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 6) 참호 전투는 언제 발생했으며 그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
- 7) 후다이비야 협정은 언제 어떤 이들 사이에 체결됐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 8)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편지를 보내신 나라들은 어디인가?
- 9) 카이바르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정복되었는가?
- 10) 무슬림들은 언제 카아바를 방문했는가?

8.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참전한 전투 (II)



주제:

- 메카 정복
- 후나인 전투
- 아우타스 전투와 타이프 포위
- 타북 원정
- ‘마스디즈 디라르의 파괴...’ (독서)
-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참전한 전투의 특성
- 아부 바크르의 순례 단장 임무
- 고별순례
- 고별설교
-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고별설교연설에서’ (독서)
-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병에 걸림과 임종
-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임종 후 사건들
-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자녀들
- 아샤라이 무바샤라



- 예언자(ﷺ)의 교우들
- 인류에게 빛을 가져온 예언자(ﷺ)의 완벽한 성품

메카 정복 (히즈라 8년/서기 630년)

메카 우상숭배자들이 후다이비야 협정을 위반하여 예언자(ﷺ)께서는 그들에게 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정의 조건들을 지키지 않았다. 무슬림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협정이 존재할 의미가 사라졌기에 예언자(ﷺ)께서는 히즈라 8년(서기 630년) 라마단 달에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메카로 진격하였다. 이는 정복 역사상 가장 놀랍고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는데 그 이유는 메카의 정복이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화로 종결된 정복이었기 때문이다.

예언자(ﷺ)께서는 메카에 입성하기 전 메카인들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기 위해 사령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침을 내리셨다.

“공격을 받기 전에는 누구와도 전투를 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예언자(ﷺ)의 의도대로 메카는 단 한 사람도 피흘림 없이 평화롭게 정복되었다. 그리하여 메카의 평화로운 정복은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예언자(ﷺ)께서는 카아바로 가서 그 안에 있던 우상들을 모두 부수시기를 원하였으며 따라서 360개의 우상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파괴되었다. 그런 후 예언자(ﷺ)께서는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사람들 앞에서 알라께서는 한 분이시라(신은 한 분이시라)는 진리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과 서로간에 피로 복수하는 관습은 폐지되었음을 밝히시고 다음의 꾸란 구절을 말씀하셨다.



“오, 사람들이여! 실로 우리(알라)는 너희를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 창조하였으며 너희가 서로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민족과 부족을 만들었느니라. 너희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은 그 분(알라)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니라. 실로 알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관찰하시는 분이시니라.” (꾸란 49장 13절)

모든 메카 사람들이 카아바 주위에 몰려들어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 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와 최초의 무슬림들을 잔인하게 고문했던 이들이며 이슬람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 모든 사악한 행위를 저질렀던 이들이다. 그런 그들이 이제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 앞에서 있는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는 이 세상을 위한 자비로 보내진 동정의 바다였기 때문이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다.

“오, 꾸라이쉬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리라고 생각하느냐?”

모두 머리를 숙이고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처분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 메카인들 중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자비로운 형제이자 자비로운 형제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는 오직 선만을 행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오늘 이후로 너희들의 죄에 대한 불만이나 비난은 없을 것이니라. 그러면 일어나 가라! 너희 모두는 해방된 자유인들이니라.”



예언자(ﷺ)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슬람의 진리를 비웃었던 이들을 용서함으로써 관대함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다. 그들 모두를 용서함으로써 전 인류와 모든 세대에 가장 완벽한 관용과 아량의 본모습을 보이셨다. 이 위대한 자비는 굳어 있던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여 증오를 사랑으로 변화시켰다.

메카 정복의 날 정오 시간에 빌랄이 카아바 위에 올라가서 아단을 불렀다. 무슬림들이 함께 정오예배를 드린 후 예언자(ﷺ)는 사파 언덕으로 올라가셨다. 그곳은 그 분이 예언자임을 꾸라이쉬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처음으로 이슬람으로 초대하신 곳이었다. 그곳에서 예언자(ﷺ)께서 먼저 남자들 그 다음 여자들의 충성 서약을 받아들여 주셨다. 그리하여 꾸라이쉬 사람들은 무슬림이 되는 영광을 안고 교우들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다.

예언자(ﷺ)께서는 이슬람을 받아들인 메카사람들에게 꾸란과 이슬람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무아즈 본 자발을 책임자로 메카에 남겨두고 교우들과 함께 메디나로 출발하셨다.

후나인 전투 (히즈라 8년/서기 630년)

메카 정복 후 카아바에 있던 모든 우상들이 파괴되었고 메카 우상숭배자들의 대부분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이슬람의 빛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메카 근처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하와진이라는 큰 부족이 있었는데 무슬림들이 메카에 있던 우상들을 부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우상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전쟁준비를 시작했다. 하와진 부족은 무슬림군을 공격하기 위해 2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메카와 타이프 사이에 있는 ‘후나인’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

예언자(ﷺ)께서는 아직 메카에서 메디나로 돌아오지 않으셨는데 적군의 전쟁준비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자마



자 1만2천명으로 구성된 이슬람군대를 인솔하여 후나인으로 출동하셨다.

적군이 계곡에 주둔 중인 사실을 모른 채 이슬람군은 여명의 어두움 속에서 계곡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계곡의 저지대에 도착하여 진지를 구축하려던 순간 적은 공격해왔고 이 예상치 못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슬람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은 뒤따라오던 병사들의 대열에 무질서를 초래하였다.

적군의 갑작스러운 거센 공격과 맞서게 된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혼자서 앞으로 뛰쳐나가셨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이끌어졌던 이슬람군을 부르자 그들이 예언자 주위에 모여 적과의 격렬한 전투를 시작했다. 전세는 역전되어 이슬람군에게 유리하게 되었고 결국 적군은 완전히 패배하여 수많은 포로와 수천 마리의 낙타와 양 그리고 은을 전장에 남겨둔 채 도망갔다.

이 전투는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용기와 강한 의지 그리고 인내심을 통해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아우타스 전투와 타이프 포위 (히즈라 8년/서기 630년)

이슬람군은 후나인 전투에서 도망친 적군을 ‘아우타스’라는 곳까지 추격하였고 그곳에서 적군이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 싸워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무슬림군은 4명 순교했고, 적군은 70명이 사상했다.

타이프 포위

적군 중 탈출에 성공한 자들의 일부는 타이프 성에 피난처를 구하였는데 그들의 사령관 말리크 빈 아우프도 이곳으로 피난하였다. 그러자 이슬람군은 타이프로 향하여 타이프 성을 완전히 포위하였으나 한 달이나 걸린 포위에도 성이 너무 튼튼했기에 정



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슬람군은 포위를 그만두고 그곳을 떠났다. 1년 후 타이프 사람들은 6명의 대표단을 메디나로 보내 무슬림이 되고자 하는 의향을 전해왔다. 그리하여 타이프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완전히 그만두고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타북 원정 (히즈라 9년/서기 630년)

‘타북’은 메디나와 다마스쿠스 사이에 있는 장소이다. 메카 정복 후 이슬람은 매우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었다.

비잔틴 제국은 이슬람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쟁준비를 시작했고 기독교인 아랍인들도 비잔틴군에 합류했다.

이 소식을 접한 무슬림들도 곧바로 병사들을 소집하였는데 아부 바크르(라디알라후 안후)와 우스만(라디알라후 안후)이 이슬람군장비를 위해 자신들의 재산과 재물을 기부하였다. 무슬림여성들도 갖고 있던 장식품들을 바쳐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적군을 패배시키기 위해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3만 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메디나를 출발하여 더운 여름 날씨에 수백 킬로미터의 사막을 통과해 마침내 타북에 도착했다. 그러나 겁에 질린 적군은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성들에 흩어져 숨었고 이슬람군은 적군과 싸울 필요 없이 쉽게 타북 원정을 승리로 장식하고 메디나로 귀환하였다.

독서

마스지드 디라르(디라르 성원)의 파괴

위선자들은 무슬림 공동체를 분열시켜 서로 반목하여 싸우게 하기 위해, 그리고 ‘아부 암르’라는 사람에게 정치적인 지위를 주기 위해 꾸바 성원에 가까운 곳에 ‘디라르 성원’을 지었다.

아부 암르는 우후드와 후나인 전투에 참전하여 이슬람군대와 맞서 싸웠지만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해 다마스쿠스로 도망쳤던 자였다. 그는 다마스쿠스에서 위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소식을



전했다. “가능한 한 무기를 준비하고 나를 위해 성원을 지어라. 나는 비잔틴 황제에게 가서 비잔틴 병사들을 메디나로 불러와 무함마드와 그의 교우들을 메디나에서 추방할 것이다.”

아부 암르의 제안으로 위선자들은 디라르 성원을 지었다. 위선자들은 나이나 병 등을 핑계로 꾸바 성원에서 예배드리는데 힘이 힘들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성원에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주장하였다. 디라르 성원이라는 곳은 외관은 성원이지만 사실은 무슬림들을 분열시키려는 음모의 장소였다.

위선자들이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디라르 성원으로 초대하여 예배드리기를 요청하며 그렇게 해주시면 디라르 성원이 예언자께서 예배를 드린 장소로서 성스러운 곳이라는 인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알라께서는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천사 지브릴을 보내시어 그 곳이 무슬림들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지어졌음을 알려주셨다¹.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타북 원정 이후 그 성원을 부수고 불태우셨다. 그리하여 위선자들의 사악한 목적은 물거품이 되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타북 원정에서 돌아오신지 두 달 후 아부 아미르는 다마스쿠스에서 사망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참전한 전투의 특성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실 때 항상 부드러운 언행으로 하였고 어느 누구에게도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으셨다. 하지만 메카 우상숭배자들은 예언자와 그 분의 교우들에게 온갖 종류의 사악한 행위를 하였다. 알라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무슬림들 중 일부는 잔인한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죽임을 당했다.

무슬림들은 이러한 억압과 박해를 13년 동안 신앙심으로 인내하며 견뎠다. 그들은 마침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메디나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슬림들이 메디나에 이주한 후에

1 쿠란 9 장(타우바) 107-110 절 참조



도 메카 우상숭배자들의 횡포는 멈추지 않았고 무슬림들을 공격하거나 재물을 빼앗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슬림들은 자체 방어를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히즈라 2년에 무슬림들에게 전쟁을 허락하는 다음과 같은 꾸란 구절이 계시되었다.

“침략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나니 모든 잘못은 침략자들에게 있노라. 알라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니라.” (꾸란 22장 39절)

“너희를 공격하는 알라의 적들에게 맞서 싸우되 그러나 먼저 공격하지 말라. 알라께서는 선제공격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꾸란 2장 190절)

위에 언급된 꾸란 구절을 바탕으로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참전한 전투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 2) 적의 공격을 막고 무슬림들의 신앙과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가 목적이다. 박해와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체 방어할 권리가 있다.

아부 바크르의 ‘순례단장’ 임무 (히즈라 9년/서기 631년)

히즈라 9년에 순례시절이 다가오자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아부 바크르(라디알라후 안후)를 ‘순례단장’으로 임명하시어 300명으로 구성된 순례단을 인솔하여 순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셨고 순례단이 메카를 향해 떠난 후 알리(라디알라후 안후)가 보내졌다.

알리(라디알라후 안후)는 순례의식의 방법을 설명 후 순례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표했다.

“지금 이후부터는 우상숭배자들의 순례를 허락하지 않으며 옷을 입지 않은 채 카아바 주변을 순례할 수 없습니다(당시에 우상숭배자들은 카아바 주위를 알몸으로 도는 풍습을 행하고 있었다).”



이 선언이 공표된 후부터 아라비아반도에서는 우상숭배 또는 미신적 관행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슬람 역사상 최초로 이슬람의 가르침에 맞는 순례의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고별순례 (히즈라 10년/서기 632년)

메카 정복 이후 이슬람은 아라비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알라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이 사람들 마음속에 굳게 새겨졌고 진리가 이슬람 안에 있음을 깨달은 곳곳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메디나로 와서 무슬림이 되었으며, 알라의 끝없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무슬림에 저항하는 세력은 아라비아반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이슬람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3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했던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 히즈라 10년에는 10만명이상의 무슬림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수행하였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서기 632년 아라파트 평원에서 작렬하는 태양 아래 124,000여명의 무슬림 순례객들 앞에서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이를 ‘고별설교’라고 한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고별설교를 하신 그날 꾸란 ‘마이다장’의 세 번째 구절이 계시되었다.

“오늘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종교로서 선택하게 하였느니라.” (꾸란 5장 3절)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이제 이별의 시간과 임종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셨기에 무슬림들 앞에서 마지막 이별 인사를 하셨다. 이번 순례가 그 분의 마지막 순례이기에 ‘고별순례’라고 부른다.



예언자(ﷺ)께서는 마지막 순례의식을 수행한 후 함께 왔던 무슬림들과 함께 메디나로 돌아가셨다.

‘고별설교’

예언자(ﷺ)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고별순례에서 행한 설교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이다. ‘고별설교’ 당시에는 마이크 같은 도구가 없었기에 예언자께서 하신 각 말씀을 다른 사람이 큰 소리로 되풀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이 있기 전 이미 이 고별설교는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표한 것이다.

고별설교에 언급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이슬람 이전 암흑시대에 존재하던 모든 악습이 사라졌다.
2.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며 다만 사람 간의 우수함의 차이는 오직 알라에 대한 신앙심과 경외심의 정도에 의한다.
3. 목숨과 재산은 신성한 것이다.
4. 재산은 올바른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모든 종류의 이자는 금지다.
6. 살인과 복수는 금지다.
7. 남편이 아내에 대한 권리를 지켜야 하듯이 아내도 남편에 대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음을 피해야 한다.
8. 모든 무슬림은 서로에게 형제이며 형제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금지다.
9. 직원들에게 잘 대하여야 한다.

독서

예언자(ﷺ)의 고별설교연설에서

예언자(ﷺ)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는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선언으로 간주되며 모든 무슬림에게 삶의 분명한 지표로서 역할한다.

“오, 사람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해가 바뀌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없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달해 주십시오.

오,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목숨과 재산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스런 곳, 이 성스런 날, 이 성스런 달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산이 올바른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알라께서는 이자를 취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모든 이자로 얻은 이익은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쁜 일에 빠질 염려도 없습니다.

오, 사람들이여!

무지의 시대에 흘렸던 피의 복수는 아직 갚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피의 복수는 압둘 무달립의 손자(나의 삼촌 중 하리스의 아들) 라비아였고 이로부터 피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오,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땅에서 결코 숭배 받지 못하는 사탄은 이제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을 경계하고 여러분의 종교를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오, 사람들이여!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알라께서 신임하시어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네들을 아내로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여러분들의 권리에 따라야 한다면 친절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할 권리는 남편의 것입니다. 남편의 동반자이며 헌신적인 조력자인 아내에게 친절히 잘 대하십시오. 남편의 인정 없이는 아내가 누구와도 정숙하지 못한 일을 하거나 사귀지 못함은 남편의 권리입니다.

오, 사람들이여!

그러므로 진실로 잘 귀담아 들어 숙고하십시오. 나는 여기에 두 가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바로 ‘꾸란’과 저의 ‘순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따른다면 결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사람들이여!

알라께서는 모든 소유자에게 권리(꾸란에 의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유언이 필요 없습니다.

오, 사람들이여!

인류 모두가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한 핏줄을 이어 받은 형제입니다. 아랍인이 비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비아랍인이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백인 또한 흑인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흑인 또한 백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우열은 오직 알라를 경외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무슬림은 서로에게 형제이며 무슬림들은 모두가 하나의 형제애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없는 사람들에게 저의 말을 전하고 그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기서 나에게 직접 듣는 여러분들보다 마지막에 듣게 되는 사람들이 내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 알라! 제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잘 전달했다는 사실에 증언자가 되어주소서.

내일 알라께서 여러분에게 나에 대해 물어보실 때 무엇이라고 답할 것입니까? 그들은 “알라의 예언자로 의무를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유언하고 충고하셨다고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하늘로 손가락을 높이신 후 청중들을 향해서 내리시며 알라의 말씀을 인류에게 전달했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 알라! 증인이 되어주소서!, 증인이 되어주소서!, 증인이 되어주소서!”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병에 걸리심과 임종 (히즈라 10년/서기 632년)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고별순례를 수행 후 메디나로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되어 편찮으시게 되었다. 그 분은 이제 임무를 성취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음을 느꼈다. 병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지만 예배를 위한 아단소리가 울리면 성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였다. 그러나 임종 사흘 전 병세가 더욱 악화되자 그 분은 성원으로 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성원으로 갈 기력이 남아 있지 않았기에 아부 바크르(라디알라후 안후)에게 이مام이 되어 교우들의 예배를 인도하라고 명하였다.

예언자의 딸인 파티마(라디알라후 안하)가 아버지를 매일 방문하였다. 그 분이 임종 전 침대에 누워 있는 채 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 예언자의 딸 파티마야! 불지옥으로부터 네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선을 행하라. 너의 아버지가 예언자라고 해도 예언자에게 의탁하지 말라. 심판의 날 나는 알라로부터 너를 위해 어떤 것도 보호할 수가 없느니라.”

병세가 더욱 악화되자 예언자의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라. 우리가 만날 곳은 카우사르 샘의 앞이니라. 누가 나와 그곳에서 만나려고 하면 손과 혀



를 무의미한 일이나 말로 삼가도록 하라. 이제 나에게 이 세상을 떠날 소식이 왔느니라. 알라를 만날 것이라서 기쁘지만 나의 공동체와 이별해야 하므로 슬프니라. 나는 소식을 받았고 이제 알라께 돌아가느니라.”

그 분이 임종 이틀 전 일부 교우들의 도움으로 성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천천히 민바르(설교단)로 올라가서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 무슬림들이여! 나로부터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복수를 하라.

나로부터 자신의 등에 가족태형을 맞을 사람이 있다면 그와 같이 나의 등을 내리치라.

나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당한 만큼 나에게 복수를 하라.”

6월 8일 월요일 아침 몸이 일시적으로 평온을 찾은 예언자(ﷺ)께서 성원에 도착하여 앉은 자세로 아부 바크르(라디알라후 안후)가 인도하는 파즈르(새벽) 예배를 드리셨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다. 그 날 오전 예언자(ﷺ)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

“오, 주님이시여! 저에게 죽음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을 쉽게 앗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 옆에는 물이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예언자(ﷺ)께서는 손을 뻗어 물그릇에 있는 물을 적서 얼굴에 묻히셨다.

정오가 되자 집게손가락을 하늘로 올려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위대하신 분께”

이것은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예언자(ﷺ)께서는 63세에 생명을 다하시고 그분의 영혼은 알라께로 돌아갔다. (히즈라 10년, 라비울 아우왈(3월) 12일 월요일 / 서기 632년 6월 8일)

예언자(ﷺ)께서는 돌아가신 곳에 매장되셨다. 메디나에서 그분의 무덤이 있는 장소를 ‘알-라우다 알-무따하



라'라고 부른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예언자 임무를 부여받아 13년은 메카에서 10년은 메디나에서 총 23년을 예언자로서 역할하시며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했다.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노력하셨고 알라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임무를 완수하고 현세를 떠났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임종 후 사건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임종은 무슬림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임종 소식이 메디나 전역에 퍼졌고 그 분의 교우들 중 일부는 예언자의 임종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았다. 아부 바크르(라디알라후 안후)는 예언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예언자의 얼굴에 덮여 있던 얼굴의 천을 들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울었다. 그런 후 다른 교우들 앞에서 짧은 연설을 하고 그들을 위안해주었다.

같은 날 오랜 회의 후 아부 바크르(라디알라후 안후)가 제 1대 칼리파로 선택되었다. 다음 날 화요일 무슬림들은 성원에 모여 아부 바크르(라디알라후 안후)에게 충성 서약을 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임종 하루가 지나 즉, 화요일에 그 분은 매장되었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병중이실 때 7디르함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임종 시에는 유산으로 남길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그 분이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세상을 어둠속에서 구하시고 찬란한 이슬람의 빛으로 인류가 안녕과 행복을 누리도록 알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알라의 말씀(꾸란)과 예언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자녀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자녀들은 총 7명이었



는데 3명은 아들(까심, 압둘라, 이브라힘)이었고 4명은 딸(자이납, 루꾸이야, 움꿀숨, 파티마)이었다. 이들 중 6명은 카디자로부터 출생되었고 1명(이브라힘)은 마리아로부터 출생되었다.

까심과 압둘라는 예언자 무함마드(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예언자의 임무를 부여받기 전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예언자의 별명 중 하나는 ‘아불 까심’ 즉, ‘까심의 아버지’였다.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이 별명으로 불리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아들인 이브라힘은 히즈라 이후 메디나에서 태어났지만 그 또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숨을 거두고 있는 아들 이브라힘을 본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눈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며 마음은 슬퍼하는 것이니라. 저희는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느니라. 죽어가는 이브라힘아, 너를 보니 슬픔을 감출 수가 없구나!”

예언자의 아들 이브라힘이 세상을 떠나자 그 분께서는 많이 슬퍼하셨다. 같은 날에 일식이 일어나자 일부 사람들은 태양도 예언자의 슬픔에 동참한다고 말하자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물론 태양과 달은 알라의 예증 중 두 가지이니라. 그러나 이것들은 누군가 죽거나 태어났기 때문에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지는 않느니라. 너희들이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다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 예배드리고 기도드려라.” (부카리가 전함)

그 분의 딸들은 모두 다 자라서 결혼했다. 그러나 파티마 이외의 모든 딸들은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 생전에 세상을 떠났다. 막내 딸 파티마는 알리와 결혼하였고 예언자의 대는 그들에 의해 이어가게 되었다.



아샤라이 무바샤라(al-Asharah al-Mubashsharah, 천국에 들어갈 기쁜 소식을 얻은 10명)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그 분의 교우들 중 10명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들을 ‘아샤라이 무바샤라’라고 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기쁜 소식을 얻은 10명’을 뜻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아부 바크르, 2. 우마르 본 카따브, 3. 우스만 본 아우판, 4. 알리 본 아부 딸립, 5. 탈하 본 우바이둘라, 6. 주바이르 본 아우암, 7. 압둘라흐만 본 아우프, 8. 싸아드 본 아비 와까스, 9. 싸이드 본 자이드, 10. 아부 우바이다 본 자르라히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교우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살아 계셨을 때 그 분을 직접 보고 이슬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아스합(Ashab)’이라고 하는데 아스합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무하지룬(Muhaajirun): 메카 우상숭배자들의 억압과 박해를 피하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자유롭게 실천하기 위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메카 무슬림들.

2. 안사르(Ansar): 메카에서 온 무슬림들을 도와준 메디나 무슬림들.

인류에게 빛을 가져다준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완벽한 성품

알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종복이자 인류를 위한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이 세상에 행복의 햇빛을 비추기 위해 보내지셨다. 메마른 땅이 물로 다시 살아나듯 알라께서는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통해 암울한 이 세상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다.



예언자(ﷺ)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릇된 믿음 대신에 진실한 신앙을 심어주었고 무지는 지혜로, 억압은 정의로, 복수와 적개심은 인류애로 바뀌 놓았다. 이슬람 안에서 진정한 형제애가 확립되었고 소유물처럼 취급되던 여성은 가정과 사회 안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게 되었다.

예언자 무함마드(ﷺ)께서는 스스로 모범이 되 시어 사람들로 하여금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

예언자 무함마드(ﷺ)의 마음은 인류애로 가득하셨다. 그것은 곧 알라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 지를 사람들에게 느끼게 한 것이었다. 가진 모든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배고픔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동정심을 베푸셨는데 목마른 고양이에게 직접 그 분의 손으로 물을 마시게 하셨고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항상 잘 돌보아주도록 명하셨다.

예언자 무함마드(ﷺ)께서 아이들을 매우 사랑 하시어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껴안아주시곤 하였다.

어떤 남자가 예언자(ﷺ)께서 한 아이에게 입맞춤하는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10명의 자식을 두었으나 제가 그들에게 입맞춤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언자(ﷺ)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언자(ﷺ)께서 예배 중 절하실 때 예언자의 손자 하산과 후세인이 그 분의 등에 올라타곤 하였는데 절하신

후 그들을 조심스럽고 등에서 내리게 하셨다. 그 분이 다시 절을 하면 그들은 또다시 등에 올라타곤 하였는데 예언자께서는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두셨는데 이것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되풀이되곤 하였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매우 겸손하시어 그 분을 초대한 사람이 부자이건 가난하건 상관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그 초대에 응하셨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도와주시려고 애쓰셨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방문하여 그들의 회복을 위해 알라께 기도드리곤 하셨으며 모임에 가서는 비어 있는 자리에 앉고 사람들 앞에서 다리를 꼬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앉으셨다.

한 남자가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방문하러 와서는 예언자를 뵈어 너무 흥분해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러자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떨지 말라! 나는 왕이 아니니라. 나는 꾸라이쉬 출신이자 마른 고기를 먹었던 한 여성의 아들일 뿐이니라.”

그 분이 옷을 직접 빨래하시고 신발을 고치시고 시장에 가서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것을 사서 집에 가져오는 등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사셨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모범적인 가장이셨는데 아내에게 친절하셨고 집안일을 도우셨다. 그 분은 가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다.

“너희들 중 가장 좋은 사람은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이니라.”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손님 방문을 매우 좋아하셨는데 그들을 친히 대접하시곤 하였다. 비무슬림들 중 그 분을 방문한 사람이 있다면 차별 없이 상냥하고 호의적으로 대하셨다.



어느 누구에게도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행한 적이 없고 평생 어느 누구도 나무라지 않았다.

10년 동안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봉사했던 아나스가 말하기를,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저에게 단 한 번도 불만을 표현한 적이 없으셨고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은 항상 푸근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로 사람들을 대하셨다. 누군가 말하고 있을 때 중간에 말을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을 들으셨고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 분의 삶은 소박하였지만 항상 몸과 옷의 청결을 유지하셨다. 치아를 닦으실 때는 미스왁(나무 칫솔)을 사용하셨고 교우들에게도 성원에 올 때는 늘 깨끗한 몸과 옷차림으로 오도록 충고하셨다. 하루는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더러운 상태로 성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목욕하고 왔다면 더 나았을 텐데.**”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정직한 분이셨다.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 분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분이셨기에 사람들은 그 분을 ‘무함마드 알-아민’ 즉, ‘신뢰할 수 있는 무함마드’라고 칭하였다.

그 분의 너그러움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자의 대접보다 훨씬 대단한 것이었다. 누군가 그 분으로부터 어떤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으며 “**나는 배포하는 사람 일뿐이니라. 베풀어주는 분은 알라이시니라.**”고 말씀하였다. 구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으며 구걸하는 자들에게 구걸하는 것 대신 일을 하여 생계를 꾸리도록 권고하셨다.

예언자(صل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자신을 위해 어떤 누구에게도 복수보다는 용서의 길을 택하셨다. 악행을 악행으로 갚지 않

았으며 자비와 관용을 베푸셨다. 그 분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선행을 절대 잊지 않고 선행한 자를 항상 좋게 여기셨다. 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린이들을 사랑과 동정심으로 대하셨다. 유모의 어린 동생들을 보면 얼른 일어나서 입고 계시던 망토를 벗어 바닥에 깔아 그들을 앉게 하셨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게으르거나 한가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성원을 지을 때는 손수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노동자처럼 일하셨다. 그 분의 교우들이 그 분에게 휴식을 취하시라고 청했지만 계속 일하셨다.

교우들과 여행 중 어느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식사준비를 위해 분업을 하였는데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도 교우들을 도와주는 마음에서 “그러면 나도 태울 것(나뭇가지)을 집겠다.”고 말씀하시며 부지런히 일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셨다.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물질적 여유가 있으셨을 때에도 소박한 삶을 택했고 도움을 청하러 집으로 온 가난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다. 이러한 예언자의 모범적인 삶은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와 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었다.

그 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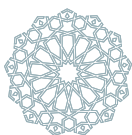
질문:

- 1) 메카는 언제 정복되었는가? 정복 후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우상숭배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 2) 후나인 전투는 어디서 벌어졌는가? 이 전투의 원인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 3) 아우타스 전투와 타이프 포위의 결말은 어떠했는가?
- 4) 예언자(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언제 귀환하셨는가?



- 5) 예언자(ﷺ)께서 참전한 전투의 특성들은 무엇인가?
- 6) 아부 바크르의 ‘순례단장’으로서의 임무는 무엇인가?
- 7) ‘고별순례’는 언제였는가?
- 8) ‘고별설교’에는 어떤 원칙들이 강조되었는가?
- 9) 예언자(ﷺ)께서 언제 그리고 어디서 세상을 떠나셨는가?
- 10) 예언자(ﷺ)께서는 어디에 매장되셨는가? 그분의 무덤을 무엇이라고 칭하는가?
- 11) 예언자(ﷺ)의 자녀들은 몇 분이셨으며 어떤 이름들로 불리었는가?
- 12) ‘아샤라이 무바샤라’란 무엇이며, 그들은 누구인가?
- 13) ‘교우’란 무엇인가?
- 14) 예언자(ﷺ)의 고귀한 성품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두 시 기도문



1) 우두를 하기 전: “아우두 빌라히 미낏샤이따 니르라짐, 비 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을 말하고 다음 구절을 암송한다.

الْحَمْدُ لِلَّهِ الَّذِي جَعَلَ الْمَاءَ طَهُورًا وَجَعَلَ الْإِسْلَامَ نُورًا

(발음) “알함두 릴라힐라지 자아랄마아 따후란 와 자아랄이슬 라마 누라.”

(뜻) 물로 하여금 씻게 하는 역할을 주시고 이슬람을 빛으로 만드신 알라께 모든 찬미를 드리나이다.

2) 입을 헹굴 때:

اللَّهُمَّ اشْقِنِي مِنْ حَوْضِ نَبِيِّكَ كَأَسَا لَا أَظْمَأُ بَعْدَهُ

(발음) “알라흐마스끼니 민 하우디 나비이카 카으산 라- 아드 마우 바으다후 아바다.”



(뜻) 오, 알라! 저에게 당신의 예언자의 샘물로부터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정도의 한 잔을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3) 코를 행굴 때:

اللَّهُمَّ لَا تَحْرِمْنِي رَائِحَةَ نَعِيمِكَ وَجَنَّتِكَ

(발음) “알라훤마 라 타흐림니- 라이하타 나이미카 와 잔나티카.”

(뜻) 오, 알라! 당신이 베푸신 양식과 천국의 향기를 저에게서 빼앗지 마시옵소서.

4) 얼굴을 씻을 때:

اللَّهُمَّ بَيِّضْ وَجْهِي بِنُورِكَ يَوْمَ تَبْيِضُ وُجُوهُهُ وَتَسْوَدُ وُجُوهُهُ

(발음) “알라훤마 바이이드 와즈히 비누리카 야우마 타브앗두 우주훈 와 타스왓두 우주흐.”

(뜻) 오, 알라! 일부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되고 일부 사람들의 얼굴이 검게 될 심판의 날에 저로 하여금 뽀얀 얼굴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5) 오른 팔을 (팔꿈치까지) 씻을 때:

اللَّهُمَّ أَعْطِنِي كِتَابِي بِيَمِينِي وَحَاسِبْنِي حِسَابًا يَسِيرًا

(발음) “알라훤마 아으띠니 키타-비- 비야미-니- 와 하-시브니 히사반 야시란.”

(뜻) 오, 알라! 제 행위의 기록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제 오른 손에 주시옵고, 쉬운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6. 왼 팔을 (팔꿈치까지) 씻을 때:

اللَّهُمَّ لَا تُعْطِ كِتَابِي بِشِمَالِي وَلَا مِنْ وَرَاءِ ظَهْرِي وَلَا تُحَاسِبْنِي حِسَابًا شَدِيدًا



(발음) “알라훤마 라- 투으띠 키타-비- 비쉬말-리- 와 라- 민
와라-이 자흐리- 와 라- 투하십니- 히사반 샤디단.”

(뜻) 오, 알라! 제 행위의 기록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제 왼손
이나 등 뒤에서 주시지 마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심판을 받지 않
게 하여 주시옵소서.

7. 머리를 쓰다듬을 때:

اللَّهُمَّ غَشِّنِي بِرَحْمَتِكَ وَأَنْزِلْ عَلَيَّ مِنْ بَرَكَاتِكَ

(발음) “알라훤마 아으시니 비라흐마티카 와 안질 알라이하
민 바라카티카.”

(뜻) 오, 알라! 저를 당신의 자비로 감싸고 축복을 베풀어 주
시옵소서.

8. 귀를 닦을 때:

اللَّهُمَّ اجْعَلْنِي مِنَ الَّذِينَ يَسْتَمِعُونَ الْقَوْلَ فَيَتَّبِعُونَ أَحْسَنَهُ

(발음) “알라훤마즈알니- 미날라지-나 야스타미우-날까올라
파얏타비우-나 아흐사나후.”

(뜻) 오, 알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장 옳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9. 목뒤를 쓰다듬을 때:

اللَّهُمَّ أَعْتِقْ رَقَبَتِي مِنَ النَّارِ

(발음) “알라훤마 아-으틱 라까바티- 미난나르.”

(뜻) 오, 알라! 저의 몸을 지옥의 불로부터 멀리하여 주시옵소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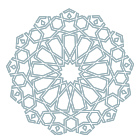
10. 발을 씻을 때:

اَللّٰهُمَّ ثَبِّتْ قَدَمَيَّ عَلٰى الصِّرَاطِ يَوْمَ تَنْزُلُ فِيْهِ الْاَقْدَامُ

(발음) “알라훤마 싹비트 까다마이야 알랏-씨라-띠 야우마 타
질루 필 아끄다-암.”

(뜻) 오, 알라! 발이 미끄러워질(미끄러워서 지옥으로 떨어질) 심판
의 날 저의 두 발을 올바른 길로 굳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의 기도문



수브하나칼라흐마:

이 기도문은 예배 중 서 있는 자세에서 암송한다.

다음의 경우 ‘수브하나칼라흐마...’ 기도문을 암송한다.

- 각 예배의 첫 라크아에서 타고비라툴 이흐람인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소리내어 말한 후

- 오후(아스르)예배의 순나를 행할 때 세 번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서서 파티하 장을 암송하기 전

- 밤(이샤)예배의 (파르드 예배 전) 순나를 행할 때 세 번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서서 파티하 장을 암송하기 전

- 타라위흐 예배를 4라크아씩 행할 때 세 번째 라크아를 위해 일어서서 파티하 장을 암송하기 전

- 장례예배에서 첫 번째 “알라후 아크바르”(타크비르)를 말한 후

سُبْحَانَكَ اللَّهُمَّ وَبِحَمْدِكَ ❀ وَتَبَارَكَ اسْمُكَ ❀ وَتَعَالَى جَدُّكَ ❀
(وَجَلَّ ثَنَّاؤُكَ) ❀ وَلَا إِلَهَ غَيْرُكَ ❀



(발음) “수브하나칼라흐마 와 비함디카 와 타바라카스무카 와 타알라 잣두카 (와 잘라 사나우카) 와 라 일라하 가이루크.”

(뜻) 오 알라! 당신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당신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나이다. 당신의 이름은 축복이 가득하며 (당신의 부(富)는 지고하며) 당신 이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나이다.

주: ‘와 잘라 사나우카’는 장례예배를 행할 때만 암송한다.

앗-타샤후드:

예배 중 각 앉은 자세에서 ‘앗-타샤후드’ 기도문을 암송한다.

التَّحِيَّاتُ لِلَّهِ وَالصَّلَوَاتُ وَالطَّيِّبَاتُ ❀ السَّلَامُ عَلَيْكَ أَيُّهَا النَّبِيُّ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 السَّلَامُ عَلَيْنَا وَعَلَىٰ عِبَادِ اللَّهِ الصَّالِحِينَ ❀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أَشْهَدُ أَنَّ مُحَمَّدًا عَبْدُهُ وَرَسُولُهُ ❀

(발음) “앗타히야투 릴라히 왓쌀라와투 왓따이바트. 앗쌀라무 알라이카 아이유한 나비유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후. 앗쌀라무 알라이나 와알라 이바딜라히 쌀리힌.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아브두후 와라술루후.”

(뜻) 모든 인사와 예배와 좋은 말은 알라를 위해 하나니.

오, 예언자시여! 알라의 평화와 자비와 축복이 당신에게 깃들기를.

우리들에게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는 알라의 종들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저는 알라 외에 숭배 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하며, 저는 무함마드가 그 분의 종이자 예언자임을 증언하나이다.

앗-쌀라투 알란나비:

“앗-쌀라투 알란나비” 기도문은 예배 중 다음의 경우 암송한다.



- 각 예배의 맨 마지막 앉은 자세에서 ‘앗-타샤후드’ 기도문을 말한 후

- 오후(아스르)예배의 순나와 밤(이샤) 예배의 (파르드 예배 전) 순나를 행할 때 첫 번째 앉은 자세에서 ‘앗-타샤후드’ 기도문을 말한 후

- 타라위흐 예배를 4라크아씩 행할 때 첫 번째 앉은 자세에서 ‘앗-타샤후드’ 기도문을 말한 후

- 장례예배에서 두 번째로 “알라후 아크바르”(타크비르)를 말한 후

اللَّهُمَّ صَلِّ عَلَى مُحَمَّدٍ وَعَلَى آلِ مُحَمَّدٍ ❀ كَمَا صَلَّيْتَ عَلَى إِبْرَاهِيمَ
وَعَلَى آلِ إِبْرَاهِيمَ ❀ إِنَّكَ حَمِيدٌ مَجِيدٌ

(발음) “알라훤마 쌀리 알라 무함마딘 와알라 알리 무함마드, 카마 쌀라이타 알라 이브라힘 와 알라 알리 이브라힘 인나카 하미둔 마지드.”

(뜻) 오, 알라! 당신께서 이브라힘과 이브라힘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신 것처럼, 무함마드와 무함마드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로 당신께서는 가장 영광되신 분이시며 가장 영예스러우신 분이시나이다.

اللَّهُمَّ بَارِكْ عَلَى مُحَمَّدٍ وَعَلَى آلِ مُحَمَّدٍ ❀ كَمَا بَارَكْتَ عَلَى إِبْرَاهِيمَ
وَعَلَى آلِ إِبْرَاهِيمَ ❀ إِنَّكَ حَمِيدٌ مَجِيدٌ

(발음) “알라훤마 바리크 알라 무함마딘 알라 알리 무함마드, 카마 바라크타 알라 이브라힘 와 알라 알리 이브라힘 인나카 하미둔 마지드.”

(뜻) 오, 알라! 당신께서 이브라힘과 이브라힘의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무함마드와 무함마드의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실로 당신께서는 가장 영광되신 분이시며 가장 영예스러우신 분이시나이다.

랍바나 아티나 및 랍바나오피를리:

이 기도문은 예배 중 다음의 경우 암송한다.

- 각 예배의 맨 마지막 앉은 자세에서 “앗-살라투 알란나비” 기도문을 말한 후

- 위트르 예배 때 “꾸누트 기도”를 모른다면 그 대신 “랍바나 아티나” 꾸란 구절을 기도문으로서 말할 수 있다. (*꾸누트 기도문을 말하는 것이 권장됨)

- 장례예배에서 세 번째로 “알라후 아크바르”(타크비르)를 말한 후 암송해야 할 기도문을 모른다면 “랍바나 아티나” 꾸란 구절을 기도문으로서 대신하여 말할 수 있다.

رَبَّنَا اٰتِنَا فِي الدُّنْيَا حَسَنَةً وَفِي الْاٰخِرَةِ حَسَنَةً وَقِنَا عَذَابَ النَّارِ ﴿١﴾
بِرَحْمَتِكَ يَا اَرْحَمَ الرَّاحِمِيْنَ ﴿٢﴾

(발음)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

(뜻) 오, 주여! 현세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세에서도 축복하여 주시며 불지옥의 고충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꾸란 2장 201절)

رَبَّنَا اغْفِرْ لِي وَلِوَالِدَيَّ وَلِلْمُؤْمِنِيْنَ يَوْمَ يُقُوْمُ الْحِسَابُ ﴿١﴾

(발음) “랍바나오피를리- 와 리-왈리다이야 와 릴무으미니나 야우마 야꾸물히삽.”

(뜻) 오, 주여! 심판의 날 저와 저의 어머니와 저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진심으로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꾸누트 기도문:

위트르(Witr) 예배 세 번째 라크아에서 파티하 장과 꾸란의 다른 장을 말한 후 바로 루쿠를 하지 않고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한 후 두 손을 들어 손바닥을 끼블라 쪽으로 향하여 엄지손가락이 귓볼 부근에 닿도록 한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그런 후 꾸누트 기도문을 암송한다.

اللَّهُمَّ إِنَّا نَسْتَعِينُكَ وَنَسْتَغْفِرُكَ وَنَسْتَهْدِيكَ ❀ وَنُؤْمِنُ بِكَ وَنَتُوبُ إِلَيْكَ
❀ وَنَتَوَكَّلُ عَلَيْكَ ❀ وَنُثْنِي عَلَيْكَ الْخَيْرَ كُلَّهُ نَشْكُرُكَ وَلَا نَكْفُرُكَ ❀
❀ وَنَخْلَعُ وَنَتْرُكُ مَنْ يَفْجُرُكَ ❀

اللَّهُمَّ إِنَّا نَعْبُدُكَ وَنُصَلِّي وَنَسْجُدُ ❀ وَإِلَيْكَ نَسْعَى وَنَخْفِذُ ❀
❀ نَرْجُو رَحْمَتَكَ وَنَخْشَى عَذَابَكَ ❀ إِنَّ عَذَابَكَ بِالْكَافِرِ مُلْحِقٌ ❀

(발음) “알라훤마 인나 나쓰타이이누카 와 나쓰타그피루카 와 나쓰타흐디카 와 누우미누 비카 와 나투부 일라이카 와 나타왱칼루 알라이카 와 누쓰니 알라이칼-카이라 쿨라후 나쉬쿠르카 와 라 나크푸루카 와 나클라우 와 나트루쿠 만 야프주르크.”

“알라훤마 이야카 나아브두 왈라카 누쌀리 와 나쓰주두 와 일라이카 나쓰아 와 나흐푸두 나르주 라흐마타카 와 나크샤 아다-바카 인나 아다-바카 빌-쿠파리 물히끄.”

(뜻) 오, 알라! 저희가 당신의 도움과 인도를 간구하오며, 당신의 보호를 구하나이다. 당신을 믿고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니라. 정녕코 당신께 불복종하는 자와 상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곁을 떠날 것이니라.

오, 알라! 당신께 저희가 엎드려 비오며 당신을 향해 나아가며 당신께 속히 복종하여 당신의 자비를 저희가 바라옵고 당신의 형벌을 저희가 두려워하나이다. 당신의 형벌이 불신자들에게 내려질 것이니라.

예배 중 암송하는 꾸란의 짧은 장



파티하 (1) 장: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أَ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 الرَّحْمَنِ الرَّحِيمِ ۝ مَالِكِ يَوْمِ الدِّينِ ۝
إِيَّاكَ نَعْبُدُ وَإِيَّاكَ نَسْتَعِينُ ۝ اهْدِنَا الصِّرَاطَ الْمُسْتَقِيمَ ۝ صِرَاطَ الَّذِينَ
أَنْعَمْتَ عَلَيْهِمْ غَيْرِ الْمَغْضُوبِ عَلَيْهِمْ وَلَا الضَّالِّينَ ۝

파티하 장은 예배 중 서 있는 자세에서 암송한다.

(발음) “알함두 릴라 히 랍빌 알라민. 아르라흐마 니르라힘.
말-리키 야우밋딘. 이야-카 나으부두 와이야-카 나스타인. 이흐
디낫씨라-딸 무스타김. 씨라-딸라디-나 안암타 알라이힘 가이릴
마그두-비 알라이힘 왈랏와-알린.”



(뜻) 모든 찬미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알라께만 있다. 가장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분 심판의 날의 주재자이신 (그분께만 찬미가 있다.)¹

(오직) 당신만을 우리는 숭배하며 (오직) 당신께만 도움을 청하나이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당신의 노여움을 받은 자들의 길이 아니고, 방황하는 자들의 길도 아닌, 당신께서 은총을 내려주셨던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필 (105) 장:

필 장 그리고 다음에 언급된 꾸란 장들은 예배 중 파티하 장 후에 암송한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أَلَمْ تَرَ كَيْفَ فَعَلَ رَبُّكَ بِأَصْحَابِ الْفِيلِ ۗ ﴿١﴾ أَلَمْ يَجْعَلْ كَيْدَهُمْ فِي تَضَلُّيلٍ ۙ
 ﴿٢﴾ وَأَرْسَلَ عَلَيْهِمْ طَيْرًا أَبَابِيلَ ۙ ﴿٣﴾ تَزْمِيهِمْ بِحِجَارَةٍ مِنْ سِجِّيلٍ ﴿٤﴾
 فَجَعَلَهُمْ كَعَصْفٍ مَأْكُولٍ ﴿٥﴾

(발음) “알람 타라 카이파 파알라 랍부카 비아쓰하-빌피-일. 알람 야즈알 카이다훔 피- 타들리-일. 와 아르쌀라 알라이힘 따이란 아바-비-일. 타르미-힘 비 히자-라팀 민 싯지-일. 파 자알라훔 카아쓰핌 마으-쿠-울.”

(뜻) 그대(무함마드)는 그대의 주님께서 코끼리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지 못하였느냐? 그분께서 그들의 음모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시지 않았더냐? 그분께서는 그들 위에 떼 지은 새들을 보내셨으며, 불에 달구어진 찰흙 돌덩이들을 그들에게 던지게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그들을 (가축들이) 다 먹어버린 (빈 들판의) 곡식줄기들처럼 만드셨느니라.

¹ 꾸란을 읽을 줄 모르는 부들께 꾸란을 외울 때 쉽게 외우도록 수라나 두아가 한글로 써져 있다. 그러나 꾸란 알파벳에서 있는 어떤 문자들은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라나 두아들을 배울 때 이런 문자로 맞는 발음으로 배울 수 없다. 그래서 수라나 두아를 잘 알고 있는 분께서 듣고 정확하게 배워야한다.

꾸라이쉬 (106) 장: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لَا يَلَافِ قُرَيْشٌ ۙ (1) إِيْلَافِهِمْ رِحْلَةَ الشِّتَاءِ وَالصَّيْفِ ۚ (2) فَلْيَعْبُدُوا رَبَّ هَذَا الْبَيْتِ ۙ (3) الَّذِي أَطْعَمَهُمْ مِنْ جُوعٍ وَأَمَنَهُمْ مِنْ خَوْفٍ ۙ (4)

(발음) “리일-라-피 꾸레이쉬. 일라-피힘 리홀라타쉬타-이 왓 싸이프. 팔야으부두-랍바 하-달바이트. 알라디 아뜨아마흠 민 주-인 와 아-마나흠 민 카우프.”

(뜻) (그것은) 꾸라이쉬 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알라의 크신 은 총이니라. 그들의 결합(을 위해서니라). (우리는 그들 대상들의) 겨울과 여름의 여행을 (안전하게 해주었느니라.)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이 집 (카아바)의 주님을 숭배케 하라. 그 분께서는 굶주림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으며 (위험과) 두려움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셨느니라.

마운 (107) 장: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أَرَأَيْتَ الَّذِي يُكَذِّبُ بِالْإِيمَانِ ۚ (1) فَذَلِكَ الَّذِي يَدْعُ الْيَتِيمَ ۙ (2) وَلَا يُحِصُّ عَلَى طَعَامِ الْمَسْكِينِ ۙ (3) فَوَيْلٌ لِلْمُصَلِّينَ ۙ (4) الَّذِينَ هُمْ عَنْ صَلَاتِهِمْ سَاهُونَ ۙ (5) الَّذِينَ هُمْ يُرَاؤُونَ ۙ (6) وَيَمْنَعُونَ الْمَاعُونَ ۙ (7)

(발음) “아라아이탈 라디 유칸디부 빈디-인. 파달-리칼 라디-야두으울 야티-임. 왈 라 야훈두 알라-따아-밀 미스키-인. 파와일 룰 릴 무쌀리-인. 알라디-나 흠 안 쌀라-티힘 싸-훈. 알라디-나 흠 유라-운 와 암나우-날 마-운.”

(뜻) 그대는 종교(의 날)을 부인하는 자를 보았느냐? 그런 자는 고아를 내쫓는 자이고 또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주기를 권하지



않는 자이니라. (위선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그들은 그들의 예배에 소홀한 자들이며 그들은 보여주기 위해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니라. 그들은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도움조차 방해하느니라.

카우사르 (108) 장: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إِنَّا أَعْطَيْنَاكَ الْكَوْثَرَ ﴿١﴾ فَصَلِّ لِرَبِّكَ وَانْحَرْ ﴿٢﴾ إِنَّ شَانِئَكَ هُوَ الْأَبْتَرُ ﴿٣﴾

(발음) “인나- 아으따이나- 칼 카우사르. 파쌀리 리랍비카 완 하르. 인나 샤-니아카 후왈 아브타르.”

(뜻) 진실로 우리는 그대(무함마드)에게 풍요로운 축복을 주었느니라. 그러니 그대의 주님께 예배드리고, 희생물을 바쳐라. 실로 그대를 질시하는 자, 그가 바로 후대와 좋은 일에서 단절된 자이니라.

카피룬 (109) 장: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قُلْ يَا أَيُّهَا الْكَافِرُونَ ﴿١﴾ لَا أَعْبُدُ مَا تَعْبُدُونَ ﴿٢﴾ وَلَا أَنْتُمْ عَابِدُونَ مَا أَعْبُدُ ﴿٣﴾ وَلَا أَنَا عَابِدٌ مَا عَبَدْتُمْ ﴿٤﴾ وَلَا أَنْتُمْ عَابِدُونَ مَا أَعْبُدُ ﴿٥﴾ لَكُمْ دِينُكُمْ

وَلِيَ دِينِ ﴿٦﴾

(발음) “꿀 야- 아이유할 카-피루운. 라- 아으부드 마- 타으부 두운. 왈 라- 안툼 아-비두-나 마- 아으부드. 왈 라- 아나 아-비둠 마- 아발툼. 왈 라- 안툼 아-비두-나 마- 아으부드. 라쿰 디-누쿰 왈리야 디-인.”

(뜻) (무함마드여!) 말하라, 오, 불신자들이여! 나는 너희가 숭배하는 것을 숭배하지 않으며, 너희는 내가 숭배하는 분을 숭배하



지 않느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가 숭배하고 있는 것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내가 숭배하는 분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에게는 너희의 종교가 있고 나에게서는 나의 종교가 있노라.

안나쓰르 (110) 장: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إِذَا جَاءَ نَصْرُ اللَّهِ وَالْفَتْحُ ۖ وَرَأَيْتَ النَّاسَ يَدْخُلُونَ فِي دِينِ اللَّهِ أَفْوَاجًا ۙ
فَسَبِّحْ بِحَمْدِ رَبِّكَ وَاسْتَغْفِرْهُ إِنَّهُ كَانَ تَوَّابًا ﴿٣﴾

(발음) “이다-자-아 나쓰룰라-히 알 파트흐. 와 라아이탄나-싸 야드쿨루-나 피-디-닐 라-히 아프와-자-. 파 싹비흐 비함디 랍비 카 와스타그피르흐 인나후- 카-나 타우와-바-.”

(뜻) 알라의 도움과 (메카) 정복의 승리가 왔을 때 그대(무함마드)는 무리지어 알라의 종교(이슬람)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보았노라. 그러니 그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라. 실로 그분께서는 회개를 받아들이는 분이시니라.

마사드 (111) 장: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تَبَّتْ يَدَا أَبِي لَهَبٍ وَتَبَّ ۖ مَا أَغْنَىٰ عَنْهُ مَالُهُ وَمَا كَسَبَ ۖ سَيَصْلَىٰ
نَارًا ذَاتَ لَهَبٍ ۚ وَامْرَأَتُهُ حَمَّالَةَ الْحَطَبِ ۚ فِي جِيدِهَا حَبْلٌ مِّنْ
مَّسَدٍ ﴿٥﴾

(발음) “탑바트 야다- 아비- 라하빈 와탑브. 마-아그나-안후 말-루후-와마-카싸브. 싸야솔라-나-란-다-타 라하브. 와므라아투 후- 함말 라-탈 하따브. 피-지-디하-하불룸 밈 마싸드.”



(뜻) 아부 라합의 두 손에 파멸이 있으라! 그는 파멸할 것이니라! 그의 재물과 그가 얻은 것이 그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니라. 그는 곧 타오르는 불길 속(지옥불)에 타게 되리라! 그리고 땀 나무를 운반하던 그의 아내! 그녀의 목에는 야자섬유 동아줄이 감겨져 있으리라!

이클라스 (112) 장: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قُلْ هُوَ اللَّهُ أَحَدٌ ① اللَّهُ الصَّمَدُ ② لَمْ يَلِدْ وَلَمْ يُولَدْ ③ وَلَمْ يَكُنْ لَهُ
كُفُوًا أَحَدٌ ④

(발음) “꿀 후알라-후 아하드. 알라-훗싸마드. 람 알리드 알람 유올라드. 알람야쿨라후 쿠프완 아하드.”

(뜻) 말하라! 그분 알라는 한 분이시라고. 영원하신 알라, 그분은 낳지도 않으셨고 태어나지도 않으셨느니라. 어떤 것도 그분과 대등한 것은 없노라.

팔라끄 (113) 장: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قُلْ أَعُوذُ بِرَبِّ الْفَلَقِ ① مِنْ شَرِّ مَا خَلَقَ ② وَمِنْ شَرِّ غَاسِقٍ إِذَا وَقَبَ ③
وَمِنْ شَرِّ النَّفَّاثَاتِ فِي الْعُقَدِ ④ وَمِنْ شَرِّ حَاسِدٍ إِذَا حَسَدَ ⑤

(발음) “꿀 아우-두 비랍빌 팔라끄. 민샤르리 마-칼라끄. 와민 샤르리 가-씨깁 이다-와까브. 와 민 샤르린 납파-사-티 필 우까드. 와 민 샤르리 하-씨딘 이다-하싸드.”

(뜻) 말하라! 저는 여명의 주님께 가호를 구합니다. 그분이 창조한 것 중의 악으로부터, 어두워졌을 때 (깜깜한) 밤의 악으로부터, 매듭에 입김을 불어넣어 (점을 치는 여인들의) 악으로부터, 질투할 때 질투하는 자의 악으로부터 (주님께 가호를 구합니다).

나쓰 (114) 장: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قُلْ أَعُوذُ بِرَبِّ النَّاسِ ﴿١﴾ مَلِكِ النَّاسِ ﴿٢﴾ إِلَهِ النَّاسِ ﴿٣﴾ مِنْ شَرِّ
الْوَسْوَاسِ الْخَنَّاسِ ﴿٤﴾ الَّذِي يُوَسْوِسُ فِي صُدُورِ النَّاسِ ﴿٥﴾ مِنَ الْجَنَّةِ
وَالنَّاسِ ﴿٦﴾

(발음) “꿀 아우-두 비랍빈나-스. 말리킨 나-스. 일라-힌 나-스.
민 샤르릴 와스와-셀 칸나-스. 알라디- 유와스위수 피-쑤두-린
나-스. 미날 진나티 완 나-스.”

(뜻) 말하라! 저는 인간의 주님께 가호를 구합니다. 인류의 왕
이시며, 인류의 신이신 (주님께 가호를 구합니다.) 속삭이는 악마의 악
으로부터, 인간의 가슴 속에다 속삭이고 있는, 진²과 인간들 가운
데 있는 (악마의 악으로부터 가호를 구합니다).

2 진(Jinn): 진은 불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인간의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이다.
수명과 성(性)을 가지며 인간처럼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우두하는 방법



1) 먼저 소매를 걷어 붙인 후

‘알라를 위해 우두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의도하며 “**아우두 빌라히 미낏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히르라흐마 니르라힘**”을 말한다.



사진: 1



사진: 2

2) 손은 손목까지 3회 씻는다. 손가락 사이사이가 잘 씻기도록 한다. 손가락에 반지가 있다면 살짝 움직여 물이 닿도록 한다.

3) 오른손으로 물을 담아 입안을
3회 헹군다.



사진: 3

4) 오른손에 물을 담아 콧속을
3회 헹군다.



사진: 4

5) 코는 왼손으로 풀어내서
닦는다.



사진: 5



6) 양손으로 얼굴을 세 차례 반복해 씻는다. 얼굴을 씻는 과정에서 손을 양쪽 귓볼과 이마 위 머리카락 선부터 턱밑까지 골고루 씻는다. (수염이 긴 경우 물로 수염 속 피부까지 적신다.)



사진: 6



사진: 7

7) 왼손으로 오른쪽 팔을 팔꿈치까지 3회 씻는다.

이때 마른 부분이 없도록 주의한다.

8) 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팔꿈치까지 3회 씻는다.

이때 마른 부분이 없도록 주의한다.



사진: 8



사진: 9

9) 손에 물을 적서 머리윗부분을 쓰다듬는다. 한 번만 한다.

10) 손가락에 물을 적서 귀속에 넣고 귀안을 돌려 씻어내며, 이때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으로는 귓바퀴 안을, 엄지손가락으로는 귓바퀴 뒤를 그리고 왼손의 집게손가락으로는 귓바퀴 안을, 엄지손가락으로는 귓바퀴 뒤를 밀면서 닦아낸다. 한 번만 한다.



사진: 10



사진: 11

11) 손가락에 물을 다시 적시지 않는 상태로 두 손등으로 목을 닦을 때 목덜미 뒤쪽에서 양쪽 손가락이 서로 맞닿을 정도로 위 아래로 닦아낸다. 한 번만 한다.



12) 오른발을 발목까지 3회씩 씻는다. 발을 씻을 때는 오른발의 새끼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순서로 씻는다. 손가락으로 발가락 사이사이에 물이 완전히 스며들도록 한다.



사진: 12



사진: 13

13) 왼발을 발목까지 3회씩 씻는다. 왼발 엄지발가락에서 새끼발가락 순서로 씻는다. 손가락으로 발가락 사이사이에 물이 완전히 스며들도록 한다.

이제 끼블라를 향해 ‘샤하-다(신앙의 증언)’를 말한다. 이로서 우두를 마친 것이다.

예배드리는 방법



다음은 새벽(파즈르) 파르드예배를 사진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남성과 여성의 예배방법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차이 또한 제시되어 있다. 2라크아 예배에서 행하는 행동들과 다른 예배에서 행하는 행동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예배에 대한 사진설명을 하지 않는다.

새벽(파즈르) 파르드예배 방법:



사진: 1

첫 번째 라크아:

1) 예배자는 끼블라(카아바 방향) 쪽을 향해 서서 두 발 간격이 4 손가락 정도 되도록 벌린다.

2) (남성만) 이까마를 한다.

의도(예배 전 마음가짐):

3) ‘저는 알라께 오늘의 파즈르 파르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의도한다.

예배의 시작(타끄비라틀 이흐람):

4) 타끄비라틀 이흐람 즉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소리 내어 말한다.

남성은 타끄비라틀 이흐람을 할 때 두 손바닥을 끼블라 쪽으로 향하여 손가락을 살짝 펴서 두 손을 들어 엄지손가락이 귓볼 부근에 닿도록 한다.



사진: 2

여성은 타끄비라툴 이흐람을 할 때 두 손바닥을 끼블라 쪽으로 향하며 손가락을 살짝 펴서 두 손가락끝부분이 어깨 높이에 오를 정도로만 든다.

5) 타끄비라툴 이흐람을 하고나서 두 손을 내리는 동작에서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이때 시선은 절을 할 때 코와 이마가 닿을 곳을 향한다.

6) 서 있는 자세에서는 다음의 순서대로

가) “수브하나칼라훤마...”

나) “아우두 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다) 파티하 장

라) 꾸란의 다른 장을 말한다.



사진: 3

남성은 오른손바닥이 왼손 위를 잡을 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왼손목을 잡는 자세로 양손을 배에 둔다.

여성은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양손을 가슴 위에 둔다. 남성처럼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으로 왼손목을 잡지 않는다.



사진: 4

루쿠:

7)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허리를 굽혀 양 손바닥을 각 무릎위에 놓는) 자세에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딴”을 3회 속으로 말한다. 루쿠 자세에서의 시선은 발을 응시한다.



사진: 5

남성의 루쿠에서는 등과 머리는 가로로 일직선을 이루며 양손바닥이 무릎을 감쌀 때 손가락은 사이가 살짝 벌어지게 한다. 무릎과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는다.



여성의 루쿠에서는 남성보다 허리를 덜 구부린다. 양손바닥이 무릎을 감쌀 때 손가락은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한다. 무릎도 덜 구부린다.



사진: 6

루쿠 자세에서 허리를 펴는 것:

8) 루쿠 자세에서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를 말하며 허리를 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서 있는 자세를 하면서 “**랍바나 알라칼 함드**”를 말한다.



사진: 7

남성이 루쿠 자세에서 허리를 펴는 모습



여성이 루쿠 자세에서 허리를 펴는 모습



사진: 8

수주드(절하는 자세):

9)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때 먼저 무릎 그 다음에 두 손바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마와 코가 땅에 닿도록 한다. 머리는 양 손 사이의 위치에 놓여야 한다. 수주드 자세에서는 발을 땅에서 지면에서 떨어지며 안 된다. 시선은 코의 끝을 응시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올라”를 3회 속으로 말한다.

남성의 수주드 자세에서는 팔이 땅에 닿지 않고 팔꿈치는 몸에 붙지 않는다. 발은 발가락 위에 있도록 똑바로 한다. 손은 카야바 방향으로 향하되, 양 손바닥은 지면과 밀착하도록 한다.



사진: 9



사진: 10

여성의 수주드 자세에서는 팔꿈치가 몸에 붙도록 한다. 발은 발가락위에 있도록 똑바로 한다. 손은 카아바 방향으로 하되, 양 손바닥은 땅과 밀착하도록 한다.

두 수주드 사이에 앉은 자세:

10)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한 후 두 번째 절하기 전 허리를 펴 잠깐 앉는다. 이때 양손은 허벅지 위에 두며 허벅지 위를 응시한다. “수브하날라-”를 말할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만 앉는다.



사진: 11

남성의 수주드에서는 오른 발은 세우며 왼발은 뉘여 자세를 낮게 하고 발가락은 끼블라를 향한다.



사진: 12

여성의 수주드에서는 앉아 있는 자세에서 양발을 오른쪽으로 뉘여 엉덩이 위에 앉는다.



11)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말한다.

12)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며 수주드 자세에서 일어선 후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포개면서 팔짱을 낀다. (사진 3-4 참고)

수주드 자세에서 일어날 때는 먼저 머리 그 다음은 두 손 그리고 두 손이 무릎위에 있는 자세로 일어나도록 한다.

타끄비라를 이흐람으로 시작하여 두 번의 절을 하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틀어 ‘제1라크아’라고 한다.

두 번째 라크아:

1) 서 있는 자세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가)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

나) 파티하 장

다) 꾸란의 다른 장을 암송한다.

2) 첫째 라크아에서 했듯이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며 루쿠를 하는데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을 속으로 3회 말한다. (사진 5-6 참고)

3)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를 말하며 허리를 펴면서 서 있는 자세에서 “랍바나 알라칼 함드”를 말한다. (사진 7-8 참고)

4)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한다. 이 자세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3회 속으로 말한다. (사진 9-10 참고)

5)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한 후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수브하날라-”를 말할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만 앉는 자세를 취한다. (사진 11-12 참고)

6)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며 엎드려 두 번째 절을 하고 이 자세에서 “수브하나 랍비알 아울라”를 속으로 말한다.



사진: 13

남성은 오른발은 세우며 왼발은 뉘여 자세를 낮게 하고 발가락을 끼블라 방향으로 한다.

카다-이 아키라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앉는 것):

7)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한 후 허리를 펴 앉는다. 이때 양손을 허벅지 위에 두며 허벅지 위를 응시한다.

8)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다음의 순서대로

가) “앗-타샤후드”

나) “앗-살라투 알란 나비(예언자를 위한 기도)”,

다) 기도(예: 랍바나 아티나 핏둔야 하사나탄 와필 아키라티 하사나탄 와 끼나 아다반나르)를 말한다.



사진: 14



사진: 15

여성은 앉은 자세에서 양발을 오른쪽으로 뉘어 엉덩이 위에 앉는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쌀람을 하는 것:

9) 먼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다. 시선은 어깨쪽을 응시한다.

남성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모습.



사진: 16

여성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모습.



사진: 17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쌀람을 하는 것:

10)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한다. 이제 두 라크아의 예배를 마쳤다.

남성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는 모습.



사진: 18

여성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는 모습.



사진: 19

기도:

기도할 때 양손을 가슴까지 올리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다. 양손을 들어 손바닥을 얼굴 쪽으로 기울이게 펴며 양손 사이는 간격을 둔다. (사진 20-21 참고)

기도하는 모습



사진: 20

기도하는 모습



사진: 21

